

1969년 7월 25일 인쇄 1969년 7월 30일 발행

# 공공관

<제 111 호>



1969



**김성룡참모총장 미공군 시찰**

김성룡참모총장은 미공군참모총장의 초청을 받고 6월 5일 밤미 공군 현내화 육진을 논의 하였으며 미공군의 주요부처를 시찰하고 동 26일 귀국하였다. 미공군 사진: 상(참모처관들의 환영을 받으며) 타림에 오르거전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김총장  
 △원은 김총장이 타림에 올라 환영 인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하(20여인간의 방미인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총장을 김두만차장이 반겨 맞고 있다)





**「패카드」 미국방차관 제〇〇전비단 시찰**

「패카드」 미국방차관 일행이 6월 2일 제〇〇전비단을 시찰하였다.

<사진 : 좌로부터 두번째가 「패」차관>



**「로」 미공군장관 공본 예방**

「로버트·C·시먼스 2세」 미 공군장관이 5월 22일 내  
한인사차 공군본부로 김성룡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사진 : 중앙 좌가 미공군장관>



## 국민 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공군의 할머니 「건드라크」여사 내방

일명 공군의 할머니로 불리워지고 있는 미국의 「건드라크」여사가 6월 3일 방한, 사랑의 아들들인 한국공군장병을 찾아 본후 공군본부를 예방하고 13일 이한하였다.

<사진: 김두만 차장이 「전」여사에게 기념패를 주고 있다.>



### 시민 위안 군악 연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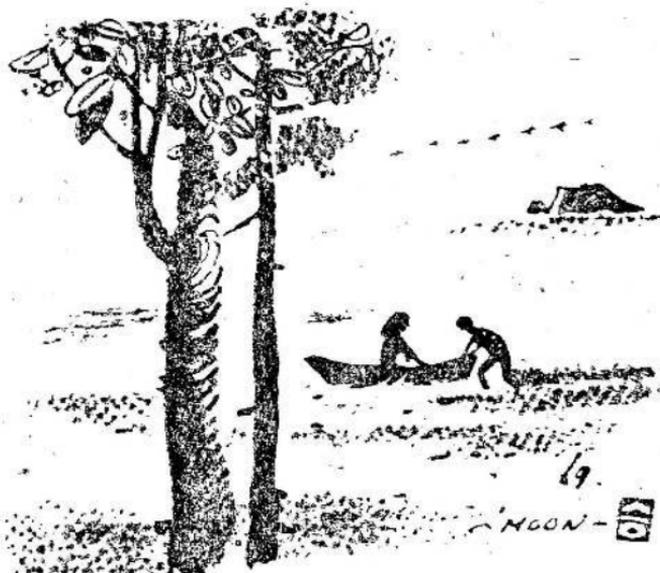
6·25 제 19주년을 기념하는 공군군악연주회가 6월 28일 창경원 야외에서 다수시민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 공군

<제 111호:1969년 제4호>

<비매 품:무단전재금>

발행인 :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김복구  
편집실 : TEL 206-5251, 69-3511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현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 군 인 과 생 활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군인은 군복과 계급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군인은 지휘자에 의해 통솔되고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만국 공통의 군인의 개념이다.

군인은 나라의 방패이다. 그리고 나라의 봉사자이다. 이는 또 만국 공통의 사명이다.

그러나 같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훌륭한 군인이 있고 그만 못한 군인도 있다. 강한 군인이 있는 반면 약한 군인이 있다. 정의를 위한 군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군인이 있다.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군인도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군인도 있다.

똑같은 군인이지만 요컨대 그 의지와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군인생활을 하더라도 그 생활관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떠한 군인인가는 그 의지와 능력으로써 춘탁할

수 있다. 국가의 방위도 그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군인만이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인이 민간인과 다른 것은 군인에게는 의지와 능력을 한없이 개발해야 사명이 자녀져 있는 점이다. 부여된 임무를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군의 존재의의나 그 목적이 뚜렷한 것도 거기에 있다. 영광된 군인, 보람있는 군인생활의 길은 언제나 자명한 것이다.

우리는 훌륭하고 강한 군인이 되자! 그것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우선 필요하다. 전체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멸공승전을 더욱 가다듬는데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특) (집)

# 군과 군인 생활

- 군복무와 개인발전
- 조직 내부에서의 「리더십」형성의 다른 한 국면
- 계급사회와 인간관계

## 군 복 무 와 개 인 발 전

대령 · 김 치 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시절에 군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만일 군복무의 의무가 없었더라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빠를 것이라고 독백을 하면서 군복무를 원망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허락할 수 없는 건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북한에는 지금도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붉은·무리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복무는 피동적인 것을 지양해서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복무는 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일시 보류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근시안적인 찰라주의(刹那主義)의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원시안적인 이상주의(理想主義)의 슬기로움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가 개인의 발전을 전적으로 저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異議)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군대도 역시 인간이 모인 곳이요, 이 국가와 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각 개인의 기능이 여전히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군대에 일단 들어오면 민간인의 상태를 백지로 돌려야 한다는 관념 때문에 군복무와 개인발전은 서로 배치된다는 사고방식이 내두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소치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현실이 증명해주는 대로 군대를 통하여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으며 군복무를 통하여 남아다운 인격형성이 성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군에 들어와서 개성에 맞는 특기로 복무하게 되어 제대하고도 취직란의 관문을 부사히 통과하는 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군에서 키웠던 지식과 지휘력을 가지고 제대 후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개성에 맞고 원하는 특기에 복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능한 한 개인의 개성이나 지식(혹은 전공)이나 취미같은 것을 고려해서 적당한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결과 그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입에 맞는 떡이 없다”는 속담대로 모든 개인에게 만족할만한 군복무는 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군복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좋은 직장을 그만뒀야 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군대생활을 인생의 마이너스기간으로 속단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군복무는 개인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사가 그렇게 피상적인 면에서만 가치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내면적인 면에서 그 진가를 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당장의 몇 년 동안(복무기간)은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중단한 채 개성에 맞지 아니한, 또는 전공에 부합치 아니한 군생활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를 통하여 얻는 정신적인 소득은 개인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정신적 소득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군복무를 통하여 우리는 개인발전에 가장 기본요소인 인내심이라는 정신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엄격한 규율, 맹렬한 훈련, 생사를 거는 전투, ... 이 모든 것은 인내없이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도 인내심은 필요하겠지만 군대만큼 인내를 요구하는 곳이 없을 것이다.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눈보라가 휘날리든 싸워야 하고 태양열이 가열하는 무더위에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불철주야 간성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 없이는 도저히 군복무를 원만히 수행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심이야말로 군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인내심이야말로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왜적의 침략을 막은 성웅 이순신장군의 위대함은 무엇보다도 역경 중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싸웠던 그의 인내심에 있었으며 그의 위대한 영웅이나 무명의 용사들은 모두가 인내심을 발휘하여 싸운 것에 그 위대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도장이요 인내심을 만들어 내는 용광로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복무를 통하여 기른 인내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요 개인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것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격언을 조금 변조해 본다면 “군대생활을 견디어 내기는 고달프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으로 이끈다”는 격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군복무는 개인발전과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기름으로 개인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는 군복무를 통하여 봉사심이라는 정신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군복무는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생활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국가의 주권과 이 민족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유우방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도 명시한 대로 일체의 침략전쟁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국군은 권력을 휘둘러거나 약탈을 일체 부인하고 어디까지나 봉사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군복무는 곧 최고의 봉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복무를 영어로 서어비스(Service)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찬바람이 땀을 때리는 엄동설한에도, 만물이 죽은듯이 잠자는 고요한 밤중에도 고지를 지키고 활주로를 지키는 일, 사고방지와 완전무결을 위하여 몸에 기름을 바면서 수리와 정비를 하는 일,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는 고된 훈련을 하는 것 등은 모두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봉사적인 역사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원래 봉사라는 것은 그 효과는 굉장한 것이지만 봉사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장의 재산이나 명예가 따르지는 않는 것이다. 사실 많은 재산이나 높은 명예나 지위를 바라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 봉사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며 봉사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 봉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듯 하는데 그 묘미가 있는 것이며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봉사자는 일신상의 영달을 초월하는 고귀한 성품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사회에서도 수행하기 힘든 봉사의 역사를 이뤄 나간다는 심정에서 군복무를 가치있게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우리의 생활모습은 봉사심으로 가득차서 인격이 고상해 지며 누구에게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어느 시대에도 그랬지만 특히 이 시대에서는 영웅적인 정복자나 독선적인 피봉사자를 배격하고 성실하고도 겸손한 봉사자를 결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크게 성공할 수 있으며 지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성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류의 영원한 모범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봉사심을 군복무에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며 개인발전에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일인 것이다.

제대로 우리는 군복무를 통하여 협동정신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 같이 고도에서 홀로 사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상호 협동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특히 사회가 도시화되어 가고 다원화 되어가는 이 마당에서 협동생활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웃과의 협동을 모르고 남과의 협조를 외면한다면 자기 향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식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얻는 데도 협동정신이 필요하지만 특히 고귀한 인격을 형성하고 참된 인간으로 성공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협동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독불장군처럼 행세하여 홀로 잘 되어 보려는 생각은 시대착오(時代錯誤)의 어리석은 소행임에 틀림없다. 역사를 살펴봐도 세계를 바라봐도 협동정신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몰락했으며 협동정신이 강한 개인이나 국가는 흥왕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협동생활을 어느 사회에서 보다 군에서 터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군복무는 개인발전과 결코 배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훈련이나 근무나 내무반 생활이나, 공동운명을 절

실히 느끼면서 전투에 임하는 군대생활이야말로 말로 전우애를 발산하는 협동정신의 생산지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군복무에서 협동정신이 때로는 타의에 의한 강제성에 못이겨 피동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협동정신이 발휘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네째로 군복무를 통하여 우리는 상경하애(上敬下愛)의 도의를 얻을 수 있다.

즉 상급자를 존경으로 대하고 하급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윤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귀중하게 통용되어야 하지만 특히 군에서는 그 윤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군에서는 강제성을 띠워서라도 상급자에게 경례를 하게 하고 상관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게 하는 것이며 하급자에게는 이해와 사랑으로 교도하며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사상이 낡았다고 하여 내버렸으나 아직 새로운 윤리는 뚜렷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 시대에 군복무에서 터득하는 상경하애의 윤리야말로 어느 사회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정신적 기반이며 인격을 고귀하게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군복무는 결코 개인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격을 연마하는 기회이며 인격을 완성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군복무를 가치있게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체험과 정신적인 교훈을 얻어 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군복무는 명랑해질 것이며 능동적이 될 것이며 진실한 인격완성의 도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복무는 개인과 국가를 아울러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귀중한 역사(役事)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복무자세를 항상 성실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의

# 「리더십」 형성의 다른 한 국면

중령 · 손 용 기



1. 머리말
2. 「리더십」 향상에 있어서 문제
3. 「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국면
4. 맺음

## 1. 머리말

조직내에서 구하는 주종관계(主從關係)는 합법적인 조직의 형성과 이에 입각한 기능에서부터 연유하고 있다.

조직도표상에서 오는 기능은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 명문화된 기능의 달성 정도는 오히려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여러가지 다른 요소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이 「리더십 (Leadership)」이다.

이 「리더십」에 대한 말은 한 때 유행어처럼 「봄」을 일으켜 왔지만 이제 와서는 약간 잠잠해진 듯하다.

왜냐 하면 「리더십」 형성에는 일정한 한계점(Yeilding point)이 없으며 환경의 변화, 그리고 부하의 양적, 질적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한 때 「리더십」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봄」을 일으켰을 때를 계기로 하여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리더십」의 기능, 「리더」의 형태(민주형,

독제형, 자슈방임형) 그리고 「리더십」 발전을 위한 자질(Traits) 요소 등에 대한 이해로써 개인적 지식의 축적에 그쳐버린 인상을 주고 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정의는 장교로서 누구나 부하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일견(一見)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여러 관리자나 학자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문헌 가운데서도 가장 타당한 정의를 짓고 있다고 보는 것은 미공군교범에서 밝히듯 「집단에게 복종과 신뢰 그리고 존경으로서 공동목표 달성에 협동하도록 집단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지시하는 기술이다.」

이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목표달성에 부하의 복종과 신뢰 그리고 존경을 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없으며 정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아니고 기술(Art)이다.

그래서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리더십」 형성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지금까지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다 실리적인 기법(技法)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려 한다.

## 2. 「리더십」 향상에 있어서 문제

「리더십」의 연구는 인간의 행동연구와 「집단역학」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집단」—「지도자」—「지도자의 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출발을 하고 있다.

즉 「집단」에 있어서는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성원(成員)이 소속집단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We-group)과 소속집단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집단(They-group)으로 나누고 우리-집단(We-group)과 그들-집단(They-group)의 성격분석을 하고 있다.

「지도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특성으로서 통일적 이론(Unitary trait theory), 성좌 이론(Constellation of trait theory) 그리고 상호작용 이론(Interaction theory)의 연구이다.

끝으로 「지도자의 행동」 연구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유형을 민주형 지도

자, 자유방임형 지도자, 그리고 독재형 지도자로 나누고 각 지도자의 행동에 따른 사회적 풍토의 연구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리더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에 있어서 한 때 「봄」을 일으켰던 「리더십」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 (1) 환경과 부하의 질적, 양적 변화

「리더십」은 지도자와 부하간의 역동적 관계(力動的 關係)에 있다. 이 역동적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환경과 부하의 질적, 양적 변화이다.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의 발전과 더불어 군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다. 군사회는 민간사회에 비해서 보다 자발적인 선택과 탈퇴가 불가능하며 민간 사회로부터 군사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개병제도(國民皆兵制度)라는 대전제하에서 타율적인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속집단을 군에 두고 있으면서 매력은 오히려 민간사회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리더십」형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낳게 된다.

그리고 부하의 양적, 질적 변화에 있어서 군은 일정한 복부 연한을 한계점으로 하여 비교적 조직의 유출율(流出率)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유출율이 높은 군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은 특정조직으로서 그 조직이 구하는 규범의 형성이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특정조직으로서 군의 규범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군기유지에 있다. 그러나 군조직의 규범형성에 있어서 유출율이 높음으로써 상하 모두 동일한 가치관(價値觀) 형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 (2) 지도자의 자질요건의 한계

부하의 통솔을 위해서는 지도자로서 특정한 자질이 요구된다고 한다.

우리 공군에서 요구되는 자질만 하더라도, 성실성, 책임감, 지능, 열의, 감정적, 안정성, 인간성, 그리고 자부심 등 일곱 가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질을 공군장교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전능한 인간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갖추었다 한지라도 특정 상황에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 (3) 민주형 지도자 이론의 이상적 승배

어떠한 문헌적 조사에 의하거나 지도자의 형태는 민주형, 자유방임형 그리고 독제형을 들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지도자의 유형을 민주형 지도자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민주형 지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구구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만은 민주형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도자의 유형 가운데 민주형 지도자가 제일 좋다는 말을 하지만 과연 무엇이 민주형 지도자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채 그저 민주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상적인 승배를 하기 쉽다. 그러나 민주형이라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지도자의 민주형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관과 부하의 수용(Acceptance)능력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리더십」 연구의 새로운 국면(局面)

우리는 먼저 「리더십」하면 「폴로워십」(Followership)을 연상하여야 한다.

즉 「리더십」의 정의에서 밝혔듯이 「리더십」은 부하에게 「복종」, 「신뢰」, 그리고 「존경」으로서 조직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다.

이 「영향」은 「리더십」과 「폴로워십」간에 주고 받는(Give and take) 행위이다.

필자가 조사한 몇 개의 사례 가운데 「부하가 상관에게 바라는 지도자의 「이미지(Image)」와 「상관이 부하에게 바라는 부하의 「이미지」」를 소개하려 한다. 전자의 경우를 「리더십」이라고 하면 후자의 경우는 「폴로워십」이

된다.

첫째 : 부하가 상관에게 바라는 지도자의 「이미지」

이 물음에 대한 반응을 정도별로 보면

① 상관이 자기의 재규 혹은 그 이상의 재층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가 자기 부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된다는 점이다.

② 부하에 대해서 개인적 관심의 정도가 오히려 부하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③ 새로운 지시(指示)를 할 때는 일을 도와주며 반드시 상담적 지시(相談的指示)를 해 주는 사람이 부하에게 큰 영향을 준다.

둘째 : 『상관이 부하에게 바라는 부하의 「이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인 태도(肯定的인 態度)를 가지고 접근해 오는 부하

② 하루에 「일」을 끝마칠 줄 아는 부하(여기서 하루란 일정기간을 말함)

③ 상관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부하이다.

따라서 이상의 「리더십」과 「폴로워십」의 형성은 실리적인 주고 받는(Give and take) 행위의 배분에서부터 오며 이러한 「주고 받는」행위가 적절하게 배분됨으로써 앞서 설명한 몇 가지 문제점은 점점 개선되어 간다고 믿어진다.

이것을 위하여 필자는 먼저 일체감(Togetherness) 형성의 「모델」(Model)을 구하고 새로운 기법(技法)으로서 목표관리와 의사전달의 기법을 들고자 한다.

### (1) 일체감(一體感)형성의 「모델」

인간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어떤 특정조직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내는 동안 그 조직이 구하는 규범에 적응하여 그 조직의 인간화(人間化)가 된다.

그런데 이 인간화는 상급계층으로 갈수록 잘 되지만 말단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그 조직이 구하는 인간화가 잘 안 된다. 여기에서 같은 소속집단에

있으면서 소속집단에 대한 매력의 정도에 따라 우리집단(We-group)과 그들 집단(They-group)으로 나누어 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대조직에 있어서는 이 「우리집단」과 「그들집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집단」이라 함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먼저 담당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나를 지휘감독하는 상관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료로부터 인정감 및 존경을 받고 있는 정신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하에서의 조직구성원은 소속집단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보람을 찾고 있다. 이에 반해서 「그들집단」이라 함은 소속집단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갖지 못하고 모든 일에 수동적이며 일상업무 수행은 포로적인 풍토를 형성하게 된다(이러한 집단을 일명 Do't-know-group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풍토하에서 개인은 서로 불신(不信)하게 되고 매사에 적대시(敵對視)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회만 있으면 소속집단으로부터 탈퇴하려 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시하여야 할 점은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 「우리집단」에로 태도 변경에 있다. 이것이 일체감의 「모델」이다.

이 「모델」에는 세 가지 커다란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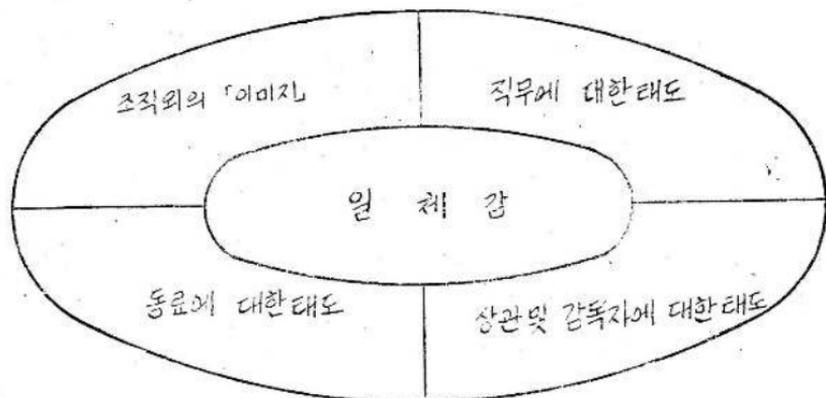
즉 직무에 대한 태도, 상관 및 감독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동료에 대한 태도이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 이외에 최근에 와서 중요시하여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이 조직 이외의 「이미지」이다.

이 조직 이외의 「이미지」란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나 부서(部署)에 대해서 다른 조직이나 부서에서 진전한 「이미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다. 이를 소속집단에 대한 사회적 기대(Social expectation)라고 한다.

이 사회적 기대는 개인적으로 가정의 안정성 여부가 영향을 주게 되고 밖으로는 사회적으로 기대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네 가지 커다란 측면을 도시(圖示)하면 다음과 같다(각 네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설명은 생략한다).



## (2) 목표관리와 동기부여

오늘날 인간관리(人間管理)의 새로운 기법으로서 크르즈업된 것은 이 목표관리와 동기부여 기법이다.

즉 「권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authority)는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로 그리고 인간의 욕구연구(慾求研究)에서부터 동기부여관리(動機賦與管理)에로 그 질(質)을 달리하고 있다.

### (1) 목표관리

군대조직이 가지는 공동적인 목표는 전승을 위한 일련의 효율적 활동이라고 집약(集約)할 수 있다. 이것이 기업체와 달리 국민의 공공복지(公共福祉)의 향상에 있다.

이러한 군대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구성원의 개인목표를 어디에다 정착(定着)시켜야 하느냐가 목표관리의 과제이다.

이를 유명한 「모리스」(Morris)의 주장에 따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이상적 목표설정

이상적인 목표설정이란 군대조직이 가지는 공동목표와 개인목표와를 일치시키는 형태이다.

어떠한 조직체를 막론하고 상급관리자로 갈수록 공동목표=개인목표의 관계가 성립되지만 말단계통으로 내려갈수록 공동목표의 달성과는 관계없

이 개인목표 추구에만 예민(銳敏)하여지기 쉽다. 그러므로 여기서 동기부여의 기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종래의 공동목표와 개인목표는 양립(兩立)할 수 없다는 개념에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

둘째 : 자기중심형 혹은 이기형(利己型)의 목표설정

이는 조직규범 내에 개인목표가 있기는 하나 조직의 공동목표와는 유리(遊離)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개인목표는 공동적인 목표달성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민하게 움직이게 된다. 공동목표 달성에 있어서 개인의 목표 혹은 대망(大望)이 이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재빨리 공동목표와 개인목표를 일치시키지만 이로운 점이 없거나 공연한 희생만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공동목표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인간관리의 연구 및 기법의 대상이 되는 핵심부분은 이러한 이기형의 개인목표만을 추구하려는 인간유형의 연구이며 이는 다음에 언급하려는 동기부여 관리로 상호보완(補完)된다.

셋째 : 동침이몽형(同寢異夢型)의 목표설정

동침이몽형의 목표설정이란 조직의 공동목표와 개인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소(些少)한 이해관계로부터 소속집단을 이탈하게 되거나 개인목표의 대망을 위하여 그 소속집단을 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상의 세 가지 목표설정에 있어서 인간관리의 기법을 동원하여야 할 대상은 자기중심형의 목표설정에 있지만 특히 군대조직에서는 동침이몽형의 목표설정도 또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2) 동기부여 관리

1930년대에서 세계 제 2 차대전을 전후하여 한 때 「봄」을 일으켰던 인간관계 연구는 이제 동기부여 관리(Motivative management)에로 변경되었다.

「동기부여」라 함은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鼓吹)」하는 기법이다.

A. 정신적 보수

인간은 본래 욕구의 동물이다. 이 욕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보수임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하나는 물질적 보수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적 보수를 2배로 증가했다고 해서 곧 인간의 능력은 2배로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질적 보수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반해서 정신적 보수는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 a. 인간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는데 예민하다.
- b. 인간은 자기실현을 위하여 반려자(伴侶者)를 찾고 있다.
- c. 인간은 사회적 조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d. 인간은 조직활동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려고 한다.
- e. 인간은 동료간의 마음이 연결을 회구(希求)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보수에 대한 충족은 물질적인 보수 이상의 강한 집단결속(Group coherence)을 이룩할 수 있다.

B. X형의 인간관리에서 Y형의 인간관리

「맥그리고」(McGregor)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X형의 인간이란 인간행동에 있어서 관리자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불신」한다는데 기초를 두고 「부하는 본래 신용할 수 없다」고 하는 관념이 관리자의 머리 속에 전제(前提)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일을 하기 싫어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이라고 본다. 그러나 Y형의 인간이란 관리자와 부하간에는 신임(信任)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일을 하고자 하며 일을 스스로 찾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인간행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고 Y형의 관리풍토를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X형의 인간관리이다.

즉 인간행동이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해서 관리자가 강제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부하를 통솔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지나치게 부하를 감독하고 위협하면 인간은 그러한 관리풍토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있으며 설사 그러한 강제적인 통솔이 일시적인 목표달성에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엄격한 감독이 시종일관 마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감독이 없을 때 그 업무는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X형의 인간관리는 Y형의 인간관리에로 목표관리(이상적인 목표 설정)를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

능률(Efficiency) = f(목표의 명확성) × (동기부여)

이 방정식에서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조직활동의 지표(指標) 가운데 하나인 능률 [다른 하나는 효율(Effectiveness)]은 「목표관리」와 「동기부여」의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다.

### (3) 의사전달(Communication) 기법

조직 내의 의사전달은 어떠한 형태(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 상의하달과 하의상달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수평적 의사전달, 일방적 의사전달과, 쌍방적 의사전달 등)를 막론하고 조직의 유기적 활동(有機的活動)을 위한 윤활유(潤滑油) 역할을 한다.

이 조직 내의 의사전달은 그 유통과정(流動過程)이 다양적이어서 마치 포도나무 덩굴(Grapevine)처럼 유포되어 간다.

그래서 「케파트」(W. Kephart)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해 냈다.

$$N = \frac{3^n - 2^{n+1} + 1}{2} \quad \left[ \begin{array}{l} N : \text{의사전달의 통로} \\ n : \text{집단 구성원 수} \end{array} \right]$$

이 공식을 인용하면 사람이 두 사람인 경우 의사전달의 통로는 하나, 세 사람인 경우 의사전달의 통로는 여섯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사전달의 통로가 일방적인데 따라 정확도, 불만도, 자

신 그리고 속도의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일방적인 의사전달(One way communication)로써 명령, 지시의 쌍방적인 의사전달(Two way Communication)로써 상담적 지시(相談的 指示)이다.

방법 내용	일방적 의사전달 (One way)	쌍방적 의사전달 (Two way)
정 확 도	14%	83%
불 만 도	90%	0%
자 신	29%	72%
속 도	8분	15분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지시는 쌍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일방적 지시로써 명령이나 지시는 어느 경우에 적용하며 쌍방적 지시로써 상담적 지시는 어느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나를 설명하려 한다.

여기서는 쌍방적인 상담적 지시를 설명함으로써 자연히 일방적인 명령의 적용기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적 지시를 언급하려 한다.

상담적 지시는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지시자는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행동의 요구(Do this...)보다는 왜 부하의 행동을 요구(Why do you do this...) 하여야 하는가를 충분히 납득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어떤 지시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과제나 비정규적인 업무에 부딪혔을 때는 부하는 동상적으로 변경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hange: R.C. factor 라고도 한다)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이유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지시는

① 부하가 지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창의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클 때

② 지시를 받고 이 지시가 조직의 공동적인 목표달성에 어떻게 공헌되는가를 의심하여 행동의 이행을 주저할 때.

③ 부하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적 지시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즉 상담적 지시만이 조직의 유기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상담적 지시만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① 비순종성(非順從性)을 조성하기 쉽다.

② 자유재량의 해석을 하기 쉽다.

③ 시간의 낭비를 가져온다.

④ 상담적 지시만을 밀어버리는 우상적인 숭배를 하기 쉽다.

#### 4. 맺음

부하에게 복종과 신뢰 그리고 존경으로서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기술은 상관과 부하간의 심리적인 상호교섭(Interaction)으로 이루어진다. 즉 지도자로서는 「리더십」이며 부하로서는 「폴로워십」이다.

「리더십」과 「폴로워십」은 서로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리더십」 연구는 동시에 「폴로워」(Follower)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를 연구하여 목표관리를 명확히 하고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도록 자기동기(Self-motivation)를 부여하여야 한다.

동시에 상관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부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하와 함께 일을 하는 관리풍토를 형성하여야 한다.

×

×

# 계급사회와 인간관계

— 군대조직에서의 인간관계 —

대위·최

공

진



## I. 서 언

모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는 평등의 입장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조직이나 집단에서의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를 통하여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람들 간의 등차는 크며 사실상 조직운영에서 문제로 하는 것이 수평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수직적인 인간관계이다. 이와 같은 인간이 조직에서의 등차를 설명하는 말은 많다. 즉 권력, 권위, 지배력, 영향력, 지도층과 피지도층, 상급자와 하급자 등은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의 차이를 단적으로 가리키는 말 들이다.

그러나 군대라는 특수사회에서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는 표준에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여기의 계급이란 뜻은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계급투쟁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용어가 아니고 다만 조직사회에서의 공식적인 등급의 표시로서의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군대용어로서 설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은 그 배경에 거대한 조직과 계급에 따르는 절대적 권위

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군대라는 사회를 계급사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군대라는 조직과 권위를 전제로 한 표현이다.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계급조직에서의 인간관계의 설명과 그 중요성 및 위치이다. 물론 산업조직에서의 인간관계문제의 대두는 1930년 초에 비롯하였지만 오늘날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인간관계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 이유는 이것을 무시할 때 조직의 효율과 능률, 나아가 그 목표달성에 커다란 차질이 온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행정조직이나 경영조직에서 일하는 자 구성원은 표준화된 기술이나 공식적 기계적 방법이나 수단에 기초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논리적이며 비제도적 및 비계급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자체가 공식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선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카고대학 정치학교수인 Mortor Grodzins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의하여 조직의 관리는 개인되어 가고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직의 행정관리에 있어서 인간적 요소, 대인적 요소, 비공식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로 적용코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자체가 전통적인 관리기술에 대치코자 하거나 그것을 타파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은 관리기술면에 중요하고도 새로운 일면을 부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결론하여 조직에서 인간관계문제 자체의 위치를 명백히 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조직과 집단, 특히 군대사회에서 계급의식과 인간관계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위해 인간관계의 그릇된 이해를 배제하여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시간을 보낼까 한다. 물론 본론은 어디까지나 관리면에서의 조직의 능률과 효율을 통한 목표달성에 그 가치가 연결되며 사회적인 면에서의 논설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 I. 산업사회에서의 인간관계문제 대두의 유래

C. I Barnard가 “집단의 수는 인간의 수보다 많다”고 한 것과 같이 인간은 많은 집단이나 조직에 분속하여 사는 것이지만 누구나가 공통하게 참여하는 두 가지 집단은 가족과 직장집단이다. 여기서 가족집단의 인간관계는 혈연과 애정에 기초한 결합으로써 문제 의이고 산업사회에서의 직장집단의 인간관계 대두문제를 살펴 본다.

산업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정식 제기되기 비롯한 것은 1930년 초기 미국에서였다. 그 전 전통적인 산업조직에 있어서는 고용주와 피용자와의 관계가 가부장적인 주종관계로써 결합되어 있었으나 산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관계도 형식화되고 고용주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하나의 생산용구로 간주하였다. 사람들은 기계적인 반복작업을 강요당함에 따라 생산의 즐거움은 잃게 되고 누구와도 대체할 수 있는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게 되어 창조적 의욕은 감퇴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촉진되면 될 수록 노동자의 근무의욕은 저하하였다. 여기서 산업합리화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코자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업을 제창하였다. 즉 그는 「보다 많은 임금을 얻고자 하는」 노동자의 욕구를 전제로하여 그들이 일하기 쉬운 작업환경 밑에서 쓸데 없는 힘이 낭비를 덜어 줄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치 기계를 하나하나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그 정밀도나 능력을 살피는 것처럼 여러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려 했고 또 작업능률을 좌우한다고 생각되는 제조조건들, 임금지불방식, 노동시간, 휴게시간, 작업동작, 속도 작업실의 조명, 온습도, 소음 등을 노동자의 작업능률과 관련시켜 분석 구명하여 최적조건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관리법은 역시 기계가 부분품의 결합이라는 것처럼 인간의 작업을 개인의 요소동작의 집합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작업의욕도 자극 일반응의 단순한 기계적 결합으로 보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인간적

요소를 너무 무시한다 하여 노동자층의 많은 반감을 샀다.

이러한 인간적 요소를 무시하는 결함을 지적하고 전통적 관리방식을 지양하는 시점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머리가 된 것이 「메이요」팀에 의하여 행해진 호오손공장 실험이다. 그들은 웨스턴전기회사의 호오손공장에서 처음에는 과학적 관리에 입각한 방법에 따라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과 노동자의 작업능률과의 관계를 발견해보려 한 것이다. 이 실험을 위해 10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동안 조명, 실내온도, 습도, 수면시간, 간식, 노동시간, 보수제도 등 여러 조건을 가미하여 실험해 보았으나 능률이 저하된다고 생각되는 나쁜 조건에서도 작업능률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고수준의 능률을 유지하는 사실에 부딪혔다. 이것은 노동자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었는데 이 심리적 요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적 사회적 환경임을 그 후의 실험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이것은 작업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보다도 심리적인 측면 즉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실증한 것이었는데 그 중요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직장의 작업은 집단활동이다. 둘째 노동의 근무의욕이나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작업조건보다도 사회적 안정귀속감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욕구이다. 셋째 노동자의 공식적인 지위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비공식적 집단 내에서의 지위 등,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하면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게 되며 기업체의 제도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형성된 집단보다도 비공식적 집단이 노동자의 작업상의 관습이나 태도에 결정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와 같은 집단의 협력을 얻으면 직장 내의 응집력이 높아지고 변화, 적응이 심한 사회적 태업을 피할 수 있다.

말하자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비용, 이익, 기술적 능률 등의 조직면을 강조한데 대하여 「호오손」공장실험의 교훈은 직장조직에 있어서의 내부적 균형관계 즉 보다 많은 종업원관계, 종업원간의 호의협력 등 조직

집단의 참가자에게 정서적 만족을 가려다 줄 인간적인 조직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리하여 종래의 공식적인 관료집단에 있어서의 조직관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던 것이다. 산업사회 뿐만 아니라 군대조직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학계에서 큰 관심을 표명했다. 비로소 H.R. (Human Relation)이란 말이 유포되고 곧 행정 경영관리면에 큰 영향을 주어 종래 관리이론이 근본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통적인 조직구조는 「막스웨버」(Max Weber)의 관료제론에서 비롯한 직위체제와 명령계통을 위주로 한 의법적 권위에 의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조직은 구성원이 만드는 집단생활을 충분히 인정하고 촉진시켜 그것을 조직구조 속에 편성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단의 목표와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조직 전체의 목표와 결정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또 하부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이리하여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활동에 자발적인 이해와 참여의식을 심어 주어 집단의 연대성을 공고히 하고 아울러 생산성의 향상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를 통한 조직과 집단의 연대성을 공고히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이건 특히 군조직에선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이다.

### Ⅲ. 계급사회(군대조직)에서의 인간관계

#### 1) 군대사회에서의 “계급”의 내용—권위와 군기

군사회를 보통 계급사회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다. 물론 어떤 조직에서나 지도층과 피지도층, 경영층, 관리층 및 고용원이라는 상하계급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군대의 계급과 기업사회의 최고경영층 중간관리자 하부관리자 등의 상하계층과는 엄연하게 구별된다. 군대의 계급

은 국가라는 대명제 하에 신성하게 부여받은 사명에 입각한 서열인데 대하여 기업사회의 계층은 고용자와 피용자라는 물질적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진 이해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 < 권 위 >

군대조직에 있어서의 계급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배경으로한 권위와 엄정한 군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문제가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모든 조직의 지휘체통이 상하의 인간관계로서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직집단의 인간관계에서 지도와 피지도를 특징지우는 것이 권위(Authority)라는 것이 있다. J. Klein 에 의하면 권위를 삼종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물리적 권위 ② 기능적 권위와 ③ 신분적 권위로써 ① 힘의 과시력이나 위협 때문에 권위가 생기거나 ② 맡은 과업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나 또 ③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신분을 가짐으로써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조직에 있어서의 계급의 내용은 원시적 기능인 물리적 권위를 제외한 이하의 권위를 포함하는 외에 국가에서 부여받은 명분을 가지고 자의로 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신분적 권위가 따른다. 이는 계급의 존엄성이란 말로 주려서 말한다.

그러나 계급의 권위가 바로 직무상의 권위 내지는 직위의 권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사회에 있어서 직선적인 힘의 서열이 없는 것은 집단의 과업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단의 기능을 분화시키는 것이고 여러가지 종류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한 자는 앞서 말한 기능적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력은 집단성원과 집단과업과의 함수관계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계급이라는 권위는 기술이나 지식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절대적인 서열관계를 유지하는 신분적 권위가 형성된다. 그 권위를 국가가 부여한 것이다. 따라

서 그 계급 자체의 신분적 권위와 기능적 권위 사이에 어떠한 겹이 생긴 경우 여기에 독특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신분적 권위는 특히 지배력(Leadership)이라고 불리우는데 기능적 권위가 갖는 지도력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한다. 즉 ① 지배력이 유지되는 것은 권력적 조직체계에 의한 것이고 복종자가 그 지배자에의 공헌을 자발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② 집단의 목표는 지배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지배-복종의 관계에서는 목표추구에 있어 상하간에 정서적 유대가 거의 없다는 등의 차이를 들 수 있으나 문제는 계급사회로서의 군대조직은 이같은 지배와 지도의 양자성격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인간관계 형성만이 제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계급에 있어 권위의 내용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신분적 권위를 주로 말하므로 신분과 기능간 즉 계급과 직무(직위)에서의 간격이 현저할 때는 여기에 적절한 인간관계라는 훌륭한 처방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계급의 참된 내용이 있는 것이다.

## <군 기>

군대조직에서 계급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국가적 권위 이외에 군기라는 군의 생명과도 관계가 깊다. 군기는 군대의 명맥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을 송장이라고 한다면 군기없는 군대는 하나의 거대한 고깃덩어리나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이러한 군대는 싸움에 이길 수 없으며 싸움에 이길 수 없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군기란 이와같이 군의 존재가치이며 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군의 존재목적에 충실하려는 것이다.

군의 임무는 평·전시를 막론하고 항상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전장에 임해서는 더욱 어려운 임무가 부여된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상하계급이 일치 단결해서 중심일치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군기며 이러한 군기의 전제가 되는 질서가 바로 계급질

서이다. 계급질서는 엄연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여기서 군기는 군들과는 별개의 것이다. 군들이란 군법을 배경으로 엄벌로써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고 군기는 전군이 정해진 방침에 따라 각자가 자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로 전부대원은 전면의 고난에 개의치 않고 그 명령을 실행키 위하여 전력을 집중하는 상태, 즉 군기확립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군기는 지휘관과 부하의 인간관계에서 더욱 그 내용이 충실해 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기의 원천은 지휘관이며 지휘관의 출신수범과 인격의 도야 및 실력배양이 군기확립의 결정적 요소인 것은 곧 인간관계의 전제가 된다는 말과 같다. 군기는 명령에 의해서만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군기는 상하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명령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출신수범하고 상대방을 성인군자시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가혹처럼 험배어 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엄격도 능수가 아니며 지나친 자애도 유해한 것이다. 손자가 말하기를 「卒末親附 而罰之 則不服 不服則難用也. 卒已親附 而罰不行 則不可用也」(사병이 아직 장교에게 따르기 전에 벌을 주게 되면 그 사병은 맘 속에서 우러나는 복종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사병은 실전에서 쓰기 어려운 것이고 사병이 친밀히 따른다고 지나치게 자애만 베풀고 추상열일 같은 엄숙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사병이 과실이 있어도 벌을 주지 못할 터이니 이런 사병을 데리고 싸움은 못한다)라는 말도 군기확립과 상하의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벌써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군조직에서 계급의 내용으로서의 권위와 군기는 이와 같이 전전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 2) 민주군대와 인간관계

오늘날 우리나라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대과제에 범국민적 노력이 경주되

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근대화란 전근대성, 즉 봉건제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 전근대적인 요인의 극복이 불가능하여 그 잔재가 존속하는 한 민주적 자아에 기반을 둔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는 없다. 군의 경우 장비나 무기의 현대화는 외면적인 근대화이며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근대화는 군의 내면적인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내면적인 근대화란 곧 민주화를 뜻한다. 군의 내면적 분야에는 아직도 적당주의 무사주의 파벌주의 등의 전근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의 제거없이 군의 현대화와 좋은 인간관계 형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물론 군내의 인간관계에서의 전근대적 요소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이념상의 계급의 상하는 의법적인 합의의 지배관계이다. 모든 군인은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객관적인 법에 의하여 다같이 국가에 봉사한다. 즉 모든 군인이 똑같이 군대의 주인이다. 여기에 계급을 두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하나의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군대의 명령복종관계는 물주관적인 의법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하관계와 명령복종관계를 단순한 전통적 의미에 의한 신분적 관계와 같이 다루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인간관계의 착오와 그릇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상하관계가 의법적인 것을 망각하거나 또 기능적인 것을 무시하고 마치 전근대적인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상관은 인격적인 우자로, 부하를 인격적인 열자로 멸시할 때 상급자는 자기부하를 개인소유의 물건처럼 아무 거리낌없이 잇대로 부리고 다루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부대를 자기 회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명령 복종관계는 국가적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합의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에 비로소 인간관계의 올바른 이해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무의식 속에 군조직 전반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고

방식은 민주군대의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아직도 권위와 굴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감이 있다. 즉 상급자에게 권위주의적 굴종을 표시함으로써 박탈당한 자존의 가치를 하급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군벌으로 보상하려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역시 전근대적 요소인 것이다.

군의 근대화를 저해하고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 요령주의가 있다. 요령은 상급자의 눈앞에선 가장 충실한 것처럼 부종의 가면을 쓰고 상급자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자기의 개인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원리가 재면화되지 못하고 표면적 동조에 그치는 얕은 행위인 것이다. 근대적인 자아의식 또는 개인이익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행동의 내면적 제어원리가 발달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같은 사람의 행동은 외부적인 제어에 의해서만 통제될 수 밖에 없다.

군의 민주화를 이와같은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인 것을 잘못 이해하여 상하계급의 무질서한 인간관계의 자유로 해석한다면 이같이 위험한 일은 없다. 요컨대 민주군대에서의 인간관계는 전근대적인 요소, 즉 지나친 권위주의 파벌주의 무사안일주의와 요령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직무를 중시한 군의 주인으로서의 객체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계급질서와 인간관계

군의 명백한 군기의 전제가 되는 질서가 계급질서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요즘은 군에 임시킨급제도가 생기고부터 초급장교들 간의 계급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동기생간에 계급의 상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후배가 상위계급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그릇된 인간관계에 기초한 계급의 질서문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나아가 계급의 존엄성과 권위는 땅에서 봐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계급의 권위

와 존엄성이 희박해져 계급의 질서가 문란해진다면 군기자체의 엄정을 기할 수 없게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것은 계급이라는 엄연한 질서와 인간관계를 동일시하는 그릇된 사고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동료가 상급자인 것은 국가정책에 의한 권위적 질서이며 동료로서의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인 이상 감정의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임시진급제도가 취하는 득과 실은 같은 것이다. 즉 임시진급제도가 가지는 득은 장기 배치 연장복무자라는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군운용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단기 복무자의 최대한 선용의 곤란 및 초급장교간의 계급질서 문란으로 인한 계급의 존엄성의 실추 및 인간관계의 미묘화라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점은 직무를 중심한 전전한 인간관계의 언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의 계급은 기업사회에서의 고용자와 피용자의 계약에 의한 상하질서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절대적 신분이므로 임무수행을 위한 계급질서 유지는 기업사회의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문제가 지고는 전부 설명될 수 없다. 군대조직을 하나의 능률과 효율을 위한 관리면에서 볼 때는 이같은 인간관계론으로써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한 관리이외에 명예와 긍지를 전제로 한 권위의식하에서는 인간관계를 간단히 말할 수 없다.

물론 생산적인 면에서 임시진급과 계급질서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하부관리의 비능률을 문제로 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군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사기문제에서도 볼 때 단기복무자의 사기는 일단 무시한다는 결과이나 군전체의 전력문제에서 볼 때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설 수 있다.

#### 4) 계급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기준이 되는 내용

##### ① 명상 관과 명부하란?

조직에서의 직무는 「상급자와 하급자에 의해서 연기되는 무대」와 같은 것

이다. 연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연이나 조연이 다같이 명우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즉 조직에 있어서 명상관 명부하가 아니고서는 호흡이 맞는 팀·워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명상관 명부하란 무엇인가? 조직에서의 사람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 부하와 상관, 동료간이라는 3가지 유대가 맺어지는데 이 맺어지는 요소는 <신>이라는 관계다.윗사람이 부하를 믿는 관계를 <신임>, 부하가 윗사람을 믿는 관계를 <신뢰>라 하며 동료상호간의 믿는 관계를 <신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적인 관계에서 믿는다는 관계가 생기게 되느냐 할 때 신임은 상관의 부하의 일에 대한 식견과 기술을 믿음으로써, 신뢰는 상관이 부하에 대하여 사랑하고 따뜻하고 인격적 존중을 가짐으로써, 신용은 동료간에 상대방의 도덕적 높이를 존경함으로써 생긴다.

좋은 부하란 적극성을 가진 부하를 말한다. 적극성이란 일에 대하여 창의성과 자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관리자는 부하를 써서 비로소 일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일에 대한 식견과 기술이 낮으면 신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좋은 상관이란 잘 돌보아 주는 상관이다. 간혹 상관이 부하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한 실례를 본다. 부하의 이름 석자 이외에는 그 부하의 가정환경 학력 등 일체를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사고가 생길 경우 당황하고 수습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고 모든 부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상관은 또 부하를 알아주어야 한다. 부하는 어디까지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항상 강조하는 마와 같이 일하는 사람의 가슴속 깊이 숨어있는 것을 끌어내고 또 채워주는 상관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라는 본심은 부하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관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되려면 조직이 민주적인 공기로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관계의 근저에는 항상 「일하는 자에게 개성을 가진 한 개의 인격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소위 백이나 금전 또는 지위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한 개의 인격으로 다룬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인간관계실험의 제 1조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 ② 인간관계의 척도는 사기와 동기부여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는 곧 인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사기의 문제와 직결되며 나아가 인간의 욕구불만을 해소하여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해 주는 동기부여 문제에 연결되고 있다. 현대조직에서 그 구성원의 태도변이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도덕준수로부터 자발적인 정신상태인 사기에로」(From morality to morale) 옮겨져 가고 있다고 한다. 「모탈」이란 원래 군대의 사기라는 불어의 어원을 갖고 사용되어 왔는데 넓은 의미로는 「조직집단의 응집도, 집단의 결함도, 집단정신의 양양도」를 표시하는 것이나 보편적으로는 「개개인 또는 조직집단의 정신적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다. 즉 조직환경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신적 상태와 조직의 최대이익을 가져 오기 위하여 자발적 협력성을 낳는 개인 또는 집단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기는 직무를 수행하려는 하나의 욕구인 것이다.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곧 ① 보람있는 목표 ② 직위나 직무에 대한 만족감 ③ 조직에 대한 긍지 ④ 조직체와의 일체감 귀속감 ⑤ 좋은 상관을 갖고 있다는 인식 ⑥ 개인 또는 집단 발전의 기회감 ⑦ 업무환경에 대한 쾌적감 ⑧ 전반적인 안정감으로써 이와같은 사기의 인자를 적절하게 개선함으로써 사기양양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기양양은 계속적인 동기부여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기부여란 곧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모르는 기술]이다. 개인이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조직과 집단에 있어서의 자기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요전대 조직과 개인의 목표조화는 개인의 동기유발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동기부여 문제는 그 사회환경과 경제조건에서 영향을 받으므로 제때에 적절한 동기를 찾아내어 부여하여야 한다. 즉 점차 고차적인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훌륭한 인간관계를 이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 5)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요건(W. Neden)

좋은 인간관계는 단시일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첫째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상적인 친절이 아니라 지속적인고도 공정한 처사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명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며 이에 대한 동조를 얻었을 때에 비로소 부하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고 인화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좋은 인간관계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을 지양하고 부하직원에게 그가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목적을 완전히 이해시킴으로써 부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조금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는 부분적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감정과 태도까지도 충분히 소통할 때에 얻어질 수 있다. 즉 조직에 있어 그 구성원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는 그의 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의 유감을 열성적인 협조의욕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 IV. 결언—관리는 인간관계에 우선해야 한다—

행정이나 경영에 있어서의 2대지주는 「관리」와 「인간관계」이다. 지금까지 모든 조직사회 특히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문제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조직의 관리와 인간관계의 2대 기반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즉 이 양자는 행정이나 경영의 기반이나 둘 다 잘되지 않으면 조직운영이 잘되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간관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인간관계만 잘되면 조직운영도 생산성의 향상도 모두 잘되는 것 같이 주장한다면 이는 그릇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조직은 공식적이며 조직목표달성은 훌륭한 관리와 이에 따르는 좋은 인간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직활동에는 공식적인 관리가 있고 그 뒷받침으로 부차적인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체를 무시한 즉 생산성과 능률을 무시한 인간관계만 무가치한 것이다. 인간관계만 있고 관리가 없다면 조직에 있어서 개개인의 사이는 좋지만 질서가 없으니 소기의 목적달성은 이룰 수가 없다. 계급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직무와 임무를 중심한 엄연하고 자애깊은 관계이어야 한다.

오늘날 인간관계 내지는 인간관리문제의 주장의 붐을 타고 모든 조직의 관리에서 하나의 필수처럼 되어 있어 관리의 원래 기능을 의외로 등한시하면서까지 하나의 인간에 신경을 쓰는 예가 있다. 오히려 현실은 그 관리적인 면이 흐릿하여 트러블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관계가 지해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조직의 목적인식 적부분담 조정 및 통제 등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일어나는 트러블을 너무나 많이 본다. 조직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는 어디까지나 그 배경엔 모든 관리적 요소가 충분히 정비되고 난 후의 문제이다.

또 인간관계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조직 상하의 연대성과 조직의 효율과 능률을 위한 생산적인 인간관계이지 단순한 인간 감정의 관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계급사회에서 서로의 사이를 좋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때 부하가 상관을 앞잡아 보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모든 논리는 다음 한 마디로 집약될 수 있다.

성서들 읽기 위하여 촛불을 훑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군인

# 잊을 수 없는 군인상

## 황 금 찬

그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의 늙름하던 모습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6·25 때 나는 피난민의 대열에 끼어 정치도 없는 길을 떠났던 것이다.

14일이나 걸어 안동에 이르렀고 다시 영천이며 급기야는 대구까지 가게 됐던 것이다. 우리 보다 먼저 대구에 온 피난민들은 실로 수십만에 달했던 것이다. 나도 그들중의 한 사람으로 피난생활을 대구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구 남산교회 지하실에서 그 많은 굴욕의 날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매일 같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소식만을 얻어 들고 그것을 침소봉대 해선 나와같이 있는 피난꾼들에게 입에 짐이 마르도록 전하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그날 그날의 일과요 또한 보람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어느 샌지 모르는새 공보장관이라는 별칭이 붙게도 된 것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들려오는 전선의 소

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아니었다. 어느 날에는 대전이 적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고 이어 호남쪽의 소식이 비관적이었었다. 전라북도 어느 도시가 적에게 함락됐다는니 경상남도 진주가 적수중에 들어갔다는니 실로 분통이 터져 들을 수 없는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전해져 왔다.

그러나 나는 그 비관적인 소식들을 아무쪼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동인동에 집을 한 칸 얻어 가지고 그리로 이사를 했던 것이다.

그 후로는 나와 같이 있던 피난동지들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전선의 소식은 불리하기만 했다. 적이 왜관 가까이 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대구에 있는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가리라는 추측도 떠돌기 시작했다.

1950년의 8·15 기념은 피난 도시 대구에서 간소하게 보냈다.

그날 오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적이 왜관 근교에 집결되었다가 아군의 폭격을 받아 적 삼개사단이 전멸되었다는 희소식이었다.

그때 적의 주력부대가 전멸되었으니 대구 방어의 쉬우리라는 소식들이 우리들을 기쁨에 들뜨게 했다. 그런데 8월 19일 오전 3시경 대구 시내에는 적이 쏜 박격포탄 4, 5발이 떨어졌던 것이다.

새벽공기를 끊으며 날아오는 포탄의 소리는 잠자리에 누어서도 불안에 떨고 있던 대구의 시민들을 소스라치게 했다.

참으로 놀란 것이다. 날아오는 포탄의 소리만 들으면 그것이 내개로 오는 소리같이 느껴지다가도 어딘가에 떨어져 폭발하는 굉음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내게 떨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엉겁결에 피난보짐들을 꾸렸다.

이제는 대구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그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 하늘갈았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조급했다. 그때 거리로 뛰쳐 나왔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마구 달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군인들의 동향을 알아 보기 위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현병대

앞으로 뛰어 갔다.

틀림 없이 군인들은 밤사이 대구에서 후퇴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했다.

그런데 현병대 앞에 이르러 보니 정문 앞에 보초병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나는 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보초병 앞으로 가까이 갔다. 그는 당당한 자세로 땅을 딛고 하늘을 받들고 서 있는 것이다.

그의 늙은 모습에는 불안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그는 마치 저 그리스 어느 폐허 위에서 서 있는 조각같이 보이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조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 늙은 모습은 내게 안도의 한숨과 간격의 눈물까지를 안아다 주었다.

그때 그 보초병이 군인에게서 처럼 사람이 내게 준 즐거움은 없었으리라.

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 믿는다.

나는 저 폐허의 봄체를 생각했다.

어느날 화산이 터져 고도 봄체는 그대로 흙속에 묻히고 그 위에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던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망각되었던 봄체는 흙속에서 다시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 내가 생각하는 군인

이미 화석으로 화해버린 흙 속에서 찾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 썩썩한 군인의 기상과 사랑에 순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짐이 무너지고 옷에 불이 붙어 오는 것을 감수하며 사랑하는 애기를 안아가 그대로 화석이 된 것이요, 병영 정문안에 한 군인이 창을 짚고서서 옷에 불이 붙어오는 것을 참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 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된 것이다.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사랑과 의무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이성을 잃고 허둥벌 때도 조각처럼 서서 의무를 다하고 나가선 조국을 지켜주던 이름도 모르는 국군보초병, 그의 모습을 나는 눈으로 읽으며 우리국군들이 저처럼 자기의 의무를 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극히 행복된 것이라고 믿어 보기도 했다.

「망하는 나라의 장군이 되지 말고, 흥

하는 나라의 일꾼이 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누가 했는지 그 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무척 재미있는 말이다.

나는 6·25 때 대구에서 본 그 보초병에서 일꾼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한세상 사는 동안에 어찌 잊지 못한 인간상이 한두 사람뿐이리오만 내게 있어서 잊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적년이 밤하늘을 울리며 날아오는 밤 자세 하나 그르치지 않고 의무를 다하던 그 젊은 군인을 나는 어느 때까지도 못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모두 그 젊은 보초병처럼 진전한 사상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근심할 것이 어찌 있겠는가.

나는 그 젊었던 군인의 모습을 조각으로 새겨 마음 속에 두고 싶다.

생략하구요

원고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줄고이오니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빕니다.

×

×

×



## 튼튼한 「가야」의 아들들

### 이 정 럽

내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한 탓인지 공군——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늘의 보라매라는 「파일럿」이다.

하늘을 나는 사나이들——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확 티여지는 것 같다. 그리고 가까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낭만적인 「이미지」조차 풍겨주는 멋쟁이 사나이들. 「파일럿」, 여인들에게는 한 없는 흠모의 대상이며 국가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집단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존재로 위함을 받는다.

그러나 항공계에 여자가 처음으로 발을 딛었을 때만해도 비행사라는 것은 서먹서먹한 존재였다. 여자 비행사 얘기를 하니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토막이 생각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가 어렸을 때 점장에게 손금을 보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점장은 얼마를 손금을 훑어보더니 모르겠다든 듯이 고개를 가웃거리더라는 것이다. 자기도 도저히 이

운명이 어떻게 되어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사실을 고백한 점장은 여러 사람들 앞에 손금을 풀이했다. 그 풀이 인즉, 이 아이가 크면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공중을 날아다니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점장이인 자기도 이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를 모르겠다든 것이다. 이 난해한 손금을 가졌던 아이는 커서 여류 비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한가. 비행사들이 하늘에서 풀구나무를 서고 꼭예를 해대도 기절할만큼 놀라지는 않는다. 그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비행사들에게다. 그들의 뒤에는 최고를 자랑할만한 인간의 두뇌가 있지만 어쨌든 비행사는 우주의 치너지를 밟는 제일인자로서의 행운을 지닌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류비행사가 탄생할 때와를 비교한다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이런 세계항공의 추세에 정비례해서

내가 생각하는 군인

우리나라 공군의 세력도 막강해졌다. 6. 25사변 때는 겨우 열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의 비행기 밖에 소유하지 못했던 우리 공군이었지만 이제 어림없는 소리다. 정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북괴가 주객을 부린다면 추호도 용서 못할 정도의 실력을 공군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배양하고 있다.

이제 하늘도 땅도 바다도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한 어느 공군은 한 가지 덧붙여 공군은 완전한 K.S품이라고 자랑을 한 일이 있다. 사실이 또한 그렇다. 「파일럿」의 자격기준은 신체의 어느 한 군데라도 결격이 되면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철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파일럿」들의 자만도 수궁이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호뭇한 일은

공군은 모두 「페미니스트」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멋진 사나이들이 여인을 극진히 위하고 또한 멋지게 사랑한다는 일이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그들에게 당연하달 이유가 있다고 보고 싶다.

「파일럿」들이 무사히 비행을 끝마치고 착륙했을 때, 제일 먼저 반갑게 부딪쳐 오는 것은 싱그러운 흙냄새일 것 같다. 그것은 대지「가야」와의 환영의 입맞춤, 그리고 영원한 모정의 향수이기 때문이다.

대지의 아들인 「빨간 너플러」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하늘을 지키고 있다. 그 믿음직한 안전 속에서 여인들은 그들을 포근히 맞아들이기 위해 아름답게 가꾸며 또한 기다림의 습성을 조용히 익혀가고 있는 것이다.

(경남매일신문사 서울주재기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성 대 범

벌써 강산도 변한다는 햇수론 한두해 지난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나이 20여세로 푸른 제부

속에 묻혀 살 때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산 ○○  
기지에서……

전우 가운데 K라는 이름의 병장이 있었다.

N대학을 중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어느 중학의 영어교사를 지냈다는 꾀 교양있는 사나이였다.

K의 차림새는 늘 단정했고, 행동 또한 군인답게 석석했으며 몸 전체에서 풍기는 온후한 성품은 아무에게도 형님같은 기분을 받게 했다.

짧았던 병영 생활을 통해 나의 망막에 비친 K의 생활태도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병영 생활중 최노애락의 총 본산이랄 수 있는 내부반에서 K는 아랫 병사들의 이부자리를 띄 주는가 한면, 일과 시간에는 음로수까지도 손수 떠 나를뿐 하급자에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른바 술선수범 표본이었다.

어느날 나는 K와의 길지 않은 대화 속에서 질문의 답으로 이번 말을 얻었다.

“뭘, 생활신조? ……”

별로 내 세을 만한 것은 없지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는 것이 나의 의지 일세」라고.

내가 제대 발령을 받던 날, K는 J와 담소하고 있었지만 실은 J의 악담(?)

을 듣고 있었다.

“K! 넌 도대체가 골이 비었던 말이야.

잘난 척하고 빼놨자 조용없어.

군대생활이란 「요령」이란 말이야….

「꼴짜」들이 널 대단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서 찬가를 부르는 줄 알아?

—고마우신 K병장님 우리 병장님 「꼴짜」위해 오늘도 수고하였네—(내무반 전우들이 노래 불렀다.)

넌 놀리는 거야, 알겠어?”

웃는 낯으로 묵묵히 J병장의 이야기 들 듣고 있던 K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또 할뿐이지, 어떤 사람들이 놀린다고 해서 내 이름 내 체면이 꺾인다고 생각하진 않아……”

어렵지 않게 해 내는 K의 이 말이나 의 가슴 속에 짙은 농도로 스며 들었다.

「선망」이 화농한 것 같은 J의 비릿 비릿한 말에 견주면 K의 말은 새김질한수룩 새 맛을 일게 하는 「참」말이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에서 근면한 성품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에서는 올바른 의무관념을, 「놀린다고 해서 내 이름」에서는 뜻을 세워 실행하는 일에서 명예를 생각 하는 것을 엿볼 수 있

## 내가 생각하는 군인

있고, 출선해서 수범하는 부지런한 생활에서는 전우애를 엿볼 수 있었다.

K는 옳은 일에 힘을 줄 아는 사람, 곧 조국이 자신에게 부여한「의무」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고, 부실한 행위로부터 멀어지는 오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사회 안에서의 질서를, 상경하에하는 이른바「전우애」를 아는 군인이었다.

무수한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살았어도 나 자신이 오늘까지 K를 기억하는 연유는 그가 사람스런 사람, 군인다운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인상은, 천군만마를 휘몰아 양(洋)의 동·서를 유린, 세계사를 뒤흔들고 얼룩지게 한 지난날의 영웅호걸이거나, 탁월한 통솔력을 가진 한 사람의 장군이나 제독은 결코 아니며, 의무와 명예와 전우애의 3

요소를 한몸에 지닌 작제의 병사들, K와 같은 군인인 것이다.

북괴가 70년대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운위하며 1981년대 이래 오늘까지 올진 • 삼척을 비롯하여 주문진 등지에 무장유적조를 남파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양민을 학살할 뿐 아니라 휴전선에서는 총포의 난발을 다반사로 하는 등 야만적인 도발행위가 날로 격증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할 때, 크게 조국과 민족을, 작제는 자신을, 적마(赤魔)의 화(禍)로부터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소아(小我)를 희생하는 용기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의무」와 「명예」와 「전우애」를 자기 것으로 한 사람만이 대아(大我)에 순(殉)하는 용기있는 사람인 것을 믿는 소이(所以)에서다.



## 강인한 책임감을!

김 옥 자

&lt;전우신문사 기자&gt;

언젠가는 확실히 기억할 수 없지만 아마 대학 2학년 초에 있던 일인 것 같

다. 그날 나는 수원에 있는 모 공군 기지에 갔던 일이 있다.

물론 그때 이전에는 군 부대라고는 한 번도 가서 본적은 없었다.

친구 Y가 「파이롯」인 자기 오빠(?)를 편회하게 되니 부디 나와 같이 가자는 권유로 자의 반 타의 반, 무작정 남의 잔치에 끼어 들게 된 것이었다.

어쨌든 Y편에는 가벼운 하늘 색에 빨간 무늬가 놓인 「원 피스」차림에 새하얀 「머플러」까지 걸들인 가벼운 초여름 복장으로, 「무드」에 어울리는 그런 차림이었고 그의 들뜬 마음은 한껏 창공을 나는 듯한 상쾌한 기분에 젖어 있다는 것을 서울서 수원까지 가는 동안 차 속에서의 대화나 「제스추어」에서 얼른 알아 차릴 수 있었다.

비교적 얌전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그때도 나와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제 뛰어난 품성이던 그가 들떠 있다는 것 등은 나를 의아케 했다.

그의 오빠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공군에 있는 오빠는 없다고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애인?…… 짜깁이 같은 것, 흥미있는 일이었다. 새킵뜨기 같은 것이 나에게 마저 오빠(?)라는 ?을 풀어 주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눈치법과 짐작법까지 동원, 이날은 그 ?을 풀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가로수의 연두색이 짙은 초록으로 불

들어 가던 계절, 햇벌이 찬란히 내려 퍼붓는 「웨이브먼트」위를 신나게 달리는 기분을 등달아 탄격할 때 내 시선도 어느 허공을 향해 쫓 달음질 치고 있음을 느꼈다.

Y도 첫 걸음인 수원에서 내려 기차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

걸어야 했다.

변화가를 지나 얼마쯤 걸었을 때 짙은 곤색의 「저프」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우리 곁에와 멈췄다.

싱글 벙글 웃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는 한 청년 장교. 주홍색 비행복을 착용한 「빨간 머플러」의 믿음직한 장교였다.

저곳이 늘려쓴 「캠」에는 「다이어 문드」가 2개저 3개인지가 붙어있었다. 우리 앞에 선 그 군인이 바로 Y가 찾아간 주인공이었다.

공군하면 우선 그 복장을 짙은 하늘 색으로만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온 그때의 나로서는 먼저 그 「유니 폼」부터가 새로운 것이었다. 딱 벌어진 어깨를 뽐내며 선 청년 장교에게서는 시종 굽적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속으로 『그사람 좀 전방져 보이긴 하지만 폐렴은네』 싶으며 은근히 Y에 대해서는 『저 짜깁이 같은 계집애 뒷구멍으로……』 하는 식의 같은 여자로서

## 내가 생각하는 군인

의 엉뚱한 시기심마저도 가지 않는바 아니었다. 그때 나의 그런 생각은 아마 그 청년장교가 개인적인 인격이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기지에서 본 군인으로서의 처음이었고 그 군인이 준 첫 인상에서 군인의 용모나 태도가 분명하여 흐린 곳이 없었다는 데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티끌만큼도 비굴한데나 꺼리낌 없었기 때문일까?

솔직 담대한 군인의 품성은 그 장교처럼 이성인 친구 Y가 서슴치 않고 수월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었던 힘을 준 것이라고 즉각 단정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몇번 만나지도 못한 그 군인에게…… 낚아 채듯 강한 그 러면서도 부드러운 그 군인의 권유는 잠시 사이에 그가 타고 온 차에까지 우리들을 태웠다. 까다로운, 아니 삼엄할 만큼 엄한 군기(軍紀)를 봐야 했다. 그 군인의 윗분이 배푼 호의로 정문을 통과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의 부하인 자기에게 솔선 차를 내주었다는 것 등은 차속에서 들은바였다. 덕분에 기지 영내에 들어가 편모나마 군인들의 생활상을 구경했다. 그때 나는 참으로 그 이전에

꼭 봤어야 할 몇 가지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은익이 즐비한 「플라이트·라인」 뒤에서의 일인 것 같다.

그것은 기름이 반질 반질하게 진 작업복을 입고 전투기의 기체 정비를 하고 있던 30대쯤 되어 보이는 군인 정비사에게서 얻은 인상이었다.

이마에 땀한 땀 방울과 때묻은 손, 그리고 애리한 눈동자, 기민한 동작을 연속하는 부언의 일꾼이 보여준 역병의 지에서였다.

나 자신 그때 만큼 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느껴본적도 없다.

그들은 어느 사회에서 처럼 ○라는 것 그리고 구차한 생계 때문에 하는 것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오직 국방이라는 일념에서 처리해 내는 임무완수, 강인한 책임감에서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 순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그 군인을 빙히 보고 있던 나는 몸가짐을 고쳐잡고 옷깃을 다시 여밀 수 있었던 부언의 교시를 받았던 것도 더 말할 나위가 없다.

X

X



## 건전한 유모어 정신을...

이 배 영

<전우신문사 문화부차장>

모두가 젊고, 같은 국어로 얘기하고 또 같은 황색인종이라는 극히 평범한 벗까지의 공통점만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잘 것 없는 오합지졸이었다.

입소(入所) 기분술 내느라코 재탄엔 제법 딱딱썩은 증대머리로 다 멀어진 코 무신마저 터덜터덜 신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병동의 당구장장은 배서 갑자기 영장을 받고 달려온듯 산뜻한 신사복에 넥타이를 점잖게 붙잡아 맨 멋장이 친구에 이르기까지—— 형형색색,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이 기묘한 일군(一羣)의 집단을 뻗뻗 쳐 모시게 되는 곳이 바로 수용연대의 내부반——. 서로간의 시며시며한 감정이 사라지고 미우나 고우나간에 동고 동락의 정이 오가게 되어 십년지기, 죽마고우의 사이가 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부터이다.

K는 이때 내 옆자리에 앉게된, 나이 제나 들어보이는 녀석이었다.

입이 좀 무겁고 따라서 동작도 꽤나 느려보이는— 말하자면 신통한 구석이 차곤 눈썹만큼도 찾아 볼 길이 없을 것 같은 애매한 화상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나이 값을 하느라고 그러한 것인저 보통 단수가 넘는다.

저녁 때의 오락회시간에 지명을 당하자 몇마디 겸손한 대사(臺詞)를 중얼중얼…… 이어 유행가(곡목은 기억에 없음) 한곡을 청승맞게, 능청스런 목소리로 불러재키는게 아닌가.

앵클이 터져 나오고…… 『웬만한 가수들은 너뻘에 밥끓게 뵈다』는 찬사가 여기 저기서 술렁거렸다.

사실 하잘 것 없는 유행가이긴 하지만 그날 저녁 한때를 유쾌하게 지낸 것이 K의 덕이었다.

노래뿐만 아니라 재치있게 동료들을 설 웃기고 분위기를 알맞게 유모어의 적시안타(適時安打)를 날림으로써 숨막힐 듯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그의 특기

내가 생각하는 군인

였다.

아깝게도 일선부대에 같이 배속되지는 못했으나 훈련소의 교육기간 동안 나는 내내 K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른다. 어렵고 피로운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 속에서 만족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야비하지도 저속하지도 않은 유모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나는 오늘에 와서 더욱 절감하고 있다.

전 미국 대통령으로서 얼마전에 작고한 「아이젠하워」 장군이 것처럼 위대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기억에 남게된 것은 그가 유모어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활용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생전의 「아이크」에게서 볼 수 있었던 세칭 「백만불짜리의 미소」는 급박한 전쟁상황 속에서도 유모어와 위트를 잃지 않았던 여유만만한 자세 속에서 가꾸어졌던게 아닐까?

제급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상명하부(上命下服)하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말로 군의 기본이요 생명이다. 우리 국군이 온 세계의 뜨거운 준경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두절찬 군인정신이

몸에 속속들이 베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기강 속에서 긴장된 생활만 하다보면 모르는 새, 상하간의 부미전조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개개 장병들의 능력(전투력) 면에서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배려로서, 환경의 개선과 정서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은 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 상호간의 진전한 유모어 정신이다.

우리 국군의 위용을 지켜보면서, 상급자들은 근엄한 가운데 자애로우며 위트와 유모어를 지니는 여유가 있고, 하급자들은 이를 이해함으로써 『졸병』이라는 자기비하의 감정을 씻고 항상 세로운 활기를 가꿀 줄 아는 군인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보게 되었다.

이러한 군인상(軍人像)이 부각될 때 군은 물론 이들이 배출되어 나올 우리 사회는 보다 밝고 보다 알찬 미래가 약속될 것이 아닌가.

진전한 유모어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는 결코 부패하지 않는 법이다.

×

×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소병 김 현 기

유대의 율법을 익히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지도자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예수 앞에 끌고 왔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고 시험했다. 이들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린줄 알고 은근히 기뻐했다. 만일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사랑과 자비를 주장한 예수의 명성이 떨어질 것이고 만일 여인을 무죄하다 하시면 그는 사람들에게 벌을 무시하라고 가르친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요, 음행을 장려한다는 혐의도 받을 것이기에 그들은 음모했던 것이다. 예수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핏대를 올리고 고함을 지르며 물을 던지려던 무리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사랑과 연민으로 권고할 때 그는 갱생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 거리를 물러 갔다.

우리는 잠깐 지도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예수의 태도를 내조하여 생각해 보자.

예수는 사하녀 했고 그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벌하려 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고, 예수는 권위를 죄를 용서 하는데 쓰시려 했다. 예수는 사랑에서 나오는 연민으로 그 죄인을 대하셨고 그들은 독선적태도에서 나온 증오로서 대하였다. 그들은 정죄함으로써 고귀한 생명을 끊으려고 하였고 예수는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권면하므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활의 희망을 품게 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 마디의 날카로운 음성은 주위에 있던 무리들과 고발자들의 무던양심을 깨우치게 하여 들었던 물을 땅에 슬그머니 떨어뜨리고 뿔뿔히 헤어지게 했다. 예수를 시험했던 음모자들

이들은 자기들의 독선적 권위로서 한 여인을 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 여자의 이름 인격 심정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를 해치는 단순한 미끼로 생각했었다.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 방법, 도구로 쓸려고 했음은 천인공노할 일이었다. 또한 그릇된 지도자들의 사수에 의해 불을 던지려던 무리들의 무지가 안타깝다.

예수의 지도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의 말을 빌린다면 <화 있을 찢겨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지도자급) 최철한 무덤 같으니 절로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나>고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유물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저 옛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똑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고귀한 생명들을 무수히 앗아가고 현재에도 해치고 있다. <화 있을 찢겨! 유물주의 자들이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예수의 선인 앞에 우리는 천하를 주지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여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결코 도구 수단 미끼로 말것이라는 신념을 재삼 깨우쳐야 할 것이다.

## 아리의 반전마

김  
중  
호  
군  
목  
따  
래  
6  
: 31  
~ 34

인생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자연은 인생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고 인생을 길러주는 유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여 먹고 살았읍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시대는 바뀌고 인구의 증가로서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인구의 증가율이 그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가지 않아서 인구의 폭발로서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이 식량 문제입니다. 곧 과학자들은 앞으로 사람들이 적게 먹고 오래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다른 방법은 산아 제한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산과정

을 극도로 제한해서 인구증가율을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UN은 산하에 세계 인구문제 연구소를 설치하고 세계 인간의 산아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피임약과 기구 등의 출현입니다. 이와같은 것으로 세계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으니 도덕적 몰락을 예언하게 되었으며 윤리적인 혼란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불시에 주머니 검사를 한 결과 피임약을 가진 학생이 약 65%나 된다고 신문에 발표함으로써 크게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대학에서는 구내 매점에서 피임약을 공공연히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덕의 문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에 주권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의 나라란 원어에 “바씨라이 알레우”(βασιλαι αβεν)란 말인데 그 뜻은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 둘째로 하

나님의 왕국이란 뜻이라 합니다. 이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시작하여 미래 곧 내세에까지 영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현재라고 하면 각자 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생활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세의 적인 것은 종말적인 것이며 우리의 소망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곧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급선무는 인간의 힘으로 의 노력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획이 급선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적중한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현실적인 면에서 근시안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날에 작정하고 실천할 것이며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는 때 급선무를 삼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일에 전념하여야 하셨습니다.

자유와 책임의 한계

조 풍 연

△소년한국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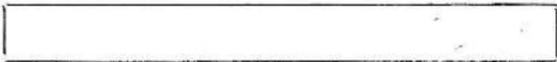
넓은 반민주 공산주의

필자는 사회학자가 아니므로 제법 학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을 미리 말해 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우리가 현재 몸을 던지고 있는 세계이므로 그것에 따른 여러 문제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동료와 그리고 오늘날 모든 나와 같은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또한 마찬가지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그런데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달된 것은 아니나. 그것은 처음에 사상가들(다시 말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인들)에 의해 계몽되었었다. 봉건국가에서 지방의 영주들이 지니고 있던 힘이, 봉건제도의 붕괴에 따라 약화되자 중앙의 국왕은 모든 권력을 제 손아귀에 넣고 강한 정부를 만들었었다. 이리하여 생겨난 절대주의의 국왕은 휘하에 특권계급을 형성했는데,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에게 깨어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절대주의를 부너뜨리고 봉건주의적 생산관계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고쳐 만든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었다.

이것을 사회주의 학자들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라고 부르고 다시 그 발달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하여 「위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일컬어 왔다. 1848년의 독일과 오오스트리아의 혁명, 1905년의 러시아 혁명, 일본의 왕



정복고 등은 모두다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사회주의 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면 「밑으로부터 혁명」은 어떤 것인가? 사회주의 학자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 근대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거할 때, 직업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도록 된 정치 체제임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직업이나 재산의 실제의 차이가 있게 한 자본주의는 의회제도의 국가에 있어서 크나큰 모순이라고 들고 나선 것이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세력을 형성한 소련의 스탈린을 비롯한 손꼽는 지도자들은,

- ① 권력을 기르는 국가의 부정
- ② 절대 평등
- ③ 소득의 분배
- ④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
- ⑤ 전쟁없는 평화

등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알맞는 목표를 내걸고 민주주의의 재혁명을 실천하였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이 쌓은 역사는 어느틈엔가 그들이 내건 목표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이룩하고 말았다. 즉,

① 반혁명을 방지하는 자위력이 역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층을 형성하였고, 인더내셔널리즘은 어디로 밀려가고 내셔널리즘의 강대한 국가를 만들게 했으며,

②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가 절대군주시대의 국왕과 내지주와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농민의 차이보다도 더 심한 차이를 만들었으며,

③ 소득은 개인소득을 부정하여 권력에 집중되었고, 따라서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자유는 말살되고, 모든 인민의 행동에 제한과 억압이 가해졌으며,

④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수히 학살되었고,

⑤ 칙령으로써 교역이나 시장 개척에 대체하기 위해 가장 무자비한 체

계의 준비를 지니게 되었다.

알맞게도 「밑에서부터의 혁명」은 다시 제 3의 혁명을 이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계 적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이미 존립할 수가 없게 되었다.

현대의 위협은 실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학자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예언이 배반된 것은, 그 유물사관 및 사회경제이론의 일면성에 의한다. 그 이론은 19세기의 역사적 사고 및 정통파 경제학의 이론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첨단을 가는 이론이었으나 오늘날의 학문의 수준으로 보면, 일방적인 형이상학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싫어하는 태도 그 자체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종교적계서로서 받아들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적 압력에 의해 자본주의가 변질해감에 따라 마르크스주의는 박물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상의 말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초래하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압력에 의해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에게 불운했던 것은, 그것이 러시아와 결혼한 것이었고, 이혼하기엔 너무나 나이를 먹었다.』고 빈정대는 학자가 있는데, 쉽사리 이혼을 못할 지경의 공산주의와 러시아이기 때문에, 무슨 광증이 나타날지 모르기도 한 일이다.

## 우리와 민주주의

그것은 그렇다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민주주의로 하여금 진실한 압력이 되도록 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많은 공부와 시련을 스스로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공부라 함은 사상의 체제를 뜻하는 것이며 시련이라 함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어떠한 체제와도 투쟁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정치에 있어서 의회에 대표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한다면 그것은 「다수의 의사」를 좇는다는 말과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다수의 의사라는 것처럼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말도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물에 대한 가치 측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도량형을 지녔다고 가정해야 비로소 다수가 진정한 다수의 구실을 할 수 있겠고, 또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평균해야만, 그 도량형이 고르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어떤 국민학교의 어린이회에서 예산의 잉여 처분에 관하여 의논하였다고 하자.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그 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먹자는데 찬동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많은 찬동자, 즉 다수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우리 민주주의자인 학부모들은 지지할 것인가?

이 때에 소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자. 즉 그 남은 돈은 공동으로 이용할 도서를 사놓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음 예산에 보태자는 것이다.

자연 두 갈래의 의견이 충돌을 일으켰으나 다수가 우세하다. 하지만 이 때에 방청하고 있던 교사가 읊서아버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이스크림은 먹고나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각자가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청하기로 하고, 현재는 매우 빈약한 우리학교 도서실에 책을 사서 함께 즐기는 것이 어떨까?』

의논하는 말 같았으나 그것은 위엄이 있었다. 모두들 교사의 말에 좇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그 교사는 다수의 의사를 무시했다기 보다는 소수의 의사를 거들어주었으며, 다수의 미흡함을 일깨워 주면서 동시에 지도층에 자리잡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생성이 그러했듯이 많은 선각자, 사상가, 지식층에 의해 그때그때 수정되고 계몽되어온 흔적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

우리나라에 뒤떨어진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를 박자면, 첫째 우리의 지식 수준을 높일 것, 둘째 우리를 끌어 올려 주는 지도자를 얻을 것, 그리고 지도자의 진실한 충고를 받아들일 아량을 키워야 할 줄로 안다.

다음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단결의 토대를 쌓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민주생활은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의 앞잡이를 수도에서 불과 몇 마일 안 되는 북쪽에 대치하고 있는 덕택에 그 뱀포를 가속하였다. 38도선이나 6·25 같은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비애를 가져 왔음은 더 할나위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반쪽인 국토에서나마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게 되었다.

상상만해도 불쾌하지만, 우리들의 어린 민주주의가 지리적으로 접경하고 있는 소련과 중공의 세력을 자력만으로 막아낼 수 있었을까? 그 확실한 증거로 민족해방을 맞이하면서부터 그 정치적 혼란과 민중의 괴왕우왕을 들 수 있다. 국토양단이 잘 됐다는 말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다만 우리 체내의 민주주의의 피가 흐르기에는 꽤 상당한 시일과 경험이 필요했었는데, 공산주의는 너무 급히 해방된 조국에 밀려 들었었던 것이다.

근거는 박약하지만, 우리나라의 걸어온 자취 중에서, 모든 뒤틀림이 한결 같이 공산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테면, 미군정산하에서, 그리고 자유당 정권 아래서 판로들이 극도로 부패했던 그 풍조조차도 어떠한 공산주의의 제 5월의 조작이 아니던가, 그런 의심이 든다.

필자가 긴 설화를 제쳐놓고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침략을 막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도 우리의 적의 존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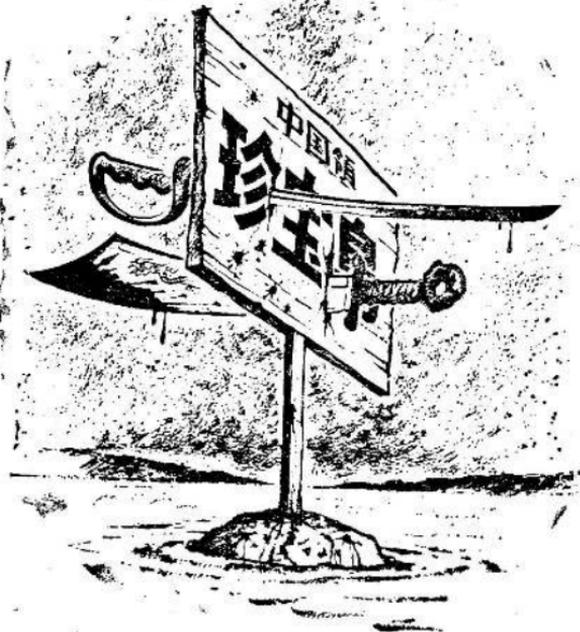
이 말은 현정권이 찬동할 주장이리라. 하지만 인후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우리 복전의 적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있으리라.

따라서 표제인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는 스스로 밝아졌으리라고 믿는 터이다.

중·소 국경 분쟁과

그  
진  
로

문관 · 임 정 혁



<이 표말 뒤에는 러시아어로 「스련령다만스키도」라고 써어져 있다.>

1. 근친적 증오감의 대두

과거 「스탈린」시에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일매암적(Monolithic) 단결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 단결은 지금 하나의 신화로 되고 말았다. 양극화, 다극화로 그 단결은 이미 구심력을 잃고, 분기에 분기를 거듭하고 있다.

공산권의 양거인인 중·소는 서로 사회주의 진영내부의 국가이며 동시에 서로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자의 논쟁과 대립은 더욱 근친적 증오감으로 격화되었으며 또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정이 이 격화에 가

미되어 있다.

중·소분쟁의 직접적인 기점은 1956년의 소련공산당20회대회에 있다고 할수 있다. 이 대회는 「스탈린비판」을 간행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계기가 된 대회이다.

원래 스탈린의 군내부에 대한 계속적인 숙청으로 말미암아 군부는 스탈린지배에 맹종하는 도구로 화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중 많은 군영웅이 백출되고, 러시아인의 애국심, 독일에 대한 증오심, 전승에 의한 군의 위신증대 등이 당의 정치교육 방침과 대치하게 되었으며, 이 위험한 풍조를 없애고 당의 완전지배를 재확립하기 위하여 당과 군의 대립이 생겼다. 그러나 53년 스탈린이 사거하자 당과 군관계에 첫 해빙기가 찾아 왔다. 55년 류코프원수가 국방상이 되자 군부내의 『개인숭배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대전사를 수정하고 비스탈린화의 진행을 촉구하였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20회대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스탈린비판」을 간행하였고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계기가된 대회이다. 즉 국제공산주의운동은 현대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사상적 및 실천적 과제를 추구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창조적 혁신에 의한 자유화 분권화는 결국 그후에 동구제국에서 폴란드폭동(1956년 6월), 헝가리사건(56년10~11월) 그리고 작년 8월의 체코사태를 야기시킨 원인이 되었다. 즉 동구사회주의는 스탈린에 의하여 정식화된 중앙집권적, 관료행정에서 탈피하고, 자유화 분권화의 길을 밟게 되었고 이로써 전체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민중의 열망으로 화하게 만든 것이다.

각설하여 중·소의 대립은 전술한 1956년 이래 잠재적 진행과정을 밟고 왔으나 1959년 가을 중·인국경분쟁에 있어서 소련의 증공비판, 반면에 후루시초프와 아이젠하워의 미·소 회담에 대한 증공비판등 중·소의 대립은 서서히 표면화 되었다.

그후 59년에 소련은 중·소신군사협정을 파기하고, 57년에 이미 체결된 원폭자료 및 『샘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핵전략구상을 대폭적으로 변경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증공측의 소련에 대한 감정대립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윽고 60

년에 소련은 중공에 대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중단하고 전체 소련기술자를 중공에서 철수시켰으며, 1963년 소련대표 스토르프와 중공대표 등소평과의 중·소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양국은 결정적으로 결렬하게 되었다.

63년6월, 중공의 인민일보, 홍기 기타 논문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소련공산당 로선은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주의의 지배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세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부활을 지향하는 로선」이라고 주장하고 소련을 제1의 적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수동적이었던 소련의 언론기관은 중공에 대하여 강력한 응수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른바 「放之四海皆准」(이것을 세계에 방출하여 모든 사람이 부종한다.)이란 절대적인 모택동사상을 내세우는 중공에 대하여 신랄한 반박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분열주의자와 반소주의자들은...소부르조아적 민족주의와 모험주의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교설을 비속화하고 수정하였다.」 「모택동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이론을 “중국화”하기 시작하고 유물론의 기본적 체원칙을 배척하고 주의주의와 주관주의로 대체함과 동시에 중국의 이론가들은 사실상 역사의 유물론적 이해를 악명 높은 『폭력의 이론』과 바꾸어놓았다. 『폭력의이론은 전쟁의 옹호론, 군국주의의 이베울르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역사의 군사적 이해에 따라서 모택동은 유물변증법을 적대세력의 대립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과 대치하고 변증법을 피변으로 만들었다.」 등, 치열한 논쟁을 가하였다.

## 2. 중·소이론 계쟁점

중·소이념의 분기점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옹호의 정의관을 내세우는 중공과 현대 세계의 국제정세에 대응할 새로운 창작적 체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소련간의 두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중·소이념의 계쟁점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인 것이다.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에있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론적 기초로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소련은 전쟁을 회피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기초로 하여 평화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중공은 평화공존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투쟁이라고 보지 않고 있으며, 평화공존의요 그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둘째로는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을 둘러싼, 문제이며 혁명의 평화적 이행, 평화혁명의 과제가 비로소 본격적인 실천과제로서 제기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모택동 사상에서 엿볼 수 있는 폭동혁명관을 특증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사고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째로는 혁명의 형태적인 다양성의 문제이다. 즉 각국의 민족적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에 순응한 형태로 여러가지 양식의 혁명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맹정하게 모택동주의를 관찰해 보진대 여기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정적으로 모순되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모택동이 행한 혁명의 최초의 과정은 극히 비마르크스, 비레닌적이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단행한 10월혁명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모택동의 중국혁명론은 반대로 농촌에서 도시로 파급되었다. 여기에 양자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이론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계급투쟁이며, 소위 그들이 말하는 계급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배출된 빈곤에 허덕이는 공장노동자를 중심한 것이다.

그러나 중공의 모든 공업노동자를 그 추진력이라고 보지 않았고, 혁명은 오로지 농촌 속에서만 그 광범한 기초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공업노동자는 도외시하고 농업혁명부터 착수하였다.

마르크스이론에서 보면,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서구에서 가장 자본주의가 미개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또한 중공혁명은 러시아보다 훨씬 뒤떨어진 사회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공산주의이론의 모순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 3. 문화혁명과 소련의 태도

1966년 봄에 일기 시작한 일련의 정치적, 사상적 사건은 중공자체에서 「프롤레타리아문화대혁명」이라고 모든 외부세계에서 「정풍」이라고 모든 여하간에 중국의 현대 사상사에 큰 전환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써 월남전을 선회축으로 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의 이목은 중공의 문화혁명에 집중하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중공의 프롤레타리아문화혁명은 이른바 반부르조아수정주의부쟁이며 그 원천은 중·소분쟁인 것이다. 후루시초프의 스탈린비판이래 중공은 소련공산당 내부에 독소적인 자본주의가 잠입 발생하여 이로써 혁명적세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모택동과 그를 둘러싼 중공지도자들은 이와같은 경향을 소련지도부의 수정주의라고 인정하고 그 영향이 중공내부에 파급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혁명의 봉화를 올렸다고 본다. 57년2월 모택동은「현정세 하에서는 교조주의에 비교하여 수정주의가 더욱 유해하다. 우리들의 현재의 사상전선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는 언설을 한 바 있다.

이와같이 중공문화혁명은 중·소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소련 언론기관들은 모·임로선의 성격에 대하여,「분열적」「모험적」「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하등의 관계가없는」,「혁명적인사만을 능락하는」과 같은 갖가지 공격적인 형용사를 동원하여 공격하였다. 문화혁명에 대한 소련의 태도가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공산주의 총로선에 관한 제안,을「강령적문서」로 지정한 중공의 제11회중앙위원회총회가 있는 직후인 66년8월20일, 홍위병들이 가두에 쏟아져나가 거리의 이름, 상점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개명하고, 그 여세를 북경의 소련대사관 앞에서 기세를 올렸고, 다음날 20만 명의 홍위병들이 소련대사관 앞에서 「반수로」명명대회를 연 때부터이다.

여기에 대하여 소련은 8월31일 반론성명을 내고, 국제적으로 중공고립화를 위한 활발한 공세를 개시하였다. 이 활동의 일환이 바로 세계공산당회의 개최의 호이던 것이다.

이와같이 문화혁명은 중·소관계의 악순환을 촉진시켰다. 중공은 문화혁명으로 소련인 유학생의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소련은 66년 10월7일 중공 유학생 양성훈련중지를 결정, 10월중에 국외로 퇴거하기를 요구하였다. 이 중공학생들이 귀국전에 「레닌」묘에 참배하고 그 앞에서 모택동어록을 읽게 되자, 소위 「산성한 장소」를 더럽혔다고 격분한 모스크바시민들이 유학생들에게 불매를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소련 군인과 경관이 가담하였다는 것이 중공측을 크게 자극시켰고, 중공 작지에서 대규모적인 반소 데모가 전개되었고, 북경에서는 소련대사관

에 운집한 군중들이 「브르제네프」 「코쉬긴」의 인형에 화형식을 올렸으며, 소련대사관 가족들은 67년2월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소련은 2월3일 모스크바시민들이 중공대사관에 물러와서 보도사진게시판을 철거시키고 원원구타가 있었다. 이렇게 되자 쌍방은 「자제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항의성명으로 응수하고 2월9일, 중·소여권사증면제협정을 파기할 것을 통고, 중공도 즉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문화혁명이 수습단계에 거의 도달하고 구전대회(1969년 4월1일 개최되었음)가 박두되자, 소련은 차차 불안올 가지게 되었다. 소련은 작년8월20일 와르샤와조약기구가맹국중,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등 5개국 군대가 체코에 대하여 전격적 침입을 하자, 체코국민은 물론 세계여론의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또 각국 공산당측(약간의 예외는 제외)으로부터 엄한 비판을 받았다. 「체코의 자유화, 민주화가 지나치면, 그리고 이것을 방임하면 체코내의 발혁명분자가 서방측중 특히 서독의 이용물이 되고, 동구의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제국간에 있어서의 불화의 우호와 협력 및 숭고한 국제적 의무의 원측에서 출발하여 우방체코에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강변하였지만, 세계의 불신감을 면치 못하였다.

이와같이 체코의 국가주권을 전차로 잃어버린 소련도 광대한 영토와 7억이라는 세계 4분지1의 인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군사력과 핵을 보유한 중공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전차로 잃어낼 수는 없었다고 본다.

최근 북경정권이 「카이트」주재 이외의 모든 해외주재대사를 소환한지 2년이 경과된 오늘 다시 40여국에 대사를 파견시킬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소문에 소련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모파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외교공세를 재개할 의도이기 때문이다. 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차는 「모택동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이 국내전선에서 일단 완료되었다고 간주하고 외교를 활발화시키기 시작하였다」(2월1일자)라고 보도하고 「미국내에서 중공정책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불안을 표시하였다.

사실상 중공은 문혁의 초·중기를 통하여 외교 활동을 거의 중단했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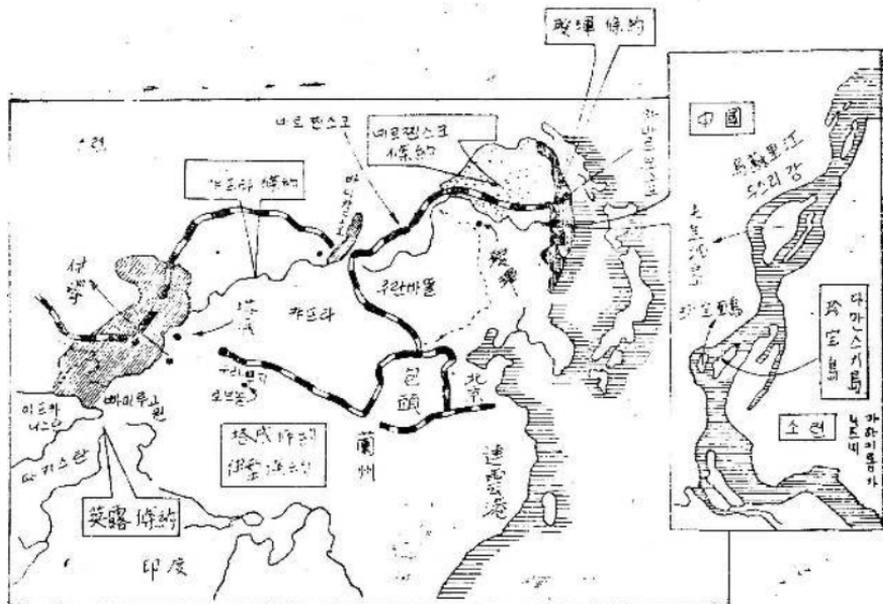
작년11월의 중공측에서 제기된 미중공회담재개는 이 중단된 중공외교의부활을 의

미하며, 중대한 전략적 전환인 것이다.

#### 4. 중동국경 분쟁

진술한 바와 같이 중대화된 중·소관계는 9천킬로라는 세계 최장이라는 국경방면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귀추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분쟁을 역사적으로 보면(약도참조), 1689년, 베르쥬스조약에 의하여 청조의 동부국경을 외흥안령 일군강 끝비지강으로 하였고, 1727년 가프라(恰克圖)조약으로 바이칼호지방과 몽고지방의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하였고, 1858년에 쉘아조약으로 흑룡강(아무르강) 이북의 일부를 러시아에 할양하고, 우수리강(烏蘇里江)이동의 일부를 양국의 공동관립으로 하였고, 1860년 북경조약으로 우수리강(烏蘇里江)이동전역을 러시아에 할양하였고, 1864년 다르바가이(塔城)조약 및 1881년의 이리조약으로 청국의 서부국경(신장지방)외변지대를 러시아에 할양하였으며, 1895년에 영로조약으로 러시아와 영국은 청국영토인 파밀고원을 분할하였다. 여기에서



1969년 3월2일에 발생된 중·소중립지구 위치도

아프가니스탄, 인도 및 칭국의 새 국경을 획정하였다. (단, 칭국은 불참가 그후 중국의 역대정부도 이를 불승인.)

이와같이 청조의 쇠퇴에 따라서 제정러시아는 동진하여 현재와 같은 국경선을 형성하였다.

현재 중·소간의 국경분쟁의 요인은 허다히 있다. 그 하나는 아직 국경선상에 미해결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흑룡강 우수리강에 산재한 섬의 귀속, 중앙아시아사막의 경계선의 소재 등이 그 예가 된다. 여기에 관련되어 쌍방으로부터의 월경사건은 연간 5천건 내외라고 한다. 이와같은 국경분쟁의 요인이 언제든지 과열상태 속에서 폭발한 위험성이 있다. 물론 지난 69년8월2일에 발생한 중·소국경의 무력충돌이 보도되었다.

곳은 영하수십도 빙설의 땅인 소련과 중공국경의 우수리(烏蘇里)강에 있는 다만스키(珍寶)(약도참조)서로 자기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섬에서 양국군이 충돌하여 사상자를 낸 것이다.

이 무력충돌에서 「소련측은 34명, 중공측은 40명의 전사자를 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그것이 정확하거나 근사치이라면, 양군의 교전규모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

이번의 무력충돌은 문화혁명이후 급속히 악화된 이베울르기충돌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국경분쟁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련수정주의자타도」를 당규약에 삽입시켰다고 하는 중공의 반소 『캠페인』 반대로 문화혁명을 「반혁명」이라고 규정한 소련의 반중공 『캠페인』, 이 두 개의 양보할 수 없는 『캠페인』의 회전이 최근에 흑룡강, 연해주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지대에서 쌍방 기동화된 경비망을 착착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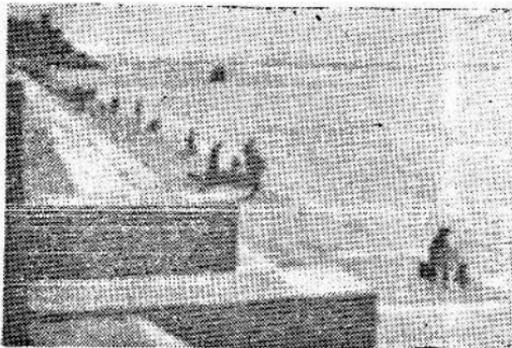
문제는 강화된 포진이 중·소관제악화에 비례하여 충돌의 규모로 『에스킬레이션』하게 된다는 점이다. 유혈사건은 이유는 여하튼 새로운 또 하나의 유혈을 낳을 위험이 중·소양국의 여론 속에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무르(흑룡강) 수계는 만주리 남쪽에 있는 『다라이노브』호에서 나오는 강과 하이라루강의 합류점부근에서 출발하여, 아무르강(흑룡강) 본류, 우수리강(烏蘇里江)을 거쳐 『한가』호 서안에 이르는 긴 거리로써 중·소국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련측은 이 긴 국경지대에 교통망을 부설하고 도시를 세우고 인구를 집중하고 있지만, 중공측은 국경에 교통선이 없고, 인구가 없는 변경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련측은 공격하는데 필요한 군대의 전개가 용이하지만 교통선이 길고 국경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어렵다. 소군이 월경하기는 쉬우나 적의 치명부까지 너무 멀지만, 반면에 중공군은 소련측의 요점에 쉽게 도달한다는 이점이 있다.

원래 다만스키도(珍寶島)부근, 그리고 우수리강(烏蘇里江) 그 자체가 일본 만주점령시대부터의 분쟁지대이었다. 소련측이 지대에는 수전이 많고 러시아연방공화국중 제2위의 곡창지대이다. 특히 남쪽에 우라지보스트크 북쪽에 하바로브스크라는 경제, 군사, 교통의 양거점을 연결하는 이 우수리연안에는 시베리아철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중공측 발표에 의하면 지난 1월5일에도 진보도 바로 북쪽 하원의 칠리비도에서 중국어빈이 조업중 소련측에게 피격된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 다만스키도에서



하바로부스크시의 아무르(흑룡강)강강변

약 2백킬로 하류로 하바로브스크의 흑룡강과 합류하는 지점 사이에는 진보도와 같은 중립도가 허다하다.

1967년 아무르, 우수리(黑龍江, 烏蘇里江)항행에 관한 중·소회담이 결렬되었으며, 이는 항로와 중지도들의 귀속등 미조정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양국간의

관계가 긴장되면 분쟁의 불꽃이 된다고 본다.

이 의미에서 아무르강(黑龍江)의 합류점 하바로브스크는 금후 분쟁이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다. 하바로브스크는 극동최대의 도시(인구 40만...60년현재)이며, 싸할린(樺太), 오후쯔스크해, 캄자트카, 어느 곳이든 연결하는 문자그대로 극동시베리아의 중추신경인 것이다.

한편 몽고국경부근의 알군강, 흑룡강 각 수계는 양국에 대하여 수력발전의 보고이

며, 56년이래 중·소핵통감합동조사가 행하여졌으나 60년경에 중단되었다. 이 수리 조사의 면에서도 금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국경의 긴장은 병력장비 집결을 유인하며, 또 이 집결은 국경의 긴장을 높이며, 이것으로 긴장의 상승곡선은 급각도로 첨세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중·소국경의 긴장도 이 예외가 아니다.

소련이 중·소국경의 경비를 엄중히 하기 시작한것은 1962년초이었다. 우선 연해주 지방주둔 소련군은 전개정면을 동방에서 남방으로 변경시켰다. 여기에 대하여 중공도 같은 시기에 모단강지구에 1~2개군을 급파하여 국경일부에 배치시켰다. 한편 중앙아시아방면에서 소련은 새롭게 중공아시아국경관구를 증설하고, 국경경비대의 수를 증가시켰다. 여기에 대하여 중공측은 새롭게 생산건설사단을 설치하고 대항하였다.

그후 66년 5~6월부터 소련군의 대중공전술에 약간의 변동이 시인되었다. 즉 지금껏 국경경비라는 방어적 성격이었던 것을 탈피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진공작전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준비에 이행하였다는 징후를 나타냈던 것이다.

66년6월 서독신문은 「동독주둔 소련군 5개사단 동송됨」라고 보도하였고 동년 7월 중공의 진의의상은 「소련은 재구병력을 감축하고 이를 중국국경일대에 전개시켰다」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소련은 12월의 당중앙위총회에서 「모일파의 대국적 반소정책은 위험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브르즈네프당서기장이 단언하자 군을 대표하여 일어서신 그레치코원수(제일국방차관)은 강력히 이것을 저지하면서 찬성설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중공에 대한 소련군비가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련국방성기관지 『끄라스나야·즈베즈다』(적성)은 66년 9월9일, 14일, 16일 3회에 걸쳐서 「전략로켓기지방문기」를 게재하였으며, 여기에 바이칼호서방의 부록 크지구의 기지사진을 실었다.

지금껏 소련은 전략로켓기지 위치를 감추어 왔으나 이 방문기에서 처음으로 사진까지 제시하고 그 소재위치까지 발표하였다는 것은 예외적이며, 따라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로켓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 사진에서 판정하건대, 이 기지에 배치된 로켓

는 『산달·씨리즈』 최신형 중거리탄도탄, IRBM 라고 한다. 이 IRBM의 성능은

사정 2,500~3,000킬로

연료...액체연료

특징...미익이 없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전문가의 관점이 옳다면 이 기지에 배치된 전략로케트는 미국은 물론 일본 동경에도 도달 못하며 반면에 증공에 대해서는 북경(약 2,000킬로)은 물론 중경(약 2,700킬로), 남경, 상해도 사정거리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전략로케트기지는 증공을 대상으로 설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대증공시위라고 생각된다.

한편 66년 11월 23일의 「적성」지에 의하면 『자바이칼』군관구사령관으로 새로 『백·베리그』대장이 임명되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 선임 사령관은 지금껏 주독소련군총사령관제1대리로서 동백림에서 있었던 11월 7일의 혁명기념열병식에 참가한 바 있다. 따라서 『자바이칼』취임은 11월 증순이라고 추측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독소련군은 소련군중에서도 최선예부대라고 하며, 전소련군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부대인 것이다. 따라서 그 총사령관제1대리라고 하면, 군내 유수의 능력있는 장군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사실상 『베리그』대장은 전군운동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전차운동으로 제2차대전에 대공을 세워서 「소련방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은바 있다.

한편 『자바이칼』군관구는 몽고공화국 및 만주 서북부와 접경하고 있으며, 대증공 전쟁을 예상할 때, 소련군의 주공정면이 될 지역이다. 이것은 제2차대전의 말기 소련이 만주 관동군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을 때 이 방면을 주공정면으로 선정한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또 주목되는 사실은 66년 7월 28일, 29일의 「적성」지는 몽고수도 『우랄바들』의 대홍수 때, 구원을 위하여 긴급출동한 소련군부대의 공적에 대하여 상술한 기사를 실은 일이다. 특히 66년 1월 『부르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 직접 몽고를 방문하 체 텐바르』 몽고수상과의 사이에 우호동맹조약을 갱신, 조인한 이때 이 문제는 더욱『클로즈업』되었다.

이 동맹조약의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양국은 사회주의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쌍방의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원조한다. 양국의 안전, 독립, 영토의 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이 조항을 보아도 공고는 소련군부대의 진주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적성지」의 기사는 거의 공식적이며, 이로써 대중공전을 예상할 경우, 소련군의 북경에로의 진출행정은 반감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외교전」으로 시종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문제는 그나라의 민족주의의 근원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단지 외교전이나 이데올로기문제로서만 처리될 수 없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5. 사태 추후 전망

진보도의 무력충돌사건은 전 세계에 큰 파동을 던졌지만, 그러나 분쟁확대의 위험성이 적다는 것이 중·소문제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것은 중공은 문화혁명의 총결산인 중국공산당 제 9회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었고, 또 현재 국내질서회복에 주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적분쟁을 회피하고자 하며 한편 소련도 체코문제가 완전히 수습되어 있지 않고, 또 세계당회의의 예비회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무력행동을 확대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소양국의 국경에서의 무력분쟁이 그이상 『에스컬레이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보장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을 중·소양국이 다만 「정치적사건」으로 이용하는에 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첫째 양국군이 서로 「자국령에 대한 침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금후에 있어서 「도발행동에 대하여 단호한 반격을 가한다」라는 경고를 낸 점이고, 둘째는 사건을 전한 북경방송이 「소련국경부대는 67년 1월23일부터 지난 3월2일까지 2년여에 걸쳐서 결빙기에 진보도지구에 16회 침입했다」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셋째로서는 이번 사건발생에 있어서 양국이 파거와 달리 사상자를 낸 것을 즉각 확인한 일이다. 즉 쌍방의 자세에서 위험회피에 대한 노력이 전연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험악한 긴장상태만을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국의 국토는 서로 광대하다. 어느쪽이든 상대방의 영토에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주요거점을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련이 체코에 대하여 전격 작전을 행하고 순식간에 체코전토를 제압한 것도, 체코의 국토가 좁았기 때문이다. 중공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런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 소련이 중공에 대하여 아무리 중오의 감정을 불태운다 한지라도 자기 국민을 본격적인 대중공전쟁으로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중공으로서도 가령 시베리아에 파병한다 치더라도 소련에 대하여 대과격을 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첫째 문화혁명으로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대규모적인 대외작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공군은 국내의 혼란을 체지하는데 주력을 두어야 하며, 밖으로 향하여 싸움을 걸 정도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외적에 대비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지리적인 광대함과 쌍방의 국내정세로 하여 본격적인 작전은 생각할 수 없다. 국경지대에서 서로 맞서서 소규모전투가 속발하는데 그칠 것이다.

그러나 진보도사건과 같은 교전에서 전사자를 냈다하면 중·소양국은 국경경비 강화가 최우선 정책이 될 것이다.

소련은 중공의 인구가 더욱 팽창하면 시베리아에 큰 압력이 온다고 보고 있다. 지금 소련의 군사력이 우세하지만 우세의 차는 축소될지 모른다. 한편 중공은 소련이 중공내부의 혼란에 틈타서 중·소국경지대 주민의 불평을 선동하여 북경정권에서 이탈시키려고 하지 않을까고 경계하게 될 것이다.

원래 중국의 변경문제는 소수민족문제와 동의어이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한민족 이외에 소수민족이 50여가 있다. 한민족은 전 인구의 약 93%이며, 소수민족은 약 7%, 3천5백만에 지나지 않지만, 그들의 거주지는 내몽고, 신강 우이그루, 녜하회족 지베트, 광서지원족을 비롯하여 흑룡강, 운남, 간쑤 등 인접 각성에 분포되어 전중국의 60%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소수민족은 수천년의 중화사상의 한민족에게는 민족이며, 적대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공의 국경과 소수민족의 공통점은 국경선 양측에 동족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국경지대에서는 첫째 소련측은 언방공화국제를 채택하고 몽고는 독립국형식을 가졌지만, 중국측은 자치구제를 채택하고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 둘째 중공측의 소수민족이 소련측 동쪽보다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련의 선동과 파괴동작에 보조를 맞출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점이 중공은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쓸 것이다. 또한 현재 중·소쌍방의 지도에서 380평방킬로미터의 차위가 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문제 등에 날카로운 대립을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소련은 2정면작전을 주저하여 왔다. 중공과의 대립이 유혈사건으로 대립한 이상, 타방면에서 화해의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련은 체코사태에도 불구하고 서방제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징후는 최근의 소련 간행물에서 엿볼 수 있다. 닉슨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고쉬킨과 보도골누이 축명의 메시지, 그리고 소련국제문제전문지 『노보예·부레미야』(新時代)에 게재된 사설(1월24일)은 이데올로기를 도외시하고 지금까지의 대미 정책과는 달리 닉슨대통령에게 구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세계의 선두에 선 미국과 공산주의세계의 선두에 선 소련과의 「상호이해와 합리적인 협력」만이 세계평화를 유지강화할 수 있다는 『신시대』지의 의도는 평화보다도 중공의 잠재적인 팽창위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미·소·중의 3각관계에 있어서 소련과 중공간의 관계악화는 소련의 대미 접근으로 기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 최근의 중·소국경 분쟁 관련사항

1963년 3월 : 인민일보, 강요된 불평등조약으로서의 북경 아편조약 열거.

1963년 9월 : 인민일보 및 홍기. 소련이 신강『이리』지구에서 파괴활동을 행하고, 수만인을 소련령으로 도망게 하였다고 비난.

소련정부성명. 아무르강[黑龍江], 우수리江[烏蘇里江], 합류점의 다르바루스키도에 대한 중공측의 침범을 비난. 62년도중에 5,000소련령 침범을 발표

1963년 11월 : 소련, 중공에게 현존국경을 존중할 것임을 언명.

- 1964년 2월 : 중공, 소련에게 서함으로 중·소문제로 상호협의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현상유지라고 회답.
- 1964년 7월 : 모택동, 방중 일본 사회당의원단에 『바이칼』이동지역을 미결착이라고 말함.
- 1964년 9월 : 후루시초프수상, 소련령토는 제정러시아의 유물이지만, 중국도 다수민족국가로서 제정러시아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반론
- 1966년 4월 : 중공, 국경하천선박관리조령 공포.
- 1966년 5월~6월 : 부르즈네프서기장, 토포골누이의장, 국경경비강화를 호소.
- 1967년 2월 : 신강지방국경에서 중·소양군 충돌, 소련항공기 참가하여 격퇴(소련측자료). 섭국방위부주석, 중·소국경에서 소련의 도발격화라고 담화.
- 1968년 2월 : 소련, 중공에 각서. (가) 제14회 아무루(黑龍)강 수역항행에 관한 중·소혼합위(67.7.11.)가 결렬한 것은 중공이 국경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며, (나) 소련은 64.9. 국경선 명확화의 협의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발표.
- 1968년 9월 : 중공, 소련군용기의 명공침범에 항의. 주은래, 소련이 중·소국경에 대부대를 집결하였다고 비난.
- 1969년 3월 : 다만스키도(珍寶島)에서 2회의 무력충돌 발생.  
 중공의교부신분국공표, (가) 중·소국경교섭이 64년에 행하여졌으나, 소련은 중공에게 새로운 불명등조약을 강요하려고 하였음, (나) 67년 이래 소련군은 진보도에 16회 침범.  
 북경방송. 소련은 신강빠미루교원의 중·소국경에서도 수차 파괴도발행동을 감행, 중공은 이를 반격하였다고 방송.  
 모스크바방송. 중공은 군대, 전차, 대포를 소련국경에 속속 수송중이라고 보도.  
 소련각저. 몽고군은 임진태세에 돌입, 중·소동부국경의 핵미사일부대도 24시간 경계체제에 돌입함을 보도.

# 〈반공수기〉

암●

후●

을

●뚫

●고

①

이

상

육

△시사통신상부이사▽

## 머리말

이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공군에 제친 독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만 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제부터 엮어 나갈 나의 수기(手記)가 나의 필력(筆力)이나 문장력(文章力)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한 때나마 공산당 놈들과 싸우다가 살아 났다는 용감성(勇敢性)을 자랑하려는 것도 결코 아님을 말해 두고 싶다.

물론 온 겨레와 함께 맞이한 8·15 해

○... 이 글은 필자 이상옥씨가...○  
○...해방되던 그날부터 6·25...○  
○...전란 후 국군이 북진(北進)...○  
○...할 때까지의 북녘 한경북...○  
○...도 길주(威鏡北道吉州)에...○  
○...서 온갖 고통과 역경(逆境)...○  
○...을 참아가면서 싸워나간 반...○  
○...공실기이다. ...○

○... 「해방의 은인」으로 믿었던...○  
○...소련군의 약탈과 만행을 보...○  
○...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한경북도 내의 학원...○  
○...과 도시 농촌의 의혈(義血)...○  
○...청년들을 모아 「고려학생...○  
○...동맹(高麗學生同盟)」을 조...○  
○...직하여 조직적인 항거의 최...○  
○...일선에서 싸우다 공산당들...○  
○...에게 피체, 국군의 북진을...○  
○...체기로 탈옥했다. ...○

○... 필자는 5·16혁명 이후 당...○  
○...시의 반공투쟁이 높이 찬양...○  
○...되어 정부로부터 「반공포상...○  
○... (反共褒賞)」을 받은바이다...○  
○...이에 그가 보고 듣고 느낀...○  
○...8·15 직후의 소련군정에서...○  
○...날뛰던 북괴의 공산당과 싸...○  
○...우던 체험을 여기에 소개...○  
○...하는 바 우리의 정신무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편집자 주〉

방이요, 다 같이 겪은 6·25의 쓰라림이 있으나 남과 북이 어찌 그다지도 상황이 판이했는가 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약소(弱少)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탈을 쓰고 북한진주한 늑대 소련군의 잔악무도한 행실을 이에 폭로하며 또한 그들이 오늘의 김일성(金日成)도당을 애국저도자로 등장시키기까지의 기만정책을 그대로 소개하려 한다.

그리고 나의 항거운동과 내가 겪은 공

산당 감옥생활, 그리고 인간노예의 강제 노동장(強制勞動場)의 체험을 낱알이 폭로하여 반공전선(反共戰線)에서 주야 분투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전부이다.

### 8·15 민족해방 소련군의 북한진주

1945년 8월 8일이었다.

세계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말에 가까와지자 소련은 재빨리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내리고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청진(咸鏡北道清津)에 있었다.

일제(日帝)에 끌려 시내 어항(漁港)에 자리잡고 있던 일철(日本製鐵株式會社)에서 소위 근로봉사(勤勞奉仕)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2시경 소련전투기 몇대의 공습을 받았다.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했다…소련이…』

그렇지 않아도 밤 낮을 가리지 않던 미국 B-29폭격기에 시달려 피로 지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공포(恐怖)가 감돌았다.

(새끼들 이제 전쟁이 거진 끝났잖아 니 탈려드논군 그대. 일본이 「오끼나와」를 빼앗기고 본토가 속밭이 되어 손을 들게 되자 딴비다니…).

아니나 나를까 그들은 함경북도의 청진, 나진(羅津), 경흥(慶興), 웅기(雄基)지방으로 진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날이 바로 12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소련군들은 소위 「위대한 해방의 은인(恩人)」을 자처하는 북한 땅에 발을 들여 놓기 시작했다.

24일에는 평양(平壤)으로 8월말까지에는 북한 전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때 나는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밀려남으로 가는 소련군들이 과연 어딘저 진격하는 지를 알 수 없었다.

교통 통신망의 두절은 물론이요 전기(電氣)마저 정전(停戰)이 되어 「라디오」마저 들을 수 없었다.

그 중에 나는 청진을 탈출, 내 고향인 길주(吉州)까지 내려왔다.

그들은 팔에다 붉은 형질을 달던 지지자나 동조자로 생각하고 통행을 허가했다.

당시 피난민의 대열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술한 일본 사람들은 대오(隊伍)를 지어 남하(南下)하고 있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뒤늦게 안 일이지만

□

당시 소련군은 개성(開城), 춘천(春川), 고성(高城) 등지를 거쳐 38선을 넘을 기세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연합군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에,

「38선 분할 협조」라는 취지에 조인(調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합군사령부의 「일반명령」 제1호가 그때까지 연합군간에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임의로 이렇게 북한 땅에 진주할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연합군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는 1945년 9월 2일에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련군은 이에 앞서 38선까지 진주하므로 이 땅의 분할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던 것이다.

원래 이 명령 제1호는 38선 분할조항은 한국 국토의 항구적인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임시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이 조치를 악용하여 연합군간의 약정(約定)을 무시하고 38선을 가로막고 서서 북한지역을 공산기지(共產基地)로 만들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

해방의 환희는 불과 10일  
강도배를 만세로 맞아

8월 15일... 일제의 쇄사슬이 36년만에 풀리던 날이었다.

너도 나도 그저 해방이 되고 나라가 독립된다니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일본 사람들이 쫓겨가고 우리 민족끼리 나라를 만들고 산다니 조금한 심정은 물자는 넉넉하고 사람은 직이니 당장 풍부하게 살 것만 같았다.

『위대한 붉은 군대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며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리에는,

『우리의 해방의 은인 붉은군대만세!』

『프롤레타리아의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라고 하는 따위의 표어와 「플레카아드」가 곳곳에 붙어 있는게 아닌가.

해방된 길주... 비록 좁은 고을이기는 하나 사람들은 3·3, 5·5로 모여서 중앙(서울) 소식에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해외 나갔던 이승만(李承晩)박사가, 아니 망명한 임정(臨政) 요원들이 김구(金九)선생을 선두에 세우고 곧 귀국한다느니...하는 소문이 자자했다.

또 서울에서는 이미 이승만박사를 주석(主席)으로 하는 우리 정부가 섰다느니 말은 꼬리를 물고 멋대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리가 없었다.

어쨌든 이 땅이 북단 함경북도에서도 건국(建國)에 대한 소식에 무척 궁금해했다.

이러할 때 평양에서는 조만식(曹晩植) 선생을 중심으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平南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때 길주에서도 항일투사(抗日鬪士) 황대성(黃)××=死亡), 이용국(李×× 越南=현 길주 명예군수), 이춘식(李×× =牧事=越南) 등 여러 인사가 모여 지방자치에 골몰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이효순(李××=얼마 전까지 북괴피남공작 총책임자), 김을규(金×× =북괴군 장성) 등이 설치 고을을 붉은 불로 불들이며 난뛰고 있었다.

전자는 민족진영에 서서 고향을 재건 하겠다는 것이요 후자는 소련의 공산세력을 입고 고향을 짓밟으려는 것이었다.

마치 우후죽순(雨後竹筍) 처럼 모두가 항일투사요 모두가 애국자를 자처하고

나오는 판이었다.

절도 강도로 복역하던 놈도 출옥해서 는 항일투사의 간판을 내거는 판국이였다.

혼란기... 모두가 애국자요, 모두가 투사요, 모두가 이날의 해방을 기다렸고 이 나라의 독립을 갈망했던 사람들 뿐이었다.

이때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중앙의 소식이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방의 은인(?)으로 환희의 만세로 맞아들인 소위 붉은 군대는 진주하는 그날부터 공산주의자들을 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일본놈이 물러가고 다시 소련놈이 들어오는거야... 그렇다면 무엇이 해방이고 또 무슨 독립이란 말인가... 36년 동안 일제에 기대고 이제부터는 소련에 기대야 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혼자 생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정치가 뭐고, 해방이 뭘지? 아니 독립이 뭘지 모르는 나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다.

자치(自治)의 낙원(樂園) 그것은 불과 10일. 혼란기는 차츰 붉은 총검 앞에 정돈되기 시작했다.

약탈·강간 일삼는 붉은군대  
「해방의 은인」에 회의느껴

소련군이 길주에 진주한 것은 8월 17일이었다.

나남(羅南=日本陸軍 19師團 駐屯)을 거점으로 소련국경을 지켜 오던 일본군대는 나진, 웅기, 경흥, 청진 등에서 소련군의 진격을 막지 못하자 무산(茂山), 연사(延社), 백암(白岩) 등지의 고원지대에 쫓겨간 것이다.

15일 「히로히토」 일본천황의 항복을 안 그들은 길혜선(吉惠線)을 따라 길주에 걸걸, 정식 항복한 것이었다.

한편 평양에 진주한 소련군은 8월 25일 정식으로 「북조선 주둔 소련사령부」를 설치했던 것이다.

사령관엔 소련 제 25 군사령관 「치스차코브」대장이었다.

당시 북한 땅에 진주한 소련군의 총수는 자그마치 20만 내지 3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미 항복한 일본군 무장해제에 이처럼 많은 병력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식자(識者)들 간의 평이기도 했지만 그저 『이 땅을 해방시켜 준 군대』라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들을 환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한 사명을 띄고 또 분에 넘치는 환영과 만세의 환호성에 젖었고 붉은 군대를 맞이한 북한 사람들은 그들의 만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진주하는 그날부터 살인, 폭행, 강간, 강도, 약탈, 무전취식(無錢取食)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들의 행동엔 환영에 앞장 섰던 당시 공산주의자들마저 실망케 했다.

더우기 들려오는 소리에,

『소련군들이 어젯밤 팔프공장(길주 소재)의 기계를 모조리 들어 갔대요.

뿐만 아니라 정진 「일철」이나 「미쓰비시」 제철의 기계도 다 뜯어 갔다는데 필…….』

주민들의 입을 오르내리는 말이었다. 또 그러한 소문대로 주요공장의 시설과 노적(露積)했던 양곡, 목재(木材)는 거의 매일같이 북송(北送) 차량에 실리고 있었다.

한심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었다.

뿐인가 시계를 찬 사람만 보면 그것을 빼앗고 전리품(戰利品)인 일본군 모포(毛布) 10여장을 주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주는 모포라도 받아 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나쁜스끼 (일본사람)」  
라고 헐박하여 도로 빼앗곤하는 것이  
아닌가.

무식한 그들은 시계라면 움직이든 고  
장이 났건 간에 마구 찢었다.

또 그들은 시계는 맘이 차는게 자랑인  
줄 알고 한 팔에 10 여개씩 차고 자랑삼  
아 거리를 다니기가 일쑤였다.

한편 어떤 놈들은 2, 3명씩 작당하여  
민가(民家)를 습격, 유부녀고 처녀고  
간에 마구 강간하는 판에 한 때 여자들  
은 거리에 나서질 못했다.

인면수심(人面獸心), 바로 그러한 인  
간행들이 바로 붉은 군대였다.

이와 같은 만행이 소련의 군 최고사령  
관인 「스탈린」에 의하여 찬양받는 공인  
(公認)된 행위였으니 탄심할 일이라 아  
니할 수 없다.

또 이것을 모르고 이 땅을 해방시키  
준 위대한 은인이라고 환영했으니 그  
환멸은 너무나 빨랐다.

되돌아 생각해 본다면 북한 동포는 강  
도세를 만세로 맞아들인 것밖에 되질 않  
는다.

여기서 식자들은 그들에게 증오와 저  
주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또 철면피(鐵面  
皮)인 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 붉은 군대 앞잡이들 감언이설로 국민속여

소련군대는 북한에 진주하면서부터  
「비라」를 뿌리고 「마이크」 차를 동원했  
다.

『붉은군대는 소비에트 적인 질서를 회  
복하거나 조선지역을 얻으려는 목적  
이 없다. 오직 일제의 죄사슴에 묶여  
신음하던 조선동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진주한 것이다.』

라고 요란스럽게 선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연막전술(煙幕  
戰術)에 지나지 않았다.

그 실증으로는 「스탈린」의 전쟁관(戰  
爭觀)을 들 수 있다.

『…이 전쟁은 과거의 것과 같이 앞습  
니다. 영토를 점령하는 자는 누구나 자  
기 자신의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방법입  
니다. 누구든지 그 군대가 할 수 있는  
한 그 자신의 제도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전쟁관」은 「스탈린」이 제 2차 세  
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유고」공산당  
사절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유고」부  
통령 「밀로반·질라스」와의 대화에서 나  
온 이야기이다.)

물론 「스탈린」은 북한 땅을 점령지역으로 타산했다.

그들이 말하는 「해방지역」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북한 땅을 단순한 해방으로 그 은인이 되려면 자기들의 사회제도를 구축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이크」나 「비라」의 선전과는 달리 진주 즉시 그들을 맹종(盲從)하는 공산분자를 앞세우고 군청(郡廳)을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로, 경찰서를 공안대(公安隊)로 개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 양(羊)가죽을 쓴 개(狗)지달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고향 길주에도 소위 「인민위원회」와 「공안대」가 생겨났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놈들인지 몰라도 일자무식(一字無識)의 주구(走狗)들이 앞장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군민의 살림을 맡아 본다는 것이었다.

쌍말로 해서 소학교는 물론이요, 우리 글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위인들의 집단이었다.

한글은 몰라도 말(言語)만은 청산유수였다.

군중 앞에 서서 떠드는 것을 보면 대

단한 식자 같으나 실에는 무식하기 그지 없었다.

모름지기 인간이 글을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면 당시 북한에서 난뛰던 공산분자들은 모두 병어리입에 틀림없었으리라.

무식할수록 저능적이고 맹종하는 법이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모르는 해방이 되었다니 그저 살판이 난 줄만 아는 그들이었다.

9월중순, 문 단았던 학교도 차츰 개혁이 됐다.

중학교에는 벌써부터 공산「프락치」가 들어와 있었다.

순진한 학생들을 계보(系譜)를 따라 꼬여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학원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공산당에 물든 학생과 공산당을 배척하는 학생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위 성분이 좋다는 빈농(貧農)과 노동자의 자제와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다는 중농(中農) 이상의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제정 때 관리 또는 소시민(小市民)의 자제로 자라 온 학생들로 자연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자유」와 「해방」을 문자 그대로 누리려는 학생과 새로운 물결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두 파의 갈등은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애초에는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 까닭이 없었다.

새로운 공산세력을 입고 판을 치니 그에 발발해 나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에서보다도 학원이 더욱 뚜렷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관공서에는 이미 공산분자들이 점령하다시피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일제 때 일하던 사람은 자연히 물러났으니깐.

### 마구 쏟아지는 붉은 지폐 소 군정의 경제적 탄압

소련군은 해방 당초 진주하면서부터은 북한 땅에서 경제적 약탈을 마음대로 일삼았다.

그러나 그러한 약탈을 북한 사람들은 보고만 있지 않았다.

강도 「도둑」놈으로 몰게 되자 약탈하는 물품을 전리품으로 합리화하려 했다.

그 방법으로 그들은 군표(軍票) 즉 붉은 지폐(紙幣)를 발행하여 명목으로는 가지고 가는 물건 값을 지불하는 형식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그 「붉은 지폐」는 액면(額面)의 모든

것을 한글로 기표했을 뿐만 아니라 부근 땅 이외에서는 쓸 수도 없었다.

당시 그들은 「조선은행권」이나 「일본은행권」과 병용(併用)했지만 그 액면이나 위세는 「붉은 지폐」가 대단했다.

이 「붉은 지폐」의 사용은 1945년 9월부터였으며 그 발행을 사전에 안 사람은 군정(軍政) 간부 이외 사람은 그 누구도 몰랐다.

아니 또 그 화폐의 발행계획이나 발행 후에서 발행고조차 알 수 없으리만큼 마구 남발했던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소련군정을 압력할 단체조차 없었거니와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발행되는 파에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리 만무했다.

모조지(模造紙)가 있는 대로 마구 찍어낸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연히 부작용이 생겼다. 군표의 범람과 함께 물가가 급등하였다.

모든 주민들이 모두 당황은 했지만 특히 공포에 질린 것은 상인들이었다.

돈이 흔해지는 줄 모르고 팔아 찢히고 보니 폐가할 지경이었다.

이리하여 일부 상인들은 이의 사용을 거부했다.

『군표로서는 물건을 안 판다.』  
라는 사상이 상인들 사이에 스며들었다.

이것은 평양을 위시한 북한 전역이 같은 경향이었다.

이에 당황한 소련군정은 소위 「인민정치위원회」 재정부장을 시켜 「붉은 군표」 사용의 타당성을 방증케 했다.

막칠내는 각 지역 보안대(保安隊=경찰=公安隊의 후신)를 시켜,

『차후 군표의 사용을 거부하는 자는 연벌에 처한다.』

라는 포고문(布告文)까지 거리에 내붙였다.

이러한 기만적인 수법으로 북한 땅의 모든 물건을 약취해 간 소련은 1947년 7월 12일 기하여 소위 「화폐개혁」을 단행케 하고 무제한으로 뿌려 놓은 군표를,

『새 돈으로 갈아준다.』

라고 속이고 이를 모조리 회수(1인당 5백원씩 교환)하여 모조리 소각시켜 버렸던 것이다.

당시 발행한 군표는 자그마치 1백억 원이 넘었다고 들었다.

발행당시 그들은 발행고만큼 지금(地金)으로 상환한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이와 같은 소련군정의 행패와 그 전위대 공산당원들의 매국행위에 분격할 수 많은 동포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속속 38선을 넘어 남한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 난데 없는 애국지도자들 소련군무력 아래 지방구축

해방 후 북한에서 날뛴 공산주의자 가운데는 사이비(似而非) 공산주의자가 많았다.

지하에 숨어 있던 자, 간옥에 바르 나온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제의 대화숙(大和塾=思想保護觀察所)의 동창생이 아니면 공산주의의 「共」자도 모르는 자들이었다.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려니와 공산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나선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균용할 거식으로 소위 「조선공산당」이 평양에 생기는 것도 반대했다.

왜냐 하면 소련군사령부가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평양의 북한의 중심지로 당의 중앙이 된다는 것은 변경(邊境) 함경북도에 있는 그들로서 도저히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군(郡)에서 활개치든가 도(道)에서 움직일 따름이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평양에 간들 그를 알아줄지 만무했다.

안다면 고을 사람들이,

『음 그 사람은 일제 때 공산당운동을 했지... 그 독보회사건(讀報會事件)으로 집을 나간 사람이야...』

『그동안 무엇을 했지?』

『글쎄...어디가 있다 왔는지 모를 일이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지방당(地方黨) 간부의 자리라도 따는 것을 상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훔으며 일자리 없이 방황하면 그들에게는 군(郡)에서 일하는 것도 대단한 것으로 느꼈다.

면서기(面書記)도 부럽던 그들에게 확실히 별이 쏘이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그들은 1945년 9월 11일, 서울에 「조선공산당」이 정식으로 재건되었다는 소식은 더욱 그들을 고무시켰던 것이다.

원래 공산당운동이란 지하에서나 하고 무식한 농민의 집단인줄 알았던 그들은 평양에도 아니 서울에도 공산당이 생겼다니 날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소련공산당원이요 공산당의 정치

훈련을 각듯이 받아 온 김일성을 비롯한 김책(金策=在民), 최용건, 최현(崔賢) 등이 평양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싹 퍼졌다.

그렇지 않아도 김일성이란 이름 석자는 어린시절부터 들어왔던 참이었다.

『아니 김일성장군이 평양에 왔대요.』

김일성장군이...』

『그래 항일투사였던 김일성장군이?』

『그렇대요.』

『그렇다면 적어도 60은 넘었을텐데? 몇 살이라지?』

『아니요. 설흔 몇 이라나요...』

『설흔 몇? 아니야 우리가 김일성장군 얘기를 들은 것이 20여년전 일인데 겨우 설흔 몇 밖에 안 되다니?』

모든 사람들의 의혹에 잠겼다.

그렇지 않아도 함경북도 사람들은 「김일성」이란 이름 석자는 어느 지방 사람보다 많이 듣고 있었다.

그것은 소·만(滿洲)의 새 국경을 지키고 있는 함경북도 사람들은 항일투쟁에 대한 방명객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우리들은 평양에 왔다는 김일성의 본명이 김성주(金成柱)인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겠지 그 김일성이 오늘 날까지

살아 있을리 없는데... 그럼 그렇겠지  
...김성주.』

그러나 그 김일성이 북한 땅에 언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  
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까지도 그것만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수수께끼의 사나이 김일성이 북한  
땅에 발을 붙인 것은 1945년 8월 말  
에서 9월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소련군 소좌(少佐=少領)  
였기 때문에 평양에 소련군 진주와 함께  
들어왔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이렇게 하여 평양에 잠입(潛入)한 그  
는 김영환(金英煥)이라는 또 하나의 가  
명으로 군복과 사복을 번갈아 입어가면  
서 공산당의 「해계모니」를 강점하는 이  
면공작(裏面工作)을 하다가 10월 10일  
비로소 공산당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  
이다.

그날부터 그는 본명도 또 하나의 가명  
도 다 갖추고 「김일성 장군」으로 등장하  
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그가 분명히 조국광복 운동의 선  
구자인 진짜 김일성장군이라면 겨레의  
열광적인 환영 여부는 고사하고도 그저  
몇 소련군들의 틈에 끼어 군복을 걸치고  
몰래 들어올리 만무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술한 지도자들이 해외  
에 망명했다가 그 당시 귀국하는 그 늑름  
한 모습을 숏해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그렇지 않다.

결국 그는 소련군과 함께 들어와 소련  
군사령관 「치스차코브」대장의 비호 아래  
김일성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등장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항일운동을 한 김일성장  
군하면 북한동포들의 선망(羨望)하고 있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꾸  
며진 수작이었다.

### 내가 들은 평양소식 그제서야 공산주의를

소련군의 품에 안겨 북한 땅에 들어온  
그들은 소련군사령부의 직속 정치공작원  
으로서 「소련 공산당」 지명하에 움직일  
소위 「조선공산당」을 만들 바에야 그 중  
앙이 소련군 점령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는 야망을 실현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기미를 안 함경도의 공산주의  
자들도 당시는 이의 창립을 반대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평양은 소련에서 잠입한 공  
산주의자들이 관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국내파(國內派)는 그에 동조하

진 거렸다.

고생은 국내에서 죽도록 했는데 소련에서 필하다 왔는지 모를 삼십대의 김일성에게 「혜계모니」를 빼앗긴다는 것은 당시 뜻있는 항일투사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김일성 일당의 암적존재도 실력으로는나 이론적으로나 월등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었다.

특히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현준혁(玄俊赫)은 조만식 선생과 잘 협조해 나갔다고 했다.

이러한 국내파의 급격한 공산화정책을 반대하고 나서으로써 김일성을 무색케 했다.

김일성을 두목으로 「조선공산당」을 세우려는 소련의 계획은 현준혁 등의 국내파가 존재하는 한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한 소련군사령부와 김일성 일파들은 현준혁의 암살을 모의 결정하고 현을 적대시하는 장시우(張時雨)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이리하여 1945년 9월 어느날, 백주대로에서 장시우의 하수인에 의하여 현준혁은 살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더욱이 잔악한 것은 마치 「스탈린」이 「키로프」를 죽여 놓고 국장(國葬)을 하듯이 현준혁의 장의식을 김일성일당이

주재하는 사회장(社會葬) 형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현준혁의 장례를 중심으로 밖으로는 이 암살사건을,

『백색 테러의 소행이다. 백색 테러를 분쇄하라!』

라는 「플래카아드」를 들고 나서는 등의 연극으로 「테러」의 소행을 우익(右翼)에 뒤집어 씌우는 한편 안으로는 강력히 국내파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나는 비로소 공산당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이 한반도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가 하는 것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평양소식은 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 무렵 약관 24세로서 공산당의 정체에 무척 호기심이 갔다.

무도한 소련군의 진흙밭에서 동포를 구해내는 것이 공산당이 하는 일인줄 알았다.

왜냐하면 소련군이 마구 약탈, 강간, 강도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족끼리 모여 단합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공산당의 수법을 평생을 두고 민족해방과 항일에 바친 황태성선생이나 이용국선생을 찾아 가사

들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못세요. 덜어 놓고 세상을 붉게만 하겠나는게 놈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적화사상(赤化思想)이라고 하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서 살면 돼요. 민족 가운데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 사상은 이 민족을 위한 주의요 사상이 왜야 하는거야. 자기 민족, 자기의 나라를 총두리째 바치고 소련을 숭상한다는 것은 애국노저 뭐냐 말이나. 제나라 제조국을 두고도 소련을 「조국」이라고 부르는 미치광이를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만약 그것이 적극적이라면 이조선대의 사대사상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지금 평양에 모여 있는 김일성일당은 소련주둔만 믿고 날뛰는 모양인데 덜지 않아 소련군이 철수하면 그놈들은 죽도 못쓸거야. 두고 보게.』

황태성씨는 나와 툇툇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딴수룩한 수염을 쓰나듬으며 꼭 한복을 입고 다니던 그는 확실히 혼란기내 고향의 거울이요 나침반(羅針盤)이었다.

이무렵, 그러니까 1945년 9월 중순, 김두봉(金斗奉)을 비롯한 무정(武亭),

최창익(崔昌益), 박일우(朴一禹), 김창만(金昌滿), 허정숙(許貞淑) 등의 소위 연안파(延安派)들이 신의주(新義州)를 거쳐 평양에 들어 온 것이다.

그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중국 땅에서 모택동식(毛澤東式) 공산주의 훈련을 받고 온 노장파들이었다.

귀국한 그들은 햇병아리 같은 30대의 김일성을 보자 알분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마치 홍안소년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중공군(中共軍)이 아니라 소련군정하라는데서 김일성을 반대하고 나설 수 없었다.

또 그 때까지의 중공군은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활개칠 따름이었거 아직 중국 본토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력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련을 「조국」으로 모시고 정권을 장악하자는 생각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고향동지부터 규합  
그리고 이론 무장으로

이러한 북한 정세하의 해방 초기는 문자 그대로 오합지중(烏合之衆)이었다.

공산당이던 만병통치인 사회이지만 공

산당 그 자체가 소련파, 중공파, 국내파로 갈라져 골육상쟁(骨肉相爭)을 하는 판이었다.

그러니까 민심은 더욱 혼란하여 그저 무식하면 뽑내는 세상이 됐다.

중학교를 나오면 「인텔리」로 몰아 경원하는가 하면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면 친일파(親日派)로 몰아 해방된 대오(隊伍)에 걸 수가 없었다.

나는 해방되었다는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곱곰이 생각해 왔다.

(우선 공산당과 싸우자면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공산당 놈들이 하는 것만큼의 공산주의 이론으로 나도 무장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나의 뇌리를 지배했다.

그 무식한 대열에 끼어 공산주의론을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치밀자 나는 길주 바닥에서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듣고 또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모조리 읽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는게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공산주의에 대한 실증을 느낀 것은 그들의 성분(性分) 조사였다.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나 소작농(小作

農)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론이 불투명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공산주의자도 완전히 무장되었다. 해도 그것을 안 믿는단 말씀입니까?』

하고 어느 공산주의자에게 물었더니

『동무의 말은 일리가 있소. 매우 좋은 이야기요. 그러나 동무 같은 청년은 원래 부농(富農)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절(變節)하기 마련이요.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무산계급(無產階級)을 위해 싸우는 것이요. 그것이 「프롤레타리아」인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당시 공산당 위원장을 하던 이효순의 지론이었다.

무식하기 그지 없는 그도 말만은 변질했다.

이렇게 보아 나가 이들에게 영합될 수 없다면, 그때로 사그라질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심정이었다.

그들을 위한 계급이 있다면 우리들을 위한 계급도 당연히 있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나는 나의 중학동창부터 또 가까운 친지들로 그무우프를 짓기 시작했다.

김성학(金文學), 민정환(閔貞漢 故人)



# 컴퓨터시대

— 그 원리와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

심 승택

<한국일보 과학부장>



현대는 「컴퓨터」 만능시대.

「컴퓨터」는 한 개인의 사생활로부터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참견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20세기 과학의 대표자, 20세기의 상징 「컴퓨터」를 모른다면 20세기 사람이 될 수 없다.

20세기의 마술사 「컴퓨터」의 정체를 파헤쳐 보자.

대판싸운 한 부부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자기의 적성에 가장 이상적인 짝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의외로 「컴퓨터」가 골라준 이상적인 짝은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남편과 아내였다.

이들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썩어있던 상을 환하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짝을 잊어 버릴 뻔 했다고 하며 웃었다.

결국 이들 부부는 다시 화합하고정이 더욱 두터워 졌다고 한다.

「컴퓨터」가 과학계산을 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장기를 두며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오늘날 「컴퓨터」는 국가의 정책 수립은 물론 문학예술등의 창작활동, 작곡, 사무관리, 도시계획, 교통정리, 건축 및 기계설계, 일기예보, 바다의 파도와 바람분석, 환자진단 및 처방, 기업진단, 범죄수사, 복덕방, 전파신분, 우주선의 항로조정, 세금조정, 시장조사, 방송 「프로」 편성, 도서목록작성, 통역, 재고관리, 생산관리, 법조문해석, 판예(判例)조사, 기업재무정보, 가족현황정보, 결혼중매, 천문학, 생물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금속공학, 기상학, 화학, 물리학 등 전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의 활용은 끝

이 없다.

컴퓨터의 이력서 >

이와같은 「컴퓨터」의 역사는 어떠한가.

인간이 수치 계산을 도구에 부탁하기 시작한 역사는 인류 역사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 간다.

머리 속에서 기억하고 계산하던 것을 손가락으로 꼽아 보고 나무 잎이나 풀의 수효로 대신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원시 「컴퓨터」이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체계화된 것이 주판이다.

주판의 역사만을 따지더라도 기원전 5천 5백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1930년 독일 조사단이 「유프라네스」강 하류에서 발굴한 기원전 5천 5백년 계의 고대 신전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유물 가운데엔 주판이 있었다.

오늘의 「컴퓨터」를 탄생케 한 원시 시조격인 주판의 역사는 이보다 더욱 거슬러 올라 간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컴퓨터」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싹터 왔다 하겠다.

그러나 근대적인 「컴퓨터」자동 계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상한 사람은 1812년 영국의 「찰스·베이비지」였

다. 「메이터」를 기계에 기억시키고 계산을 해치우는 당시토션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그후 1887년 미국의 「헤르만·홀레리츠」에 의한 「릴레이」 천공기(穿孔機)의 분류기가 발명되었고, 1908년 미국의 「제임스·파우어즈」의 「파우어즈」식 통계기 발명, 1938년 미국 「벨」 전화연구소 「G.R.스티비츠」의 「아이디어」에 따라 「S.B.윌럼즈」가 설계한 「릴레이」식 계산기 「모넬」등이 속속 발명되었다.

그리고 1944년 미국 「하바드」대학 「H.H. 아이킨」교수는 미국 전자기계 작회사 IBM회사와 공동으로 자동제어 계산기를 발명해 냈다.

드디어 1946년 세계 최초의 완전한 전자계산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 「펜실베이니아」대학 전자관계 기사 「J.P. 에커트」와 수학자 「J.W. 너클리」의 공동연구로 탄생한 「에니악」(ENIAC Electronic Numeral Integrator And Calculator. 數値積分計算機)이었다.

「펜실베이니아」전자공학실에서 탄생한 「컴퓨터」 제1호 「에니악」은 미육군의 새로운 무기 유도탄의 탄도계산을 위해 연구 개발되었다.

1백 35평방미터의 넓은 실내에 진공관만도 1만8천8백개를 갖고 「릴레이」 1천5백개, 전력 1백20「킬로와트」를 필요로 하는 무게 30톤의 「에니악」은 보기에 육중한 괴물이었다.

덧셈을 1만분의2초, 10진법으로 10단위의 곱셈을 1만분의 28초, 10개 단위의 나눗셈을 1천분의 6초란 빠른 속도로 수치계산을 거뜬히 해치우는 「에니악」의 성능은 인간 계산 능력의 20만배에 달하는 놀라운 괴물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종합 판단 능력은 신경세포 2~3천의 능력, 생물로 따진다면 전총의 누비 능력정도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에니악」능력으로 1백40억 인간의 뇌세포 기능에 맞먹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중앙청 보다 10배나 더 큰 건물이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동력은 미국 「나이아가라」폭포가 내리 쏟는 「에너지」를 가져야 했다.

「컴퓨터」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다.

진공관과 보조 기억 장치만을 가졌던 초기 제1세대(1951년~1957년)는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로 대체해서 규모를 작게 하면서도 「스피드」와 및 「디스크」 「마

그네틱·테이프」등의 출현으로 사무처리와 과학계산등을 해치울 수 있게 되는 제2대(1958년~1963년)를 맞았고 전자력명을 불려 일으킨 IC(集積回路)의 탄생으로 이를 이용하는 고성능 「컴퓨터」 소위 만능의 「컴퓨터」시대 제3세대(1964년~)을 맞았다.

제3세대 「컴퓨터」의 처리능력은 1천만분의1초, 기억용량 50억자를 능가하고 있으며 보다 빠르고 보다 용량이 크며 보다 작으면서도 보다 인간을 닮아가는 제4세대로 향한 문턱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23년전 그리니까 1946년 세계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이 탄생하던 때다. 주판과 「컴퓨터」가 수치 계산을 놓고 인간과 「컴퓨터」가 대결한 적이 있다.

그때 주판을 사용하는 인간이 「컴퓨터」보다 수차 계산에서 빨라, 주판이 「컴퓨터」를 이겼다고 떠들석한 때가 있었다.

그후 「컴퓨터」의 능력은 수천 수만 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보았다.

「컴퓨터」는 1958년을 고비로 순수한 계산기로서의 탈을 벗고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EDPS(전자계산조직)시대로

물일했다.

보다 용량이 크고 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며 보다 크기가 작은 보다 인간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개량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컴퓨터]는 1950년보다 기억능력 2천배 지난 5년간만도 처리능력 10배를 더했다.

따라서 [컴퓨터]의 활용무대도 그만큼 더 넓어졌다.

오늘날 제3세대의 [컴퓨터] 기억능력 3백50억[피트](정보의 최소단위)는 인간기억능력을 2.5배 뛰어 넘고 있다.

세계적인 천재라도 일생동안 인간뇌 세포 1백40억의 3분의1도 사용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 실제적으로 [컴퓨터]는 20세기 최대 최고의 천재 [아인슈타인]이 일생동안 생각하고 기억했던 모든 것보다 7.5배라는 계산이다.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제 인간과 연어를 하는 시대로까지 [컴퓨터]와 인간과의 관계는 밀접해지고 있다.

구미 선진국 [마이크] 시대에 자동차와 연어하는 세대는 점차적으로 이성아닌 [컴퓨터]와 사랑을 속삭이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컴퓨터] 반응의 물결은 바야흐로 파도를 넘어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인간의 육체적 해방을 가져다준 제1산업혁명에 대해 인간의 정신적 해방을 가져다 주는 [컴퓨터]는 제2의 산업혁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컴퓨터]의 가장 매력적인 「온라인 티얼 타임 프로세스」(實時間처리)라는 즉시 처리조작이 바로 그것이다.

각종 정보를 [컴퓨터]에 걸어 모든 업무를 즉시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연결된 「베어튼」식전화. 전화의 「베어튼」을 눌러 사무계산, 간단한 기술계산을 척척 처리할 수 있다.

전화에 전기, 상수도 [가스]의 「미터」계를 접속, 한달분의 사용량을 [컴퓨터]에 기억시키고 사용량을 돈으로 환산 각 개인 앞으로편 청구서를 찍어 낸다.

정구시는 거대한 은행에 불려지고 모든 사람의 봉급을 맡아 살릴해주는 은행은 봉급에서 모든 청구서를 공제한다.

일일이 계량원이 가정을 방문할 필요없이 [컴퓨터]에 연결된 「베어튼」식 전화가 알려준 자료에 따라 모든 지불

청산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전화의 「이미지」를 전혀 달리 하는 이와 같은 「버어튼」식 전화는 현재 미국과 구미신진국 및 일본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지불청산을 자동화함으로써 「온라인 리얼 타임 프로세스」는 현금무용시대를 내다 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얼마든지 이용도는 많다.

수천 수만개의 부분품이 모여 이루어지는 자동차, 비행기, 기관차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기계공업 일수록 정보의 즉각적 축적 처리는 절실하다.

이같은 공업에서 하루에 다루어야 할 재료, 부분품, 제품의 수는 수백만개에 달한다.

보통 창고 관리법으론 창고가 수백개 있어도 부족한 정도다.

생산 관리에 필요한 수십만개의 부분품을 「컴퓨터」에 의뢰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재료가 일정한 속도로 알맞게 공급되는 체제를 만든다.

판매 관리면에서도 같다.

판매되는 상품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 중앙 「컴퓨터」「센터」에 걸면 자동적으로 집계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각 부분의 제품, 부분품 재료의 수와 양이 자동적으로

「컨트롤」된다.

중앙과 지방, 중앙과 창고를 잇는 전화선은 부수한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관리, 보급, 매상고는 물론 기업 진단까지 내려준다.

부산지방에 설당이 떨어져 간다고 하자.

일정한 재고량 이하가 되면 중앙「컴퓨터」센터는 부산지사와 연결된 버어튼식 전화의 전화와 연결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화면을 통해 잔고량을 알려 주고 설당을 보충하려면 부산서 가장 가까운 진해창고로부터 보충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원한다면 진해창고에 연락해서 몇 톤의 설당을 며칠날 빛서에 어디로 가져다 줄 것을 창고에 알려 줄 수 있다.

진해 창고는 중앙 「컴퓨터」 「센터」에서 보내온 「버어튼」식 전화의 화면을 통해 부산의 김모씨 상점에 설당 몇 톤을 언제 몇시까지 옮겨 줄 것을 알리고 당일의 일기 및 교통사정을 자세히 알려 준다.

이같은 즉시 처리조직은 전국을 잇는 철도 행정에도 이용할 수 있다.

차표를 사기 위해 몇시간 전부터 장사진을 펴고 아우성을 할 필요가 없이 보름 또는 한달 전부터 미리미리 차표를

예약하고 예매할 수 있다.

신혼 여행을 떠나는 신랑과 신부의 차표를 사기 위해 이리뒤고 저리될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의 신속한 축적·교류는 SST(초음속여객기)가 지구상의 공간감(空間感)을 야구공만큼 좁혀 주었다면 「컴퓨터」가 물고은 세계는 지구를 탁구공만큼 작게 하는 세계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부동산 매매 「컴퓨터」부덕방은 현장을 일일이 답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가만이 앉아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부동산 매매에 커다란 혁명을 가져다 줄 「컴퓨터」부덕방은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집과 토지를 마음대로 골라 잡을 수 있게 한다.

팔려고 내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하나의 「컴퓨터」에 기록해 둔으로써 사려는 사람의 구미에 맞는 집과 토지를 알선해 주는 것이다.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 일본에서 실용화된 「컴퓨터」부덕방은 부동산 매매가 중매인의 화술에 크게 좌우되고 달콤한 말로 살사람과 팔사람을 달래는 방법에 끼어 들 수 있는 속임수와 과장을 없애준다.

「컴퓨터」부덕방은 이같은 속임과 과장을 일소해 주고 살 사람이 중매인과 일일이 현지를 답사해야할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서울에 살던 김씨가 부산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하자.

김씨는 서울에 있는 집을 5백만원에 팔아 일부는 살림에 보태 쓰고 3백만원짜리 집을 부산진역 부근에 사려고 마음 먹었다.

「컴퓨터」부덕방 「센터」에 인아같은 김씨의 계획을 알리면,

「컴퓨터」는 우선 김씨가 팔려고 내는 집은 4백50만원이 적절한 값을 밝혀 주고 김씨의 의견을 묻는다.

김씨는 그의 의사에 따라 팔려고 하는 집의 조건을 세우고 부산에 사려고 하는 집의 예산, 토지의 면적, 역으로부터의 거리, 위치, 건물의 용도, 칸수, 환경, 교통편 등 80여항목에 달하는 요구조건을 미리 마련된 「카아드」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한다.

「컴퓨터」는 즉시 김씨의 요구조건에 알맞는 위치의 3백만원짜리 정도의 집을 골라낸다.

집의 모양과 청사진을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 보여 주고 자세한 설명을

들려 준다.

원한다면 겔모양과 청사진을 복사해서 넘겨 줄 수 있다.

김씨는 여러 종류의 집을 「컴퓨터」 복덕방 「센터」의 목신한 의자에 기대앉아 「커피」를 대접받으며 집을 고를 수 있다.

김씨가 고른 집은 즉시 부산 「컴퓨터」 복덕방 지하에 전달되고 부산에 있는 집주인과 장거리 전화로 매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는 또한 사람이 필요없는 무인공장을 탄생케 한다.

모든 기계를 자동화하고 기계의 움직임은 중앙 「컴퓨터」 「센터」에서 관리한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즈」, 「포드」 등 대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석유회사, 항공회사 등에서 「컴퓨터」에 의해 콘트롤되는 무인공장의 실현을 보고 있으며 군소 업체에서도 「컴퓨터」의 활용을 서두르고 있다.

몇 백명이 붙어야만 겨우 해낼 수 있는 일을 「컴퓨터」에 연결된 「오토·메이션」화는 몇 사람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무인공장 실현을본 「컴퓨터」는 앞으로 계기를 들여다보고 「비어튼」을 누

르는 인간의 수고도 덜어 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퓨즈·에어크래프트」회사는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무인공장을 실현한 회사다.

달탐색선 「서베이어」를 제작한 이 회사는 각종 항공기의 부분품의 조립·가공공장이다.

여러 개의 하청회사가 공급한 재료와 부분품들이 자동적으로 「콘베어 벨트」에 실려 공장내부로 들어 가는 동안 「컴퓨터」는 「레이저」광선을 이용, 규격에 맞는 것만 정확히 골라 내고 나머지는 불합격품의 이유까지 첨부시켜 하청업체에게 돌려 보내고 있다.

통과된 재료는 동그렇게 배치된 각종 동작기계의 숲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공장 중앙에 설치한 「컴퓨터」 「센터」의 지령대로 가공될 재료들은 동그런 원판을 뜯게 되고 동작기계는 차례로 재료를 깎거나 구멍을 뚫는등 가공과 조립과정이 자동적으로 1천분의 1밀리미터 오차도 허용치 않을 만큼 정밀한 작업을 척척해 낸다.

이렇게 생산품이 나오는 동안 이 공장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생산공정관리가 이루어진다.

미리 「컴퓨터」에 짜놓은 공정관리명  
가 방식 (PERT)에 의해서, 전공정이  
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 검토  
한다.

「컴퓨터」는 예의 관리원칙에 따라  
계획에서 늦어졌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쉬운 도표를 그려 야친  
간부회의에 올린다.

빛명의 간부는 그날그날의 복잡한  
업무현황을 살펴 볼 필요없이 문제의  
해결책만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장의 하루일은 모두  
끝난다.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모터즈」는 자동차의 「모델」  
을 수요자의 구미에 알맞게 바꾸는 일  
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이디어」로부터 「모델」의 시작동  
신형 생산단계에 들어갈 동안은 무려  
4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제너럴·모터즈」는 이와같은 문제를  
「컴퓨터」 「메이커」로 유명한 IBM에  
의뢰, 「오터매틱·디자인·시스템」(자  
동설계조직)을 개발했다.

「오터매틱 디자인 시스템」이 「텔레  
비전」 「스크린」에 3차원의 설계도를  
그려 주면 「컴퓨터」는 65만개에 달하  
는 각종 자료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모델」에 알맞은 부분품들의 설계까지  
척척해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된 새로운 자  
동차가 나오는데 4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을 3년기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컴퓨터」는 환자를 정확히 진단 처  
방하는 의사의 역할도 담당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간호부도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병원의 모든 일을 맡  
아 관리도 한다.

「컴퓨터」가 병원의 경영자, 의사, 간  
호부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질병의 종류는 만  
여종에 달한다.

이들 질병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증  
상이 모두 달라 결국 1만여종의 질병  
이 나타내는 증상은 10만여종에 달한  
다. 여기에 처방은 성별 연령 건강상  
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같은 질병이라도 증세가 다를 수 있  
으며 증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천재적 두뇌를  
갖고 연구와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이  
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섞힌 병의 원인  
과 치료법을 모두 정확히 가려 내기란  
어렵다.

전문의 제도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컴퓨터」의 위력을 응용할 수 있다.

수십만 「케이스」의 질병증세를 기억시킨 「컴퓨터」에 환자의 병증세와 진찰결과를 상세히 알려 준다.

「컴퓨터」는 환자의 진단결과 나타난 증세를 일으킬만한 모든 질병을 가려 내고 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끄집어 낸다.

그리고 이에 알맞는 처방을 「프린트」해서 내놓는다.

약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 것이며 입원을 할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준비과정으로 무엇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등 상세한 지시서를 「컴퓨터」는 내놓는다.

인간은 이 지시에 따라 처방, 치료 하던 편다.

말하자면 경험이 풍부한 명의사가 수많은 경우를 올바르게 판단, 처방을 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한 진단이 미국 「위스콘신」대학 부속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위스콘신」의대 「워더」박사가 50종

류의 증세를 가진 선천성 심장판막증 환자 36명을 「컴퓨터」로 진단했다.

「컴퓨터」의 진단은 저명한 심장병 전문가 3명의 공동진단 및 수술소견과 완전 일치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일본 「도쿄」(東京)대학의 실험에서는 40종류의 증세가 있는 40종류의 질병을 정확히 가려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컴퓨터」로 환자의 상태를 추적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컴퓨터」가 내린 처방에 따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는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추적, 「그래프」를 그려가며 치료실적을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진단뿐 아니라 혈액검사, X선검사, 체온, 맥박 등 모든 신체적 검사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다.

1966년 가을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와같은 실험을 치뤄 보았다.

미국상원의 소위원회가 연 고혈압 신경통같은 성인병 예방에 관한 토론회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한 것이다.

회의장안에 마련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건강 진단이 시작됐다.

심장의 상태를 「그래프」로 그린 심전도(心電圖)자료를 의회에서 수마일

이나 떨어진 공중위생국의 「필드스테이션」과 연결된 전화로 보냈는데 수초 후에 심전도의 분석 결과를 보내와 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주 능숙한 심전도 분석가라도 10~15분 걸릴 것을 10여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눈감작할 사이에 거뜬히 해치웠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의한 「모니터」장치가 간호원 부족에 허덕이는 미국 일본에서 등장 인기를 끌고 있다.

수백개의 병실을 단 1명의 간호원이 보살필 수 있게 한 것이다.

남「캘리포니아」주에서 실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 보자.

환자의 침대 곁에는 「터미널」장치가 있어 「터미널」장치에 들어오는 환자의 혈압, 호흡, 맥박등과 「텔레비전」화면에 나타난 환자의 용태등을 중앙 간호「센터」에 앉아서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적신호를 울려 준다.

미국 「보스턴」소아과 병원은 「컴퓨터」에 의해 「베드」의 이용률을 82~95%로 올려 병원수입을 올리고 환자는 복잡한 입원수속을 거치지도 않게 했다.

또한 환자의 「차아트」나 처방을 모두 「컴퓨터」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원이 할 「페이퍼 워크」가 줄어들 만큼 본래의 임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가정에 왕진한 의사가 전화로 환자의 뇌파, 심전도를 의료진료 「센터」에 의뢰 의료용 소형 영상수상기로 원격 검사 및 검진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학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의료정보 「네트워크」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주 또는 지역별로 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보스턴」 「뉴우욕」 「캘리포니아」등지에는 몇 백개의 병원이 「타임 셰어링」(시분할)박식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다.

정보「센터」이용은 국제 통신망으로 국제 교류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한 여자 환자를 「위싱턴」의 의료「센터」가 진단하는 데 겨우 15분 밖에 안 걸린다.

미래엔 전화를 이용, 자기집에 가만히 앉아 중앙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타임 셰어링 시스템」이 실용화 되어 웬만한 병은 「컴퓨터」의 처방에

따라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만 된다면 부의존 때문에 정부가 신경쓰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컴퓨터」는 교육혁명을 불러 일으킨다.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고교학생이 「컴퓨터」에 의뢰 자기적성에 알맞는 대학의 학과를 고를 수 있고 자기 실력에 알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공부는 「컴퓨터」에 의해 각자 실력과 능력과 건강상태에 알맞게 할 수 있다.

각 학과별로 자기의 실력에 알맞게 실력을 계속 쌓아 올라 갈 수 있도록 「컴퓨터」가 학과별 진도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짜줄 뿐 아니라 실제로 교육을 시킨다.

「컴퓨터」에 연결된 「텔레비전」수상기를 통해 수학문제를 풀고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다.

IBM사는 실제로 「뉴욕」시의 「베어 루이스」여자 고등학교와 「메터 크리스트」고등학교를 상대로 「홈 워크 티칭 머신」(숙제학습기)을 실험했다.

일종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홈

워크 티칭 머신」은 IBM전산기와 연결된 이 기계에 숙제에 대한 해답을 「키·백이튼」으로 누르고 수화기에 귀를 대고 있으면 『맞았다』 『다시 한번 해 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다.

작년 서독에서 성공한 「컴퓨터」 학습지도나 최근 가장 보수적이던 영국의 몇몇 학교에서도 「티칭·머신」을 도입할 정도로 「컴퓨터」는 교육에 선풍적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을 예견하는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 「컴퓨터」가 불러 일으킬 제2차 산업혁명 가운데 교육부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산업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육산업이 유망주산업으로 등장 1968년에만도 4억6천만달러의 「컴퓨터」 배상고를 올렸다.

「컴퓨터」가 「온라인 리얼 타임 시스템」이 보편화 된다면 앞으로 학교가 필요없는 시대를 내다 보게 한다.

중앙교육 「센터」에 설치된 대형 컴퓨터와 연결된 「버어튼」식 전화로 개인 교육지도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복잡한 길을 건너서 학교를 갈 필요 없이 집안에 가만히 틀어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는 명작곡가 연주가로써 음

악편의 심금을 울려 주는가 하면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정교한 미술 작품을 그리고 또 감미로운 시를 창조해 낼 수 있다.

기존 예술에 도전하는 「컴퓨터 아트」는 바야흐로 음악에서 영화 문학에 이르기까지 전위의 기수로서 「컴퓨터」는 새로운 예술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6년전부터 「컴퓨터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컴퓨터 아트」 전시회가 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컴퓨터 아트」 가운데 가장 촉망한 「아트」는 「컴퓨터 뮤직」이다.

1955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아이잭슨」의 세계최초 「컴퓨터 뮤직」 현악 4중주곡을 발표한 바 있다.

그후 「컴퓨터 뮤직」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십편의 「클래식」 음악이 나왔다.

「컴퓨터」작품은 각 음의 진동수를 계산, 음에 대한 협화음을 수식으로 알려 주면 「컴퓨터」는 대위법 같은 작곡상의 틀에 맞추어 음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전 미국의 「프란즈」라는 사람은

「컴퓨터」로 소설, 시, 「시나리오」등을 만들어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문학을 다루는 문제는 수많은 단어와 단어에 따른 의미상의 「위양스」가 풍겨 고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아트」중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와 가장 뒤떨어져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등지에서 시와 소설이 발표되었고 서독의 「구라우체차드」는 「컴퓨터 노래」라는 시집을 내놓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컴퓨터」문학은 주로 「샤논」의 정보이론과 「말코프 프로세스」의 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단어와 문장이 구성되는 법칙을 만든 난수표(亂數表)에 따라 「이미지」를 주면 「컴퓨터」는 알맞은 어휘를 골라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컴퓨터 아트」의 제3분야는 조형(造型)미술이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이 「컴퓨터」 미술 작품은 곡선과 직선을 교묘하게 구성하거나 색 구별이 가능한 입출력(入出力)장치의 개발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근 미국 「컴퓨터 아트」제가 베티 「콘테스트」에는 미국, 서독, 「캐나다」

「프랑스」에서 수백편의 작품이 쇄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조형미술에 영화의 수법을 도입시킨 실험 영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작년 일본의 「컴퓨터 아트」 전시회에서 선을 보인 「풍아(風雅)의 기법」은 6면체의 집단을 우아하고 교묘하게 변화시켜 조형예술의 새로운 면을 보여 주었다.

블라 8밀리 「필름」에 상영시간 2분 30초란 짧은 이 「미니」영화는 관객들을 완전히 조형세계에 도취케 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술은 종래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인데 앞으로 예술은 「컴퓨터」로 해서 「매스 아트」(집단예술)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컴퓨터」사회에서는 특정한 예술가가 없고 모든 사람이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포커스 레터나」작전에 「컴퓨터」가 등장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이 작전에 사용된 「컴퓨터」는 병력과 보급의 관라가 주 목적인 소형이었지만 미국은 「컴퓨터」를 이용 무기개

발 작전계획등 현대전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컴퓨터」의 작전계획은 이미 한국동란 때 「백아머」장군의 만주 폭격결정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현대전의 총아 「미사일」을 총 지휘 감독하는 것이 「컴퓨터」이고 보면 군사면에서의 「컴퓨터」이용은 어느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반영해 준다.

미국의 「컴퓨터」를 이용 정보를 입수하는 전자정보합 「푸에블로」호가 작년 북피에 강제 납북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일이 지금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

「컴퓨터」는 삼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사령관처럼 작전의 승산 치밀한 계획 등 제2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전국토의 방위망을 한 개의 거대한 「컴퓨터」에 맡기고 있다.

MIT공과대학에서 5년간 1천8백명의 과학자를 동원 개발한 「컴퓨터」는 SA GE다.

반자동지상방어망이란 뜻을 갖는 SA GE는 시시각각 적의 기습을 탐지하고 방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중앙에 있는 「컴퓨

터)와 연결된 「레이더」기지나 한대들에서 들어온 정보가 중앙 「컴퓨터 센터」에 직결되도록 되어 있어 들어온 각종 자료는 「컴퓨터」가 검토, 경보를 올리면 SAGE에 소속된 책임자가 「버어튼」을 눌러 즉각 「미사일」이나 요격기의 출동지시등 방어책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군기지에 지령을 내린다.

SAGE는 「레이더」에 나타난 비행체가 적기인가 아닌가를 가려 낸다.

하늘을 날고 있는 기러기배나 작은 새들도 잠털정도로 고성능인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SAGE는 비행체의 고도 방향을 측정, 전국 공함에 들어온 기억된 비행항로와 비교, 적기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판별해 낸다.

적기로 판명되면 SAGE는 즉각 「펜타곤」과 「미사일」기지, 공군기지에 경보를 올려주는 것이다.

「미사일」이 침공하면 SAGE는 「미사일」이 미국에 도착하기 15분전에 탐지, 불과 수분안에 「컴퓨터」의 지시로 「미사일」겨추용 「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폭파시킨다.

얼마전 미국 「닉슨」대통령이 발표한 경ABM탕 설치도 SAGE의 활동없인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전 미국방장관 「맥나타라」는 군사전

략을 집약한 PPB계획을 세웠다.

미국 전군의 「군사 예산과 전략을 모두 「컴퓨터」화시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PPB계획을 실천에 옮긴 결과 미국 정부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62년부터 5년간 1백20억 「달러」나 절약했다는 것이다.

적정규모의 「미사일」 개발과 각종 무기의 합리적인 관리등으로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전투력 증강을 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컴퓨터」와 연결된 정보혁명 은 최근 정보혁명 정보산업시대를 낳았다.

현대는 정보홍수, 정보 공해시대라 할만큼 각 분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각종 정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보혁명은 오늘날의 우주, 원자력, 전자시대와 「플라스틱」, 합성화학시대를 낳았다.

정보혁명은 모든 현대 산업 구조는 물론 우리들 일상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정보는 각종 학술 잡지는 물론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사랍과 사

람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보라고 하는 무형의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지식산업 다시 말해서. 정보산업은 정보의 전달 유통 처리 및 통신, 출판,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산업 그밖에 생산가공하는 연구개발, 「디자인」 「콘실란트」 등 모든 지식적 산업이 포함된다.

근세기 최대혁명 정보산업은 「컴퓨터」와 연결 「컴퓨터피어」(전자계산기가 만들어내는 이상향)을 전망케했다.

오늘날 정보는 무형의 제3의 자원으로 해서 제2의 산업혁명시대 초기출사회를 약속한다.

(정보혁명이 정보산업으로써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정보를 취급하는 기술수단으로써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놀랄만큼 발달한 때문이다.

이들 기술의 놀랄만한 발전은 최근 10년 정보산업을 우리 안방에까지 끌어 들였다.

「멕시코·올림픽」이 인공통신위성 「인텔셋」을 통해 우리의 안방에 끌어 들여진 것이다.

인공통신위성 「인텔셋」의 개발과 발사는 「컴퓨터」의 힘을 빌린 것이다. 「컴퓨터」와 연결된 정보혁명은 최근

미국에서 경영의 미래를 예측케 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MIS(경영정보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선봉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IS는 미래의 산업 형태에 미리미리 경영 방침을 대치케 함으로써 기업을 번성케 한다.

서기 2천년의 세계를 그려보는 소위 미래학도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래산업도 「컴퓨터」와 연결된 정보혁명의 혜택이다.

미래학은 21세기 「미니스커트」는 더욱 선봉적 인기를 끌게 될 것이란 전망을 해준다.

20세기 젊은 아가씨의 저항의식으로 발생한 「미니스커트」가 21세기엔 활동적이란 이유로 더욱 유행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알뜰 증독자가 내량으로 불어난다는 전망을 하는가 하면 조혼의 시대를 맞는다는 것이다.

모든 산업시설은 더욱 자동화되고 인간은 더욱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즐기는 최수가 늘어나게 되고 남녀가 똑같이 결혼을 일찍부터 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는 전기 자동차가 판치는 시대가 되며 모든 전기 자동차는 자동 조

정된다.

석유가 50년 내에 바닥이 나게 되고 공기 오염은 더욱 심해져 「가솔린」 자동차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다.

물질문명은 더욱 발달되지만 정신생활을 존중하게 되는 시대가 된다.

21세기의 사회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모든 공장은 「로버트」화하여 인간의 손이 필요없는 무인공장이 실현된다.

원자력 발전은 더욱 큰 비중을 갖게 되고 석유화학은 더욱 자광을 받게 된다.

「컴퓨터」와 연결된 미래학은 시기 2천년의 세계인구는 현재의 약 2배인 64억이 될 것이며 세계인구의 58%는 「아시아인」이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다.

세계 국민총생산은 10.9조「달러」, 2천 20년이 되던 세계 총생산은 28.7조「달러」가 될 것인데 그중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부분은 현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로 올라 갈 것이라 결론이다.

「컴퓨터」는 범죄수사에도 이용된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미리 채취하는 전국민의 지문 사진 지식수준 특징 성격 과거등 정보를 「컴퓨터」에 기억시

켜 됨으로써 각종 범죄를 손쉽게 해결한다.

「인터·폴」무선전신 수사망에 대신해서 「컴퓨터」에 의한 세계적 범죄 수사망을 완성한다.

세계 「컴퓨터」중수의 약 65%인 3만 9천5백여대의 「컴퓨터」를 가동하고 있는 미국은 일상생활에서 수학문제를 풀어준다거나 상거래에서 정확한 판단을 거침없이 해주는 일, 교육방법을 알려 주는 일은 물론 극장이나 야구경기 등의 관객 동향을 판단 입장권까지 팔수 있는 「컴퓨터」를 연구중이다.

「컴퓨터」의 이용도를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그렇다면 이같은 「컴퓨터」는 어떻게 생긴 것이기에 이렇듯 만능에 가까운 일을 해쳐올 수 있는 것일까.

무수한 전기회로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얽혀 있을 「컴퓨터」는 생각만해도 복잡하여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컴퓨터」는 간단한 원리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전기가 들어왔느냐 아니던 꺼져있느냐는 단순한 사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컴퓨터」는 빠른 속도로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할 때 일어나는 전기적

「펄즈」의 기술을 응용한다.

「컴퓨터」의 내부는 전기적 「펄즈」(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전파)를 잡아 두는 장치「포리프로프」와 그리고 또는 아니오(Not)등 성질이 각각 다른 4개 회로의 적당한 조합 배열체다.

「앤드」는 A·B 두회로에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만 A·B에 연결된 회로 C에 불이 들어오는 회로, 「오어」는 A·B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전류가 흐르면 C에 불이 켜지는 회로, 「노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 「비트」를 반전시켜 주는 회로이다.

이들 회로의 연관 작용이 「컴퓨터」의 놀라운 역사를 남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내부 구조 기술을 「하드 웨어」라 한다.

「컴퓨터」의 「하드 웨어」는 내부 구조와 외형을 완전히 갖추고 태어난 것 난 어린아이를 만들어 주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갓난 어린아이는 비록 살아 있으나 그의 머리는 텅비어 있다.

텅빈 머리에 말을 가르치고 일을 가르쳐 부려먹는 일이 「컴퓨터」의 중요한 「소프트 웨어」다.

따라서 「컴퓨터」는 「컴퓨터」특유의

말과 일을 인간으로부터 훈련 받아야 한다.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가르쳐 주는 일이 곧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컴퓨터」라도 일을 쉽게 빨리 처리할 수도 어렵게 오래 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이 잘 못 되면 그릇된 결과가 나오거나 기계가 정지해 버린다.

「프로그래밍」은 음악의 악보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일류 음악가로 짜여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도 악보가 없으면 연주할 수 없고 악보가 신통치 않으면 흘러 나오는 음악이 시시한 것과 같다.

「컴퓨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때는 입력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제어장치, 출력장치가 있다.

우리가 주판을 갖고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이들 장치를 비교해 보면, 계산할 「데이터」가 장부에 기재되어 넘어온다.

경리담당 계원은 장부에 표시된 숫자를 눈으로 읽고 주판으로 계산한다.

복잡한 계산일 때 중간 결과를 「메모」용지에 적었다 합산한다.

이때 결과는 주판에 남고 결과만을 장부 마지막에 기록해 놓는다.

입력장치는 제원이 장부의 수치를 읽는 것, 연산장치는 주판, 기억장치는 「메모」용지, 제어장치는 인간의 두뇌, 출력장치는 마지막 주판에 남은 숫자를 장부에 옮겨 놓는 일이다.

주판과 「컴퓨터」계산의 다른 점은 주판의 경우 인간의 두뇌 작용에 의해 모든 순서가 적절 결정되어 결과를 옮겨 놓지만 「컴퓨터」는 하나하나의 순서를 일일이 가르쳐 주고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식은 약속된 기호 「프로그램」(原始語)로 표시, 명령을 전달한다.

「프로그램」어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개발되었는데 「아셈블러」(일반목적에 사용), 「포트란」(주로 과학계산에 사용), 「코볼」(주로 일반사업계산에 사용), RPG(일반 간단한 업무에 사용), PL(일반 및 과학계산 적용)등이 바로 그것이다.

「컴퓨터」는 「프로그램」어를 다시 기계어로 번역하고 명령에 따라 수 많

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 간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는 인간으로부터 영혼을 공급받아야 제대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7년 말 현재 세계 「컴퓨터」의 총수는 11만2천여대로 헤아린다.

그중 미국이 가장 많아 약4만대, 다음은 서독으로써 3천5백대, 일본이 3천대, 영국은 2천8백대, 「프랑스」 2천2백대, 소련 1천8백대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의 「메이커」로는 우선 IBM회사를 들 수 있는데 IBM 회사는 세계 컴퓨터 시장의 약70%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의 「유디박」, RCA, CDC, 「히니웰」, 일본의 「화콤」이 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역사는 1967년 5월 16일 한국전자계산소에 일제 「화콤」(FACOM) 222형이 도입 됨으로써 문을 활짝 열었다.

그후 2년 현재가동중인 「컴퓨터」수는 7대(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2대, 한국 전자계산소 2대, 육본2대, 서강대학 1대)이며 보사부, 한국과학 기술연구소, 철도청, 한은, 상은, 금성사, 국세청, 송실대등에서 연내에 「컴퓨터」를 도입하려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은 경제기획조사 통계국에 금년 2월 5일 정식 가동을 시작한 제 3세대 「컴퓨터」 IBM360형이다.

IBM360형은 문자 3만2천, 숫자 6만4천을 기억할 수 있고 「카아드」를 읽는 속도는 1분에 1천장, 배자당 계산능력은 1백만분의 1초다. 그리고 3개의 복수업무를 처리해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컴퓨터」 만능의 혜택이 많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비 과학기술처는 1967년 한국전자계산소에 EDPS타당성 조사를 의뢰 실시하는 한편 요원훈련에 착수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EDPS회엔 상당한 문제점들이 가로놓여 있다.

「컴퓨터」는 마치 「심포니」와 같아서 지휘자인 「시스템 애널리스트」, 각종 악기를 다루는 「프로그래머」, 여기에 「키·판처」까지 합해서 모두 호

흡이 맞아야 한다.

벗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휘자와 연주자가 그 음악에 통달해야 하듯 「시스템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는 고도로 숙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 애널리스트는 한 둘을 꼽을 정도이고 잘 숙련된 「프로그래머」역시 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처는 이와같은 것 외에도 우리나라의 「컴퓨터」 활용이 벗진 연주, 「하모니」한 「심포니」가 되기 위해 ① 「코우드」(부호)의 표준화 ② 관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교환 ③ 자료처리 양식의 일반화 및 범칙인정 ④ 중앙화한 EDPS「센터」설치 ⑤ 전문 교육기관 설립 ⑥ 요원에 대한 기술수당지급 ⑦ 관계자료 수입시 면세 등으로 잡고 이를 위해 노력중이다.

인간을 인간다운 창조적 일로 일자를 탈바꿈 해주는 「컴퓨터」는 바야흐로 우리의 가정에도 스며들 것이다.

X

X

가상; \_\_\_\_\_

# 제 3 차 대 전 과 한 국

중 령 · 홍 성 표

- ……가공할 현대과학병기로 팽팽히 맞선 세계가 만일 3차대전에……○
- …몰입한다면 그 시말, 경과,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

## 개 요

제3차대전은 가공할 만한 핵탄의 세력을 받게 되므로 지구상의 전인류는 순식간에 대부분이 사망하고 시일이 흘러 감에 따라 악성방사능에 의한 피해로 점차 사망 또는 폐인이 된 것으로 본다.

전대전이 발발하기전만 하더라도 이번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겠지만 양대전의 성격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달라지고 있다.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2차대전말 미공군의 B-29 4발프롭폭격기에 의하여 광도와 장기에 투하된 원자폭탄 20KT (TNT 2만톤)급에 의하여 이를 제조한 담당자까지도 상상외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가공할 만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당시 투하한 핵탄의 위력은 겨우 20K

T급이나 희생된 사상자는 광도가 7만명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나왔고 장기는 36,000명의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나왔는데 이때에 부상자의 수는 각도시가 사망 및 행방불명자의 수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사상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희생된 인원은 그 도시에 거주했던 약 56%나 되어 그후 각종 불치의 환자로 신음하다가 사망한 숫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희생이 오늘날에 와서 생각하면 별로 큰 위력이라고 볼 수 없는 소형전술핵탄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물며 원자폭탄과는 근본적으로 제조방법으로부터 위력의 단위가 다른 MT급(TNT100만톤)의 핵탄이 투하된다고 할진대 그때의 양상이 여하할 것이

가는 상상만 하여도 가공할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세계각국의 핵투하능력

핵탄은 아무리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운반수단에 많이 좌우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것이다. 여기에서 좌우된다는 명제에는 자체의 기술도 크거나와 상대방 국가의 방어수단에도 크게 작용하여 한말로 단적인 표현은 할 수 없어 수적인 비교로부터 질적인 방향까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수적인 면에서 미국은 ICBM만 하더라도 1,054기인데 그 외에 Polaris 탄도탄은 41척의 원자력 잠수함에 적재된 숫자는 650기나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핵탄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은 B-52 8발제트 폭격기 600대와 B-58 4발 초음속폭격기 30대 등이 있는 외에 기술용은 유도탄과 항공기를 포함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다.

다음 소련의 경우를 보면 ICBM만 하더라도 미국과 대등한 수인 1,000기를 이미 작전용으로 배치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전략용 Polaris형 탄도탄이 130기이고 항공기는 BEAR 90대, Bison 110대 그리고 수차의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미본토를 공격가능하다고 보는 Badger 및 Blinder가 다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소 양국만이 전략세력의 주축을 이룰 뿐 사실상 현시점에서 영국, 불란서 그리고 중공은 주변국가에 대한 위협 또는 소련에 국한한 약간의 견제력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략세력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전력을 보면 영국은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형폭격기 Victor 70대와 Vulcan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공격능력이고 그 외에 자국에서 제작한 Polaris적재용 핵잠수함은 1966년 8월 15일 Resolution호, 1967년 2월 25일 Renown호가 각각 1척씩 진수하였으며 여기에 미국제 Polaris를 16기씩 적재하고 1968년부터 작전에 취역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 확실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계속해서 1969년에 Repulse호, Revere호를 각각 진수시킨 후 1970년까지 모두 5척의 핵잠수함을 진수시켜 작전화한 계획을 가져 왔으며, 그 외에 Polaris는 미국에서 구입하여 지하화된 발사를 스코트랜드 Clyde fastlane기지에 건설함으로써 1970년부터는 핵전력의 주도권을 공군으로부터 해군으로 이관시킨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은 당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것 같다.

그 예는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가변의 기인 FB-111를 약간 대수를 69년도에 구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거나 극동에 배치된 군사력을 1970년부터 철수할 단안 등은 영국의 국방비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가를 여실히 말해 주고 있다.

불란서는 독자적인 핵진력이라는 구호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여 1962년 2월 13일 첫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아울러 그의 운반수단인 중형폭격기 Mirage-4형을 생산해온 결과 1964년 11월에 1개 편대에 핵탄 60KT(6만톤)급을 한 개 적재하고 작전화한 이래 1966년까지 계획된 62대의 Mirage-4를 작전 완료하면서 소련에 대한 보복을 가할 태세로 미국으로부터 공중급유기 KC-135 12대를 구입하여 아울러 배치한 것이다.

항공기만이 아니고 불란서는 핵탄운반수단으로 탄도탄을 개발해 왔는데 그의 일환책은 1965년 11월 27일 Diamont라는 「로켓」 A-1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지구궤도에 진입시킨 것이다. 이러한 성공은 불란서가 중거리탄도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거리탄도탄의 계획은 Polaris형의 핵잠 및 중거리탄도탄을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조하여 작전화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M-112「푸로

젝트」(MSBS)라고해서 67년 3월 9일에 핵잠 1척을 진입시켰으며, 이는 1970년에 작전화시킬 예정이고 그 외에 72년과 73년에 각각 1척씩 진입시켜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4척까지 진입시킬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거리탄도탄은 미국의 Polaris와 똑같은 형을 불란서에서 제작하여 1968년 7월 2일에 첫 실험 발사한 이 중거리탄도탄을 앞으로 적제할 계획인 것이다. Polaris형과 별도로 지상발사용 탄도탄의 계획도 발표했는데 첫째는 중거리용으로 SS-112 「푸로젝트」(SSBS)로 68년 7월 3일에 최초 실험발사하고 1972년까지 25기를 작전화한 후 계속해서 1978년까지 2기를 배치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여기에 적재할 핵탄은 애당초 100KT급 원자폭탄이었는데 68년 8월 25일 남태평양 무무모아환초에서 실시한 수폭실험의 성공은 함속핵탄은 수폭으로 장착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불란서가 수폭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서 곧 작전화하기는 곤란한 것으로써 수폭을 기보유한 국가들의 전예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68년 8월 28일의 수폭은 위력이 2MT급이었으나 그의 크기는 승용차(전장 3.8m, 폭 1.5m, 높이 1.4m)만하고 중량은 10톤만한 것으로 120명방미터 기구에 매달아서 고도 550

m에서 핵폭발을 실시했다고 전해지며 이년 수폭은 1970년 대 후반기에 작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란서는 야심만만한 장기계획을 발표할 바에 의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거리탄도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대륙간탄도탄(ICBM)계획까지 제작하여 1980년대에 수폭을 장착한 후 작전용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ICBM의 배치는 오늘날 미·소양국이 당면한 과제 중에서 ABM(탄도탄요격망)의 배치가 뒤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불란서도 1980년경에는 ABM체제에 대한 요격정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1970년대부터 ABM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핵분야에서 제외할 수 없는 중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협이 되는 것으로써 1964년 10월에 첫 핵실험을 성공한 후 급진적으로 발전되어 1967년 6월 27일에는 극히 초보적이기는 하나 수폭실험을 수행했는데 그전에 원자탄두를 장착한 중간거리탄도탄(MRBM)이 발사성공한 것이다. MRBM의 성공은 곧 작전화할 수 있었으며 1937년말에는 이미 4개 발사기지가 건설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공에서도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미급한 점이 있어 그의 계획은 많은 수정을 면치 못할 것 같다.

MRBM의 성공에 뒤이어 1968년에는 IRBM을 실험발사하고 1969년에는 초기형의 ICBM을 실험발사하려고 했으나 대체적으로 2~3년간이나 초기실험이 지연되고 있어 작전화계획으로 1970년에 IRBM 1972 ICBM의 배치는 사실상 차질을 가져와 IRBM이 ICBM의 배치와 대체될 것이며, ICBM의 작전화는 1975년에 시작하여 1980년에 75~100기 정도가 실전화 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중공의 지연은 대중공의 탄도탄 요격체제인 THIN LINE를 서둘러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의견이 미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이 월남전으로 인한 국방비의 파대한 지출이 기존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안도감을 불러 넣어준 것이다.

## 미·소의 질적 비교

미·소의 수적 전력은 ICBM분야에서는 상호비등하고 수중발사탄도탄에서는 소련이 훨씬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수적 비교로 그치지 말고 좀더 구체적인 면에서 비교해서 더듬어 보면

## 미 국

ICBM Minuteman-I 800기  
Minuteman-II 200기

	Titan-II	54기
	계	1,054기
SLBM	Polaris-II 5척	80기(5척)
	Polaris-III	576기(36척)
	계	656기(41척)
항공기	B-52	600대
	B-58	80대
	계	680대

### 소 련

ICBM	SS-9 (Scarp)	200기
	SS-11(Scrag)	500기
	SS-13(Savage)	300기
	계	1,000기
SLBM		130기
	계	130기
	Bear	90대
	Bison	110대
	Badger 및 Blinder	약간대수
	계	200대

이상의 숫자에서 미국의 ICBM은 Minuteman-I과 Minuteman-II의 핵위력이 각각 1MT(TNT 100만톤)급이나 TITAN-II는 5-10M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MINUTEMAN 주로 적의 보복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TITAN-II는 대(對) 도시공격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Polaris형은 Minuteman과 똑같은 IM T급의 위력으로써 주목적은 역시 보복력을 억제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항공기는 B-52가 25MT급(TNT 2,500만톤) 4개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B-58는 4MT급 1개를 적재할 수 있으나 일거에 소련본토까지 비행해서 공격한 후에 귀환할 수 있는 전투행동반경을 갖지 못하여 수회에 걸친 공중급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주로 대도시(對都市) 또는 공업중심지 핵공격용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한편 소련의 경우를 보면 ICBM에서 최근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SS-9(Scarp)는 액체연료로 그의 핵위력을 20~25MT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며 이 SS-9의 목적은 대도시 또는 공업중심인 것 같으나 실은 미국의 보복력인 ICBM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서 미국은 현재 ICBM기지가 모두 지하화 되어 있기는 하나 범위가 좁은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다가 그의 지휘소는 100개소 밖에 없어 한 개의 위력은 수 개의 지하기지 또는 1개지휘소를 무능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미국의 주장으로는 소련의 SS-9 200개는 미국의 지하 ICBM

★ ★ ★

기저 1,000개를 거이 무력케한다고 말하고 만일 대도시공격이면 미국인구의 55%까지 살해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외에 SS-11(Scrag)는 주로 대도시용으로 그의 핵탄위력은 5MT급이라고 말하는데 500기의 핵탄은 미국의 전도시는 방어무기가 없다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SS-13(Savage)는 소련의 최초로 제작한 고체연료로 핵위력은 1MT급이 아니겠는가 보며 이 SS-13를 200기나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Minuteman-I의 초기형과 같은 것으로 지하기지에 배치되었겠지만 만족할만 하다고 볼 수 없다.

미·소의 ICBM 중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TITAN-II 54기는 대도시용으로 제의하고는 Minuteman는 핵탄위력이 적으나 지하기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잔존전력이 많아질 것이며, 또하나의 장점은 그의 발사시간이 불과 37초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탐지능력이 많다면 소련의 SS-9(SCARP)이 한 개로 여러개의 Minuteman기지를 일거에 무능케한다고는 하나 소련의 SS-9이 Minuteman기지를 핵폭발로 파괴하겠다고 할 때에는 이미 미국의 Minuteman는 기지를 이목해서 소련 영토와의 중간지점을 비행하고 있을 때인 만치 파괴력이 크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소련의 SS-9는 파괴력의 커서 좋기는 하나 액체연료이기 때문에 지하기지화할 수 없다는 것과 발사시간이 약 1시간내외로 길기 때문에 미국의 기습공격을 피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SS-11(Scrag)도 액체연료이기 때문에 SS-9과 똑같은 숙명을 지닌 탄도탄이며 다만, SS-13(Savage)만이 고체연료로 지하기지에 숨어 있어서 보복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핵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적의 기습공격에 얼마나 많이 잔존하느냐는 바로 그 무기가 지닌 커다란 장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은 수중발사능력으로써 미국의 41척 핵잠수함에 16기씩 적재된 Polaris-II 및 III 656기는 소련으로서는 가장 두통거리로 생각되는 미국의 보복력인 것이다. 몇 개월이고 수중에서 잠항하다가 공격명령에 의해서 수중에서 그대로 발사할 수 있는 1MT급의 위력은 소련이 아무리 기습공격으로 파괴시킬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련은 Polaris형의 탄도탄이 130기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핵잠수함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잘 하여야 핵잠을 30척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90기밖에 되지 않으며, 그 나머지는 재래식잠수함에 적

재됐는데 그의 사정 1,000리에 미달하여 재래식 잠수함의 장시간 수중에서 잠항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현재 소련이 과연 수중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인 등 수 및 질적인 면에서 미국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소련은 수중발사가 가능한 기술과 장거리비행할 수 있는 탄도탄개발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는 나머지 지난 69년 3월 18일 미국방성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소련은 사정이 1,500리(2,400km)의 Polaris형 수중발사할 수 있는 탄도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중탄도탄은 미국이 1970년까지 모두 폐기하겠다고 하는 Polaris-II형과 유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얼마나 뒤편어졌는가 능히 추측할 수 있다.

항공기에서는 Bear나 Bison 등은 미국의 B-52와 동등한 위력인 25MT급 4개까지 적재한다고 제안해 두어야 하며 BADGER나 BLINDER는 사실상 미국의 B-58과 같이 자동반경이 짧아 미본토에 도달한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다.

## 미·소간의 핵위력

미국의 경우 ICBM에서 MINUTEMAN

I 및 II형은 1개당 1MT급으로 1,000MT이라고 볼 수 있으며, TITAN-II는 5MT으로 보고 54기로 270MT 그리고 미해군의 POLARIS는 II 및 III 모두 1MT급씩 생산해서 656MT인 것이다.

이렇게해서 탄도탄에 의한 것이 모두 1926MT(TNT 20억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련면적 2,240만평방Km 인구 2억 4,000만명으로 추산해서 1평방km당 받는 TNT로 환산한 양은 85톤 1인당 받는 양은 8.5톤이나 되는 것이다.

한국전에서 3년 1개월간 투하된 63.5만톤으로 1평방km에 2.8톤이고 1인당 받는 21kg와 월남전에서 2년 5개월만에 투하된 163만500톤으로 1평방km에 4.7톤에 1인당 45Kg에 비하면 순식간에 받은 피해가 8.5톤이라는 것은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다.

그 위에 항공기의 위력은 B-58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B-52만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600대에 25MT급 4개씩 하던 1개에 100MT(TNT 1억톤)으로써 모두 6만MT(600억톤)으로 탄도탄에 의한 약 2,000MT보다 30배나 추가되니 합산하면 1평방km 2,550톤, 1인당 255톤으로써 그 나라에 1인당 받는 최대량은 1인당 20톤과 비교해서 최대량의 12.5배나 되니 소련이 무방비이라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투하할 수 있는 양의 위력은

방사능을 제외하더라도 도저히 인간이나 건물 또는 공업시설이 하나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이 공격할 때 소련의 피해를 막연히 표시했으나 무차별 핵폭격을 지양하고 중점적으로 소련을 핵공격할 때에 필요한 핵운반능력은 다음과 같다.

파괴되는 소련의 인구나 공업

(1972년 총 인구 2억4,700만명)  
도시 인구 1억1,600만명)

1MT급탄두 개 수	총인구시설		파괴되는 공업력
	100만명	%	%
100	37	15	56
200	52	21	72
400	74	30	76
800	96	36	77
1,200	106	44	77
1,600	116	47	77

이상의 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핵탄이라는 것은 무조건 전량을 투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선택해서 공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소련을 가장 이상적으로 완전 마비케하는 수치는 1MT급 400개 이면 충분하다는 말로써 100만도시 74개에 총 인구중 30%가 살상되고 공업도시는 76%까지 파괴된다는 말이 된다.

반대로 소련이 미국을 공격할 때에 총

파괴력은 ICBM에서 SS-9(Scarp) 200기가 각각 25MT으로써 5,000MT(TNT50억톤) SS-11(Scarg) 500기에 각각 5MT급씩 2,500MT(TNT 25억톤) SS-13(Savage) 300기는 1MT씩 300MT(3억톤)으로써 합계 7,800MT(TNT 78억톤)이나 된다. 이러한 양은 미국면적 836 평방km와 인구 1억 8,600만명에 대하여 각각 1평방km당 94톤이고 1인당 42톤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한 항공기는 Badger나 Blinder는 미본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Bear와 Bison만으로 200대에 25MT급 4씩 1대당 100MT는 200대에 2만MT(200억톤)으로써 소련이 투하가능한 핵량은 27,800MT(TNT 278억톤)이나 되니 미국에 받는 피해는 자그만치 1평방 km당 188톤 1인당 96톤으로써 미·소양국에 대등한 피해량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상당히 오래 전에 미의회에서 공청회를 통하여 「수륙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가상 수륙전을 군사전문가들이 토의한 것을 시술하여 본다.

운반수단은 당시에는 주로 항공기였고 그외에 유도탄이라고 하여야 터어버 제트로 비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오늘날 생각하면 웃음꺼리 같으나 그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진보된 것으로서 현실성을 그대로 토론에 붙인 것이다.

이 토론에서 하나의 기준을 두었는데 소련이 미본토 및 자유진영을 공격하고 자유진영에서는 다시 공산진영을 보복공격한 것으로서 수폭의 종류는 오늘날과 같은 규모나 마찬가지로 10MT으로부터 점차 적은 위력인 SMT, 3MT, 2MT, 1MT급 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수폭의 투하수와 목표 지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미본토 1,453MT(직지구투하 2,500MT) 미본토의 목표지 및 총 MT

목표	총 MT
----	------

70개의 진요목표지구	566
-------------	-----

(공업지대, 통신중추지구, 인구밀집지대)

112개 공군기	653
----------	-----

21개 원자력시설	168
-----------	-----

12개 육군시설	24
----------	----

5개 해군시설	28
---------	----

4개 해병대시설	14
----------	----

이러한 목표를 핵공격했을 때 일어난 사상자수를 더듬어 보면 미국 총인구 1억 7,700만명을 두고 제1일 사망자 2,300만명, 제2일 이후 사망자 2,590만명 계 4,890만명으로 총인구의 약 27%이고, 부상자는 2,000만명으로(총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자 회계는

6,890만명에 총 인구중 39%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상자의 원인별로 보면 초기방사능과 열 및 화염 등에 의한 것이 75%이고 강하물의 방사능에 의한 것이 25%나 되는 것이다.

오염지역은 미국본토의 약 70%에 가까운 것이며, 집들은 약반수로 그중 3,000렌도겐/시 이상이 50만호, 1,000~3,000렌도겐/시 210만호, 100~1,000렌도겐/시 1,040만호, 100렌도겐이하가 1,170만호나 되는 것이었다.

미본토에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미국 또는 자유진영에서 소련 또는 '공산국가'에 투하된 핵탄으로 인한 북반구중위도 지대에 가장 악성의 방사능인 Sr90은 전 4,000MT 중 2,000MT이 핵분열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써 80%가 국지적으로 강하한 것이며, 15%는 대류권에 의해서 강하했고 나머지 5%는 성층권에서 떨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말은 직접 핵물질이 투하되지 않았더라도 약 20%는 적어도 북반구중위도 지대는 방사능이 강하하여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중공 핵사상과 피해

중공이 핵무기에 대하여 적어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미공군의 B-29가 일

본의 광도와 장기에 원자탄을 투하한 후인 1945년 8월 13일 모택동이 연안에서 군간부에 대하여 연설하는 가운데 핵무기를 취급한 것이다.

이것이 증공으로써 최초로 핵무기를 논한 것으로 당시 모택동은 일본의 항복이 소련의 참전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원자탄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평가한 것이다.

그는 원폭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이 전개한 투쟁없이 원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만일, 원폭이 전쟁을 결정지운다면 왜 소련의 출병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동지 몇 사람은 원폭이 대단히 강력하다고 믿고 있으나 그것은 커다란 착오이다. 무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은 순군사직 전태이고 대중에서 유리된 관료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우리들 사회에 있어서 「부로조아」세력이라고 혹평했다.

그 다음 모택동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폭은 장래에 다시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폭은 광도시 상공에서 대폭발을 이르게 동시를 파괴해 버렸을 때 전세계의 국민은 원폭공격에 반대하였으며, 원폭의 탄생은 바로 미국

의 증언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민에 기대하지 않고 원폭에 의지하고 있는데 근본문제는 국민의 의식이지 폭발물이나 유유(油由)이나 원폭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을 취급하는 인간의 문제도 중국에 있어서 원폭은 인간을 모두 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원폭을 진멸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후에는 증공의 모택동은 핵무기를 가르켜 「종이 호랑이」라고 평했는데 그것은 한국전쟁 중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나온 술어로 1958년 7월에 증공의 대공보라는 신문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통하여 『한국전쟁은 미국이 「종이 호랑이」인을 폭로하였다. 유도탄기나 핵무기는 미국을 그의 운명에서 구출해 낼 수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민의 힘은 무진장임을 파시하였다.

그러나 증공은 자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핵무기경시의 경향은 신중을 기하기 시작하였으며 1964년 10월에 첫 핵실험에서 성공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핵전쟁이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5년 9월 29일 증공외상 진의는 신문 기자회견에서 우발핵전쟁의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증공이 핵전쟁에서 자기

들이 번역된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중공은 우연적이나 혹은 정당성 없이 미국이 중공에 대하여 핵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공에 대하여 핵으로 대립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공포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공의 지도자들은 핵전쟁은 인류에 대하여 최대의 재액이며 이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공격으로 방대한 중공의 지리적 지역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믿지 않으며 특히 연안시대에 그들이 겪은 공산주의는 두 말할 것 없이 생환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모택동이 말한 바로는 만일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인구 27억 중 3분의1이 사망한다고 하던 그중 생존자는 중공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모택동의 오산으로 중공 내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25MT급 2개씩 적재한 B-52 전략폭격기 200대가 동원하여 400개를 중공본토 주요목표물에 투하하면 중공의 인구 7억2,000만명은 1인당 TNT 14톤에 해당하는 양을 받게 된다.

25MT급 400개는 1만MT(TNT 100억 톤)으로써 이러한 핵탄이 폭발되었을 때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25MT급 한 개탄으로도 250평방리토 이 지역 내에서의 사망자 수는 80%가 되고 오염 지역은 15,000평방리가 넘도 현재 중공 인구의 10%가 25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살고있으며 100만명 이상 도시는 19개소가 된다.

중공의 면적은 366만평방리이며 이 지역에 1만MT의 핵탄으로 공격하면 일시에 3억5,000만명을 살해할 수 있고 1억이 심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폭발열로 인한 사망수를 포함하면 5억이 살해될 수 있다.

그후에 영향을 보면 우라늄원자가 분장할 때 발생한 라디오 스토론티움 혹은 스토론티움 90는 28년간의 지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1969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1992년까지 전세계를 떠돌게 된다. 이것은 칼슘과 유사한 화학물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흡수되어 체내에 침입하여 골격중기와 암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중공지도자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공의 지도자들은 핵전의 방어방법으로 이상과 같은 핵공격이 개시되기 전이나 후에서 오는 사상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미국이 중공에 대한 지상전투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원을 준비하는 소극적 방위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공은 전체인구를 망라한 민병체제(약 3억명이라는 설이 있음)를 조직하였고 그들이 특히, 미국의 핵공격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민병의 훈련과 준비태세를 향상 시키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그리고 남부중국의 인구밀집지에 있는 민간인들을 군사시설이나 도회지 및 통신중심지에서 철수시켜 민병무장화하여 기존지상군을 보충할 수 있거나 방공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중공은 미국의 첫 핵공격 결과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은 미국이 핵공격반으로 중공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공이 작전상의 핵능력을 가지면 본토침입군에 대항하여 미국의 첫 공격에서 남아서 생환한 핵군사력은 미군과 함께 상륙하는 국부군을 격퇴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중공이 의도하는 바는 모택동사상에서 「전략적으로는 모든 적을 경시하고 전술적으로는 중시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 야전용 핵무기

미국은 육군에서 핵무기사용능력을 제

고시킬 수 있는 사단을 1956년말부터 편성을 했는데 67년 9월 미국원자력 위원회는 미국은 전술용 핵무기를 수만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숫자에는 전술항공기로부터 투하할 수 있는 핵탄으로부터 지상군에서 사용하는 소형무력과 해군에서의 대잠수함용 핵어뢰 및 핵로켓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상군용만 하더라도 155m/m 유탄포(사정 16km, 탄두위력 5-10KT), 203m/m 유탄포(사정 16km, 탄두위력 1~2KT)이라는 포류로부터 유도탄은 Davy Crocket M-28형(사정 2km, 위력 0.25-1KT), M-29형(사정 4km, 위력은 0.25-1KT) 또 LITTLE-JOHN(사정 16km, 위력 1~2KT) Honest-John(사정 30km 위력 1~2KT) 등이 있는가 하면 핵저뢰(핵위력 1KT)까지도 실전용으로 매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탄의 위력은 상당히 소형화되어 방사능의 위험은 다분히 제거되었으나 그의 폭약과 비례한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써 0.5KT(TNT 500톤)급 한 발이면 탄착점에서 반경 100m이내의 전차, 화포류가 파괴되는가 하면 200m이내에는 차량류, 350m이내에는 가옥, 400m이내에는 참호내의 보병, 다시 600m이내에는 지상에 노출된 보병이 살해되는 것이다.

0.5KT급의 저위력의 핵탄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사용하나 전투지역이 비교적 넓은 사단규모의 범위에서는 저위력의 핵탄으로써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2차대전 중에 투하한 20KT급 정도는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의 가상 전투지역의 경우를 들어보면 지형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6,000명의 전투병력과 1,500개의 전차, 대포, 차량이 동원된 침입군에 대하여 통상폭탄으로 공격을 가하여 지지하려면 100대의 항공기가 출격해서 폭격을 가하더라도 병력 200명을 살해할 수 있고 전차, 대포, 차량등의 목표 1,500개에서 50개 밖에 파괴할 수 없으나 그의 소요경비를 2,330만불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핵탄으로 공격하면 1대의 항공기가 20KT급 1개를 적재했다가 투하하면 병력 400명을 살해하고 40개의 목표는 파괴시킬 수 있는데 이때에 경비는 불과 380만불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서 20TK급의 중량은 제2차대전중만 하더라도 B-29 4발톱폭격기에 적재했다가 투하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그의 경량 및 소형화로 인하여 20KT(TNT 2만톤)급 1개의 중량은 약 750LB로 전투기 한 대이면 충분하고도 남은 것이다.

여하튼 앞서본 조건하에서의 핵위력은 10개이면 6,000명의 병력과 1,500개의 목표물을 파괴하여 충분히 지지시킬 수 있다고 하나 재래식 폭탄으로 공격하려면 1,0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된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때의 경비도 2억3,000만불이나 비용 대효과면에서 도저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또한 월남전에서 월맹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재래식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물적 손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조종사의 손실은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것으로써 하나의 철교를 공격하는데 755파운드 재래식폭탄 50~70개가 소요됨으로써 F-86F 25대~35대가 동원되는데 이때에 경비는 막대한 것이나 만일, 핵탄인 Bullpup(AGM-12D)에 장착한 0.5KT급으로 공격하면 한 개로 F-86F 25~35대가 동원하여 파괴한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0.5KT급의 핵탄공격으로 파괴된 것은 양기습까지 무너져 재건능불이라고하나 재래식폭탄은 몇 시간이면 임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월남전에서 핵무기사용에 대하여 베트남들이 지하 깊숙히 동굴을 파고 들어 있어서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은 지질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100톤급내지 1,000톤급의 핵장치를 지하폭발시켜 배

트공동굴을 파괴시키면 용역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것은 1967년말 천연가스를 채취하기 위하여 소형수폭(26KT)급을 저하폭발시킨 평화적 핵폭발이 군사이용을 생각해냈다.

핵무기의 사용은 대전락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전술적인 상황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미국의 유명한 전략연구가 칸박사는 만일 월남전에서 약 1,000명의 미군의 대대가 베트남에게 포위되었다고 할 때 이때에 생존할 길은 핵무기사용 이외에는 어떠한 수단이 없는 대대가 통신이 두절되어 상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대대장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미군장교들에게 던진 결과 약 반수의 장교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또 67년말 “해리스”세론조사는 월남에서의 전술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미국민의 25%가 찬성하고 55%가 반대하였으며, 20%가 회답이 없었는데 68년초 데트공세후의 동세론조사에서는 월남전쟁의 지지율 10%에서 훨씬 많은 74%까지 올라 갔으며, 미군인이 곤경에 빠졌을 때에 군인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핵무기사용을 지지할 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전장에서 전술용으로 방사능이 별로 없다. 저위력의 핵탄을 사용하다 보면 점차 대형화의 핵탄이 대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핵무기의 확대는 바로 향후전쟁에서 핵무기를 계속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대전쟁하의 미·소양국간의 고성능핵탄 투하로 인한 희생만으로 끝난다거나 대기권을 떠돌아 다니는 제2차방사능의 오염에서 오는 희생이 아니라 전술핵무기에 의한 피해는 결국 전인류의 멸망을 가져온다고 본다.

## 기습공격과 미·소의 피해

(1970년도)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69년 3월 14일 존슨행정부가 위임한 ABM체제를 실질적으로 수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자리에서 그 계획에 관한 목적은 세 가지 들었는데 첫째로 소련의 직접공격에 대한 미국의 저상보부력의 보호, 둘째로 중공이 10년내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위, 셋째로 어느 국가에서든지 우연히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보호 등이다.

여기에서 소련의 직접공격에 대한 미국저상보부력은 애당초의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당초에는 보부기지 보호보다는 도시주변에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도시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전투 분위기를 너무 조성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준다는 것을 비롯하여 핵탄두가 장착한 ABM유도탄은 해를 줄염려가 많다는 것 끝으로 대소군축협상에서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물체의 중공이 향후 10년내에 개발예상되는 핵공격의 대비는 ABM체제를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써 중공이 얼마나 호전국가임을 입증해 준다. 중공의 ICBM개발과 미국의 피해의 정도를 측정된 다음과 같은 도표를 발표했다.

### 1970년대 중공의 제1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피해(단위 백만명)

중공의 ICBM 수	×	2.5×	7.5×
Sentinel 없는 경우	7	11	15
Sentinel 있는 경우	주	주	1

상기 도표에서 X라는 수치는 1975년경 25기일 것이라고 추정하며 그때에 받는 피해는 700만명이 희생된다는 것이며, 그의 수량이 2.5배 증가했을 때 희생은 1,100만명 그리고 7.5배로 증가하더라도 1,500만명 밖에 희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THIN LINE 또는 SENTINE L망(ABM체제중 일부)을 설치하면 상황은 변화되어 중공의 ICBM수가 2.5배나 증가되더라도 미국의 ABM체제로 격추시켜 결국 거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며 7.5배로 증가해야만이 희생은 100만 명밖에 되지 않음으로서 55억이 소요되는 Sentinel망의 설치가 얼마 긴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였다.

다음 소련의 경우를 들었는데 1970년 중기에 있어서 전면적 전략교전의 결과에 생기는 상호국가의 희생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ABM체제 또는 Sentinel망의 설치 여부와 이에 관련하여 돌입 보조기재 또는 다탄두의 적재 나아가서는 기동성의 유무까지 들은 것이다.

다음 도표에서 ABM과 Sentinel를 구별 했는데 ABM체제는 광범위한 방어체제이나 Sentinel망은 일부 특정지역에 대한 방어계획으로써 Sentinel망은 일명 THIN LINE이라고 부르며, 태세 A는 ABM체제 중 25개소를 설치한 것으로써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130억이고, 태세 B라는 것은 추가로 52개소에 설치한 것으로써 비용은 220억이며 태세 A, B를 완성했을 때에 실제경비는 400억이나 되는 것이다.

소련의 응수에서 아무도 없다는 뜻은 ICBM을 전연발사해서 반격하지 않는디

1970년중기 교전시의 피해(단위 만명)

미국의 계획	소련의 응수	소련기습 미국반격		미국기습 소련반격	
		미국피해	소련피해	미국피해	소련피해
ABM 없음	없 음	120	120	120	80
Sentinel 있음	없 음	100	120	90	80
Sentinel 있음	돌입보조기재	120	120	110	80
태 세 A	없 음	40	120	10	80
	MIRV 돌입 보조기재	110	120	60	80
	+100 기동 ICBM	110	120	90	80
태 세 B	없 음	20	120	10	80
	MIRV 돌입 보조기재	70	120	40	80
	+550 기동 ICBM	100	120	90	80

는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조  
기재: 다탄두적재, 그리고 기동성 있는  
ICBM 발사대 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보조 기재에는 보편적으로 위장탄두나,  
방향변경방법을 뜻하는 것이며, 다탄두적  
재는 한 개의 ICBM에다 여러개의 탄두를  
적재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미국의 차  
기 ICBM인 Minuteman-III에는 5개,  
Poseidon후계형인 Poseidon에는 10개를

각각 적재하는 것을 말하며 소련의 SS-9  
(SCARP)도 다탄두실험을 행하였다고  
진해진다.

기동성 ICBM은 1970년 중기까지의  
ICBM기수를 1,250개로 추정하는데 여기  
에 부가해서 발사대가 이동가능한 것으  
로써 소련은 무과도차량에 탑재시킬 계  
획 또는 지역 넓은 "시베리아"에 철도  
를 부설하여 배일 위에 발사대를 설치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하에 소련의 기습에 미국의 반격은 소련이 군사목표와 도시목표에 대해서 제일격을 가한 후 미국이 도시에 대하여 보복한 경과를 말한 것으로서 배세 B에 있어서 소련이 보조기재나 다탄두 또는 기동성 ICBM발사대가 없으면 미국의 피해는 2,000만명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소련은 인구의 반수인 1억 2,000만명이나 희생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기습공격에 소련이 반격했을 때 미국은 군사목표에 대해서만 제일격을 가한 후 소련이 미국도시에 보복을 가해 오면 미국은 다시 소련의 도시에 대해서 보복한 경우를 표시한 것으로서 미국의 기습공격시 소련의 기타 응수 기재가 없으면 미국은 1,000만명만을 희생시킬 수 있으나 소련은 8,000만명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양국의 전략개념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련은 기습공격시에 군사목표와 도시를 공격하나 미국의 기습공격은 군사목표만을 공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반격시 미국은 도시 반격에 소련도 같은 도시반격으로 되어 있다.

기습에 소련이 군사목표를 공격하는 것은 바로 보복력을 없애자는 뜻이고 미국도 역시 군사목표로 되어 있는 데 이는 바로 우선적으로 보복력을 말실한

다음 승리를 획득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타 보조기재는 MIRV는 다탄두를 적재할 목적하에 실험용 재돌입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돌입보조기재와는 성격이 상이한 것이다. 다탄두탄도탄은 미국의 경우 Minuteman-III는 5개, Poseidon는 10개라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여력개의 탄두는 한 로케트추진체에 의하여 비행한 후 목표상공에서 자자 정해진 목표를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다탄두의 한 개당 위력은 50KT(TNT 5만톤)급으로 제작하고 있는 바 200만 도시를 공격하는데 10MT(TNT 1,000만톤급)와 동등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50만도시에는 10MT급 1개 보다는 비용대 효과면에서 50KT급 10개가 3.5배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분산된 비행장인 경우는 10MT급 1개나 50KT급 1개나 효과는 똑 같다고 볼 때 10배의 이득이며 지하 ICBM기지는 10배의 효과이며 방어력에 있어서도 10개가 분산되어 투하되는 것이나 10MT급 1개나 요격하는 전력은 똑 같다고 볼 때 10배이며 그외에 전자방해능력은 10MT급 10개이면 불가능하나 50KT급 10개에는 2~3개를 필요에 따라서 전자방해능력이 있는 위장탄두를 대체해서 장

★ ★ ★

착함으로써 상대방국가의 ABM체제를 혼란 또는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탄두로켓트의 출현은 새로운 양상의 대전략을 가져 오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 태세 A일 때에는 소련의 다탄두로켓트는 적재한 것을 사용하면 1억 1,000만명까지 희생되며 태세 B일 때에는 7,000만명까지로써 없을 때에 2,000만명에 비하여 3.5배의 피해를 더 받게 된다.

위에 본 도표에는 소련의 ABM체제는 전연 언급이 없는데 아마도 소련의 ABM체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치 못하여 개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의 수자는 미국에서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 보고 있는 것 같으며 1억명의 희생중 1,000~2,000만명의 오차는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여하튼 상기 도표의 희생수는 어디까지나 미·소양국간이 보유 또는 1970년 중기까지 보유하게 될 ICBM에 국한하였지만 향후의 전쟁은 꼭 ICBM에만 의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전략폭격기를 1970년 이후에는 현전력을 대체보장할 계획인 바 B-52는 600대에서 255대로 감축하는 한편 FB-111를 210 새로이 제작하여 작전용으로 취역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항공기만의 대체가 아니라 항공기에

장착하는 무장도 대폭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써 SRAM(Short Range Attack Missile)의 출현은 B-52에는 HOUND-DOG 위장유도탄 2개와 함께 SRAM 12개까지 적재하며 FB-111는 6개를 적재하여 목표접근 50-100리 전방에서 발사하여 콘크리트 지휘본부 무기저장소와 같은 경요한 기지를 핵공격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적재된 핵탄두는 50KT급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ICBM에서 다탄두의 위력이 50KT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선정된 것 같다.

다음은 SRAM의 사정이 짧고 또 전자 방해능력이 없는 단점을 매꾸기 위하여 새로운 공중대지상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SCAD(Subsonic Cruise Armed Decoy의 약자)로 B-52에는 20~30개까지 적재하는데 그의 사정 1,100리로 장거리비행이 가능하나 핵위력이 20KT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의 공격목표가 대공유도탄, 공격유도탄 및 도시와 같은 공고성이 희박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의 유도방법이 목표로부터 나오는 반사파를 받으면서 추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 SCAD유도탄은 한 개 유도탄체내에 20KT급 핵탄만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용 유도장치와 또 하나는 적목표에 투하될 때 적의 방공무기가 요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전자 방해장치까지 아울러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1962년에 SKYBOLT라는 공대지탄도탄을 개발하다가 중지된 것과 대조적인 것은 한 대 폭격기에 여러 개의 유도탄을 적재할 수 있다는 이점이 다시 부활해서 개발한 것으로 본다.

항공기 B-52와 FB-111이 실전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B-52나 FB-111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여 이와 대체할 신행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가르켜 AMSA(Advanced Manned Strategic Aircraft 약자)는 1970년대 실전용으로 취역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때는 미국의 초음속수송기(SST)를 약간 개조하여 폭격기화한 것이라고 했으나 취소하고 새로운 개념하에 개발한 것이다. 이 AMSA 항공기의 항적저리는 7,000~10,000리에 변함이 있을 수 없고 그의 운반량은 B-52의 2배라고 하며, 1975년부터 실전화하여 약 100억불의 비용을 투입하여 200대까지 생산하려고 하는데 SCAD는 아마도 AMSA가 출현한다는 조건하에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으며 100억불 내에는 SCAD의 제작도 포함되어 있다.

폭격기는 핵전략하에 실제 계산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핵공격량은 대단한 것으로서 혹자는 속도가 느린 폭격기가

어떻게 소련의 방공망을 침투시킬 수 있을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나 실은 속도에 좌우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방공망의 우수성에 대비한 전자방해(ECM) 또는 대전지방해(ECCM)이 얼마나 잘 맞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요요건이다.

그래서 적재량이 바로 공격핵탄 또는 유도탄을 보다 많이 적재하고 그외에 전자장치를 얼마나 더 적재하느냐가 바로 침투물이 많아지는 것으로써 AMSA의 적재량이 B-52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것이 탄도탄전략하에서 항공전략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탄도탄과 항공기는 바로 현실적으로 미·소양국이 상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 이외에는 1972년경부터 우주전의 양상이 실현화된다. 미국의 MOL(Manned Orbital Laboratory의 약자)는 1670년부터 실험비행하면서 1972년초에는 작전화로 지구궤도상에 회전시키면서 지상 명령에 의하여 핵탄을 상대방국가에 투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보다 앞서 소련은 FOBS(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의 약자)를 1967년부터 실험발사한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무인인공위성이기는 하나 SS-9(SCARP)로켓에 의하여 궤도 100리

고도에 진입한 후 그의 목적거리 5,000 ~ 10,000리를 비행한 후 목표상공에서 역추진로켓트에 의하여 투하된 다음 핵 폭발을 시키는 것이다.

FOBS의 시비가 있기는 하나 그의 존재가치가 꼭 전쟁목적에 직용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실자체가 심리적으로 효과를 얻어볼 수 있다. FOBS의 적재량 10MT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 그의 비행고도가 낮다는 것과임의로 그의 비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서 미 본토 남쪽으로부터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것 등은 역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무인핵위성을 그의 적재량이 로켓트 추진체의 개발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형화될 수 있는 것으로써 향후 150~300MT(TNT 1억 5000만~3억톤)급의 핵탄을 적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그의 파괴범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한다.

150MT급만하더라도 1평방cm당 2칼로리의 열이 나오는 것은 반경 330리이나 되며 1평방cm당 5칼로리는 240리반경인데 300MT급은 1평방cm당 2칼로리 620리반경이고 1평방cm당 5칼로리는 360리 반경이 된다.

1평방 2칼로리의 열량은 얼은 나이트류가 연소할 정도이고 5칼로리는 신문지가 연소할 열량이고 보면 그의 위력

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위성에 핵탄을 적재하고 실전화된다는 것은 요원한 시일이 아니라 미국이 ICBM에 의하여 미·소양국에 받을 피해를 받을 시기인 1970년 중기이면 충분히 출현하리라 믿는다.

ICBM만 하더라도 미·소양국간의 인구가 최대 반수까지 사망되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목격기에 적재된 핵탄과 1972년부터 출현할 인공위성으로 운반되는 핵공격 등은 문자 그대로 가공할 만한 것이 된다.

물론 방어면에서 미·소양국 공히 조기경보망으로부터 탄도탄요격 유도탄까지 소련은 1967년말부터 배치하였고 미국도 배치할 것을 결정하였으니 이러한 체계가 완성되면 미국은 소련의 ICBM을 500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다 하는바 그때에 양상이 최고 1억2,000만명으로부터 1,000명까지의 각양각색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러한 ABM망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소극적인 방어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방법은 가장 이상적이라면 대피호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소련은 이미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간을 지하철도화하여 이 안에 핵대피로써 500만명이 수용될 수 있다고 하며 그외에 주요도시나 시설에는 대소규모의 핵대피호가 설



치되었다고 하는바 이로써 보다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미·소양국의 핵전략을 본하였으나 직접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때때로 제3차대전 의 핵공격과 피해가 피안의 불과 같이 방관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복피는 호시탐탐 재침을 노리는 상황하에서는 제3차대전 의 핵공격보다 앞서 전술적인 핵무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 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정은 너무나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감히 간략하게 결론으로 내놓는다.

대안중 첫째는 핵탄이 우리들 머리위에 투하되는 때는 우리도 똑같은 핵탄의 보복으로 맞서는 것은 최선의 방안은 재론을 요치 않으나 우리나라실정으로 핵보복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망이기는 하나 한·미간에 방위협정의 개정 또는 상호 협의체에 입각한 공동관리하의 핵전력의 구비 등은 희망적인 것으로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서독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방어면에서는 소형 야전용 현탄두를 공중격파한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 같으나 중공의 MRBM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의 ABM산하에 들으

르써 미국의 구상하는 해상 AB방인 SA BMIS(Seaborne Anti-Ballistic Missile Intercept System의 약자)은 적절한 배치고려를 미국에 촉구하는 방안의 모색 등이 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핵방어책의 구상을 화급히 서둘러야 한다. 소극적인 방법이기는 하나 우리 실정에서 가능한 것이며, 이는 부의미한 것 같으나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핵대피호로써 특히 주요도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곳이나 주요군사시설 등은 지하호의 구축을 통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핵대피호를 잘못 인식하여 직격탄이 투하되면 부의미하지 않겠느냐고 비판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극히 희소한 일로써 대부분은 주위에 투하될 때 35%의 열, 50%의 폭발 또는 직접방사능이 피해가 클뿐이지 잔류방사능은 10%밖에 되지 않아 별로 문제시할 수 없다.

우리는 제2차대전중 일본의 교훈을 참고삼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면 광도와 장기는 다같은 20KT급이 투하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광도가 인구 25만5,000명에 파피면적 4.7평방리이고 사망 70,000명 부상 70,000만명으로 계 14만명이었고 장기

## ★ ★ ★

###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하자면, 한 개인이 자수성가 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 쓰며 아끼는 경우와 같이, 국민의 근면과 절약에 바탕을 둔 저축의 힘이 없이는 그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 ◇…경제발전에도 결코 기적이 없는 것이며, 만약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축 증대를 통한 자본형성을 이룩하는데 있다.
-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고 준수하는 국민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고 만다.
- ◇…흙 처럼 정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낡고 병든 토양에는 곡물이 잘 결실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농민, 협조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행운이 깃들 수도 결단코 없다.

는 인구 19만5,000명에 파괴면적 1.8명 방리에 사망자 36,000명 부상자 40,000명제 76,000명으로 광도에 반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광도가 평야이고 장기는 도시가 하나의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의 피해도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산은 크기는 하나 하나의 방어물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만을 기대하기에는 핵탄이 출현하고 나서 상당한 세월이 흘렀으며 이제는 자발적으로 새로운 구상하에 보다 많이 생활할 능력을 갖추겠다고 과감히 나서는 것은 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제3차대전은 전면핵전으로 전인류는 멸망한다고 가정하여도 다른 의의를 제출할 사람이 없겠으나 상호검증이는 원하지 않을진대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면 멸망을 초래할 대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대전쟁상태보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약소국가군에서 가공한 만한것을 모르고 전쟁을 야기시켜 대전화까지 Escation는 하지 않아도 전술핵탄이 폭발것만 같다 전술핵폭탄이 터질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북에는 호전적인 북괴가 있으며 그의 배경이 또한 호전국인 중공이라고 볼 때 불행하지만 한국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임을 부언해 둔다.

## • 성경 어휘 해설 •

### 「말 씀」

#### 최 원 진 군부

「말씀」이란 낱말은 인간상호간의 의사전달 즉 교통을 의미한다.

오늘날은 많은 인간의 의사전달 수단이 생겨서 편지를 도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보면 세 가지 방법의 의사전달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대티자를 보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요, 둘째는 편지로 연락하는 방법이요(전보나 텔레타이프 등도 여기에 포함될 것임), 셋째는 직접 가서는 친히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사를 전달하시거나 대화하실 때도 대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고, 셋째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 세가지 방법의 말씀을 상호함으로써 말씀의 성격을 파악하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성경(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명시되어 있다. 즉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는 말씀을 보더라도 강단에서 울려 나오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암시하고 있다.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신령한 교리에 관한 설교는 목사들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동시에 설교는 그의 사자들에게 우리가 경청하게 될 때 우리 순종에 대한 좋은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으로써 그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비록 설교자는 부족한 인간에 지나지 않고 그의 처식과 그의 말은 유한한 범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지만 설교내용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설교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창조력을 가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는 항상 창조, 심판, 소명, 사유, 구원, 기적, 축복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전달 되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기독교가 2천년의 긴 역사를 걸어 오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군림한 것은 오로지 성경의 공로라고 볼 수가 있다.

성경만큼 인류역사의 모든 면에서 큰 공헌을 끼친 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실례를 몇 가지 든다면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실락원」, 「피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은 그 화재와 재료가 성경에서 나왔으며 셰익스피어의 대명작들과 워즈워드나 테니슨이나 부라우닝의 시, 그의 카라일, 러스킨, 아아놀드의 작품들은 성경을 모르고는 읽을 수 없으리만큼 성경의 사상과 구절을 인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성악으로 유명한 바하의 「고난」, 헨델의 「메시아」 같은 것은 다 그 악지를 성경에서 받았으며 미켈란젤로의 「모세」나 도나텔로의 「다윗」 같은 조각도, 라파엘의 성모나 머릴로의 「거룩한 가족」, 루벤의 「십자가에서 나리십」 같은 성화도 다 성경에서부터 그 영감과 재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문화면에서만 성경이 큰 공헌을 끼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다.

-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계시한 성경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성경없이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성경을 성령의 빛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장애물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성경의 내용이 너무 평범하다는 점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문학적 취미를 위해서 아름다운 문체를 사용한 책도 아니요, 철학적 사고를 위해서 논리적인 표현만을 추구한 책도 아닌 것이다. 날마다의 삶을 위해서 삼식의 평범한 식사가 요청되는 것처럼 매일의 뜻 있는 생활을 위해서 평범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생명의 떡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애독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다.

둘째로 성경에서 취급된 기적문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한다. 사실 성경에는 현대 지성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이적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적이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세계와 교섭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신적 사건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의 머리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당연지사일 것이다.

특히 기적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기적을 대표하는 것으로써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성경에 기록된대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신, 불신(信, 不信)이 판명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신앙의 세계는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재를 믿지 못하는 이에겐 신앙의 세계가 한낱 관념이나 환상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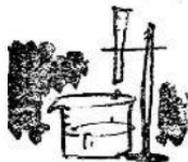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오는 한 줄기의 빛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계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은 성경에 기록된 도덕적 문제라고 한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로마 14:23)고 하였기에 일반 도덕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그러기에 때로는 기성 도덕과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참된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며 성령의 감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 1:14)는 성구대로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태초부터 계시서 창조사업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종구적인 구원은 말씀되신 그리스도로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기본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정 보 시 스템 에

## 필 요 한 요 소



현 정 호

<공학박사·한국기술연구소>

오늘의 시대는 정보홍수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방대한 수의 정보(Information)가 밀려나와 이 수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크게 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이러한 상태는 현대 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게 된 출발점이 되었고 일반 또는 특정한 도처실을 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하게 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보」라하면 문제해결에 있어 유용한 지식의 일체를 뜻하나 여기에 서의 정보라 함은 1개인 또는 조직간에 교환되는 기재된 형태의 일체의 지식을 정보라고 정의한다. 즉 정보의 구체적 인 예로 들면 신문기사, 테이타(Data), 연구보고서 등이 모두 정보이다. 현재 1년간 세계에 새로이 발표되는 연구 논문 수만 해도 300만편이 넘고 여기에 신문기사, 테이타 등 여러가지를 합치 면 그 양은 막대하다. 이런 많은 정보

중에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런 많은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 보관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주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조직적인 제공 활동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담고 있다.

(1) 첫째로 정보량의 급증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보량은 지수적으로 증가하여 8 내지 10년을 1주기로 하여 배증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집, 보관, 정리, 제공하는데는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2) 둘째로 학문분야의 세분화는 정보의 축적, 정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전문분야끼리의 관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 셋째로 정보가 발생하면서부터 요

구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다. 즉 정보 입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존재목적은 위의 문제점을 감소 내지 제거시키는데 있다. 즉 세분화된 많은 양의 정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축적하고 이를 시기에 알맞게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므로서 다음 9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현재 발표되고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소개, 분배하며 요구자가 정보를 찾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가능하게 한다.

(2) 요구자의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그 관련분야의 정보까지도 제공하여 준다.

(3) 정보원(Information source) 중에서 중복,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정보원을 간추린다.

(4) 정보를 찾는 사람을 위해 정보복원(Information retrieval)의 시간을 최소화 한다.

(5) 연구자료 하ierarchy에 관계있는 현황에 관해서만 집중해져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6) 과거의 연구사항에 대한 조사시간을 최소로 단축시킨다.

(7) 불충분한 문헌조사 때문에 일어

나는 고의적이 아닌 연구나 조사의 중복을 최소로 줄인다.

(8) 필요한 정보의 전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어느 업체나 단체 책임자의 결심을 빨리 할 수 있게 한다.

(9) 과거에 사용되어 왔던 단일 질문에 대한 답만을 얻을 수 있는 문헌조사 방법을 지양하고 새로운 정보복원방식을 제공한다.

정보시스템이 그의 고객에 베푸는 업무 내용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8단계로 나누어 진다.

**1단계** —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를 색인(Index)하여 두었다가 이용자가 있으면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 색인으로 확인하여 찾아주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단계.

**2단계** — 위에 적은 색인을 이용자에게 정기적(보관된 정보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된다)으로 배포하여 이용자가 이 색인을 직접 사용토록 하는 것.

**3단계** — 1단계, 2단계 업무를 종합하여 동시에 행하는 것, 즉 Index를 비치하여 두고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Index를 사용자에게 배포

도 함.

**4단계** — 이 단계는 위에 말한 어느 단계에든지 보충으로 주어지는 업무로써 사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었을 때 요구된 정보에 관련된 문헌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문헌의 발췌나 초록도 제공된다. 이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된 문헌들의 필요 유무를 판단, 결정할 수 있게 한다.

**5단계** — 수집된 정보를 발췌 또는 초록한 초록집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것.

**6단계** — 4, 5단계 업무를 종합한 것. 즉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문헌의 발췌나 초록을 함께 보내고 또 정기적으로 초록집을 간행하여 배포한다.

**6단계** — 요구에 따라 정보의 근원이 되는 서류(또는 보고서)의 복사된 부분이 제공된다.

**8단계** — 위에 적은 정보제공업무 외에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가치판단을 빠르게 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제공

한다. 소위 「정보분석센터」가 바로 이것이며 이 정보분석센터에서는 위에 말한 정보시스템에서의 업무 외에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가진다.

(1) 수집된 정보를 다시 분석 종합하여 현황보고서(State-of-the-art-report)를 만든다.

(2)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종합하여 새 데이터를 만든다.

(3) 사용자의 계획,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정보를 분석 평가한다.

(4) 장래에 연구할 제목을 가려내기 위하여 작성된 State-of-the-art report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현재의 정보시스템이 하는 일은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에 대한 일과 과거에 축적되어 있던 정보의 검색업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서어비스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서어비스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근에 시스템에 축적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

는 일을 맡아하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새 정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에 있어 크게 효과가 있다. 이 업무의 형태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가) 수집된 정보를 분야별로 분류, 정리하여 조록의 형식으로 정보시스템 이용자에게 발간, 배포한다.

(나) 정보시스템 사용자로부터 미리 신청된 특정분야의 요구항목에 의해 시스템에 새로이 축적된 정보를 분류 정기적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2) 과거 정보업무

이는 현재까지 수집, 축적되어 있는 많은 정보 중에서 요구되는 특정의 개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보시스템이 취급하는 정보량은 엄청나게 많고 세분화된 학문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 활동영역도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들 세분화된 정보시스템은 일단의 학문군이나 기능단에 의하여 일개체로 집중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집중화된 정보시스템은 곧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정보센터로서 다음 두 가지의 대표적인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1) 분야중심 정보센터(Discipline-oriented center)

이 정보센터는 학문분야별에 따라 정보를 수집, 보관, 분배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그 기구가 크게 될 경향을 가지

고 있으며 전형적인 분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의학, 화학, 물리학, 공학, 사회학, 철학, 경제학 등등.

#### (2) 사명중심 정보센터(Mission-oriented information center)

이 정보센터에서는 정보의 취급범위가 특정하며 어떤 사명을 위해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이 부류의 정보센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포장정보센터, 의료기기정보센터, 표면처리기술정보센터, 방사선영향정보센터 등등.

이 두 가지 형태의 정보센터는 미국이나 구라파에는 많이 설립운영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빗뚝 정보센터가 근근 설립된다.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센터를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iscipline-oriented center는 Mission-oriented center에게 정보를 파는 「도매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Mission-oriented center는 정보를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파는 「소매상」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ission-oriented center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는 Discipline-oriented center보다 적지만 전자가 취급하는 정보내용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분야에 미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표면처리기술정보센터에서는 공학분야정보,

화학분야정보 등등 여러 가지 학문분야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정보와 정보센터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대략 알았다. 그러나 이들 정보센터가 그의 업무수행상 정보추적에 사용하는 기술적 수단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색인(Index)은 정보추적 제공의 기본 되는 형태이다. 색인에 의하여 정보를 추적하여 검색한다. 색인은 추적된 정보 중 요구되는 정보의 소재를 가르쳐 주는 수단으로서 즉 요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느 초록집 또는 어느 문헌(보고서)에 있는가를 나타내 준다.

색인은 정보를 찾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단일입로색인(Single-access index)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합색인(Conjunctive index)이다. 색인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을 때 한 번에 단 하나의 개념으로만 찾을 경우 이것을 단일입로색인을 썼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서류(보고서)를 찾는 데 색인에 있는 여러 가지 술어(Term) 중 단 하나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이 형태의 색인은 서적들 뒤에 있는 일반적인 색인인데 여기서는 한 개념(내용)을 가리어 내며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페이지(Page)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결합색인은 어떤 정보를 찾는데 있어

몇가지 술어(Term)를 종합해서 색인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예로써 위의 두 가지 색인을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티타늄(Titanium)」을 사용한 항공기 날개의 제작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시오」하는 질문이 들어 왔다면 조사자가 단일입로색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는 먼저 한 술어(가령 예를 들어 「항공기 날개」)만 가지고 찾기 시작한다. 색인은 이때 「항공기 날개」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된 서류(문헌 또는 보고서 포함)를 찾게 해준다. 이 관련된 서류들로부터 조사자는 또다시 찾기 시작하는데 우선 「제작 기술」에 관련되지 않는 것을 이들 서류 중에서 추려내 버린다. 다음 순서로서는 물론 위에 남은 서류 중 「티타늄」에 관련된 것만 찾으면 그것으로서 조사 의뢰가 들어온 질문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같이 어떤 조사 의뢰든지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술어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찾게 만들어진 것이 단일입로색인이다. 이에 반하여 결합색인은 위에서 말한 「제작기술」, 「항공기 날개」 및 「티타늄」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결합시켜 놓은 색인이다. 따라서 정보를 찾는데 있어 이 결합색인이 단일입로색인에 비해 많이 시간이 절약된다.

결합색인은 다시 둘로 나누어 종속색인(Subordinate index)과 동격색인(Co-ordinate index)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인쇄된 색인에서 볼 수 있는데  
 슬어들의 종속관계를 표시한 색인을 받  
 한다. 위에 말한 바 있는 「항공기 날개」  
 를 또다시 예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색  
 인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종속색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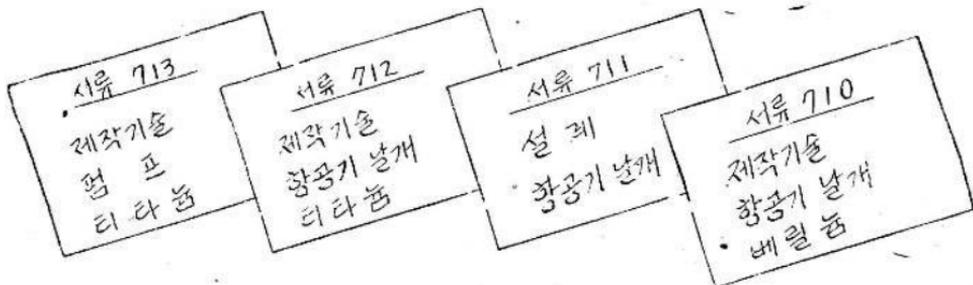
항공기 날개  
 설 계  
 제작기술  
 알루미늄  
 티타늄  
 강 철

이 종속색인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 제  
 한을 받는데 그것의 하나는 조사자가 색  
 인을 사용할 때 그는 슬어간의 종속관계  
 를 잘 모를 수가 있어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종속색인은 먼

저 인쇄해 두어야 하므로 모든 새로이  
 입수된 정보들이 이미 정해진 슬어 또  
 는 그 슬어의 종속관계를 가질 것이라  
 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격색인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색  
 인에 사용되는 모든 슬어가 똑같이 중  
 요하다고 취급된다. 이 방식의 색인에는  
 통상적(Conventional)인 것과 역전적  
 (Inverted)인 것하고 두 가지가 있다.  
 전자에서는 색인은 서류기록으로서 색  
 인된 모든 슬어(단위 개념)가 서류마다  
 주어진 번호 아래 적혀 있게 되고 후자  
 의 경우는 각 색인된 슬어에 대해서 서  
 류번호를 직계 마련되어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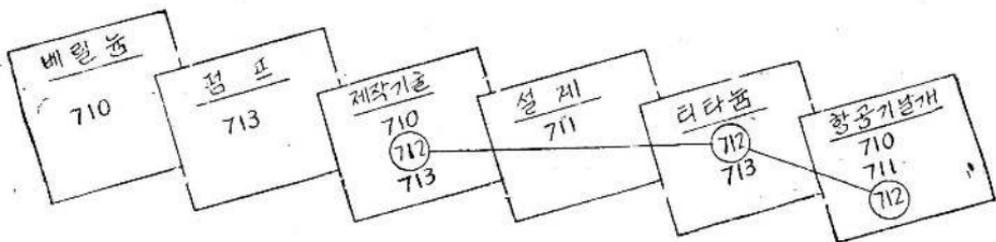
통상적인 동격색인(Conventional Coordinate index)



이 통상적인 색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찾는 경우 위에 예로 들었던 「티  
 타늄을 사용한 항공기 날개의 제작기술」  
 을 다시 생각하여 본다면 서류 712만이  
 찾으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있

다. 이때 조사자는 축적된 정보를 색인  
 을 사용하여 제열적으로 뒤지는데 「제  
 작기술」, 「항공기 날개」 및 「티타늄」에  
 관한 모든 서류를 찾아야 된다.

역전적으로 색인했을 때에 위의 그림



과 같이 관련된 술어 각각이 한 카아의 단위가 되고 그 기술된 술어에 관련 있는 서류의 번호가 각각 기록되어 있게 된다. 보는 것과 같이 서류 712가 요구 되는 정보이다.

색인은 이밖에도 분류색인 (Classification index), 알파벳 (Alphabetical) 제, 목색인 등 여러 가지 색인방법이 있다.

정보의 축적은 원문(서류, 문헌 등)을 그대로 축적함을 비롯하여 초록 (Abstract)이나 발췌 (Extract) 등 요약된 형태로 하게된다.

초록이란 원정보의 내용을 짧게 간추려 표현하여 놓은 것으로서 원정보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지저적 사항의 기술을 동반한 것으로서 흔히 정보 제공시 이용된다. 그의 종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상세초록 (Informative abstract)는 원정보를 요약함에 있어서 원문의 주요 데이터, 사실, 관찰사항, 결론을 기술하여 놓은 것이며 지시적 초

록 (Indicative abstract)은 원정보를 요약함에 있어 원문이 무엇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 주요사실, 데이터, 결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발췌라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는 상세초록과 비슷하나 원정보의 글 가운데 주요 부분만을 원저자의 그것대로 발췌하여 옮겨 놓은 것을 말한다.

실지로 동격색인 (Coordinate index)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원정보의 초록 (Abstract)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위에 적은 색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색인에 사용될 술어를 초록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을 말하는데 있어 정보를 수집하여 분류, 색인, 초록, 발췌 등의 작업을 거쳐 축적하고 검색하고 제공하며 색인, 초록으로 다시 원문을 복원하는 제행위를 정보처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보처리 작업은

정보량이 점차 많아지고 그 취급분야가 세분하여 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사람 손으로만 일일이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정보처리 기제화이다. 그러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있어서든지 무조건 기제화를 강조할 수는 없다. 기제화는 시스템설계에 따라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적절한 기제화를 채택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제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광범위하게 있으며 간단한 것은 손으로 사용하는 연필로부터 전자계산기까지 있다. 주요한 것을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1) Hand-posted cards
- (2) Typed cards
- (3) Edge-notched cards
- (4) Field-Punched cards(전자계산기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
- (5) Field-punched aperture cards
- (6) Optical coincidence devices
- (7) Sortess and collator
- (8) Computers
- (9) Computer-microfile combinations

정보처리의 기제화는 경제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다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적당하면 채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기제화에 의하여 신속, 정확하고 능률적인 정보처리를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흥

수처럼 증가할 정보량과 함께 기제화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할 것이다.

기구화한 정보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래 속출할 또 발전해 나아갈 분야중심 또는 사명중심 정보센터들의 장기전망을 고려할 때 정보시스템은 다른 분야와 평행해서 최대한의 적응성을 가져야 될 줄 안다. 어느 한 정보시스템이 설계될 때에는 다음의 변경들을 예기해서 설계되어야 된다.

- (1) 정보시스템 사용자(고객)의 구성에 오는 변화
- (2) 시스템이 취급할 수 있는 분야범위의 변동
- (3) 시스템의 자동화 및 정보활동에 사용될 장비의 증가

여기적은 이유들로서 정보시스템은 변화에 대한 최대한의 적응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보시스템은 사람-기계의 시스템으로 사람이 지적운동을 담당하여 갈 것은 사실이다. 두가지 사람이 정보시스템의 요소로서의 요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1)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고객)가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결정방법에 관한 것과 (2) 사용자가 어느 정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점이다.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자동화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인데 현재 비싸게 먹고 있는 사람에 의한 초록 및 발췌 작성성이 어떻게 하면 기계화된 것이냐가 연구제목에 하나가 된다.

정보시스템 요소 중에서 더욱 연구되어야 될 분야는 사용 언어인데 시스템에 사용될 슬어의 제정 등으로 많이 고려되어 있으나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어떤한 정보(원칙, 사실 등등)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써의 표현방법이 있어 실지로 일단 목적인 정보를 복원시킬 때에는 지장을 가져오고 때가 많은데 만약 정보 시스템을 위한 특수언어가 연구되었다면 시스템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줄 안다.

끝으로 정보 전문가들이 실지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취급 및 처리에 관한 일들이 수학적 이론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연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수 많은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설계에 있어 극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정책을 세울 때, 군에서 지휘관이 군사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결심을 할 때, 연구자나 기술자가 어떤 연

구를 할 때, 사업가가 어떤 공장을 세워 어떤 기업을 계획할 때 등등 정보가 필요한 시기 및 분야는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이 많은 정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그때 그때의 정보가 아니고 정확하고 신속히 제공되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잘 설계된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게 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구라파 몇 개 대학에서는 정보관통에 관한 것이 학문화되어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이라는 학과가 있어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불행히도 이 정보과학은 아직도 발전도상에 있으며 시스템설계에 있어서도 어떤 단일의 이상적인 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거듭 개량을 해 나가며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발전하리라 보지만 머지않은 장내에서 완전히 이론의 뒷받침을 가진 정보시스템이 설계되고 운영도 되고 하여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져오고 있는 모든 분야에 크게 공헌 하게 될 줄 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데 있어서는 미국 바텔 기념연구소에서 제공해 준 여러 가지 문헌이 참고되었다는 것을 끝으로 부언하여 둔다.

# 암흑으로 사라진 소 우주인

— 제 1, 2차 대전의 원수폭 후의 —

## 황 기 호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인류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게 될 3인승 유인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발사 일자를 7월 15일로부터 16일로 연기시키는 동시에 달 착륙 장소도 달 표면「고요의 바다」 동남단에 있는 제 1후보지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길이 8KM, 폭 4.8KM인 타원형의 제 2후보지로 변경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

NASA는 또 「닐·암스트롱」과 「에드윈·앨드린」 등 두 우주인의 달 착륙일자와 시간을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19분(한국시간 21일 오전 4시 19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이 발표는 이들 2명의 우주인이 동료 우주비행사 「마이클·콜린스」가 조종하는 모선(母船)이 달 표면 1백KM 위에서 비행하는 동안 착륙선을 탑재 22시간 달 표면에서 달을 답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영광스러운 우주비행의 성공……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영광을 지니기 위해서 인류는 항상 그 큰 꿈을 저버리지 않았고 또 닥치는 술한 난제(難題)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주과학을 그토록 발달시켜 인류가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을 그들에 머 없는 찬사를 보내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영광의 그늘엔 알려지지 않은 비극의 영웅들은 과연 없었던가?

또 이 같은 인류의 난사를 이룩하기까지 과연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는 말인가?

미국의 NASA는 몇 개월 앞두고 그 계획과 전모를 모두 발표하는데 소련은 과연 어떠한가?

달 정복을 위한 뒷 이야기……. 여기 과학자 「프랑크·에드워드」씨와 각국 우

주최문제의 「메이커」를 기초하여 종합 분석해 보기로 했다.

## 피전과 “지구여 S.O.S”

### 두번 들리고 침묵한 인간육성

1962년 8월 11일 밤이었다.

그때까지 1년 가까이 조용하던 소련이 「보스토르크」 3호를 발사했다는 신문보도에 접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탐승한 사람이 「가갈린」(최초의 우주인)이고 「티토프」(4번째 우주인) 같은 1인승 「캡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궤도의 코도도 그다지 엄청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별로 놀라운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내심 크게 걱정된 것은 그 「보스토르크」가 19억9천9백6과 1만4천6백25 「메가사이클」이란 발신전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해 7월초 「프랑크·에드워드」가 입수한 피 「레포트」속에 1960년 11월 20일 「이탈리아」의 「튜린」 방청소의 「모르스」 부호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가갈린」의 우주비행에 앞서 약 5개월 전에,

『지구여... S.O.S, S.O.S... 지구여...  
S.O.S, S.O.S...』

라는 구조신호를 하오 1시 43분과 2시 5분 두차례 보내고는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어쨌든 사라진 피목소리는 수신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그 전파가 나뉘어난 2만 6 「메가 사이클」이었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크·에드워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가졌다. 『정말일까?』 하는 정도로 수수께끼 같았다.

그러나 그토록 신빙성을 의심하던 「프랑크·에드워드」도 전파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련의 과학진이 3호와 같은 궤도에다가 4호를 쏘아 올렸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추리적인 각도로 본다면 소련의 이 계획은 처음부터 3호를 우선 쏘아 올려 놓은 다음 그것이 발사기지의 바로 상공(上空)에 왔을 때 4호를 쏘아 올릴 계획이었던가 아니면 동시에 3,4호를 동시에 쏘아 올리려던 계획이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어긋났던 것이나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추측은 우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련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

그러한 것이었군...』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 3, 4호의 발사가 「아베크」 비행이 아니라 두 「캡슐」의 「랑해부」를 노린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소련은 당시 이미 미국의 「제미니」 계획을 앞질러 2인승 「캡슐」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서방측 추적소가 「캐치」했던 것이다.

그 보다 앞선 1960년 10월 11일, 「터키」,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등의 추적소에서 더욱 괴상한 전파를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흑해부근의 기지로부터 대규모의 「로켓트」가 발사되어 위성궤도에 오른 것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발사된 그 「로켓트」에서는 26분후 인간의 육성이 벗벌인가 들리더니 이렇다 할 흔적도 없이 저편 세계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프랑크·에드워드」의 「리포트」에 의한 것이었다.

『왜 미국측의 정보만 가지고 소련의 우주계획을 나무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러한 의도가 조금도 내포돼 있지 않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며 사라진 인간의 육성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그럼 돌아와야 할 인간의 육성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미쳐버린 최초의 귀환자 「가갈린」보다 앞선자 있었다.

물론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메스컴」이나 정보에 의하여 추측하는 도리 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의 신문이나 항공정보등에서 「프랑크·에드워드」가 「메모해룬 매이디」를 예로 들어 보자.

첫째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만을 알고 싶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문은 믿을 수가 없다.』

라든가,

『신문은 엉터리 없는 보도만을 일삼는다.』

또는,

『나는 국내 신문은 믿지 않는다. 적어도 외국신문이 아니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함부로 넘겨버리는 것을 우리는 왕왕 듣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을 자처하는 우리들로서도 우주비행에 관한한 신용해서 좋을지 어떨는지 어떨떨해지는 일들이 있다.

「에드워드·리포드」도 그러한 것의 하나이지만 보도기사 그 자체에 조차 피이성을 느낀다면 독자는 크게 놀랄지 모르겠다.

그러나 1962년 9월달까지 사실상 대기권 외곽을 비행한 인간은 소련의 「유리·가갈린」, 「게르만·티토프」와 미국의 「존·글렌」, 「스코트·카펜터」 또 그리고 소련의 「아트지안·니코라이에프」, 「파벨·포포비치」 그밖에 탄도 비행가는 여럿이 있으리라.

이보다 앞서 「에드워드」의 「리포트」를 읽기 전에 우리는 국내 신문의 외신(外信)에 고개를 갇웃거린 일이 있었다.

1961년 4월 22일.

『……「프랑스」 국영방송국 「포프로프」 씀.』

이라고 돼 있는 것이었다.

「포프로프스키」기자는, 「그런 명예를 받을 사람은 소련의 「세브게이·이류신」이라는 청년이다.』 라는 말을 결론으로 하고 있었다.

「이류신」이라고 하면 소련 군지의 항공회사에서 일하는 손꼽히는 항공 설계가이다.

그가 소련에서는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가갈린」보다 3일 또는 4일 전에 하늘로 발사되어 지구를 3회 전

하고 나서 회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완전히 이상해서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우리나라의 신문보도 뿐만이 아니다.

독일 「문현」에서 발행하는 「레뷰」에도 게재되었으며 영국의 「메일리·워커」저에도 거의 같은 기사가 실렸던 것이다.

이쯤되면 그 보도가 진실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인지 독자로서의 우리로서는 얼떨떨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말에 의하면 최초의 우주인은 1950년 「루프드」2형을 타고 대기권에 발사되었다고 한다.

그 통신이 「아프사라·보름」 그리고 「하와이」등지의 추적소에서 「레코드」된 채 호지부지 되고만 그 우주선이란 것이다.

NBC(미국최대의 방송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발표된 『미·소 우주인 좌담회』라는 방송을 들은 이도 많으리라 믿는다.

그 좌담회에서 미국의 「그렌」이 소련의 「티토프」에게

『“캡슐”에서 불편한 적이 없었는가?』

라고 묻자 그는,

『불편한 점은 없었다. 난처한 것은 우리들 이전에 우주비행을 한 사람이 있

있던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그 점이다. 소련에서 우주비행을 한 것은 「가갈린」과 나 두 사람뿐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 묻는 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회피하고 엉뚱하게도 퍼진 소문에 대한 강경한 어조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자기 이전에 우주 여행에 나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가 아니면 소문이나마 듣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련은 발사에 고치 않아  
「보스토크」 3호는 타국서 캐치

이 문세도 또한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좋을지 어떨는지? 외국통신을 믿어도 좋으나 어떠한 문제가 되겠지만, 왜 그때 문제가 되었던 U2 항공기의 소위 「스파이」 비행 때의 일이다.

그때 소련 「로켓」 발사기지의 몇 개 발사대가 폭발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물론 「로켓」 발사대가 고장났다고 해서 우주과학 분야가 전반적으로 마비되었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U2기의 조종사 「파워즈」는 재수가 없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벌써 1946년 「사모스」정찰 위성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사는 소련의 「스프트니크」를 앞질러 못했다.

물론 오늘에 와서 「사모스」나 「미나스」 모두가 우주비행을 성공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항공기에 특수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5백KM 상공에서 가도상에 있는 자동차의 크기, 차량의 종류까지도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기에 U2기를 봤다가 추락당하고는,

『이 행위는 CIA(미국중앙정보국)와 NASA(미국 항공우주국)에 의해 대표되는 미국 공군의 공범에 의한 범죄.』

타는 막지를 뒤집어 쓰고 10년 금고형을 받게 된 「파워즈」는 여운한 꼴을 당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파워즈」는 원래 일개 공군 조종사의 신분이었다.

한 조종사가 2만 「미터」 고도의 하늘을 비행했다고 해서 증죄인되어 처벌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여에 반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의 나라와 바다위를 비행한 소련의 「가갈린」이나 「티토프」 또는 「나코라에프」

「포포비치」 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에다가 그들은 모두 영관급 현역 군인이었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소련의 우주인들은 귀환하고 나서는 모두다 예외없이 「영웅」이라는 칭호에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러한데 비한다면 2만[미터]와 평균 2백KM의 고도의 차이라고 해서 그때 집이 이다지도 달라지는가 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필자나 독자만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우주비행 계획의 실패나 연기 문제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마치 유리창 속에서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인류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글렌」, 「카펜터」의 경우도 사전에 작듯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고 예고했던 것이다.

소련은 「스프트니크」 1호를 발사(57년 10월 = 최초의 인공위성)하기 이전에 몇 번이고 그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온갖 기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발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혀 무경고의 인공위성 발사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기 2년전, 즉 1595

년 미국의 유성학회 회원인 「존·바그비」 씨가 지구를 한시간반으로 선회할 수 있는 케도비행 물체를 발견하여 「아들러·프라네타리움」에 보고 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해군 천문대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소련의 경우는 추적소가 몇 군데 있는지, 어느 곳에 「킨트볼·켄터」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우주비행사가 발사될 때는 17개의 추적소가 공식적으로 「마크」되어 있다.

『X일부터 미국에서 피위성이 발사되거나 각국의 추적소는 이를 잘 관측해 달라...』

라는게 상례이다. 아니면 또 미국은,

『X월X일 위성을 발사한다.』

라고 NASA를 통해 공식 발표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소련의 「보스토르크」 3호의 경우는 아무런 통고도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전파연구소는 소련에서 발표하기 1시간 20분전에 제발리 「캐치」 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추적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이러한 면에서 봐도 우리는 소련 내의 추적소가 현재 어디에 어떻게 시설되어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다.

때문에 그들의 실패도 성공의 성과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가갈린」뒤에 쏜 「캡슐」은? 이태리 「튜린」방청소지 「캐치」

이제는 각국의 전파연구소나 방송국 수신소가 일종의 추적소 역할을 하게 된 오늘에 와서 남몰래 공간에 비밀히 전파를 발사하는 물체를 올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았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것은 U2기의 조종사 「파워즈」가 미국에서 체포한 거물 「스파이」와 교환되어 제각기 제나라에 돌아 가게 되었다는 것은 유인위성이 어느 나라에 불시착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인 것이다.

결국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스파이」행위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케도비행, 또는 혹성비행(惑星飛行)에까지 발전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만약 모든 문제가 이렇게만 귀결된다면 인간은 위대한 과학의 승리자라고 하기보다는 불행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때도 이상스러운 일은 공표된

것 만으로 볼 때 유인위성은 백「퍼센트」의 안전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나 비행기 심지어는 보행보다도 더욱 안전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그 누구이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승용물건 가운데 백「퍼센트」의 안전물이란 있을 수 없다는 데서 「유인위성」에도 몇 「퍼센트」의 실패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짐작이다.

인간이 움직이는 세계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것과 성공이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의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했다.

여기 이제 다시 「에드워드」의 「레포트」에 돌아가면 그 진위가 가려질 것이다.

1960년 2월 2일, 「이탈리아」의 「튜린」방청소는 아침 9시 55분, 소년에서 「로켓트」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재빨리 「캐치」하고는 곧 대전과망원경이 있는 영국의 「조드렐뱅크」와 서방측의 여력 추적소에 그 보고를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8분후, 「조드렐뱅크」에도 분명히 하늘 높이 「캡슐」과 그것을 쏘아 올린 「포스타·로켓트」를 확인한 것이다.

그 밖의 여러 추적소에서도 그「캡술」에서 보내 온 발신 전파를 「캐치」한 것이다.

그「캡술」은 지난번 소련에서 실험 공표한 「보스트르크」 3호처럼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주파수 전파를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30초마다 그 위치를 방송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편적인 육성을 보내고 있는 사실도 정확히 「캐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캡술」을 쏘아 올린 시간으로부터 약 19분 후에 「튜린」에서는 그 육성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튜린」방청소는 10시 22분 돌연 중지되어가는 호흡소리를 「테프」에 수록했던 것이다.

그 호흡음은 곧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A. G. 트구리엇」 교수에게 보내어 분석을 의뢰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 호흡소리와 모든 동작은 분명히 『죽음의 직전』이라는 것을 판정해 냈다.

또한 1961년 5월 17일 이날은 소련의 「가갈린」이 케도비행에서 성공한 날부터 한달쯤 지난 날의 일이었는데 「에드워드」의 「리포트」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류에 대해서 대단한 날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날 「타이그홀」기지 (「니클라에프」·「포포비치」를 쏘아 올린 위치와 합치됨)에서 유인위성을 쏘아 올려 7일간이나 지구를 돈 「캡술」이 있었다는 것을 「튜린」, 「조드렐뱅크」 「본」 등의 추적소가 이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캡술」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데?

아니 그 「캡술」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가?

세계는 이 정체를 몰라...  
외치던 남녀우주인 목소리

그런데 그때 발사된 것이 지난번 미국이 발사하여 성공한 「제미니」 4호의 계획과 같은 2인승이었다는 것이다.

서방의 여러 추적소는 다 같이 그 위성에서 남자의 음성과 여자의 소리를 캐치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다.

그 2인승 「캡술」에서는 우선 남성의 음성으로서는,

『모든 것은 정상이다. 우리는 예정대로의 고도를 비행하고 있다.

기분이 상쾌하다. 지구는 아름답다.』라는 보고가 「캐치」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비행이 순조로운 것으로 생각되었으

나 24일이 돼서도 지상에선 그 누구도 그 정확성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추리해본다면 필경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튜린」에서도 「본」에서도 아니 「플튼」에서도 순조롭다는 보고를 접수하고 있었는데 들은 그 남성의 소리가 『…웬일인지 점차 신호가 분명치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얼」을 읽을 수 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라는 보고가 들어 오는가 하면 5초뒤에는 여자의 목소리로,

『여봐… 여봐. 내가 할게요. 오른 손으로 꼭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이로부터 몇초후 다시 남자는 의치고 있었다.

『이것봐…여 보라니까. 누르는 것도 좋으나 누르는 베는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또 잠시후,

『우리가 이것을 건디어 내지 못하면 세계는 이 정체를 해명할 수가 없으리라. …역시 이 일은 어려운 일이야. 어떻게 하던 이 고비만을 넘겨야 해요.』

바로 이때였다. 소련 추적소의 전파가 갑작스레,

『모스크바 시간으로는 지금이 오전 8시다. 시간을 맞추라…』

라고 튀어 나오고 있었다.

그 「아나운서」의 뒤에는 위성에서의 아무런 보고도 얻을 수 없었다.

이 보고의 어조를 분석 연구한 서방측 추적소 과학자들은 1961년 5월 24일 우주를 남은 남녀 비행사가 우선 경악에서 다음 공포에 떨어했다는 그 자체가 우주에서 무엇을 만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류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를 따르는 그 무엇이 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1957년 11월 9일 「오스트렐리아」 천문대의 「부지비투스키」 박사는,

『인공위성이 통과한 다음 분홍색의 피물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보았다.』 라는 보고를 한바 있었다.

그럼 우주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무엇인가를 보고 우주인들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그에다 더 「우탈」 산록의 훈련기지에서 30명의 남자와 8명의 여자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피기하게도 1961년 5월 24일 「에드워드」가 쓴 남녀비행의 피기한 일이 있었을 때 세계의 여러 신문은,

『소련 여성이 우주인 후보로…』

의 중량은 5톤이었다고 발표되었는데 여러 나라의 추정으로서는 적어도 10톤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짐작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물리학자 「후트」 박사는,

『「보스트르크」 3, 4호가 「랑데부」했다면 나는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회비행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은 미국이 지기 싫어한다는 우주과학이라기 보다 우주의 「랑데부」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리라.

원래 미국도 이 「랑데부」계획만은 NASA의 것과 군부에서의 계획이 서로 달랐다고 한다.

NASA는 NASA대로 군부는 군부대로 계획을 세워 한 때 우주정복에 커다란 의문을 던진 바도 없지 않다.

NASA의 계획은 연락이라고 해서 달에 가는 정류장(停留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발했던 것이다.

한편 군부에는 다른 위성과의 격돌을 피하기 위한 과학적인 문제를 연구하는데 그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군부계획은 대기권에 철조망을 친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정복에 겹해서 군사적인 방

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곧 이것이 요격 「미사일」인 배특간탄도탄 방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그런가하면 소련은 「모스크바」방송을 통하여.

『소련국민의 이 영웅적인 업적은 우리 육, 해군에 한층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군사기술 훈련과 전쟁준비 체제를 가 일층 정비 강화한 것이며 소련 군인은 조국의 신성한 국경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 평화에의 노력을 막으려는 어떠한 침략이든지 막아낼 용기를 가지고 있다. 온 국민의 분발과 열기찬 이 영광을 축하하길 바란다.』라고 호언하는 것을 볼 때 그저 뇌까려 배릴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그네들의 우주개발 계획으로 전쟁준비 체제를 갖추었고 육, 해군에 한층 더 용기를 불려 일으켰다는 것은 공군으로서의 전쟁목적 수행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우주개발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미국은 7월15일 달에 3인승 우주인을 보낸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는 틀림없이 우주개발은 『평화적인 이용』에 사용할 것에 틀림없다.

라는 제목 밑에 「러·마서비치」 부인의 사진을 내 놓은 것은 결코 우연한 장난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는 12명의 여성이 「뉴멕시코」 「알베르카」에 있는 「W.R. 리볼스」 박사 밑에서 우주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61년 5월 22일 UPI 통신이 전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가갈린」은, 『여자우주인에 대해서는 들은바도 없고 본 일도 없다.』 라고 부정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그라잉고·벡트」 씨도,

『계획초기에는 여성후보자도 있었고 또 훈련 결과도 좋았으나 현재로서는 없다.』 라고 역시 여성 우주여행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성의 음성을 우주에서 들었다는 것은 꼭 한번 뿐인 1961년 9월 30일의 「프라우다」지는,

『자국이여... 신호에 귀를 돌려라!  
신호에 귀를 돌려줘요...』

라는 선동적인 기사가 눈을 끌었다.

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 소련의 추적소는 한 개의 「캡슐」을 달을 향해 발사한 것을 「캐치」하고 있었다고

「에드워드」는 말하고 있다.

아직도 그 정체를 세계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 장차 출현될 우주비행차

그러면 우주선의 유물은 무엇?

「알래스카」, 「캐나다」, 「조드렐뱅크」, 「물든」, 「본」 등에 있는 추적기구는 모두 전파 탐지에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 같이 1만 9천 9백 75 「맥가사이클」의 전파를 포착할 수 있고 또 이 「캡슐」은 그 밖에 세 가지 다른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있으며, 그 기지 호출부호는 「홀」이라고 불리운다고 한다.

『여기는 달(月)··· 지구여 어서 응하라...』

라고 불으는 호출신호를 「스웨덴」의 추적소는 일곱시간이나 들었고 시시각각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그 전파연락이 17시간 계속된 후에는 전혀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아니 영원히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침묵이 아주 영원한 암흑에 사라지고만 것이었다.

바로 이제 알려진 「보스토크」 3, 4호

군사적인 의의보다 평화적인 사용에 그 목적이 있음을 뚜렷이 했다.

그럼 과연 소련도 그러할까?

만약 소련에 달 여행의 길이 트였다 고 가상해 보자.

모름지기 그들은 그들이 보낸 유인위성이 원수폭과 같은 것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 음흉한 흉계를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이에 대하여 일찌기 1958년 우주개발 초기에 미국의 「제임스·에디슨」이 경고한 그대로이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생존을 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요, 그 위협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인류의 멸종을 고하게 될는지 누가 단언하겠는가….

이제 세계는 새로운 공포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들이 말하는 위대한 과학의 발전을 단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첫째로 원수폭은 제2차 대전의 유물로 남은 것이고 보면 오늘날의 우주선을 쏘아 올린 「로켓트」나 「히틀러」시대의 V1호, V2호… 이 모두가 그러한 것이 아닌가.

보기에는 하나의 병기로서 단순한 것 같았으나 그 희생은 인류에게 치명상을 주었다.

인류의 생존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가공한 흉기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초고공에 원수폭을 뿌려 놓고 유인위성을 난오게 못하든가, 방사선의 절조망을 쳐 놓고 「스파이」 위성, 공격위성, 그에다가 격론 「랑데부」 위성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밝은 하늘 우주공간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한 전쟁이 하나의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인류에 대한 공포가 아닐 수 없다.

또 2차대전이 원수폭을 개발했다던 장차 일어날 전쟁에서도 그 무엇인가는 개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다.

내일의 평화 안전을 위해 국력을 소모해 가며 개발하는 미국의 우주과학진도 지상에 세 인명의 손실을 본적이 있다.

반면 소련은 일찍 비공개 개발로서 수많은 인명을 우주공간에서 잃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희생, 또 장치에도 예기치 못할 불의의 사고가 없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

이러한 사실은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당사자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세계여… SOS… 지구여 SOS…』



## 1. 서 론

화생방전은 현대에 생긴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분명히 핵무기를 사용하는 원자전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전쟁이지만 화  
학전, 생물학전의 기원은 먼 옛날로 치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인식된 이유는 제1차세계대전  
때 화학작용제가 널리 사용되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생물학전 지식의 보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6·25동란 때 UN군이 중공군에 대해  
세균전을 시작했다고 중공에게 모략 선  
전한 일도 있지만 이것은 곧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우리들에게 생  
물학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전에 있어 화생방전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금 세계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  
는 강대국의 힘도 따지고 보면 이 화생  
방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산주의자와 바로 눈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화생방전을 알  
지 못하고서는 적을 제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생방전을 더 잘

현대전에  
있어서

화생방전의  
의의

중위 • 성      탁      연

이해하기 위해 화학전, 생물학전, 원자  
전의 순서로 실전에 사용될 역사적 사  
실, 무기의 특성, 종류, 앞으로 개발될  
무기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

## 2. 화 학 전

화학전이란 화학작용체를 고의로 사  
용하여 적에게 실상, 혼란, 소이, 연막  
등의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전쟁형태로  
이 화학전에 쓰이는 재료를 화학작용제  
라 한다.

먼 옛날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해 불이라던가 혹은 연기를 이용했다.

이러한 것들도 그때는 단순한 행위지  
만 발전하고 진보된 것은 화학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기원전에 “그리스의 불”이라는 것  
이 해전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피치, 유황, 송진같은 타기  
쉬운 물질과 기름, 생석회 등을 섞어서  
만든 혼합물로 물에 닿으면 저절로 불  
이 붙어 타게 되어 있다.

역시 기원전 피랍에서 스파르타와 아테  
네가 싸울 때 스파르타군은 비초, 유황,  
송진, 타르같은 물질을 섞어 태워서 나  
오는 질식성연기를 사용해서 성을 공격  
했다.

이러한 연막 혹은 소이작용을 이용할  
전쟁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다 화학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겠  
다.

또 서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  
리나라에도 이러한 형태의 전쟁은 있었  
다.

까가운 예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  
군이 만든 거북선은 입으로 연기를 토  
하고 불을 내뿜어 자신을 감추고, 유리  
한 입장에서 적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아니지만 이순신장  
군의 전략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연막  
전술은 장군이 나라운명을 건지는데 적  
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런 단계를 지나 독성물질이 화학전  
이름에 적합하도록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1814년 8월 프랑스군은 에틸브롬아세  
테이트가 든 수류탄을 발사하였는데 현  
재 사용의 분류로 따지면 눈물작용을 일  
으키는 종류이다.

대규모적이고 효과적인 화학전은 다음  
해인 1815년 4월 22일 벨저음의 이푸르  
전투에서 이루어졌다.

독일군은 염소가스를 5마일 길이에  
걸쳐 바람을 사용해서 살포했는데 효과  
는 놀라워서, 방어수단이 없는 연합군측  
은 5천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독일군은

쉽게 목적을 달성했다.

그 뒤로 양쪽이 다 화학작용제를 사용해서 초기에는 수 십탄의, 사상자가 생겼으나 나중에는 방독면같은 방어수단의 발달로 효과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종류도 질식, 수포, 눈물, 구토작용제 등 다채로와지고 사용수단도 폭탄 혹은 포탄형태로 되어 전투전에 몇 천 발씩 쏘아 놓고 전투를 시작하는 일도 생겼다.

제1차세계대전 후 국제조약에서 화학전이 금지되고, 1936년 이탈리아가 이집트 공격에 겨자 가스를 사용한 것과 1937년에서 1943년까지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스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던 제2차세계대전 때 화학전은 없었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때 독일은 신경작용제를 연구 개발해서 수천 톤의 신경작용제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고 있었고, 연합군은 신경작용제는 가지지 못했지만 막대한 양의 겨자 가스, 포스젠, 무이사이트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때 독일이 화학전을 전개하지 않은 이유로는 연합군이 제공권을 장악해서 보복공격의 가능성과, 독일군 내에서 화학전을 전개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신경작용제는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가 미국은 후에 VX라는 새로운 신경작용제를 개발했다.

소련도 화학작용제 개발에 힘을 기울여 미국에서만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그 전력차이를 화학작용제로 매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발전을 보았다.

현재 북한피뢰도 화학작용제의 일부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만큼,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북한피뢰의 화학작용제는 “미친사람의 칼” 정도로 경계를 기울여 말아야 할 것이다.

화학작용제는 살상, 무능화, 연막, 소이 신호작용제로 구분되는데 흔히 살상작용제와 무능화작용제를 가리키게 된다.

살상작용제는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시키는 데 쓰이는 것으로, 호흡기에 작용해 질식을 시켜 죽이는 질식작용제, 신경계통에 들어가 순식간에 죽이는 혈액작용제, 피부에 물집을 형성하여 고통을 주고 나중에 죽기까지 하는 수포작용제 등이 여기 속한다.

무능화학작용제는 사람을 혼란시키거나 마비시켜 환동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구토를 일으키는 구토작용제, 눈물을 흘리게 하여 혼란시키는 눈물작용제, 수족마비 같은 신체이상을 일으키는 마비작용제, LSD같은 환각제로 일시적인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정신작용제 등이 이

속에 들어간다.

소이작용제는 네이팜탄 같이 높은 열로서 시설, 장비를 태우는 것이고, 신호작용제는 눈에 잘 띄는 선명한 색깔로 신호하는데 쓰이고, 연막작용제는 살포하거나 대워서 생기는 연막을 이용하여 은폐 효과를 내는 것이다.

요즈음 평화병기 또는 인도적인 병기라 해서 논의되는 무능화작용제에 대해 알아본다.

관심을 끄는 것은 마비작용제와 정신착란작용제인데 마비작용제는 사람을 일시적인 장님, 귀머거리 또는 수족마비를 일으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BZ라고 표시를 하며, 정신착란작용제는 일시적인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환각, 환시, 망상, 환청, 불안 등을 생기게 하는데 LSD, Cannabis, Methedrine, Mescaline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이 전쟁에 사용될 것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려의 대상이 될만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값이 싸고, 대량합성이 가능하고, 검출해 내기가 곤란하다던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지 않고 일시적인 효과로 나중에 육체에 영향을 남기지 않고, 일시적 저항불능으로 전쟁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단적인 발광상태가 비참한 사회상태를 야기시키고 특히 핵기지요원들에 대해 사용되었을 때 그 위험성을 상상하기조차 곤란하고, 농도조절이 제대로 안 되어 필요한 효과 이상으로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정확하게 효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959년 전 미육군 화학감이 미국 하원에서 증언한 대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LSD에 노출되면 성질이 변해 비굴해 지게 된다. 도시의 수원지에 넣으면 전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끊이거나 끊게 해도 효과는 지속된다. 잘 훈련된 요원들이 30대 내지 35대분의 LSD를 사용하면 전 미국 대공유도탄기치 요원을 무능화시킬 수 있다.」

는 말을 생각하면 무관심하게만 있을 수는 없다.

만일 서울의 수원지 몇 개가 오염되고 그 물을 서울인구가 전부 마시고 집단적인 정신이상이나 나타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너무나 유명해서 대표로 꺼낼 수 있는 LSD는 1943년 스위스의 스톨과 호프만 박사에 의해 발견되고 1955년 호프만 박

사가 합성해 낸 화합물로, 천연적으로 백작의 가수분해로 얻어지는 리시지산의 한 유도체다.

성인이 30마이크로그램 내지 150마이크로그램을 먹으면 20분 내지 30분 후 증상이 나타나 한, 두 시간 후 절정에 이르면 수족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아름다운 색채, 음악같은 것을 경험하며 공간감각, 미각, 취각의 혼란 등이 있고, 예전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해 심문에도 쓰이는데, 깨어난 후에도 정신착란 때의 경험을 기억한다.

이러한 효과는 에틸알콜과 비교하면 에틸알콜의 100만 배에 해당되고, LSD 1kg이면 2,000만 명을 발광시킬 수 있다고 하니 소름끼치는 이야기다.

### 3. 생물 학전

생물학전은 생물 혹은 독소를 써서 사람, 동물,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상하게 하는 전쟁으로 화학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조약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사용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

생물학전의 특성은 전염성으로서 한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곧 퍼져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

생물학전의 역사는, 우물에 시체를 넣어 사용을 못하게 하고 불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을 일으키게 한 고대전쟁까지 거슬러서 찾아 볼 수 있다.

1763년 영국군 사령관 제프리 암헤스트가 아메리카 인디안 추장 두 사람에게 천연두 병원의 담요 두 장과 손수건을 주어 인디안 부락을 천연두로 전염시켰다. 미국 남북전쟁 때 호수에 가축을 몰아 넣고 사살하여 호수를 오염시킨 일도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 첩보원들은 미국에서 해의 연합군에게 가는 말들에게 탄저열, 집막마비열 같은 병균을 접종시켰다.

그렇게 전쟁 목적으로 한 것 이외에 자연적인 병으로 인적, 물적 손실은 매우 많았다.

14세기 유럽 일대를 휩쓴 흑사병은 6천만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1848년 아일랜드의 고구마가 균의 침해로 완전파멸되어 100만 명이 굶어 죽고 25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1918년 프랑스에서 시작한 유행성감기가 두 번 유럽과 아메리카를 휩쓸어 2천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1946년 멕시코의 삼분의 일인 50만 마리가 구제역에 걸려 집단 도살당했다.

제 1 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전투사상은 51,259명인데 51,447명이 질병으로 죽었다.

지금 월남전에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상자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생물학작용제는 미생물, 독소, 해충, 질병매개물, 화합물 등으로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배인작용제, 대동물작용제, 대식물작용제로 나누기도 한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벌이고 있는 낙엽 작전에 쓰이는 것이 화합물에 속하는데 이 대식물합성물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장억제제와 낙엽제로 나눌 수 있다.

식물성장억제제에 2.4-D, 2.4.5.-T, IPC 등이 있는데 1평방킬로미터에 60 그램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

낙엽제에  $ZnCl_2$ 와  $NH_4CNS$ 가 속하며 살포되면 잎이 번색이 되고 차차 낙엽이 지기 시작해 열흘 정도 후에 효과가 절정에 이른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낙엽작전을 실시한 것은 1962년부터이며 연간 5천만불을 쓰고 월 70만가톤의 약품을 소모한다.

살포약품은 오렌지, 부루, 화이트 등으로 불리우는데 식물성장억제제와 낙엽제를 섞거나 그냥 쓰는 것으로 정글이나, 들의 곡식 풀들이 이삭을 맺기 전에 사용된다.

비행기로 살포하는데 MC-123 2대가 각각 1,000가톤을 적재하고 나란히 작을

지어 50미터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살포한다.

2,000가톤의 분량으로 폭 250미터 길이 16킬로 미터 지역을 덮을 수 있다.

효과는 오렌지가 3,4일 후 시작되어 2,3개월 절정에 달하고 반년 후 새로 잎이 나며 부루는 살포 후 3주일에 효과가 많이 나고 효력지속은 3개월 정도라고 한다.

#### 4. 원 자 전

원자전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으로 20세기 현대과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금세기 초부터 시작한 현대물리학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여 전쟁수단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1939년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우라늄 분열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편지를 내어 원자탄 제조가 시작되었다.

1941년 그때까지 알려졌던 핵분열물질은 U-235(우라늄)와 Pu-239(푸르토늄)이었다.

자연 우라늄 속에 U-235와 U-238이 1대 140의 비율로 섞여 있는데 폭탄을 만들기 위해선 U-235를 분리해 높은 농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공장

이 필요했다.

Pu-239는 원자로 속에 U-238을 넣어 두면 중성자를 흡수해 U-239가 되고 이것이 Np-239(넵트늄)로, 다시 Pu-239로 변해 생기게 된다.

1945년 여름 최초 원자탄이 완성되었을 때는 10만명 이상의 공사 인원과 6만명 이상의 과학자, 기술자, 운영요원들이 일을 했고 90여 불이 라는 막대한 돈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자탄은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아라모골도 공군기지 부근에서 실험 폭발을 한 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져 엄청난 위력을 보이고 제2차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한 것이다.

U-235덩어리가 작을 때 중성자를 넣어도 연쇄반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U-235핵분열로 나온 중성자는 다음 핵분열을 일으키기 전에 밖으로 나가거나 불순물에 잡혀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커지면 연쇄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히 큰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임계질량이라 하는데 U탄의 경우 약 10킬로그램으로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이런 정도일 것이다.

공기 중에도 떠돌아다니는 중성자가 있으므로 이것들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임계질량 이하로 나누어 두

었다가 폭발시간에 합쳐서 폭발을 시킨다.

그런데 임계량 이하의 U-235가 천천히 접근하면 연쇄반응이 시작되어 전체가 분열하기도 전에 U-235가 흩어지므로 크기에 도 제한이 있고 합치는 것도 짧은 시간 내에 해야 한다.

핵분열사이 시간은 1억분의 1초이므로 1,000만분의 1초에 핵분열이 10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중성자의 수는 약 1,000개, 핵분열 수도 1,000배로 늘게 된다.

만일 합친 후 분열이 있을 때 흩어져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1,000만분의 1초 늦춰 주면 위력이 1,000배로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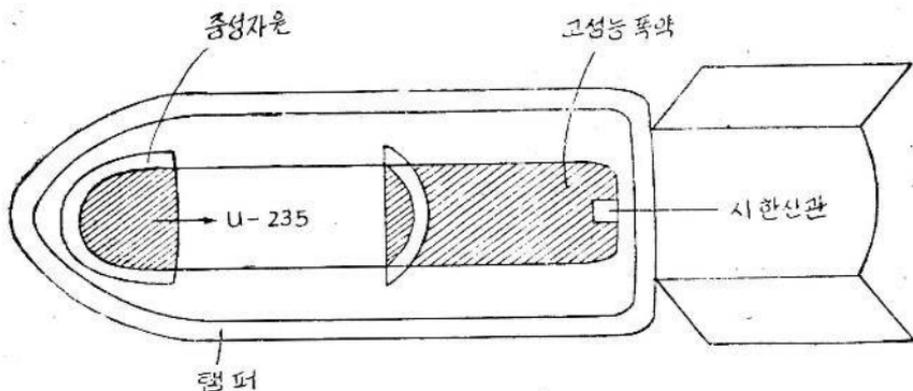
그래서 흩어지지 않도록 U-235밖을 탄탄하게 싸서 내부에 압력을 주는 동시에 시간을 늦춰 주는게 이것을 템퍼라 한다. 템퍼가 없으면 10킬로그램짜리 U-225 폭탄은 1킬로그램만 폭발하고 흩어지는데 템퍼를 쓰면 8킬로그램의 핵분열까지 만들 수 있다(그림).

핵무기를 나누어 본다.

U-탄 : U-235를 원료로 한 것으로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이것이다.

Pu-탄 : Pu-239를 원료로 한 것으로 나가사키의 원자탄이다.

Th-탄 : Th-232(토륨)에 중성자를 흡수 시키면 Pa-233(프로탁티늄)



### 원자탄 모형

보통화약이 시한신관에 의하여 시간을 맞추어서 폭발하면 임계량 이하로 되어 있던  $U^{235}$ 의 그 덩어리가 합쳐져서 임계량 이상이 되고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가서 연쇄반응을 일으켜 준다.

을 거쳐 U-233이 되는데 이것도 분열성 물질이므로 원자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소련은 이 토륨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수소탄:** 중수소나 삼중수소, 리튬같은 가벼운 원자들은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융합반응을 일으켜 분열반응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낸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에서 이루어지는 융합반응에 의한 것이다.

이 반응에 필요한 수천만 도의 고온은 원자탄 폭발 때만 나오므로 이 원자탄 폭발 시 융합반응을 이루게 한 것이 수소탄이다.

**3F탄:** 3단으로 되어 있어 제일 먼저 기폭제로 원자탄을 폭발시켜 그 고온

과 압력으로 리튬과 중수소의 융합반응이 이루어져 수소탄을 폭발시키고 마지막으로 수소탄 폭발로 생긴 고속중성자가 U-233을 분열시키므로 분열, 융합, 분열의 3단계를 가리켜 3F탄이라 한다.

제3단계 분열은 자연 우라늄을 쓸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이것이 그대로 탱퍼 역할을 한다.

1954년 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실험한 폭탄이다.

**Co-탄:** 3F탄의 제3단 재료를 우라늄 대신 천연 코발트로 쓴 것이다.

Co-59(코발트)는 중성자를 흡수해 Co-60으로 되는데 반감기가 5년 반이나 되는 것으로 투과력이 아주 셀

감마선을 낸다.

계산상으로 3천 톤의 Co-60을 대기 중에 퍼뜨리면 이 Co-60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전 인류는 수년 내에 멸망하고 만다.

차음 만들어진 핵무기 위력은 20KT 이었다.

그뒤 수십KT, 수MT, 수십MT급 이렇게 위력이 큰 것을 만들어 현재 미국의 핵공격력은 전략폭격기 약 1,700대에 핵무기는 3만 5천 MT에 이른다고 한다.

1952년경부터 제한전쟁용 핵무기 개발에 관심이 몰려지고 현재 초소형 핵무기 개발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초소형 핵무기는 대략 1KT 이하의 위력을 가진 폭탄인데 재래식 폭탄에 10T 정도 위력을 가진 것이 있으므로 핵무기는 적어도 100T 이상 즉 0.1KT 이상의 위력을 가져야 경제적으로도 계산이 맞을 것이다.

핵무기 가격은 KT급이 약 50만불, 수십KT 급이 75만불, MT 급은 100만불 정도로 보고 있다.

만일 전쟁이 아니고 항탄을 건설하거나 지역을 개발하는데 원자탄을 쓴다면, 방사선으로 인한 효과를 무시할 때 재래식 화약을 써서 땅을 파내고 공사할 때와 비교해 가격이 약 300분의 1로 줄

어 들 수가 있다.

핵무기 무게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틀리는데 폭탄이 50킬로그램에서 10톤까지, 포탄이 50킬로그램에서 150킬로그램까지, 미사일이 50킬로그램에서 1톤 정도이고, 어뢰가 150킬로그램에서 500킬로그램된다.

무기 위력은 수송수단에 따라 틀리는데 전략폭격기가 20MT에서 60MT까지의 핵무기를 적재하고 ICBM을 쓸 때는 수MT 급의 핵무기를 사용한다.

핵무기 효과를 단편적인 예로서 설명하면 20KT이 2,000피트 공중에서 폭발할 때 폭발원점에서 0.8km 이내는 완전히 파괴되고 13km 안까지 피해가 있게 된다.

20MT이 5,000피트 공중에서 폭발하면 반경 12마일 이내 사람은 폭발 때 나오는 열복사선으로 태워죽이고 목조 건물을 발파시킨다.

바람 부는 쪽으로 150마일 즉 240km 안의 사람이 무방비로 있으면 방사선에 의해 전부 죽게 된다.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간접적인 면을 들 수가 있다.

최근 연구가 진행되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기상변화의 시도도 한 예가 될 것이다.

타국의 기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공상에만 그칠 것이라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 5. 결 론

화생방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든든하고 안전한 대피호와 병소의 훈련 교육내용의 실천일 것이다.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피뢰는 원자전에 대비해서 평양에 5만 명 수용 가능한 대피호를 마련하고 강계에는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대피호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의 전시 예비물자확보 및 방독면 생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들은 좀 더 화생방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전투하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참여하

는 방위기구의 운영이 중요성을 띄우게 된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민방위 능력을 간단히 살펴 봄으로써 끝을 맺고자 한다.

핵무기가 폭발되는 폭발원점 부근은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지역은 방사능 낙진대책을 강구한다.

각 건물마다 방공대피호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생방전하에서도 쓸 수 있도록 기어과장치, 급수, 전기시설을 갖춘다.

피해자 수용을 위해 학교 및 공공건물을 배당하고 500만 명의 2주일간 치료에 필요한 의료자재를 확보,

경보발령은 전 미국에 연락하는데 1분 이내에 가능하다.

미국 전 가정에 화생방전 소개교육 팸플릿을 배포,

기타 전시식량, 급수, 기구 등으로 62억 5천만불 어치의 물자를 비축하여 비치하고 있다.

## 전망(前) 과(과) 국방(國) 방(防)



박 동 준

「미국사회에서는 어떠한 기존제도도 현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세기말엽부터 20세기초에 걸쳐 형성되던 여러가지 제도는 현재 진행 중의 기술과 연결된 각종 변화의 종합작용에 얽혀서 고민하고 있다.

제2차대전전의 시대 또는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걸쳐 제도가 훌륭하게 적응되므로/해서 오히려 현재의 결함을 내포하는 원인을 갖는 것도 있다.

이 현상은 지방적이거나, 국한적인 것이 아니고 미국사회 전체에 걸쳐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금 격렬한 압력과 공격 속에 있다. 그것은 새로 느껴지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자원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조지능력이 있는지가 의문시 되므로해서 그러하다.

예를 들면 농무성은 19세기말엽부터 20세기의 초에 걸쳐 발생한 농업생산성의 제문제를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드디어 이 노력은 성공했다. 이 성공이 지나치므로 해서 오늘날에서는 잉여농산물과 그 취급문제가 미국의 주요한 농업문제로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성은 옛날과 그다지 변화없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장의 농업개량보급원은 실로 7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미국 노동성은 1930년대의 실업이나 노동자의 대우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하였다.

연방주택국(FHA)이나, 주택·가정용자국(HHFA)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주택제회를 둘러싸고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의 문제는 이들 관청의 관할하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구의 운영은 이전과 별다름이 없다.

앞에 쓴 글은 미국의 2천년위원회의 위원인 「드날드·손」박사가 「기술과 사회변화」라고 제한 발표 논문중의 한 구절이다.

미국을 선두로한 현대의 선진사회가 어떤 전환과 변혁의 도전을 받고, 차차로 진박의 도를 높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서는 일시적 유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던 미래 연구의 열이 등·서양을 막론하고 왕성하며, 미래의 낭망을 꿈꾸어서가 아니라 극히 오늘날에 있어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의 미래론의 저류를 살펴 보면,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급속한 진보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예를 들면 핵에너지의 해방에 의하여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 의하여 인류의 멸망까지도 가능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게 되었다.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영역의 발전은 지금까지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최후의 성역——「생명」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분자(分子)레벨에서 해명돼 가고 있는 단백질성이나 유전의 메카니즘 또는 생물이 갖고 있는 초(超)프로세스의 연구는, 지난날의 가치체계가 윤리관에서의 단절을 가져 오고 있다.

또 우주에 대한 인식이 최근 10년동안에 크게 달라지고 있음도 그 하나의 예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지난날, 은하계(銀河系)가



도. 67

우리의 전우주이라는 인식은, 실은 기백만, 수십억이라는 끝이 없는 수의 은하계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발견에 의하여 지난날의 인식은 붕괴되고 말았다.

2년여전에는 태양의 2조 5억만배의 밝은 별을 발견하는 등, 우리의 우주에 대한 관념을 격변시키는 등으로서 일종의 당황감마저 생기게 하였다.

예를 들면 끝이 없으나 이것은 어느 것이나 과학기술의 프롤타어가 급속으로 확대되어, 드디어는 양적이나, 면적면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의 개념을 넘은 질적 전환의 단계에 투입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실은 이것은 극히 근원적인 분체를 제기한다.

즉, 단순히 경제, 산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의식, 사회체제, 이데올로기, 윤리관 등 모든 구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초기술사회라고 하는 미래상을 전망하는 미국인들의 심포지움에서 토론한 것을 골라서 관찰해 보기로 한다.

### 초기술사회란 어떤 것이나?

미래의 사회가 특히 하나의 시점을 21세기의 초엽에 있어서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를 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콜럼비아대학 사회학 [다니엘·벨] 교수(전기한 미국 2천년위원회 위원장)의 “Post industrial society” 문(탈공업화(脫工業化) 또는 산업이후의 사회) 미시간대학교수로서 경제학자의 케니스·볼딩이 말한 “Post civilized society; 문명이후의 사회), 등에 의한 정보화사회론 등이다.

이들의 미래 사회론은 어느 것이나 예를 들면 미래의 사회는 고도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주의 지배의 가능성이 강하거나, 융통성이 있는 정보가 주역을 하는 세계가 되거나, 또는 인구폭발, 전쟁, 문명이 결정적인 함정으로 되는 등, 그 어느



것이나 미래연구에 필요한 기본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초기기술사회라고 새로운 표현을 한 것은 그들만의 뜻이 있는 것이다.

우선 제1은 미래에 상정되는 사회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초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우선, 기술지배의 사회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초기기술사회는 기술을 초월한 것——Beyond 또는 Supra라는 뜻——의 출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명한 도시 디자이너의 말을 빌리면, 「공업도시단계에서의 인간관계는 거대한 에네르기, 거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자기 독립한 기술을 여하히 제어하느냐 하는 제어제통의 문제에서 언어될 수 없었으나, 정보도시단계에서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그 주요한 기술분야가 통신, 교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독립한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인간의 사회적인 생활의 문제가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그대로 기술의 문제에서만 획득할 수 없는 기술적 단계, 이것을 초기기술적 단계라고 한다면, 초기기술사라는 것은, 독립한 거래기술의 체계가 붕괴하여, 모든 기술분야와 비기술분야가 새로운 관계 속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이며, 그 선도부분이 되는 것은 정보기술과 체계공학이라고 생각된다.」

다니엘·벨교수는 미래사회라는 것은 고도의 지적기술(Intellectual technology)을 중심으로 한 사회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의 구조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특징 지우려고 한다.

1. 경제에 있어서의 서어비스 부문의 우위——이미 미국은 종노동인구의 과반수가 서어비스부문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2. 전문적, 기술적 계층의 우월——미국에 있어서 이 직업 계층에 속하는 인구는 1940년, 390만명, 1964년에 860만이었으나, 1975년에는 1,320만으로 늘어, 직업의 8분류 중에서 2위의 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 이론적 지식의 중심적 역할——의사적인 정책과 계획, 결정의 시스템, 변화의 관리 등에 종래의 경험주의가 아니고서는 이론적인 지식이 우위를 차지한다.

4. 기술의 자립적 성장——W·W로스토가 말하시피 국민총생산의 약 10%를 연간에 재투자하는 능력이 경제의 자립적 성장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정체를 회피하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하고, 의식적으로 계획된 변화의 진진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지적 기술의 창조——OR, SE 등의 관리기술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하여 사회, 경제문제의 「제어된 실험」을 창조할 수가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초기기술사회도 또한 이 「벨」교수의 이미지와 공통점이 많이 있다. 그 중심적인 관점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즉 물질적인 것을 주제로한 재래의 기술이 지금까지는 기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또는 생명의 영역에까지 그 선을 확대하고 기술자체가 지금까지와 차원을 달리 하는 커다란 변신을 일으키는 작업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보기술의 진보와 또 하나는 체계기술의 광범한 응용이다.

미국의 미래사회론이 산업이후 또는 문명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과 같이 특히 강조할 경향이나 성격에 있어서 플렉시비리티를 갖게 하려는 데 대하여 미래사회론은 정보화사회, 초기기술사회와 대담하게 그 중심적인 변화의 경향을 가져 오고 있다.



# 정 보 화

초기사회에 있어서 제일의 특성은 정보화로 생각되므로 보다 자세히 미래사회를 부각시키기로 한다.

정보처리, 정보검색, 정보체계, 정보혁신 등 정보란 말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라고 하는 개념만큼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며 알기 어려운 것은 없다. 이것은 도대체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며, 그 범위는 넓기도 하며 좁기도 하고 융통성을 갖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상(事象)은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의 3요소로부터 성립되므로 물질과 에너지 이외는 모두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넓은 해석이 된다. 이 세 개의 구분은 문명의 진보의 설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즉, 석기시대, 동기시대, 철기시대라고 하는 구시대의 구분은 확실히 물질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이었다.

드디어 증기기관에 의하여 상증되는 산업혁명은 에너지 중심시대의 여명을 알리고, 차차로 오늘의 선진제국에 있어서 원자력시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물질과 에너지를 활용한 공업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해 가면, 거기서 제 3의 요소, 정보가 주역을 하는 새로운 사회가 탄생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현대에 있어서 공업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오토메이션에 대한 대량생산과 광고판매의 집중공격에 의한 대량 소비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내구소비재(耐久消費財) 등의 물체의 실용가치를 가급적 양품질로, 특히 경제적인 대중에 공급한다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업화가 앞선 이와같은 사회를 「고도대중소비사회」 또는 「풍부한 사회」라고 부르고 있으나, 다시 말해 획일화라고 하는 수단



에 의하여 경제성과 대중성을 획득한 대량의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성립하고 있는 사회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하면, 현대의 선진공업화 사회와 재물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인 사회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풍부한 사회라고 하는 말이 표시하는 것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재물이나 서 서비스가 극히 쉽게 싸값으로 공급되며, 인간의 일차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서 자기의 원하는 것이나 개성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고 고차의 욕구가 진면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자연적 경향이다.

이미 이 단계는 그 재물의 물질적인 가치, 선천적 기능이 아니고 디자인, 장식성, 매력 등의 후천적 기능 또는 무형의 정보가치 등이 중요시 되는 새로운 세계이다.

이들의 고차의 욕구는 그 성질상 극히 개인적 가치체제를 갖기 위해 지금까지의 획일화라는 것은 정반대의 다양화, 개인화의 경향을 갖고 있다.

이 Group technology, Building block 방식 등 공장의 생산기술의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완성한 것은,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 즉 정보화의 급격한 경향에 대응하는 것이 이해된다.

이상은 공업제품에 대한 개인욕구의 고차화, 즉 수요의 다양화라고 하는 한정된 국면에서 정보화를 빼앗긴 것에 불과하나. 이와 같은 정보화의 경향이 단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드디어 집단으로서의 사회 또는 그것을 둘러싼 제도나 환경의 체계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궁극적인 자세를 초기술사회의 정보화라고 본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아테에 기술하는 시스템화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러튼 정보화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변혁을 가능케 하는 것은 광의의 뜻에서의 정보기술 즉 「텔」교수가 말하는 지적 기술의 보다 활발한 개발을 진행시킬 것과 고성능전자계산기와 통신망의 계속적인 형성으로 데이터통신의 광범한 이용이 필요하다.



## 시스템화해야 한다.

· 사회의 시스템화가 초기술사회에서의 제 2의 커나란 특색이므로, 다음에 체계화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로 한다.

· 주지하다시피 제 2차대전 중에 방공용 데이터의 배치나 수송선단의 U 보드대책 등 군사문제의 연구에 힘을 기울인 오퍼레이션스·리서치의 발달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기술개발, 예를 들면 원자력의 맨하탄계획, 우주개발의 아폴로계획,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개발생산계획 등 일련의 조직적 계획 수법이 결합된 것이 체계화 개념을 강력하게 밀고간 것으로 안다.

· 시스템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시스템에 파해진 목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물자, 돈을 투입하고, 여러가지 내부처리를 하고, 각종의 출력을 도출하여, 필요에 응하여 피이트·백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내부처리를 하는 것과 부분시스템의 조립방법을 개선하여 최적화를 꾀하는 공통의 파탄을 가지고 있다.

· 이때 최초의 내부처리의 하는 방법을 들어가는 힘과 나오는 힘에 주목하고 해석을 진행시키 가는 것이 시스템, 어프로치의 방법이다.

· 그러므로 시스템이 거대화하여, 복잡화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유효하며, 또한 이때 정보처리기술의 원조가 꼭 필요하게 된다.

· 여기서 군사들 중심으로한 개발계획에서 출발한 시스템화라고 하는 문제파악을 하는 것은 드디어는 민간시스템에도 적용영역을 넓히는 것이 된다.

· 그리고 일반기원활동에 있어서는 전부터 정치, 경제, 교육, 기타 원래의 사회체계의 개선에 필요가 인정되어,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 사실은 초기술사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회활동의 거대한 체계화가 급속히 진전된다는 것은 사회의 사상(事象)을 단순히 독립부분으로서 장악한 것으로서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때문이다.



또한 「드나드·손」박사의 발표논문 중의 산업의 체계화에 대해 인용하기로 한다.

「옛부터 기업은 특정한 제품 또는 서어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해 왔다.

예를들면 건축부문에서는 미국의 건축자제업자는 철관, 시멘트, 목재, 그라스울 등을 생산하고, 그 건축에 대한 역할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때로는 손질을 할 뿐이었다.

따라서 집진체 또는 가옥집단 전체에 대하여 책임이 어디 있는가 하면 건축업체 전체를 책임자로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건축가, 기사, 청부업자, 노동조합, 건축자제 메이커, 판매업자, 기준국(基準局)의 감독관, 검사관, 금융업자, 투기업자 등이 그 중에 포함되어, 만일의 조직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다.

각기 특정의 업자나 회사의 불잡힌 구성요원이 상호작용을 반복하고 있던 중에 개발이 진행되어 가옥이 완성된 것이다.

한편 군사관제나, 우주관제의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국가적 노력은 착착 시스템의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때 우선 그들의 개발, 생산계획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서, 그 체계에 부과된 목표——

다시 말해 1970 년도까지 달세계에 인간을 착륙시킨다든가, 전략적인 어느 요구조건에 응할 수 있는 넓은 기능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다음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착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특정의 제품이 작은 체제의 목표에 중속하고 또 작은 체제의 목표는 체제의 요구에 따라 구성부분의 제품이나 서어비스를 공급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화가 관리기술과 해석수단의 진보와 더불어 그 유용도를 실증함에 따라서 기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업은 그 목표를, 즉 「의부를 청결하게 입을 것」이라든가, 「최저의 비용으로서 최고품질의 식사를 줄 것」 등의 기능을 발휘

하는 규정이다.

! 그리고 회사로서 체제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모든 구성제품 매이커나, 서어비스 업자를 사내로 불러 들여 또는 계약관계를 통하여 계열화함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것이 사업의 체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기업은 자기의 사업내용을 「사업체제」에 확대시킴으로써 기술면, 조직면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가 있다.]

이상은 사업체제를 예로한 손박사의 체제화론의 일부라고 하자만, 초기기술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의 체제화라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산업중심의 분류가 아니고 미래사회의 주요한 기능별의 시스템이 재편성됨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정보시스템, 수송시스템, 에베르기시스템, 정치시스템, 국방시스템, 거주시스템의 재배의 기간적 시스템뿐이 아니고, 의료시스템, 교육시스템, 레저시스템, 생활공간시스템 등이 모두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 있을 것이다. 산업도 또한 이에 부수하여 급속히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 결 론

초기술사회를 정보화와 시스템화라고 하는 2개의 단면에서 들어 보았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현재의 연관성을 전제로하여, 그 경향을 외형적으로 기술한데 불과하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체제나 질서, 윤리관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몇 개의 흐름이 대동하고 있다.

생화학(生化學)이나, 분자생물학(分子生物學)의 진전 등은 그 일례이나 여하히 이것을 미래의 예측에 부합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의 변혁요인을 우리는 변신적(變身的: Metamorphic)이라고 하며, 점진적(Metabolic)인 것과 나누어서 고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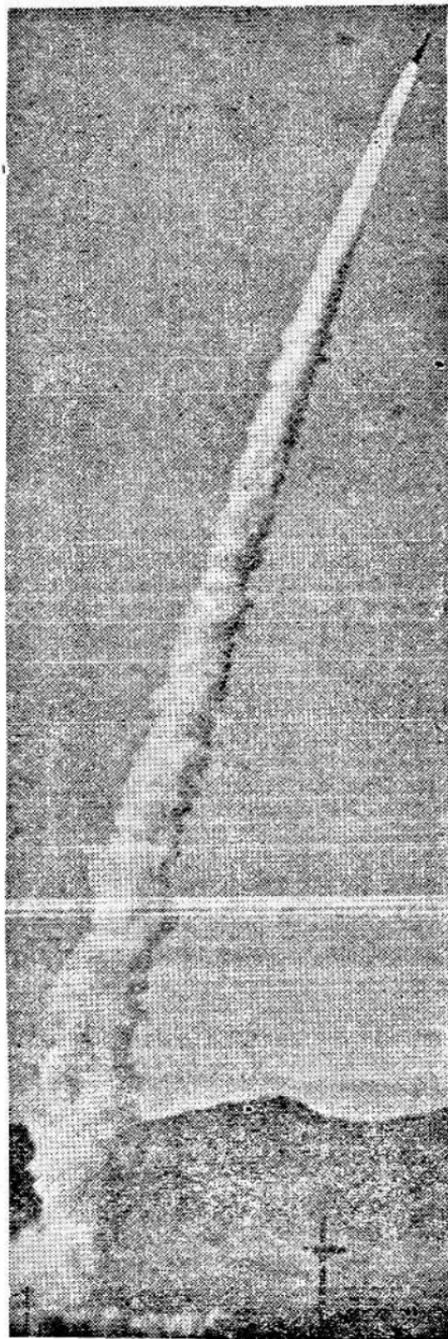
미·소의  
ABM  
경쟁은  
어디로?



조  
성  
길

△대한일보 외신부차장▽

△65년 「스프리트」 요격미사일의 시험발사▽



## ◆ 미국의 ABM망 설치결정의 의의

「닉슨」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찬반의 논쟁을 빚어내고 있는 「미사일요격 미사일」망(ABM=Anti-Ballistic Missile system)의 설치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닉슨」행정부가 최초로 채택한 ABM망 건설 결정은 그것이 비단 미국의 전략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감축 협상을 앞에 둔 소련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전반에 미칠 영향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ABM망 설치결정이 앞으로 열릴 미·소 양대국의 공방(攻防)용 핵무기 감축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미·소양국이 이러한 협상을 통해 엄청난 경비가 드는 반면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ABM망설치를 폐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면 다행이려니와 그 반대로 ABM망 건설을 두고 새로운 핵무기 확장경쟁에 휘말려 든다면 이에서 더 큰 인류의 비극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ABM은 세계의 관심의 초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닉슨」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대결의 시대로부터 협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닉슨」행정부가 구상하는 협상을 통한 세계평화의 추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지금 세계는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대결 속에서 간신히 평화의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월남, 중동, 체코사태 등은 어떤 의미에서 「알타」체제에 의한 미·소양국의 세계지배체제를 위협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소의 세력 균형이 아직 재워지지 않았거나 또는 지나치리만큼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거나 또는 양대진영 내의 파탄으로 조성되는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차피 미·소 양대국간의 근본적인 이해조정이 선결요건이 되고 있다.

미구나 과도한 대외부담을 걸머지고 있는 미·소는 이것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면에 끼치는 부작용 때문에, 그리고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강요하는 핵무기경쟁을 동결시키거나 간축해야 할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양대국이 아직도 핵무기분야에서 단은 서로 「시소게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미·소는 세계의 핵무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양대국이 생산

저장하고 있는 핵탄두만으로 전 세계는 갯더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제 핵무기는 전 인류의 공멸(共滅)을 각오하지 않는 한 쓸 수 없는 절대무기가 되었다.

여기서 「핵공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세계평화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양국이 핵전쟁의 『미친타성』에 휩쓸리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양대국간의 상호불신에 기인하고 있다.

「닉슨」행정부는 소련과의 협상에서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같은 「닉슨」행정부의 자세는 ABM설치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ABM망의 설치는 결코 미·소핵무기 감축협상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소련으로 하여금 이러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흥정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닉슨」정부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 ◆ 「미사일」 「마지노」선

「닉슨」행정부가 설치하기로 결정한 「셰이프가드」ABM이란 어떤 것인가?

「닉슨」대통령은 「존슨」전행정부의 「맥나마라」국방장관에 의해 계획되었던 대도시 방위용 「센티넬」ABM을 수정한 것이다.

「존슨」행정부는 1970년대면 핵탄두운반 「미사일」을 갖게 될 중공의 핵공격으로부터 도시인구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센티넬」ABM망의 설치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중공의 위협에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소련의 증대되는 대륙간탄도탄(ICBM)의 공격을 멀리 내다본 방파지역할을 떠고 있었던 것이다. 「닉슨」행정부는 이러한 대도시 방위용 「센티넬」ABM계획이 의회와 도시주민의 반대에 봉착하여 그 계속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임후 「센티넬」ABM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가한 끝에 내용상으로는 다를 바 없는 「셰이프가드」ABM망으로 수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센티넬」ABM과 「셰이프가드」ABM의 차이란 「센티넬」ABM이 도시주변을 설치지역으로 했던데 비해 「셰이프가드」ABM은 전략적 군사기지주변에 설치한다는 것이며 73년까지 「몬타나」주의 「렘스트롬」 「노드나코다」주의 「그

랜드포크스」등 두 지역에 설치하고 기타 12개 주요 군사기지에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매년 ABM의 기술개발, 소련 및 중공의 위협, 외교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치목적에 있어 「셰이프가드」ABM은 「센티넬」ABM과 전혀 다른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소련의 핵에 의한 「제1공격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제(先制)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보복력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적국의 공격의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 ICBM인 「미니트맨」발사기지(「랩스트롬」 「그랜드포크스」에 3백50기(基)가 집중되어 있다)를 ABM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셰이프가드」ABM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60~70억「달러」가 든다고 예상되어 있지만 장차 ABM의 구성부분이 다양화해지고 더 많은 지역에 설치하려면 수백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면 적국의 핵탄두를 장치한 대륙간「미사일」을 목표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파괴시켜 버리는 ABM망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도표> ①이 보여 주고 있듯이 미국이 적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인 ABM을 연구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0여년이 넘지만 그것이 일단 완성된 것은 작년 「스팔탄」과 「스프린트」 「미사일」의 실험이었다. 장거리요격「미사일」 「스팔탄」은 적의 ICBM이 아직 대기권 내에 들어 오기 전에 이를 요격 파괴하게 되며 단거리요격「미사일」 「스프린트」는 일단 대기권을 돌파하여 상공에 나타난 적의 ICBM을 목표로 낙하하기 직전에 요격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다. ABM은 이 두 가지 「미사일」을 주축으로 이러한 요격「미사일」을 적시에 정확한 방향으로 발사시킬 수 있는 기지용「레이다」 M SR(Missile Site Radar)와 맨 먼저 적의 ICBM 레습을 탐지하여 MSR에 통보하는 장거리탐지「레이다」 PAR(Perimeter Acquisition Radar)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ABM망은 적의 핵「미사일」공격을 발견한 후 반격까지 전부 자동전자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소요시간은 15분 이내에 이루어진다. 물론 반격결정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정이 내려진 후에 취해지도록 되어 있다.

## ◆ ABM은 협상무기?

지난 3월14일 「미사일」요격망(ABM=Anti-Ballistic Missile system)설치에

관한 「닉슨」대통령의 중대한 정책결정이 내려진 후 현재 계속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반대의원간의 찬반논쟁은 아무런 결론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펜타곤」(미국방성)당국자들이 「닉슨」의 ABM결정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한 소련의 핵공격력의 급격한 증대에 관한 비밀정보내용이 과연 ABM설치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할만큼 적절한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적인 정보를 토대로 ABM망을 설치한다면 결국은 소련의 핵공격의도를 한낱 추측의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많다는 것이었다.

「닉슨」대통령이 ABM망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중에는 ABM망이 앞으로 소련과 가진 공격 및 방어용 핵「미사일」간축협상에서 흥정의 미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들어 있다. 「윌리엄·P·로저스」미국무장관은 '이전에 관해 『ABM은 흥정대상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상원의교위 증언에서 강조했지만 그렇에도 불구하고 「닉슨」의 ABM결정은 대·소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한층 강화시키 주리라는 추리를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협상이 시작돼서 소련이 방어「미사일」(ABM)경쟁을 중지하자고 제한한다면 미국은 즉각 이를 중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로저스」국무의 부연이 이상과 같은 추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더구나 「닉슨」행정부가 「존슨」행정부에서 계획한 ABM망을 대폭 수정했고 또 설치지역도 일단 2개소로 한정했으며 시간적으로도 73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현재의 얇은 ABM망이 필연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 『두꺼운 ABM망』으로 연장될 운명에 있다는 일부의 논란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 ◆ 공개된 비밀정보

「멜빈·레이드」국방장관과 「데이비드·패카드」국방차관은 ABM망의 설치가 소련이 현재 배치하고 있는 다핵탄두 SS-9, ICBM(대륙간핵「미사일」)의 정확한 목표명중률 및 20~25「메가톤」의 무서운 핵탄두 파괴력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소련이 생산하고 있는 신형 핵공격잠수함(SSN)생산에 대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로 전략적인 면에서 ABM설치를 강조했다. 특히 소련의 이상과 같은 신형 핵무기의 개발목적은 미국이 지하까지

에 보유하고 있는 「미니트맨」ICBM을 일시에 강타 파괴함으로써 미국의 핵보복력을 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한 방위수단을 갖지 못할 경우, 소련은 「제 1 핵공격능력」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제 1공격력이란 상대적적으로 하여금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보복할 능력을 갖지못한만큼 적국의 핵보복능력이 되고 있는 ICBM기지나 핵운반폭격기지를 일시에 파괴해 버릴 수 있는 핵공격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ABM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펜타곤」당국자들이 ABM설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소련의 핵공격능력을 과장함으로써 『공포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엘버트·고어」상원의원은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핵무기는 소련의 50개 대도시를 상대로 1개 도시나마 48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수는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7천기(基)를 계산에 넣지 않아도 2천4백개에 달한다는 것. 이에 비해 소련은 미국의 50개 큰 도시 하나마다 22개의 핵탄두「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총 1천1백개를 보유하고 있어 미·소의 핵탄두보유 비율은 2대1로 미국이 우세하다고 「홈·메이드·차트」를 제시, 국방성의 최근 정보와 좋은 대조를 보여 주었다.

### ◆ 핵무기감축협상과 소련의 저의(底意)

소련은 「닉슨」행정부의 출발과 때를 맞춰 핵무기감축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할 준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련이 이렇듯 핵무기감축협상을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앞으로 4년간 집권할 「닉슨」행정부의 성격을 재빨리 저울질해 보자.

두째, 「체코」침공으로 잃은 국제적 위신 추락을 미국과의 양자회담으로 조속히 회복해 보자.

세째, 미국이 월남전에 발이 묶여 있는 지난 2년간 ICBM생산에 「피치」를 올려 미국과의 격차(Missile gap)를 좁힌 이상 현수준에서 미국의 ICBM생산과 개발을 동결시키자.

네째, 월맹을 비롯해 중등전쟁후의 '대[아랍]군사지원등 준비지출의 과다 및 핵무기경쟁 우주개발경쟁에서 오는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유동이 그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단번에 상대국 인구의 반에 달하는 9천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핵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소 양국은 현재의 단발(單發)핵탄두 미사일]을 복수탄두인 MIRV(Multiple Independent Re-entry Vehicle)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경주, 미국은 공군의 「미니트맨」I·II형을 개량 MIRV의 「미니트맨」III형과 「플라리스」핵감수함 41척에 장비된 「플라리스」A형 「미사일」을 역시 복수핵탄두를 장비한 「포세이돈」(Poseidon)으로 대체시키기 위해 실험을 했고, 70년초에는 실전용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

<도표> ①

미·소의 ABM 개발 일지

- 56년 미육군 미사일 요격미사일 연구개시.
- 57 " 소련 ICBM완성발표. 미국방성 제한「나이키·쥬스」계획 승인.
- 58 " 미국「나이키·쥬스」(Nike-Zeus)실험 첫 성공.
- 61 " 「케네디」대통령, 「나이키·쥬스」생산 요구를 거부.
- 62 " 「호르시호프」소련수상, 우주공간의 날아다니는 파라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
- 63 " 「나이키·엑스」(Nike-X)계획 탄생.
- 64 " 「백나마라」미국방장관 「나이키·X」배치 2년 연기. 중공 제1회 핵실험
- 66 " 소련 모스크바 주변의 ABM배치를 시작.
- 67 " 「존슨」대통령, 소련에 ABM설치중지 교섭을 호소. 옅은 ABM 「센티넬」배치를 결정.
- 68 " 미·소 「미사일」교섭개시에 합의.
- 69 " 3월 「닉슨」미대통령 새로운ABM 「세이프가드」설치계획 발표.

이에 대해 소련도 다핵탄두「미사일」인 「스트링」을 개발중에 있고 초대형 「미사일」인 SS-9는 이미 2백기(基)나 실전용으로 지하기지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가공할 핵무기의 경쟁적 개발과 무한대한 생산에서 오는 군비부담을 중지할 수 있다는 데서 어떤 타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ABM망 건설 역시 엄청난 경비에 비해 그 효과가 신통치 못할 것이라는 점

에서 어떤 공동의 타결 접근점을 발견할 소지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핵군축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양대국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얼마큼이나 씻을 수 있느냐에 문제의 열쇠가 놓여 있다.

### ◆ 소련이 파놓을 함정

핵무기감축 협상에서 미국이 빠져들기 쉬운 함정은 ① 나핵탄두「미사일」개발을 중지 또는 연기시키도록 한 다음 소련만이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점을 주게 될지 모르며, ② 소련이 과연 미국과의 핵「미사일」감축 협상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핵「미사일」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보장할 방도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소련은 자국영토와 기타 공산「블럭」국가 안에 설치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지상사찰(地上査察)을 거부하고 있다. 또 현재 미·소양국은 「스파이」위성을 통해 상대방의 「미사일」기지와 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으로 군사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찰방식만으로는 1개 「미사일」기지에 몇 개의 핵 「미사일」탄두가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자를 알아낼 수가 없다. 이러한 제한성은 비교적 군사문제를 포함해 개방된 사회인 미국이 폐쇄된 사회인 소련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미·소의 핵무기감축협상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힘을 약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유럽맹방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소련의 「체코」침공후 「NATO」결속강화의 필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된 현시점에서 분 때 당연한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자기 세력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약소국가의 주권을 무력으로 누른다는 제국주의적 방식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 소련의 「체코」침공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련의 불법적 군사행동은 동서간의 완화 「무드」를 다시금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존슨」전대통령이 바랬던 핵무기 감축협상도 연기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닉슨」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대결의 시대는 끝나고 협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소련과의 국제분쟁조정 및 양국간의 핵무기감축협상을 제일과제로 삼고 있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

다. 「닉슨」대통령의 이러한 거취는 일부 서방지도자들에게 미·소 양대국의 흥정에서 자국의 이익이 요리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닉슨」대통령이 「유럽」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세계의 관심을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옮기고 취임후 즉시 「유럽」명방을 순방한 것도 표면상으로는 NATO강화를 다짐으로써 대소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든든히 하자는데 있으며, 더욱 깊은 의도는 「유럽」지도자들에게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소련과의 협상이전에 가질 뜻을 밝혀줌으로써 상기 우려에서 초래될 서방동맹간의 잠음과 불화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월남전, 중동문제 등 미·소양국의 이해가 깊이 얽혀있는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3국의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국제 외교관계로 보아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은 소련과 벌일 힘겨루기를 위해서도 NATO의 강화는 「닉슨」에게 시급한 과제일 것이므로 소련과의 협상을 서둘러 서둘기 전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전 정비작업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일 것 같다. 알맹이 있는 성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미·소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가장 접근이 가능한 문제에 대한 실무진의 접촉을 통한 합의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닉슨」행정부의 협상「어프로치」방법이기도 하다.

### ◆ 타협점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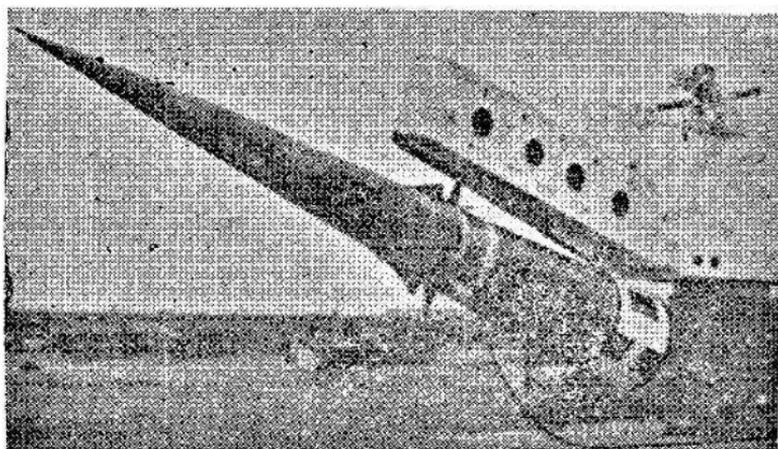
미·소 협상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합의사항이 있다면 미국이 MIRV개발을 늦추는 댓가로 소련도 SS-9과 같은 초대형 핵「미사일」생산이나 다탄두 「미사일」개발을 현재 수준에서 일단 묶어두자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천기의 대륙간탄도탄을 그 배인 2천기로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은 현재 1천54기의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수를 늘리기 보다 핵탄두를 복수화하고 적의 ABM망을 돌파하여 목표에 명중시킬 수 있는 MIRV나 핵운반 조음속폭격기(SCAD)개발을 서둘고 있다.

문제는 소련이 과연 미국과 바꿀만한 양보를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단지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을 지적한다면 미·소가 모두 대외군사원조, 우주개발, 핵무기경쟁 등으로 국내경제사정의 악화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 미국의 요격 미사일 「스프린트」

◆ 사상 최대의 병기계획

ICBM(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하는 ABM은 흔히 사상 최대의 병기계획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므로 ABM의 영향은 단순히 군사전략 미국경제문제에 머물지 않고 일단 넓은 ABM망을 설치하게 되면 장차 두꺼운 ABM망으로 발전할 계속성을 지니게 됨으로 동맹관계 나아가서는 비핵국가의 안전보장에도 미묘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닉슨」대통령도 ABM망설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①ABM을 만드느냐 그만 둘 것이냐 ②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③미국의 공격력 즉 「미니트맨」ICBM, 「콜라리스」미사일, 핵폭격기의 증강등 3개방안을 놓고 검토를 가한 끝에 매우 신중한 최대공약수적인 수정(修正)된 ABM방위조직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③항은 미·소의 군비경쟁을 「에스킬레이트」한다는 이유로 잘라 버렸다. 그리고 ②항을 채택함에 있어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67년9월 「존슨」전행정부가 중국의 핵공격에 대비해서 대도시의 인명을 구한다는

데 중점을 둔 도시방위로부터 미국의 보부력을 보호하는 군사기지방위로 수정했으며 12개의 주요군사기지중 73년까지 2개소에 설치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도시방위를 위해 「센티넬」요격「미사일」(「존슨」전행정부의 얽은 ABM망계획)을 설치할 경우, 핵공격을 받아도 도시인구의 사상자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소련의 공격에서는 3천만 내지는 4천만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주민들은 오히려 ABM망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적의 핵공격목표가 되고 인명피해를 막는 효과는 적다는 이유로 「센티넬」요격「미사일」의 도시주변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닉슨」은 이점도 고려하였다.

### ◆ 「센티넬」을 「세이프가드」로 개칭(改稱)

전쟁의 예방이 곧 미국을 핵전쟁의 파멸에서 건져낼 수 있다. 소련의 공격력이 증대하고 이에 반비례로 취약해질 미국의 『억지력(抑止力)의 보호』가 요청된다는 전제로 시작된 「닉슨」의 「세이프·가드」ABM을 『보부력의 보전 계획』이라 불리운다.

따라서 「닉슨」행정부의 ABM계획 특징은 전행정부의 경우처럼 중공의 잠재적 핵공격에 대비한 것에서 진일보하여 소련의 증대된 핵「미사일」공격을 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팰스트롬」, 「그랜드·포코스」 2개 지하기지에 설치된 3백기의 「미니트맨」 공격「미사일」을 지키기만 해도 미국은 소련의 주요도시와 산업시설에 결정적인 파괴력으로 보복할 수 있다.

「닉슨」행정부는 이 2개소 외에도 12개 주요 「미사일」기지 주변에 점차적으로 ABM망을 설치할 계획이나 이는 ABM의 기술발전, 소련의 ABM망발전, 외교교섭에 따른 정세변화에 따라 수시로 검토 수정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 소련의 ABM

소련은 미국에 앞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지역에 푸른

며』(Blue belt) 혹은 「탈린 · 라인」이라 불리는 ABM망을 설치했으나 미국이 이러한 소련의 ABM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다핵탄두「미사일」(MIRV) 및 기타 공격무기를 개발하게 되자 구식 ABM망의 배치를 일단 중지하고 새로운 ABM망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련의 구형 ABM은 미국의 장거리 요격「미사일」 「스팔탄」에 해당하는 「갤러시」(GALOSH)요격「미사일」과 미국의 단거리요격「미사일」 「스프린트」에 해당하는 「그리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련 역시 엄청난 경비가 드는 ABM설치와 그 효율성 문제로 군부 및 수뇌부 내에 심각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ABM」과 방위비

미국 내에서 ABM설치 결정을 둘러싸고 특히 찬성측의 행정부와 반대측의 의회간에 주고 받는 공방논전 가운데는 아직 어느쪽에 승부를 줄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ABM을 반대하는 측은 ①ABM이 과연 적의 「미사일」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② 그렇지 않아도 과연상태에 있는 핵무기경쟁을 더욱 부채질하여 결국 국가안보에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밖에 보다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규모의 대소간에 이 ABM망에 궁극적으로 쏟아 붓게 될 막대한 예산에 대한 관심이다. 이 엄청난 군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현재 연간 약 3백억「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군비를 월남전에 투입하고 있다.

한국동란으로 1950년에서 52년 사이에 미국의 방위비가 1백40억「달러」에서 일약 4백60억「달러」로 상승했지만 그후 방위비는 겨우 4백억「달러」로 떨어졌을 뿐이다. 이것이 다시 월남전확대로 5백억「달러」에서 8백억「달러」로 증가되었다.

「멜빈 · 레어드」국방장관의 말에 비춰보면 평화협상이 이루어져 월남전이 끝난다 해도 국방비가 7백억「달러」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한 예로 1958년에서 68년까지 10년간의 미국방위비는 5천5백10억「달러」가량인데 같은 기간중의 공 · 사 · 주택신축비의 2배에 달하며, 연방 · 주 · 그밖

의 지방정부가 할당한 교육비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위비가 국민경제에 주는 압박은 도시빈민, 흑인폭동, 빈곤, 후생 교육문제 등 국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공약하고 다선 「닉슨」 행정부로서는 자칫하면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ABM 설치 결과와 앞으로의 대소(對蘇) 협상결과가 「닉슨」 행정부의 공과표(功過表)에서 첫째를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행정부나 의회나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징조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방성당국은 상층 용역 생산「코스트」의 상승이 방위예산팽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도표>②

미국 의회 ABM 논쟁

문제점	찬	성	반	대
군비경쟁	방위용임으로 소련을 도발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의 공격용 핵무기 증대를 초래시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	
군축협상	소련으로 하여금 공방용 핵무기 감축협상에 나서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오래 논의되어온 핵군축 협상「플랜」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다.	
미국안보	소련은 1970년대 『제1공격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부력을 보전해야만 핵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은 ABM이 아니라도 충분한 보부력을 갖고 있다. 폴라리스 핵잠수함을 다탄두미사일「포세이돈」으로 개량하면 보부력은 더욱 증대된다.	
적의 반작용	확실히 공격수단 개발이 있겠지만 그러나 ABM은 적의 군비를 더욱 강요하게 될 것임으로 적국에 어려움을 안겨다 줄 것이다.		소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핵탄두「미사일」, 가짜핵탄두 등으로 얼마든지 ABM망을 돌파할 수 있다.	

효율성	ABM구성부분의 실험으로 요격망이 제대로 작용할 것 이다.	아주 복잡한 조직임으로 박 상 전쟁발발하에서 실험 때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공의 위협	1970년대 중공은 24개의 미 사일을 보유하게 되며, 미국 에는 중공의 무모한 도발이 위협이 될 것이다. 중공은 미 국에 앞질러 핵공격을 시도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 다.	중공은 아직 ICBM을 실험 하지 못했다. 그리고 소련도 아직은 미국의 핵보복력에 의 해 억제되어 왔다. 중공도 그 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도시안전	대도시를 전면핵전쟁의 파 멸에서 건지기는 어렵다. 작 은 규모의 공격이면 인명 피 해를 줄일 수는 있다. 따라서 보복력을 보호함에 의해 전 쟁을 억제시키는 것만이 도 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ABM의 설치지역을 옮겨 도 시인구 인구방위에서 지하의 미니트맨 기지를 방위 하려는 것은 국민방위에 조금도 보탬 이 되지 않는다.

### ◆ 미·소의 ICBM 경쟁과 ABM

미·소 양초핵대국은 지난 수년간 공격용 ICBM생산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소련은 공격[미사일]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미국과 맞먹는 ICBM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에 소련은 미국의 ICBM공격을 막기 위한 ABM망까지 서둘러 설치했다. 상대국 보다 먼저 완전한 ABM망을 설치하는 것이 핵능력에 있어 상대국보다 군사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차츰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사일]이 방어불가능한 무기인 한 상대측으로부터 보복공격을 받는다는

우려에서 어떤 나라도 먼저 「미사일」공격을 개시할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의 ABM이 발전되면 그런 우려는 줄어들게 됨으로 그만큼 「미사일」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증대된다. 따라서 공격「미사일」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상호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엄청난 경비가 드는 ABM경쟁은 얼마간 계속될 것이 분명할 것 같다.

### ◆ ABM은 협상의 초점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감축 협상을 시작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륙간 탄도탄의 생산동결과 막대한 건설비용이 드는 ABM설치의 상호중지가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 된다.

「닉슨」대통령도 이를 위한 소련과의 흥정을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고 소련측 역시 이에 응할 눈치를 보이는 것 같다.

ABM건설은 다른 핵무기나 「미사일」에 비해 엄청난 경비가 드는 것이며 완전한 ABM망을 만들자면 몇백억「달러」나 든다는 것, 현재 73년까지 2개소에 설치키로 한 미국의 ABM만도 60대지 70억불로 제안되고 있는 정도. 그 위에 적국의 공격용 「미사일」도 진보됨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ABM 기술도 계속 개발하고 장치도 개선시켜 나가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미·소양국은 다같이 가능하다면 ABM 건설을 그만두고 싶은 속셈이지만 여타튼 국가의 핵력우위,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양국간의 협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속히 미·소양국간에 공격 및 방어용 핵무기의 감축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ABM 건설경쟁을 둘러싸고 양국관계는 더욱 경화될 가능성도 있다.

### ◆ ABM 이전(以前)의 보복력

ABM을 설치하지 않은 현재 미국의 안보는 치명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소련이 반일 현재 미국에 대해 전면 핵공격을 가해 온다고 가정해도 미국은 능히 소련을 재기불능의 껍더미로 만들만한 보복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핵전쟁도발의 위험은 미국의 충분한 핵억제력에 의해 방지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지상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1천54기의 ICBM과 6백46대의 「미

사일]적재 대륙간 폭격기 그리고 핵잠수함 41척이 각각 16발씩 장비하고 있는 6백56기의 「플라리스」[미사일](SLBM=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등이 언제나 소련의 목표를 향해 발사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실사 선제(先制)공격으로 미국의 저장[미사일]기지를 파괴시킨다 해도 24시간 공중에서 교대로 대기비행하고 있는 대륙간 폭격기와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동성있는 「플라리스」[미사일]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

1[매가톤]짜리 핵탄두 4백개만 가지고도 소련인구 절반과 산업시설 태반을 파멸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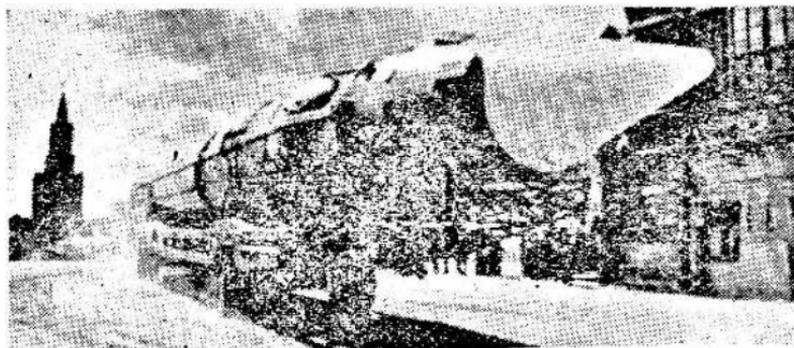
소련은 작년 8월에 저장기지 ICBM 1천기를 생산, 미국과 대등한 수자를 가지게 되었고 신형 ICBM SS-9의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미·소 이외의 국가의 ABM

ABM망 건설의 비용이 엄청난 점에 비추어 미·소 이외에 다른 나라가 ABM건설이라는 무모한 준비를 임할해낼 계획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소의 ABM이 진보되면 미·소양대국만이 양국 이외의 다른 나라(가령 중공)로부터 「미사일」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는 초강국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월남에서 군사적 승리를 일단 포기하고 협상을 개시한 것이 라든지, 소련이 「체코」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이 오늘날의 세계에는



◆ 소련의 대륙간탄도탄(ICBM) 200개면 미국인구 절반을 죽일 수 있다.

무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많다.

미·소양국이 모두 ABM에 돈을 들이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 불만이나 타국의 반감이 커져서 「미사일」공격과는 다른 종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런지도 알 수 없다.

### ❖ ABM과 핵금지조약(核武器擴散禁止條約)

미·소양국이 공존체제를 바탕으로 국제문제에서 협조적 기운(氣運)을 띠고 있는 가운데 두드러진 성과로 나타난 것을 지적한다면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대기권핵실험금지조약(部分核禁條約)과 핵확산금지조약을 들 수 있다. 지난 3월 미상원은 소련의 「체코」침공으로 비준을 보류해 오던 동조약을 83대 15로 비준했다.

소련도 곧 동조약을 비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핵확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 조약의 공동체안자인 미·소 이외에도 40개국의 비핵(非核)국가가 비준해야 한다. 작년 7월1일 세계 각국에 이 조약이 제시된 후 지금까지 27개국이 서명하고 10개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조약에 비준을 보류하고 있는 국가는 중공과 불란서를 제외하고서도 서독, 일본, 루마니아, 인도, 「이스라엘」등 핵개발잠재국들이다. 이들 국가는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소련이 이 조약으로 『비핵국가들의 수축을 염두에 둔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동조약 제6조를 둘러싼 해석은 더욱 이러한 불만을 발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의 6조는 핵보유국들에게 그들 상호간의 핵무기경쟁을 견제키 위한 협상을 촉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가지 중요한 사태발생을 든다면 ABM 망 설치결정이라 하겠다.

비핵국가들의 눈으로 볼 때 미·소등 핵보유국자들은 이 조약 밑에서도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계속확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이 찬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약이 핵보유국들 상호간의 무기통제협정을 가져오지 않는한 무의미하다는 논평이나 이 조약을 비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될지도 모를 ABM망설치를 승인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라는 주

장도 그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상원이 핵확산금지조약을 비준한 직후 「닉슨」행정부는 ABM방설치 결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닉슨」대통령은 이 결정을 발표하는 가운데 ABM이 73년에 가서야 제1단계 지역에 설치될 것이며; 그동안 소련과의 핵무기감축협상에 따라서는 ABM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상과 같은 일부국가의 불만과 국내 반대여론의 우려를 무마시키려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도 온건노선을 따르려는 「닉슨」행정부의 체취일뿐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한 소련과의 협상』추구라는 그의 기본적인 외교정책에서 본다면 ABM이 분명 그의 이러한 정책을 『백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란 점에서는 이의가 없을 것 같다.

### ◆ ABM과 「캐나다」

미국의 ABM 설치결정으로 미국의 대외관계에 물의를 일으킨 첫째의 대상국은 「캐나다」이다. ABM을 설치키로 한 「몬타나」 「노드·다코타」주는 바로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을 횡단해서 날아오는 소련의 대륙간 「미사일」을 향해 발사되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ABM)은 「캐나다」상공에서 폭발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불안이 접고하고 있다. 3월20일 제 「피엘·트르도」수상의 「위싱턴」방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협의를 위한 것이었다.

소련의 ICBM이 「캐나다」를 제1목표로 삼지 않을 것은 뻔한데 ABM은 캐나다 상공에서 폭발하게 되고 이에 따른 「캐나다」의 위험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비록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 「스팔탄」은 대기권외에서 적의 ICBM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단거리요격 「미사일」 「스프린트」는 일단 「스팔탄」요격 「미사일」을 뚫고 저상 목표에 가까이 접근하는 IC BM을 요격하게 됨으로 이 경우는 「캐나다」영공에서 폭발하게 된다.

그러면 ABM이 적의 ICBM을 상공에서 요격할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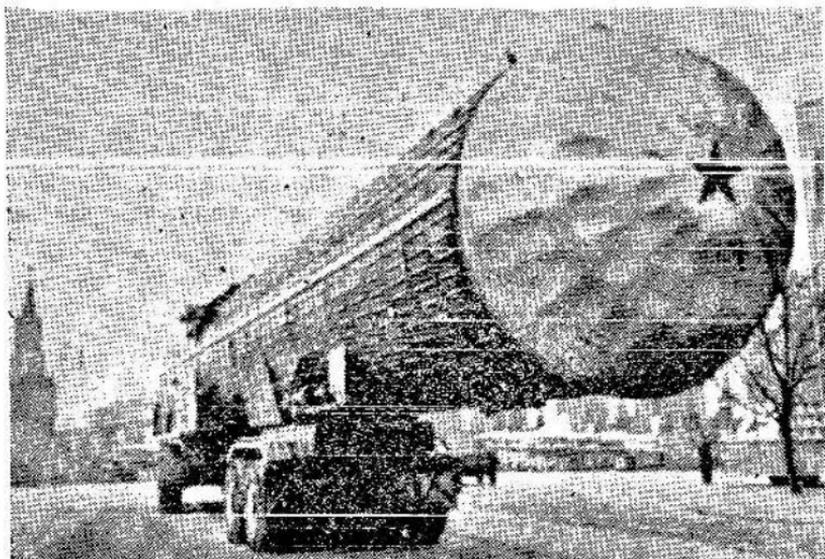
## ◆ 「스팔탄」과 「스프린트」의 핵탄두

우선 주변탐지「레이다」(PAR)가 목표를 향해 침투해 오는 적의 ICBM을 발사후 10~15분 이내에 탐지한다. 이에 전자「컴퓨터」가 궤도를 향해 방출되어 공격방향, 속도, 규모를 확실히 하게 되면 대통령의 반격명령으로 「스팔탄」이 발사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한 2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발사된 「스팔탄」요격 「미사일」은 요격「미사일」기저 주변에 설치된 기저 「레이다」(MSR)의 도움(유도장치)을 받아 고도 3백~6백Km 대기권 밖에서 목표물을 파괴시킨다.

「스프린트」는 MSR에 유도되어 고도 60Km 이하의 대기권 내에서 목표물을 파괴시키게 된다. 따라서 「스프린트」는 적의 ICBM이 지상목표에 떨어지기 불과 수초전에 적국의 「미사일」을 막는 셈이다.

「스팔탄」요격 「미사일」은 2「메가톤」의 수소핵탄두를 달고 적의 목표탄두에 수「킬로미터」지점에 접근한데서 폭발, 이때 방출되는 강한 중성자 X레이 등의 열효과(熱效果)로 날아 오는 ICBM의 대기권재돌입용 내열장치(耐熱)



◆ 「모스크바, 주변에 67개를 설치했다는 소련의 요격 미사일「웰러쉬」

와 내부의 폭발뇌관의 전자장치를 파괴시켜 버림으로 기능이 마비되어버린다. 이 경우 대기권 밖에서 「스팔탄」의 핵탄두가 폭발하기 때문에 핵폭발에 의한 방사능의 걱정은 적다.

반면 「스프린트」는 수「킬로톤」의 소형핵탄두를 파괴시킨다. 폭발시의 고도가 낮고 대기권 내입으로 방사능의 피해를 저상에 입히게 된다. 이때 지하대피호가 없다면 이 폭발을 쳐나 보는 사람의 눈이 멀게 된다는 과학자의 주장도 있다.

앞서 지적한 ABM설치결정을 둘러싼 미국과 「캐나다」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핵폭발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중공과의 국교수립을 모색하고 NATO탈퇴를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은 ABM설치에 따른 「캐나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 ◆ 중공과 핵경쟁 3각관계

고 「케네디」대통령과 「호르시쇼프」전 소련수상이 「워싱턴」의 백악관과 「모스크바」의 「클레블린」 사이에 긴급용 직통전화(Hot line)를 가설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핵공격의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케네디」대통령이 미·소간에 비상직통선을 설치한 것은 1963년, 미·소가 「쿠바」의 「미사일」기지철수문제로 전쟁일보전의 위기를 치르고 난 후였다.

그런데 날의 갈수록 미·소 양대핵국에 대해 잠재적인 핵공격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공의 존재가 말쑥거리가 되고 있다. 미·소에 이어 뒤늦게 핵개발국으로 등장한 중공은 64년10월16일 최초의 원자폭탄실험에 이어 67년 6월17일에는 중공최초의 수소폭탄실험을 했다. 이는 급「템포」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존슨」행정부의 「셴티넬」요격「미사일」망이 중공이 앞으로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워싱턴」과 북평(北平)간에 「훗·라인」이 설치되지 않는한 언제 어느 때 있을지 모를 중공의 잠재적인 핵공격 도발에 항상 직면해 있어야 한다. 근년들어 「우수리」강의 「다마스키」섬을 둘러싸고 벌어진 중·소 국경충돌 사건은 중·소관계를 악화단계에서 제1적국으로 대치시켜 놓았다. 이미 소련은 내

붕고 국내에 중공을 목표로 한 증거터 「미사일」부대를 설치하고 있거니와 소련은 장차 미국 다음으로는 중공의 핵력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ABM 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존슨」의 「센티넬」요격 「미사일」망이 중공을 대상으로 했으나 「닉슨」행정부가 이를 대소 안전방어방으로 수정한 것처럼, 소련의 대중공 ABM 망 개발은 미국도 이에 상응한 ABM 개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공은 미·소양국이 ABM 망건설을 촉진시켜 주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다.

ABM은 엄밀히 방어용이지만 대형화하면 상대측은 일층 핵공격력을 발전시키고 싶은 자극을 주게 될 것도 상정할 수 있다.

중공이 1955년 「제베바」에서 시작하여 58년부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1백35회에 걸쳐 개최한 미·중공 대사회담의 재개를 「닉슨」행정부에 제의한 것은 무슨 저의일까? 미·소의 핵무기협상과 어떤 합작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미국과 비밀회담을 재개함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을 의심케 하여 장차의 미·소핵무기협상과 기타 국제분쟁협상을 해방놓으려는데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공의 핵개발문제에 국한된다. 중공은 일체의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대기권핵실험금지, 앞으로 발효될 핵확산금지조약등도 현재 무시하고 있다. 반일 중공으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협약 밖에서 핵개발을 무제한 강행하도록 방임해 둔다면 이러한 국제조약의 의의가 말살된다. 따라서 미·중공비밀회담이 열린다면 중공으로 하여금 군축회의에 나서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시키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공은 최초의 원폭실험후 『중공은 여하한 상황하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겠다.』 『어느 나라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미·중공협상안을 들고 나온 적도 있으나 65년 핵실험금지조약이 미·소의 협력하에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자 이를 「영터리」라고 우설하기 시작했다. 그후 중공은 7차례의 원자폭탄 실험과 2차례의 수소폭탄실험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

중공은 앞으로 5년 이내에 ICBM(대륙간탄도탄)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공이 핵탄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

다. 그러나 가지고 있다 해도 중거리탄도탄(MRBM) 10개~15개 정도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미국「후버」연구소의 「S·B 그리피스」박사는 중공이 1975년까지 사정거리 9천5백km의 ICBM 1백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맥나마라」전국방장관은 중공이 72년까지 ICBM 5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또한 중공은 7차의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 원폭의 소형화(小型化)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미사일」에 장치 원거리 목표물 운반시키는 기술과 병행시킨 것이다. 미국과학자들은 중공이 1970년까지 수소폭탄 1백개를 저장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중공의 「미사일」개발계획도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중공은 단거리, 중거리(1천5백「마일」) 「미사일」을 실험하였고 중공해안지역에 중거리탄도탄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으로 「아시아」의 대부분은 중공「미사일」사정권 내에 들게 된다.

중공은 지난 10년간 핵력개발에 최우선권을 두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월1일 개막된 중공 제9차 전국당대회에서도 「핵무기 및 미사일」개발계획을 새로운 정책에서도 계속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이 확실해졌다.

중공 핵 및 「미사일」개발계획의 책임자로 믿어지는 부수상겸·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며 국방위원회 부주석 섭영진과 중공의 「미사일」 및 「로켓」권위자인 중공과학원 역학연구소장 전학삼이 정치적으로 특세한 사실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공은 「프랑스」가 최초의 원폭실험(1960년2월)에 성공한후 8년 6개월만인 68년8월24일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한데 비해 불과 3년10개월만에 수폭실험을 했다는 것만 보아도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 「프랑스」의 전방위전략(全方位전략)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한 근본 이유도 미국의 도움없이 「프랑스」가 독자적인 힘으로 사망에서 오는 위협을 막는다는 「드골」의 자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프랑스」의 「전방위전략」으로 여기에는 3단계의 핵무장계획

이 포함되어 있다.

중공이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중단하고 모든 물질적 인적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동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프랑스」도 독자적인 핵무기개발을 위해 과중한 국방비를 투입하고 있다. 작년 5월 학생과 노동자들의 테모로 위기를 맞이했고 금파동(金波動)을 불러 일으킨 것, 계속되는 봉급인상 「스트라이크」도 이러한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 아래서 조성된 것이었다. 68년 「프랑스」는 국민 총생산(GNP)의 4.37%에 해당하는 2백 50억 「프랑」(50억 「달러」)의 국방예산중 핵전력 개발비가 27%를 점하고 있다.

「프랑스」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 독자적인 핵전력을 갖추려고 하던시도 「나토」항공조기 진자탐지망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독자 「레이나」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소위 「전방위전략」이라 불리는 3단계 핵무장계획 밑에 1단계는 60 「킬로톤」원폭을 운반할 수 있는 미라주4A 전폭기 62대와 중거리 「미사일」 및 「폴라리스」 핵잠수함 「르두타블」호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2단계 핵무장계획은 ①중거리 「미사일」 25기배치하는 것이다. 작년에 잠수함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고 이들 「미사일」에 부착될 핵탄두실험이 바로 남태평양에서 실험되었다. 3단계는 「폴라리스」 핵잠수함 3척에 ICBM을 첨가하는 것이다.

만약 「프랑스」가 예정대로 그들의 핵무장계획을 밀고 나간다면 앞으로 10년간 52억 8천만 「달러」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의 68년 GNP총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이다. 작년 5월 학생 및 노동자역명으로 위기를 만나 그 경제사정 악화를 수습해야 할 「드골」은 부득이 그의 모든 방면에서 오는 위협을 독자적으로 방어한다는 전방위 전략의 3단계 핵무장계획을 줄이거나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중공이 아무리 75년께 미국을 칠 수 있는 ICBM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ABM에 걸리게 됨으로 ICBM의 다탄두화를 또 개발해야 하거나 여러가지 새로운 ABM 돌파장치를 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중공의 경제력이 따라가기는 힘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중공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못된다. 그렇다면 「닉슨」 대통령식의 말처럼 ABM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제3핵국가들의 의도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 ◆ 인공위성 시대의 군사정보

미국이 1950년대에 군사정보 수집을 위해 활용한 것은 주로 U2기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주개척시대의 문호가 열리면서 각종 정찰위성을 통해 귀중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소련도 똑같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U2기의 소련상공비행중 추락사건으로 「아이젠하워」 「호르시츠포프」의 「비엔나」 미·소정상회담이 좌절되었던 사건, U2기에 의한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 설치촬영이 역사에 얼마나 큰 파문을 던졌던가를 상기해 볼 때 군사정보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그러나 최근 「닉슨」 행정부는 ABM망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에 입수된 군사정보를 유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소련이 이미 실전용으로 배치했다는 소련의 최신형 ICBM SS-9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작년까지만해도 SS-9은 공격무기가 아니라 소련의 도시를 방위하기 위한 보복력으로 해석되어 왔다.

「레이드」 국방장관은 SS-9가 결코 보복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공격용 ICBM 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소련이 미국과 함께 제1공격능력을 어느 일방도 가질 수 없다는 결론하에 SS-9을 도시주변에 배치하기 위한 2백기 정도에서 일단 생산을 중지한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 소련은 오히려 SS-9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로 생산된다면 1975년경에 약 5백기의 SS-9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레이드」 국방은 25「메가톤」급의 핵탄두를 가진 SS-9생산에 소련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보복력인 「미니트맨」 발사기지를 파괴하여 「제1공격능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 소련은 이 SS-9에 각기 6~7「메가톤」급 핵탄두 3개를 장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성능에 있어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다표적다핵탄두 「미사일」(MIRV)에 뒤떨어지나 「플라리스」 「미사일」 A3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미니트맨」 기지주변에 떨어져도 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도시공격용이면 이렇게 거대한 핵탄두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의 보복무기인 「미니트맨」 「미사일」을 목표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소련은 1개월에 1척꼴로 「미사일」장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이것은 수중음파탐지기의 개발과 더불어 미국의 「플라리스」핵잠수함을 추적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신속한 기동성을 가진 소련의 신형 「핵잠수함」 SSN은 1970년 초기에 미국의 「플라리스」잠수함대를 무력한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현재의 저상 ABM망은 공군 및 해군에 의한 다양한 ABM망으로 발전될 전망을 지니고 있다.

이미 미공군당국은 NASA와 합작투자로 MOL(유인체도실험실)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대형항공기 적재요격 「미사일」(ABMIS)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이 ABMIS계획은 적의 ICBM을 침입중도에서 요격 파괴시키려는 계획이다. 공군의 ABMIS계획에 상당하는 것으로 해군에 의해 추진되는 잠수함발사요격 「미사일」(SABMIS)이다. 이들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소련의 저궤도폭격체계(FOBS)를 추적하기 위한 「레이저」광선 이용을 개발하고 있고 B-52를 대체할 신형 유인핵폭격기(AMSA)를 70년까지 2백대가량 생산할 예정이다. AMSA는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 목표에 명중시킬 수 있다. 또 인공위성에 의한 조기경보망개발과 함께 저음속(시속 7백 「마일」 이하) 무인항공기(SCAD)의 개발이 실현되면 소련의 ABM망을 혼란시켜 공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소련도 이에 맞서 궤도를 날오는 우주차량에서 적국상공으로부터 원거리 조종장치로 핵장치를 폭발시킬 수 있는 궤도미사일체계(OMS)와 각종 전자 유도장치의 개발, 잠수함대의 이동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수중음파탐지기, 각종 「스파이」위성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 ◆ 맺는 말

이러한 각종 핵무기와 거기 부수되는 현대장비 개발에 있어 소련이 미국을 따라가자면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것이다.

따라서 ABM 망의 건설은 힘을 배경으로 한 대소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A”를 만들면 소련은 “B”로 이에 대처하게 될 것이므로 군비경쟁은 종식되지 않는다.

어쨌든 미국의 전략핵병기의 예산이 65~67년중 60억「달러」에 이르렀고 69~70년에 들어와서는 36억「달러」가 증가, 96억「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다탄두「미사일」(MIRV), AMSA 및 ABM 등 새로운 국방계획이 추기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소련은 공격용 핵전략무기생산에 있어 국민총생산에 비추어 볼 때 미국보다 3분의 1이나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소련의 GNP는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된다. 소련은 이외에 월맹에 대한 연간 30억「달러」의 군사지원, 66년 중동전이후 대아랍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격증, 지중해함대증강과 신형 항공모함진조, 체코사태와 중·소국경충돌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중한 군비지출로 국내경제사정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최근에는 「클레블린」지도층의 내홍(內訌)과 군부세력의 영향력증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역시 70회계년도의 국방예산이 단일예산으로는 사상 최대액수인 8백 1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비록 연간 3백억「달러」라는 월남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2차대전 총 지출액에 상당하는 액수라고 생각할 때 비약적인 군비증대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 이러한 군비부담 속에서 미국이 60~70억「달러」가 소요되는 ABM망 설치결정을 내림으로써 장차 소련과의 「미사일」협상에서 하나의 선택의 여지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다.

소련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 미국의 ABM은 폐기, 연기, 아니면 더욱 촉진될 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소련은 이 이상의 핵무기경쟁을 동결시키는 구체적 협상에 임한 것인가 아니면 지난 2년간 미국이 월남전과 국내문제에 골몰하는 동안 「미사일」격차를 매운데서 오는 과신(過信)으로부터 공격용 ICBM생산 및 다핵탄두 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인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겠다.

다만 소련이 이러한 방향을 따른다면 미·소는 일찌기 「백나마라」국방장관이 예언한대로 얽은 ABM망은 수백억「달러」가 드는 두꺼운 ABM망으로 굳어질 것이며 미·소양국은 새로운 핵경쟁의 『미친관성』(Mad momentum)의 율회 속에 빠질 위험이 짙다.

더구나 최근의 「클레블린」정책은 군부세력의 입김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련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으며 「체코」사태는 그러한 사실을 눈앞에 보여준 하나의 예이기도 하다.

## 방공우주작전

W.D. 그린필드 소장

## 이영진역



과거 20년동안에 걸쳐 미 항공우주방공사령부(Aero-Space Defense Command)는 방공 운용에 소요되는 제반 군사력을 장비, 훈련 및 공급하여 왔다. 초기에 있어 동 사령부의 임무는 공중 공격에 대비하여 미국의 주요 산업 중심지와 인구밀집지역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여 왔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동 개념은 항공우주방공의 고도의 자동 조작과 정밀한 체제하에서 전북미주대륙의 방공을 포괄하고 있다. 군사력은 북미방공사령부(North American Air Defense Command)의 작전체제 내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방공의 현체제는 1차적으로 유인항공기에 의한 공격의 위협에 대하여 주안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주요한 위협이 되는 것은 대륙간탄도 유도탄과 저궤도폭격체제(Frac-

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잠수함 발사순항유도탄(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및 여러 종류의 공중발사유도탄(Air-launched missile)과 같은 제반 유도탄체제로부터 유래되고 있다. 아직도 북미주대륙에 대한 커다란 위협은 유인폭격기에 의한 공격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지만, 당초에 현존 방공체제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위협의 유형, 저널 및 규모에 있어서의 변동은 그 체제에 상응하는 변동과 조정을 수반하게 한다. 실제에 있어서 미 공군은 공중방어에 우선성을 두고 있던 종래의 체제로부터 항공우주방공체제로 변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도탄 및 우주차량(Space vehicle)는 물론, 공중발사유도탄과 재래식 중력 폭탄(Grav-

vity bomb)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유인항공기에 이르는 모든 위협범위 (Threat spectrum)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종래의 방공사령부로부터 항공우주방공사령부로 개칭한 최근의 지시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단계가 전면방공 능력의 개발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전면방공은 세계도처의 어떠한 작지지역에도 가능한 공중급유 저투 추격항공기와 여기에 따르는 지휘 및 통제부서, 지원부서로서 구성되는 고도의 기동성과 즉각반격이 가능한 방공군사력을 필요로 한다. 미주대륙 외곽에 항공우주사령부의 추격기는 최근에 전개시킨 것과 아울러 방공의 이러한 측면에 역점을 증가시키는데 비추어 볼 때, 기동방공군을 창설함에 있어 이것은 성질상 전면적(Global)일 뿐 아니라 핵전쟁보다는 규모가 적은 전쟁 위기상황에 대하여 아주 상응하는 당사령부의 진전을 재고해 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불리 일으켜 주었던 최근의 몇 가지 사태를 먼저 살펴보자. 1961년까지 방공교리와 계획은 아이젠하워 집권시에 채택되었던 대량보복전략(Strategy of massive

retaliation)에 의해서 대체로 형성되어 있었다. 방공군은 거의 전적으로 복미주대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었고, 지점방어(Point defense)는 대체로 방공유도탄에 의해서 맡겨지고 지역방어를 수행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 세계 어느 곳에서고 공산주의의 기습은 핵력(Nuclear power)으로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대량보복전략과 아주 일치되었다. 방공군은 복미주 대륙에 대한 어떠한 역습적 움직임에도 방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방공군에 있어 상당 수준의 기동력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잘 지적하여 준 하나의 사태가 벌어졌다. 1958년 중국군은 대만해협에 위치해 있는 금문도와 마조도, 그리고 심지어 대만 자체까지 맹렬하게 위협했었다.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공사령부는 수 대의 F-104 요격기를 대만에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들 항공기는 비행중 공급유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분해해서 C-124 수송기에 적재하여 대만 내의 목적지점에 공수하였었다. 동 작전은 기동성으로 보아 적시적인 것이 못되었을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다. 1960년대 초기의 케네디 행정부

는 군사력을 제한된 상황에 적응하는 재래적 역할 면에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유연반응 전략(Strategy of flexible response)을 채택했다. 1958년 대만 위기를 거울삼아 기동성있는 방공군의 설치를 지지하는 소리가 방공사령부 내에서 여러차례 드높았었다. 상당한 예비계획이 이루어졌고 또한 1962년 쿠바의 유도탄 위기사태는 다시한번 방공요격기의 미본토 외 전개에의 필요성을 제강조해 주었다. 이때부터 방공요격기와 지휘 및 통제부서가 해외 여러 지역에 차례로 전개되었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에 뒤이어 동남아 지역의 악화일로의 상황은 전면방공능력(Global air defense capability)의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1965년 여름, 동남아 지역의 사태는 해외 지역에 대규모적으로 군사력의 급격한 증강을 초래케 했고 동시에 그 지역으로 F-102전투요격기를 전개시키는 가장 가능한 방법을 방공사령부 본부에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항공기에 대한 초기의 해외 이동방법은 해상수송이었고, 이는 해외의 군사력 설치의 긴급성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완만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동방법이었다. 이에 따라 공군병참사령부(Air Force Logistics Command)는 F-102요

격기에 대한 비행중 공중급유방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학적인 연구를 요청받았었다. 1965년 말에 이르러서 공군병참사령부(AFLC)는 Convair 항공제작회사와 합작해서 이 방식을 개발시켰고 또한 실증을 얻었었다. 요점만 말하자면, 동체의 바른쪽을 따라 외부에 장착된 재급유관(Refueling tube)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장치는 순항비행시 항공기 일부수행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아주 효과적으로 저리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최소시간 내에 용이하게 장착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었다. 1966년 초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항공우주방공 사령부(ADC)의 항공승무원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 1966년 2월까지 F-102항공기는 이 비행중 공중급유방식을 이용해서 동남아 지역에 전개되었다. 동년 말에 추가적으로 공중급유 F-102항공기가 배치되었다. 당시 방공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대처(Thatcher)대장은 이러한 전개를 기동방공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명했다. F-102에 설계된 비행중 공중급유방식은 순전히 해외 전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임시조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기들이 일단 작전지역에 전개되는 것으로 동 실험은 끝났다. 그것은 기동방공

의 개념을 실현하는데 도움은 되었지만 F-102계획은 주되는 목표에 도달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전개를 하기 전 얼마 동안 F-102항공기는 방공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연방항공방위군(Air National Guard) 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1965년에 동남아 지역에 전개되기 전까지 항공연방방위군(ANG)의 F-102 전환 계획은 잘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끝나 있고 단 하나의 완전규모의 F-102전투요격대대가 항공우주방공사령부에 속해 있을 뿐이다. F-102 항공기가 전면공중방어를 개발시키는데 간단하나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때까지도 항공우주방공사령부(ADC)는 이 개념을 실현시킬 현존 군사적 능력을 갖지 못했었다. 방공담당참모는 전세계적인 방공역할을 담당할 다른 종류의 항공기의 물색을 긴급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결국 F-106항공기가 임의로 선택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전면공중방어상황, 특히 공대공 임무에서 요망되는 고속도, 기동력 및 가속성(加速性)을 종합한 제 이점을 보유한 현존 항공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항공기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계획자들이 생각했던 운용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F-106항공기

는 그 지휘 통제부서 및 지원부서와 함께 하나의 위기지역에 전개되어 우군에게 요망되는 방공임무와 통신계통을 지원해 주며(전형적인 방공역할), 또한 공대공 전투임무를 증대시키고 완수하는데(전형적인 공중우세 역할) 이용되도록 고려되었다. 전형적인 방공에 있어 F-106항공기는 의문의 여지없이 북미주 방공임무에서 그 효용이 실증되었다. 한편 전면 방공임무는 대체로 위기지역이나 혹은 제한전(Limited war) 상황에서 방공전투기 세력으로 제일선 적전투 항공기에 대항해서 공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북미주에 있어 F-106 항공기 임무의 성격은 전투기 대 전투기의 공중전에는 비교적 시도되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 전면방공능력의 개발에 있어 그 다음 진화단계는 F-106 항공기의 실험이다. 1966년 봄에 일련의 전투기 대 전투기 공중전이 처음으로 실험되었다. 이 실험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실험은 순전히 육안상황 하에서 전형적인 공대공 전투기 등에 관하여 선발전 항공우주방공공중승무원에게 전술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었고, 둘째로 전투기 대 전투기 공중전의 삼차원적 상황(Three-dimensional field)의 기동면에서 F-106

의 효율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서 특히 주요한 관심사는 이 항공기의  
완전한 임무수행에 대한 통제반응(Co-  
ntrol response) 및 항공기의 안전성 정  
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F-105 항공기는 F-  
102 및 F-104와 공중전을 하게 했다.  
이 훈련에서 공대공 기동 상황에 비교  
적 경험이 없던 항공우주방공사령부(A-  
DC)의 항공승무원이 이 항공기를 조종  
하는데 별다른 곤란을 겪지 않았다. 이  
실험의 결과로서 F-106 항공승무원의  
공중전 기동력에 있어 자격훈련계획(Qu  
alification training program)이 공식  
적으로 채택되어서 선정된 비행대대  
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그 이상의 실험은  
적성 전투기 조우 상황에 최적 운용  
기술 확보를 위해서 네바다 주, 넬리스  
비행장(Nellis AFB)에 주둔하고 있는  
전술공군사령부 산하 전투기웨이다학교  
(Fighter weapons school)에서 실시되었  
다. 지상관계요격상황(GCI-Environmen-  
t)에서 시행된 이 실험은 F-106이 F-  
4C와 대치해서 실행되었다. 이 실험에  
서 항공우주방공사령부의 항공승무원  
은 웨이다 상황에 있어 많은 경험이 있었  
기 때문에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  
었다. 그들은 표적 조기포착과 전투기

격추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코우프 전시 내용  
에 특히 정통해 있었다. F-106 항공기  
는 성능면에서나 그 기동력에 있어 F-  
4C와 아주 잘 어울렸다. 이 실험은 플  
로리다 주 틴달리지(Tyndall AFB)에  
주둔하고 있는 항공우주사령부 본부(A-  
DC weapons center)에서 실시하는 추가  
적인 시험훈련과 아울러 전투기 대 전  
투기 임무에 있어 F-106 항공기의 최적  
운용 및 항공승무원의 공중전투훈련계  
획에 훌륭한 기준을 제공해 주었다. 공  
중전투기등연습에 있어서의 훈련은 항  
공기의 제원 및 성능과, 공중전 상황하  
에서의 비행 특성에 관한 일련의 학과  
장 학술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함  
으로써 시작된다. 이 학술 교육을 끝낸  
다음 공중전에 가장 빈도가 갖게 운용  
되는 공중전투기등연습과 비행진술에 있  
어 포괄적인 교육이 뒤 따른다. 초기비  
행자격단계훈련에는 12개의 임무로 구  
성되어 있다. 저속 비행방식과 공격의  
최외각(Extreme angles of attack)상태  
에서의 숙달기동연습이 실시된다. 그  
다음 훈련은 GCI나 순진한 육안 상황하  
에서 최적기술을 발휘함으로써 F-106항  
공기의 완벽한 운용으로 진행된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 기본계획이 항공

우주사령부 조종사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교묘하게 기동하는데에 특히 공세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성능을 발휘하여 자기 항공기를 기동조종한다. 최초의 경험이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능력이 바로 양복공을 만듦은 못하는 것과 꼭 같이 12초의 공중기동 조종시간을 이수했다고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확고한 기반을 제공해줄 뿐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조종사가 전투기 대 전투기의 공중전에서 승리의 요체가 되는 기본사항을 익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을 얻게 되는데 있다. 조종사에게 계속되는 훈련은 무기발사의 유리점을 위한 기동조종이 최상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적성 전투기와 조우하는 상황하에서 지역방공작전에 입하는 F-106항공기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자. GCI 유도 하에서는 4대의 편대 비행을 하게 되는데 미식별항공기는 착안 식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4대의 F-106항공기는 임무를 부여받는 즉시 단종진(In-trail) 대형을 취하며, 선도 1번기는 적아식별을 하고 6내지 10마일 간격을 두고 뒤따르

는 항공기가 공격을 가한다. GCI 관제 하에 비행하는 F-106항공기는 2개의 레이나 조종 유도탄과 2개의 적외선 추적 유도탄을 장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만약 포착(Lock-on)으로 공격이 진행될 때는 4개의 유도탄이 자동적으로 동시에 발사되고, 자동추적이 불가능한 Close-in range에서 공격이 이루어질 때는 육안에 의한 추적 발사로 적외선 추적 유도탄이 사용된다. GCI 유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적재된 4발의 적외선 추적 유도탄이 사용된다. (이 때 교전은 Close-in combat가 된다). F-106항공기의 무장적재에 있어 기총의 장착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방공임무를 수행하자면 광범하게 기반을 둔 전술과 운용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구의 어느 곳에도 방공군은 침략군이 발사하는 지상 및 공중발사 순항 유도탄(Cruise missile)과 폭격기, 수송기 및 제일선 전투기로 이루어지는 침략에 대하여 GCI 유도상태하에서나 GCI 유도없는 상황하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전면방공개념(Global air defense)에 포함되는 고려사항이다. 공중전투기동, 전투전술 및 운용기술은 편원적으로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공중전 전술 및

운용기술의 개발과 병행해서, 작전 개념의 개발은 전면방공임무를 선정하고 필요한 기구를 운영하는 작전계획과 함께 시작했다. 기동 방공에 관한 계획은 1966년 초에 공군성참모(Air staff)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었다. 이어서 동 개념의 윤곽을 계획한 때도가 국방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이 새로운 계획이 수락됨으로써 1967년과 1968년 국방장관 성명서에 반영되었다. 백나마라 국방장관은 1968년 2월 하원 군사분과위원회에서 미국의 방공체제가 1970년 대에 운용될 그 목적에 관해서 밝힌바 있다. 그 목적 중의 하나는, 수송가능한 통제체제와 공중재급유를 할 수 있는 장거리 요격기구를 포함하는 완전한 기동방공체제를 담당하며 이것으로 아마 육안 식별 규칙 하에서 근접전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방공기동성의 개념이 국방성에 의해서 확고히 채택됨으로써, 그리고 동 임무를 계획하는 작전계획의 승인, 반간 및 배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개념을 공군 지시로 공식화시킨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1968년 2월 12일에 간행된 미공군 규정 23-9는 항공우주방공사령부(ADC)의 임무에 대해서 천명했다.

“미국의 항공우주방어에 대한 미공군의 책임을 해제하고 필요할 때는 해외 육상지역의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공급한다”

미공군사령부는 공군성참모의 검토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범을 개발해서 제출한 것을 항공우주방공사령부에 지시했다. 공군교범 2-41초안이 완성되어 1967년 하순에 제출되었다. 요점을 말하면, 그것은 미국과 해외의 연합국의 자원을 보호하는 미공군 항공우주방공군에 대한 작전개념과 능력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면방공군이 통합군사령부 혹은 특수군사령부의 지원으로 전개되므로 공군교범 2-41 “방공군의 세계적 운용을 위한 작전개념과 능력표준”은 방공임무부대의 태세, 지원 및 운용을 담당하는 상기의 사령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행되었다. 기동방공의 불요불가결의 구성요소는 효과적인 지휘 및 통제체제이다. 전면방공임무는 현존 레이더 네트워크와 지휘 및 통제체제를 갖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레이더가 지휘 및 통제체제가 아주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어려운 지역에서도 전개되어 수행된다. 전자의 상황 속에서 전개의 전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F-106 항공기의 화력통제체제는 구라바 및 극동지역에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고도로 자동화된 방공체제로 자동적인 자료를 얻고 있다. 후자의 상황하에서는 지휘 및 통제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능성은 레이더 네트워크가 거의 혹은 전연없는 위기지역에 항공우주 방공군이 전개되면 거의 전적으로 전술 공군사령부(TAC) 군사력과 이에 부속되는 전술공군통제체제(TAS)의 전개가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우주방공군은 방면공군(Theater air forces)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적극적인 방공임무의 책임을 맡게 된다. 항공우주사령부의 몇몇의 관계정보대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항공우주방공사령부의 요격기를 운용함에 있어 레이더 통제관 숙달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아 왔다. 그리고 몇몇의 레이더 통제관과 보조기술자가 방공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다.

둘째 가능성으로 항공우주방공사령부 공중조기경보 및 관계 항공기가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는데 쓰인다. EC-121 전자항공기가 미국의 동서 해안 밖에 현재 전개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이 이들

항공기가 여러 지역에 수상감시소로 전개되어 아주 훌륭한 관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항공기는 해상 감시소로부터 이웃 육지에 대하여 레이더 탐색 범위를 훌륭하게 포착하고 있다.

세번째 가능성으로는 기동적이고 항공수송을 할 수 있는 레이더와 지휘 및 통제 체제의 사용이다. 이상의 가능성은 방공참모에 의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전면방공임무에 포함되는 지휘 및 통제의 문제는 결국에 가서 새로운 어떤 공중정보통제체제의 개발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중정보통제체제(AWACS)의 가능성은 어떠한 고도에서도 지상에 대한 항공기의 탐색범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내려다 보는” 공중 레이더의 성공적인 개발에 달려 있다. 지상의 장애요소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작업이 현재 얼마 동안 연구 중에 있고, 그 해결책도 증명되었다. 요망되는 기술이 목표에 도달함에 따라 C-135 혹은 C-141과 같은 대형제트 항공기를 사용해서 공중정보 및 통제체제의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들 공중정보 및 통제체제(AWACS)항공기는 F-106항공기와 어울려서 기동성 및 신속한 반응작에 있어 무제한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때에 가서 진정한 전면방공능력이 출현하게 된다.

F-106 항공기를 기동방공임무 취역에 석용코자 했을 때 몇 가지 수정사항이 필요했다. 이 수정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중 재급유 능력이었다. 모든 F-106항공기는 동체의 꼭대기 중앙부분에 속으로 쥘러 넣게 되어 있는 공중급유장치를 갖도록 개량하고 있다. 그것의 공중급유방식은 F-106이 전략공군사령부(SAC) 소속의 KC-135 공중급유기와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항공우주방공사령부(ADC)의 승무원은 주야간 쏘터를 포함해서 네 번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최초의 공중급유 자격 훈련을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한 번에 적어도 5시간이 걸린다. 여러 시간에 걸칠 내구비행(Endurance flight)이 F-106으로 실행되는데 이들 중 중요한 세가지를 들면 이음과 같다.

첫째는 와싱턴 주 맥코드 공군기지(McChord AFB)로부터 멕시코 만에 있는 동남훈련지에 이르는 4대의 1개 편대비행이었다. 여기에서는 플로리다 주 틸달기지(Tyndall AFB)의 레이디본부(Weapons center)에서 발사되는 Ryan BQM-34A 무인표적기와 GCI상황 하에서 실제로 발사를 해가면서 패스했다.

이들 항공기는 Tyndall공군기지에 귀환한다.

둘째는 미주리 주의 Richards-Gebaur 공군기지에서, 알래스카의 EImenlort 공군기지의 F-106 4대 1개 편대비행이 된다.

셋째는 와싱턴에 주 McChord 공군기지에서 오기나와의 Naha 공군기지에 이르는 18대의 F-106 편대비행이었다. 6대의 항공기로 1개 편대를 이루어 비행했으며 이 여행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 2단계는 10시간 30분 동안에 4번의 공중급유가 이루어진다. F-106항공기에 대한 또 다른 개량사항은 충분한 초음속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항공역학적으로 설계된 두 개의 360 같은물들이 외부장착 유지탱크를 장착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하 2에 가까운 속력을 유지 계속 한다. 이 새로운 탱크는 비행중 재급유가 가능하다. 이것은 F-106의 순항거리와 성능을 증대시키며 최적 순항 조건을 유지케 한다. 이 항공기의 MA-1 화력통제체제도 고정상태 계산기(Solid-Stat Computer)의 장치에 의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도록 수정되었다. 이 수정은 화력통제 자동방식의 기술적인 개량과 아울러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방식이

된다(이 방식은 F-106 항공기가 세계의 어느 곤란한 어떤 지역에 전개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처음에 논술한대로 항공우주방공사령부(ADC)는 20년 이상 항공우주방공을 위해서 군사력을 투입해 왔다. 이들은 때로는 군사력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즉각적인 수시 운용에 대비하는 고도로 훈련된 현존 군사력이다. 항공우주방공사령부가 현재 대비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훈련경험을 세계의 어느 곳의 전투지역에고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것이다. 계획은 꾸며져 왔고, 군사력도 확보되었으며, 요원들도 훈련목표에 도달했다. 이미 국제상의 제사태는 전면방공(Global air defense)에 대한 개념의 효용을 증명해주고 있다. 항공우주방공사령부의 군사력은 알래스카의 맥코드 공군기지에서 틴달기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외 여러 지역에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기타 훈련 전개는 필수적인 군사력과 공수, 공중급유, 지원 및 지휘통제 부서와 함께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연습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군사공수사령부(Military air lift command)는 필요할 때 공수를 담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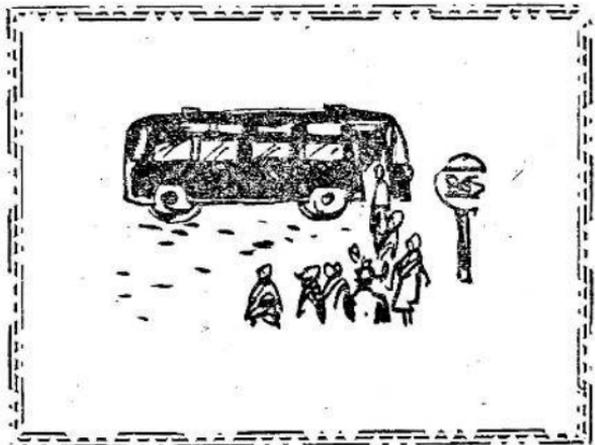
왔지만, 결국에 가서는 항공우주방공사령부가 지구의 전면전개를 위해 특수하게 구성된 자기 고유의 공수군을 가리게 될 것이다.

### “필자소개”

William Dumont Greenfield 공군 소장은 현재 북미방공사령부 중부지역 및 제 10공군(미조리 주 Richards-Gebaur 공군기지 소재) 사령관이다. 1936년 마이애미 대학교 졸업, 1940년 비행훈련을 마치고 제 8 Pursuit Group(피어저니아 주 Langley Field에 있다) 영국으로 옮김)에서 근무. 1942년 제 80 Pursuit Squadron (호주와 뉴기니아에 주둔하였음)에서 근무. 1943년 11월 제313 전투기대대 대대장. 1944년 10월 제10 전투기 진대 전대장(플로리다, 영국 및 프랑에서). 1945년 9월 육·공군 위원회 평가부 전투분석처 처장. 1946 ~ 49 AFF 본부 직전부 Allocation Branch 장을 역임. 1952년 베베주엘라 미공군 사절단장. 1953년 Air War College 연구관. 1958년 ~ 60년 간에 모로코 라바트 에 있는 316사단 사단장을 역임한 것을 제외하고 1953년 이래 방공사령부에서 지휘관 및 참모로 계속 역임되어 왔다.

수

필



### 공동 제목: 통근 유감

## 통근 유감



내  
위  
홍  
성  
계

통근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소위 통학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서라도, 걸어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경우도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통근의 역사가 그리 오랜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가 고도의 물질문명의 발

달과 배를 같이하여 각종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복잡화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있고 이에 수반하여 현대 시민들은 점차로 주택지문 교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차량에 의한 출퇴근은 불가피하게 되어 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 시내 버스를 이용하여 보면 통근에 대한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맛볼 수 있다.

학생시절에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의정부 수원 혹은 천안에서까지 서울로 통학하는 친구들이 있어 통학의 어려움이라든가 통학차 내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듣고서 어떤 면에서는 부러워도 했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나에게서는 현실적으로 겪어야 하는 커다란 괴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소위 차량에 의한 통근을 시작한 것은 현근무처에 배속된 후로부터 저금까지 약 2년간이 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버스를 두 번씩 갈아탄 끝에 겨우 공군 통근차를 탈 수가 있고 매일 장거리를 주파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을 약 2년간 계속하여 무사고 통근을 해 온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통근동료 중에서는 통근 고참에 속하게 되었고 5명의 운전병을 겪어 오게 되었고 통근이 습관화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어려움은 계속 감수하여야 한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어서 쉬는 날도 5시 반만 되면 저절로 눈이 뜨지게 마련이다.

요즈음은 처와함께 기상하므로 지각의 도수가 줄어들었지만 그전만 해도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 뜨고 이불 속에서 게으름을 부리나 보면 영락없이 지각이라 시외버스타고 오는 귀찮음이란 접어 놓고 서라도 차비에 바쳐진 돈도 상당할 것이라 짐작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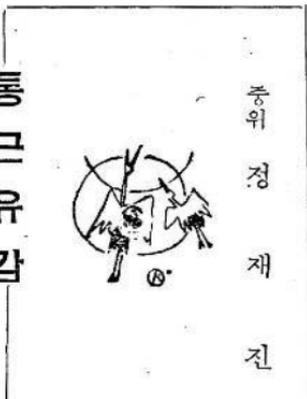
통근을 하다보면 아침에 늦잠부리다가 세수 식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오는 사이에 시내 버스운전사에게 발

리가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오는 등 또는 버스가 이미 떠났을 때에 쓸쓸한 마음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 등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같은 차로 2년간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재미있는 일이 가끔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겨울의 경우는 대기장소에서 합쳐져 부대에서 있었던 일 등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담소하는 일, 또는 장거리 운행 코스 이므로 버스 내에서의 농담 새로운 차를 배당받았을 때의 기쁨 조직화되었으며 제급 서열이 엄연한 군대사회에서 공식적인 접촉을 주로 하는 가운데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원만한 인간관계 조성의 기회가 적은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통근차속에서 서로 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동료의식을 기를수 있다는 사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상당한 차비를 투자하는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인지 오히려 통근을 다행하게 여기고 있는 정도이다.

이에 나는 오늘도 우리들이 안양 통근차를 가리켜 부르는 소위 전천후 차량 속에 몸을 실고 오늘까지 피로한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통  
근  
유  
감



혼탁한 도심지와 작별을 고하고 맑은 향기 가득한 운치(韻致)있는 전원생활에 익숙해 졌다.

야생의 내음을 따라 생을 구가함에 자족하여 마음에 어렸던 생활의 꿈을 실현하였고 이제 비로소 잃었던 나의 참 모습을 찾게 되었으니 이는 My car 시대의 실천배서의 일부이었다.

X            X            X

차가운 오리는 성좌의 미광을 어깨에 받으며 골목길을 돌아 나오니 포도위를 스치는 평음이 스산한 거리를 풍미하고 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초라한 정류장에서 처음과 끝이 없는 일순에 버티어 본다. 원거리에서의 통근은 많은 부담이 따르고 보다 폭 넓은 활동을 강요받아야 하는 불원의 경지에 임하게 되니 이것 또 예외인생의 첫걸음이

아닌가?

한가히 여인의 각선미를 감상할 겨를도 주지 않고 밟삼스런 차체가 앞애와 선다.

차에 오른다.

긴장이 감도는 생활의 철박감도 주위에 밀착해 있는 고뇌(苦惱)도 태양이 깔리는 대저위로 잠적하고 선택된 자로서의 마음을 승화(昇化) 시킴에 부족이 없는 곳일게다.

그런데, 첫차이기에 그런가? 어느 대만한 자의 HIP를 기다리는 보양 먼지가 정연한 가운데 말이 없고 일그러진 표정이 대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삭막한 여인(旅人)들의 연심(連心)을 쓰리게 한다.

차체의 진동과 명멸하는 창외 유경(流景)에 매몰되어 외형상 굳어진 것일까. STREET의 소음에 압도되었기 때문일까. 이질적 문명의 이기(利器)에 대한 인간이성의 패배가 아니라면 자아발견을 바라는 한 가닥의 아쉬움을 절감케 된다.

경쾌한 멜로디의 흐름이라도 있으면 제백사(除百事)하고 감미로운 여음에 끌려 마음은 구름같이 희고 가벼워져 지탄 환경은 급전하여 아픈 상처를 들이켜야만 하는 서글픈 여정을 외면할 수 없다. 진신을 짓누르는 중압감에

돌과구를 찾는 육신, 눈을 까뒤집고  
 찾아도 사지(四肢)의 행방이 모연할뿐  
 축 늘어져 있는 어깨 위로 여인의 핸  
 드백이 왕왕테레 단성이 충천하다.

의욕에 찬 힘찬 출발! 역부족으로  
 파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나의 심약의  
 소치인가.

관문을 통과한다. 청컨대 불편스런  
 검색을 약하였으면 한다. 편의를 위주  
 로 하기보단 본래 인간은 간사하여 불  
 이익을 불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위는 그렇지 않다. 이 관계는 영원한  
 Apollo인가?

전선의 새벽을 지켜주는 희미한 불  
 빛을 가슴에 받으며 하차하니 아침 이  
 슬이 더 차갑다.

× × ×

길고 매력있는 표지를 위로 해보자.  
 편의의 육종은 사치라고 자기류의 거  
 드름을 피운다기 보단 단 하루라도 시  
 시각각 다가오는 절박감을 탈피하고  
 호젓이 귀가로를 걸어봄은 어떨까?

남친의 봄을 만끽할 수 있고 남해의  
 해풍을 마실 수도 있다. 고개를 물리  
 면 들판너머로 붉게 피어오르는 노을  
 을 볼 수 있고 밤하늘의 파란 별들의  
 사연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은가. 면식  
 있는 친구라도 만나면 발길을 돌려 통  
 술집을 찾아든다. 오가는 잔 만사거론

도 가하겠지만 이보다는 상정의 재확  
 인만으로 족할줄로 안다.

× × ×

문을 나서니 햇빛 구름이 무겁게 깔  
 리고 금시라도 비가 뿌려 질 것 같다.  
 아스팔트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드니  
 인적없는 길 위엔 칠후만이 깔려있다.  
 "Walking is best exercise,"를 뇌까려  
 본다.

요즘 교통편력으로 인하여 상실해 가  
 는 주체를 찾기 위해서도 도보 통근을  
 장려하려 한다.



나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 가운  
 데 하나가 인간에게 유형 무형의 수  
 많은 시작과 끝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고 짧은 시작과  
 끝의 사이에서 우리는 성공 혹은 실패  
 를 생산해 놓고 즐거워 하거나 슬퍼하  
 며 행복을 느끼거나 불행을 느끼고 길

은 반성과 자책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문화 문명이 발전을 거듭하는게 아닐까?

언제인가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장교로부터 「출퇴근하는 맛을 모르고 산다」라는 농담 다분한 말을 듣고 「출퇴근하는 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물론 대화속의 「출퇴근 맛」이란 교통의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군중 앞의 우물냄일 수도 있겠고, 포장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시원스러움일 수도 있으며 차창에 비치는 계절따라 철철이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느끼는 즐거움일 수도 있겠고, 차창에 어리는 아릿따운 여인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 발동했다든지 하는 등의 순간적인 어떤 맛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출퇴근의 참 맛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나는 이 참 맛을 주어진 시간들이 좀 더 값있고 보람되게 보내질 수 있겠끔 연관된 시작과 끝의 의의에서 생각하고 싶다.

출근과 퇴근이 자기 사사로운 일이 끝이고 공적인 일과가 시작되려는 동안과 공적인 일과가 끝이고 사사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동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안의 중요성은 실로 큰 것이

리라.

아직 여러가지 여건이 원만치 못하여 못 면하고 있는 교통의 생지옥—차를 잡아 타려는 걱정에서부터 처징 거져야 하는 걱정, 빠져 나와야 하는 걱정... 과연 이속에서 출퇴근의 동안이 그렇게 값있게 요리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론 다른 많은 사정의 배려도 있겠지만) 현대 경영관리자들은 전용 통근차의 서비스를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분명 통근이 관광 여행은 아닐텐데도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의 감담으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 뚜렛이 쓰여진 「금연」의 글자 뜻을 터득하지 못할이 없으면만 차내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 아직 일과가 시작되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예의를 망각해 버리고 자기의 편의만을 취하는 양치족.

아무리 시간을 다투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통법규가 살아있고 제한속도가 있을 텐데도 아찔할 정도로 추월을 감행한 운전사...

이 모두가 통근의 동안을 제 나름대로 이용하고자 함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출근의 동안이 또 새로 시작되는 하루 일과의 구상 내지 마음의 준비 단

계로서 그리고 퇴근의 동안이 하루 일과의 반성과 다음날에의 나짐을 하는 동안이 되기를 바램이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면 최소한 공격적인 일과에 영향을 줄만한 사사로운 일들과는 절연체의 역할쯤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설명 할 퇴근 동안에 아무런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 치더라도 출퇴근 그 자체가 한 변화로서 의의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별로 시간적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 것 때문에 타의에 의하여 퇴근차를 놓쳐 버리고 걸어서 일반인과 동승해야 되는 경우의 심정은 과히 즐거운 것은 못되며 그 마음의 움직임은 짜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아닐까?

또 위와는 반대로 아직 상사가 퇴근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하는 일도 없으면서 무작정 상사의 퇴근을 기다리는 성실과(?)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고 보면 수궁이 같듯도하나 이런 경우엔 예의라기 보다는 오히려 우매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너무 이해타산이 밝다고 할지 모르지만 귀한 시간을 그렇게 무작정 보내버리다니 그리고 앞

아서 불평을 하다니 필말인가?

불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일의 유무를 묻거나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누구든 아침에 분초를 다투는 복세 통 속에서 일어나 십여분 내에 세수와 아침을 마치 쫓무니 빠진 사람처럼 마치고 나서 통근차가 막 급정거한 로터리로 백미터 육상선수처럼 뛰어 나가는 일을 왕왕 맞보았을 것이다.

하기야 십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면 제법 거드름까지 피우며 조간신문에서 「재키」와 「오나시스」가 어찌구 저찌구하는 스캔달도 읽고, 아침 담배가 해롭단 말이 많지만 담배 한 대 피워 볼 여유도 있을 것이다. 요는 십분 일찍 일어나는가 십분 늦게 일어나는가에 아침 풍경은 돌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복세통 속에서 치솔을 물고 신문을 보고, 신문을 보며 아침을 뜨고, 아침을 뜨면서 가방을 챙기고 가방을 챙기면서,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는 복잡한 일관작업 속에 자신을 맡기는 이유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한 가지일 것이다.

일태던 십분 일찍 일어나 맘 편하게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느니 보다는 십분쯤 잠속에 취해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유난히 잠이 없는 족속들은 간히 생각도 못하는 달디 단 아침 잠.

부엌에서 끓여대는 텁텁한 시금치국냄새를 맡아가며 사타구니 속에 손을 넣고 잠을 자는 아침잠·팔레틀 위에서 참새는 우는가. 그들의 짹짹거리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이든 아침 잠.

그 달콤한 아침잠을 과연 십분 단축하고 용감하게 황야의 무법자처럼 체온이 뱅 자리를 박찰 용기가 내게 아니 당신에게도 있는 것인가.

실사 천지 개혁해서 십분 일찍 일어났다고 치자. 6시 15분에 일어나야 할 사람이 6시 5분에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던 갑자기 그는 흠어 뵈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할 수록 수면시간만큼엔 여유를 두고 싶어지는 법인데 십분 일찍 일어난 사실이

몇 번이고 억울해져서 그날 하루 온종일 하품만 하게 될 것이고 온종일 편도선이 붓고, 이가 아플 것이다.

결혼한 친구 얘기를 들으면 아내라는 족속은 남편의 잠을 아니꼬와 하는 족속들이라서 남편을 일찍 깨우려고 노력한다던데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속물화(俗物化)의 진초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친구의 말에서 기인된 것이다.

생각해보라.

밤에는 세빠 보이기 마련인 아내가 아침엔 갑자기 잔주름살이 늘어진 얼굴로 손톱으로 할퀴면서 안달이나 나의 거룩하고도 성스러운 십분간의 아침잠을 메앗을 악마의 눈짓을……. 작살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아침도 제대로 못먹고 출근하는 이유를 알 것이다.

실사 근무시간 중에 라면 한 그릇을 끓여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아침의 백미터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의 어머님께 아슬아슬하게 시간안으로 출근 버스를 탈 수 있게끔 건각을 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그 한바탕의 뽀박질이 끝나고 출근 버스를 탔을 때 어제의 동료 상관이 모두 어제와 같이 건

강하고 싱싱한 모습으로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자고 나와 주셨다는 기쁨에 신에 감사한다. 더구나 환절기에 특히 볼 수 있는 여문관들의 옷차림이 바뀌고 그들의 눈가에서 요즘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희열감, 반짝임, 부끄러우나 은밀한 속삭임 같은 것을 느낄 때 나는 만족한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어제 퇴근길에 산 주잉·검을 선사하고, 그녀들이 만약 재치있는 여인들이라면 근무시간 중에 혼자 까먹으려고 숨겨둔 땅콩을 파타제로 선물할 것이다. 주잉·검과 땅콩이 있는 출근 버스 길엔 물론 찡그린 사람은 없는 것이다.

설사 어제밤 여편네와 살림에 대해 나쁜적이 있는 불쾌한 사람이라도 절절 웃으며 출근할 것이고 갖 상에 오른 물고기처럼 싱싱한 아침 풍경을 내다 보며 오늘 저녁 퇴근 길엔 관리처에 가서 가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위해 월드·크림 한 개 사들고 가리라 맹세할 것이다.

자고로 행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들처럼 부자인 것 밖의 특권이 아니고 비록 어리석긴 하지만 이치럼의 텀박질, 이치럼의 아침잡, 이치럼의 아침인사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신이여! 그들과 내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정신이 건전하냐의 여부에 우리의 앞날은 규정지어진다.
- ◇...모든 결심과 행동에 대한 지표는 오직 단합과 건설이며, 북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움의 길」에 충실하여 국가의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 ◇...분명히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멀고 험준하며 짐은 무겁고 걸음은 조급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중도에서 길이 험하다 멈출 수 없고, 짐이 무겁다 벗을 수 없다.
- ◇...군인의 길, 그것은 진정한 인간이 나라와 겨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가장 보람있는 길이다.

# 교회의 구조와 기구

○...기독교는 크게 나누어서 대종서녀  
○...가지로 분류된다. 로마 카톨릭교회,  
○...회람 정통교회, 영국의 성공회, 그리  
○...고 개신교파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카톨릭교회가 먼저 들어왔  
○...고 후에 개신교(장로교와 감리교)가  
○...들어왔다. 성공회, 정통교회는 개신  
○...교보다 훨씬 후에 들어왔고 그 수적  
○...세력도 아직은 미미하다. 2차대전후  
○...에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면  
○...서 각자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하던 교  
○...회가 되고 기구면에서 연합 체제를 구  
○...출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신학적, 계  
○...도적 차이로 말미암아 분열된 교회는  
○...지금 오랫동안 조상의 한 아버지가신  
○...한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조용히 합일  
○...의 제 2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 교회기구를  
○...설명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기  
○...능을 살펴 보기로 한다. ....

- 사회변화와 교회 구조
- 세계교회협의회 <W. C. C>해설
- 천주교의 성직계급과 조직
- 한국 기독교 연합회 (N. C. C)해설
- 70년대를 향한 군중업무의 비전



사회 변화와 교회 구조

교회 구조와 사회학적 근거

현

영

학

△이대교수▽

I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따라서 교회도 이 세상을 위해서 주어졌다. 교회는 교인들의 교향이다.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 처럼 교회도 이 세상의 형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질그릇’이 제 구실을 못할 때는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새 ‘질그릇’을 만들어 내실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쓰고 오신 것 처럼 교회는 이 세상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교회의 용어나 장식이나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교방식이나, 다 아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것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간에 또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간에 그 구성 요소들이 변하는데 따라서 변해 왔고 또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로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저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선전신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부소 이 세상 안에 들어 오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상 안에 있고 또 이 세상 안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저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의 것과는 아주 다른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이러한 교회는 비그리스도적인 교회가 될 뿐더러 이 세상 안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세째로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시고 또 현존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찾아 다니신 것처럼 교회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에나 따라 가야 한다. 사회변화에 따라서 교회의 구조도 달라

져야 한다는 말이다.

## 2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현재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구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청사진에 맞추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변천해 온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고 보통 당면한 것도 아니다. 크롤린 윌리엄즈는 그의 저서 “교회가 설 자리”라는 책에서 교회 구조의 변천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1. 이동적이고 다양한 교회

초대교회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특정한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나름의 세속적인 직업을 따라서 옮겨 가는 곳마다 “성도의 교제”가 형성되었다. “가이사라 집”에서 일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직장”교회도 생겼고, “고린도의 교회”처럼 교인의 직을 중심으로 모인 “거주지”교회도 있었고, 박해를 받던 시절에 카타콤 속에서 모인 “패난”교회도 있었다. 여기에는 예배당도 없었고 목사나 전도사도 따로 없었다.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는 곳마

다 또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성도의 교제” 즉 교회가 생겨 났다. 말하자면 교회 전체가 즉 교인들 전체가 목사였고 전도사였다.

## 2. 제도화된 교회

4세기 전반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회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교회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고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었다. 이 교회당은 행정의 중심지나 상업의 중심지에 세워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모아 들이기도 하였으므로 따라서 여기가 교회 행정의 중심부가 되었다. 여기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내부적인 또는 대외적인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문화 전체를 기독교화 하며 기독교의 판도를 넓히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그러나 제도화된 교회가 제도화됨이 세상의 권력과 대결하며 이것을 정복하는 동안에 교회가 이 세상과 “영합”하는 경향도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에 대항해서 수도원 제도가 나타났다).

## 3. 교구 교회

중세기 사회가 봉건제도로 굳어져

가고 사회가 안정되고 곳곳마다 안정된 마을이 생기게 되면서 소위 교구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었다. 국교가 되다 시피한 교회도 정치 행정적인 구획에 따라 교회의 행정 구역을 구분하여 교구라는 것을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교회당이 생기고 담당 성직자가 취임하게 되었다. 이 마을들은 그 당시 사회의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써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들, 먹고 쓰고 일하고 살고 교육하고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제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되었다. 외부와의 접촉이란 어쩌다 있는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대부분 사치품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들을 통해서 였다. 이러한 마을 중심에 자리잡은 교회와 그 성직자는 그 교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면에 다 관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주지를 근거로 한 교회는 “만물의 주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구조면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다.

## 3

이러한 교구 교회 또는 거주지 중심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교회의 구조였다. 중세기 이후에 종교개혁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체로 그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 와서 전파되는 동안에는 초대 교회와 같이 교회구조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에는 마을마다 교회당이 없어서 개인집에서 성도들이 모아서 교회를 형성하였고 목사가 없어서 평신도 전체가 주동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커 감에 따라 제도화되고 중세기적인 거주 중심의 형태로 굳어져 갔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목사가 있고 교회당이 있는 거주 중심의 교회 형태만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교회의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중세기에서 종교개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거주 교회는 불행하게도 내조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루터나 칼빈도 마태복음 끝에 있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명령은 그 당사의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자 자기들의 교회에 대한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관심은 교구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그 당시 사람들은 명목상 다 기독교인이었다) 있었지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업은 교회 자체의 관심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어떤 개인이나 선교회회가 맡아 하게 되었다(선교사들이 새로 생긴 선교지역의 교회들을 최근까지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선교장소”로 보려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한국교회 특히 도시 교회들, 그 도시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에 비추어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리의 교회는 앞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거주 중심의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거주 중심의 교회구실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의 교회들 대체로 보면 교회는 1. 같은 교향 사람들 2. 친분이 있는 사람들 3.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 4. 신령한 목사, 5. 교회의 분위기 등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시골교회와는 달리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제각기 다른 교회에 나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집 근처에 있는 교회보다는 앞에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경향이 많아 졌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성도의 교제”는 한 주일에 한두번 만나서 식으로 웃는 얼굴로 인사나 하는 정도의 사교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술을 대변하는 목사의 설교는 교인들의 전문적인 직업 생활과는 아무런 구체적인 관계도 없는 추상적이고 교양적인 이야기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례전도 무작정인 내용이 없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감상적인 추억의 표현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 반면 도시 사회는 전문적인 직업별로 세분화되었다. 도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거나 간에 그들의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거진 다 그들의 직업 수행에 집중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는 실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의 가정이나 집이나 사는 동리는 가서 먹고 자고 쉬는 장소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실지로 살고 있는 곳은 그들의 직능을 수행하는 장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생활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그들의 직업 수행의 장소 정치, 행정, 금융기업, 교육, 매스컴, 예술, 의료 등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도시 교회는 그 구조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거주지역이나 직업 수행의 장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 교회의 목사가 앞에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모여 오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거주지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목회도 할 수 없을 것이다(중세기의 거주지 중심의 교회나 성직자는 적어도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살이 다 알 수 있었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구조가 도시 목회를 위해서 적당치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4

거주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도 도시 사회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어야 하겠고 직업 수행의 장소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직장 교회도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면 관계로 여기서는 직장교회에 관해서만 몇 마디 하려고 한다. 공장교회, 은행교회, 병원교회, 학교교회 같은 것

들이 생겨야 하겠다'는 말이다. 일부 기독교 대학 캠퍼스 안에는 이미 대학교회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런 대학교회는 그 교회가 우연히 대학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학교회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대학교회는 아니다. 그것은 예배나 설교나 기도나 교인의 구성이나 관심의 내용에 있어서 소위 "거주지 중심의 교회"라고 하나도 다름이 없다. 거기에는 대학과는 관계 없는 사람도 많이 오고, 대학에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대학의 정책에 순응하지는 동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의와 같은 여려가지 구속이 없기 때문에 편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것이 참된 산 교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교회는 그 대학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학이 우수하고 참된 대학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서 종사하는 교수나 직원이나 학생들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다운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하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려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고빈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사하고 찬송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교회의 생활 즉 예배와 성경연구나 기도에 전체에 그 대학의 문제와 관심거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교제"나 "말씀의 선포"나 성례전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 참여와 훈련이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도 함께 하실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더군다나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십자가"의 일선은 언제나 평신도들이 담당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대통령이나 공무원은 "공부"으로서 국민을 돕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고 목사는 교인들의 일선 활동을 돕는 사람이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이고 목사를 돕는 것이 교인이라는 생각은 권위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이다. 현대사회는 정치의 민주화만 아니라, 교회의 민주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들이 자 직장에 형성될 때

비로소 교회는 현대 사회의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주지 중심의 교회와 여러가지 직장에 흩어져 있는 여러 모양의 교회를 다 합친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다. 따라서 구라파나 미국에서 그들 나름으로의 사회적조건에서 형성된 교파, 우리나라에는 맞지도 않는 교파, 도리어 교회의 분열만을 조장하는 교파별 조직도 재검토되고 재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5

기독교가 처음 생겨 났을 때의 사회는 소위 “이교”의 세계였고 기독교인은 극히 소수였다. 그들은 교회 구조에 있어서 유동성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황제의 인정을 받고 제도화되고 교회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서 교회는 날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강요되고 남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 그런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

중세기를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 즉

“기독교의 시대”라고 하면 오늘날(특히 17세기 이후) 서양에 있어서도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고 한다. 더군다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아직도 “기독교 이전의 시대” 또는 초대 교회와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기술문명과 공업화 도시화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사고방식은 대체로 “기독교 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세상, 그리스도가 종의 모양으로 오신 이 세상을 오늘날의 교회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을 내려다 본다면 “불쌍하게 여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이 세상 구석구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찾아 가져야 할 것이다.

# 세계 교회 협의회(W.C.C)해설

(W.C.C = World Churches Council)

김 상 배 군 록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세계교회 협의회(W.C.C)라는 거대한 기구가 형성되었음으로 먼저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헬라어 Oikoumene란 말에서 온 것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란 뜻으로 현대 그리스도교회 사상에서 「보편적」이란 말과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이 운동은 곧 전세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업에 있어서의 통일과 단결을 지향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리스도교회의 통일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운동으로서 신교뿐 아니라 동방교회와 고 카톨릭교회, 오늘에 와서는 로마 카톨릭교회까지 포함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의 근저에는 교회의 실제적인 분열상태와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 사이에 뚜렷한 대조가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는 유대 민족주의를 초극 함으로써 세계적인 종교로서 교회의 교리 및 제도를 공론으로 결정을 일찍 세웠던 것이다. 주후 49년의 예루살렘 회의는

그 당시 세계 교회의 회의였으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자유를 부여한 후 처음 세계교회회의를 연 것이 325년 니카야 회의였다. 325년 제1차 니카야 에큐메니칼 회의에서는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 니카야신조를 제정하고 교회의 논쟁을 해결하였고 381년에는 제2차로 콘스탄티노플에서 18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니카야 신조의 완성을 보았고 제3차는 431년 에베소에 모여서 비스트리우스의 논쟁을 다루었으며 제4차는 451년 칼케돈에서 초대 교회의 최대규모의 에큐메니칼 회의로서 동서 교회의 대표 520 내지 630명의 감독들이 참석하여 단성론을 배격하고 그리스도론의 최후적인 교리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후 553년에는 제5차, 680년에는 제6차 에큐메니칼 회의를 콘스탄티노플에서 열고 제7차는 787년에 니카야에서 모였던 것이다. 이 모든 에큐메니칼회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데 있었다. 중세기에 와서는 로마 감독 즉 교황의 권한이 너무 커서 회의정치는 후퇴하고 교황청의 전제정치가 실시되었다. 1433년 콘스탄틴 전체교회회의는 회의정치론자들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 회의가 목적인 회의정치의 회복은 실패하

고 교황청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의 권한보다는 회의 권한을 더 크게 인정하였고 교황의 무오성을 부인하였던 것이다. 개혁자들도 서로 모여서 공론으로 신앙문제와 신학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껴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 루터와 쾰링거가 참석했던 것인데 두 지도자 사이에는 광범한 합의점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은 약 15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운동은 학생들의 운동(SCM)과 신학교간의 교류운동에서 시작했는데 영국의 W. 템플,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 존 매카이, 반 두젠과 그 밖의 여러 인사들이다. 1795년전까지는 수많은 교파들 사이에 단 한 가지의 연합사업이나 협력도 없었던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종류는 수천에 달한다. 실로 이것은 현대의 기적이라 할만하여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하는 이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에큐메니칼운동의 배경을 살펴 보면 첫째 근인적 배경으로서 ① 개인 협력: 1795년 스코틀랜드의 감리교인과 성공회교인들이 런던 선교협회에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협력한 것을 비롯, 1804년 설립된 성서공회와 1816년에 설립된 미국 성서공회는 그리스도교의 통일을 보

색하는 좋은 협력체로서 출발한 것이었다. ② 협력체(Co-laboration): 이것은 어떤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협력하는 운동이 아니고 회의를 열어 협의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1854년 뉴우욕과 런던에서 열린 것을 비롯하여 1910년의 에딘바라 선교회의에 이르기까지 전부 8차나 열렸다. 그런데 1900년 뉴우욕에서 열린 것이 최초의 에큐메니칼 선교회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③비교파적 연합회(Non-denominational Association): 이것은 교파간의 사업이 아니고 교파와는 아무관계 없는 것으로서 YMCA와 YWCA를 들 수 있다. YMCA가 조직된 것이 1844년, YWCA가 조직된 것이 1851년이었다. ④교파간의 회의 : 교파 사이에 공식 대표를 파송하여 연합 사업과 협력을 논의한 것인데 처음에 선교지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⑤ 교회연합회(Federation of the Churches): 미국이 처음으로 교회 연합회를 조직한 것이 1903년이며 그후 자국에서 연합회가 조직되었으니 이것이 오늘의 NCC(기독교연합회)의 전신이 되었다. ⑥ 교파합동(Church union): 분열되었던 교파들 가운데서 동일계 교회들이 기구적으로 완전히 합동을 보게 되었다. 무려 60종이 합동을 보게 되었고 타계 교파합동이 약

30종에 달한다. 스코틀란드에서는 18종 장로교파들이 1929년에 이르러 하나의 교파로 1860년에 캐나다에서는 21개교파가 있었다가 1925년에 이르러 캐나다 연합교회로 통합을 보았다. 둘째 직접적 배경 : 19세기말에 이르기까지의 운동들은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준비의 역할을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파들의 접근과 연합운동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확대와 조직의 상설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성을 띠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만 지적한다면—1. 에딘바라선교회의 1910년 에딘바라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 더 포용성과 공동성을 볼어낸 것이며 교파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협력하려는 의욕이 대단히 컸었다. 이것은 교파간은 물론이고 국제적 협력의 뚜렷한 증거가 되었고 이것이 금후 세계적인 대회인 한 표본이 되었다. 여기서의 「신앙과 직제」의 문제는 물론이고 신학적인 교리의 차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회의의 직접적인 결실은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연구회의 탄생이었다. 에딘바라선교회의가 그후 에큐메니칼운동에 끼친 영향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금후 에큐메니칼 조직화를 위한 기

본적 원칙을 세워 주었다. ③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시작이 되었다. ④ 에큐메니칼 조직체를 만든 것 ④ 각국선교지역의 교회들이 NCC를 조직하여 육성하도록 했다. 2. 스톡홀름회의 :

이 회의는 1925년에 열린 회의로서 1910년 에딘바라회의의 자연적인 한 연속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생활과 사업」이라는 사회적 활동과 또 이미 선교지역에서 시험해본 공동목적과 계획의 방편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색은 사회적 관심을 가진 복음주의자, 카톨릭신자 및 자유주의자들이 결합하게 된 것이며 교회밖의 자유주의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3. 로잔회의(1927년) : 이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제를 내걸고 토론하였는데 첫째 지상의 교회는 본질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체제상으로나 하나라는 것이고 둘째 교회의 유일의 토대는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다. 4. 예루살렘회의 : 1928년 수난중간에 모인 이 회의는 1921년에 정식으로 조직된 세계선교 협의회의 회의였다. 주요의제는 첫째 피선교국교회대표들이 주장한 본토민 교회의 독립성과 그 교회와 선교모교회와의 대등한 지위 문제였다. 둘째는 난로 성해가던 세속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5. 마르타스회의

(1938년) : 이 회의의 주요 제목은 「선교와 교육 그리고 그리스도교 맥시지와 이교와의 관계」였다. 여기서는 첫째 이교의 도전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모색하게 되었고 둘째 앞으로 조직될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있어서 피선교의 젊은 교회들의 위치가 문제되었다.

## 2. “W.C.C의 형성”

### (세계교회 협의회의 형성)

처음에 교파끼리나 단체끼리 친선과 협력을 도모했을 때에는 WCC와 같은 세계적 기구를 생각하지 못했으나 에큐메니칼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운동을 되도록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운동 단체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1932년 5월에 영국의 요오크의 성공회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10인의 에큐메니칼운동 지도자들을 자택으로 초청하여 회담을 가진 때에 WCC의 잉태를 보게 된 것이다. 즉 이 회담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통합체로서 세계협의회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단체인 「신앙과 직계」와 「생활과 사업」의 두 단체의 회담을 1937년 여름에 영국에서 동시에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935년 윌리엄 템플이 미국을 방문하는 기

회에 프린스턴에서 미국 에큐메니칼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템플은 「신앙과 직제」 「생활과 사업」 두 단체의 실행위원회가 각각 차기 회의 회기를 만듦을 제안하여 그 결정을 보았다. 이리하여 1937년 런던에서 영·미 및 유럽의 많은 교파의 대표 35명이 교섭위원으로 뽑혀서 여기에 모여 3일 동안 회담한 결과 유익한 계획안이 채택되었다. 그것은 첫째 「신앙과 직제」 「생활과 사업」의 두 단체를 완전 통합하여 에큐메니칼운동의 핵심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 회의 분과 위원회에서 WCC라는 이름을 제시한 사람은 카버트였다. 다음의 결정은 동년 동시에 옥스포드와 에딘바라 두 곳에서 모일 두 단체의 대회에서 각각 두 단체의 완전통합을 제안하여 WCC를 결성하자는 것이었다. 1937년 7월 옥스포드대회가 동년 8월에는 에딘바라 대회가 열렸는데 이 두 단체에서는 런던회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14인위원회에게 WCC형성의 준비를 위촉하게 되었다. 1938년 5월 네델란드 「위트히트회의」에서 모인 이 회의에는 14인 위원들과 그후 증가한 각 교파대표들이 합석하여 WCC형성의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토의하고 WCC의 성격과 현장을 비

롯한 구체적인 것들을 토론하여 결정을 보았다.

### 3. W.C.C의 발전”

① 암스텔담 제1차회의: 1948년 8월에 암스텔담에서 WCC의 제1차대회가 소집되었다. 여기에 가입한 교파는 147이었고 국가별로보면 44개국이 참가한 셈이었다. 정식회원 수는 551명이었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정식 업서버를 파송하였다. WCC의 헌장은 위트히트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채택하였고 대회는 8개 부서로 조직하였다. 「교회간의 원조」 「피난민 구제」 「연구사업」 「청년사업」 「에큐메니칼 보도」 「신앙과 직제」 바질의 에큐메니칼 기관 및 국제문제 부서였다. 이대회는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대 결실이었으며 이 제 이것을 모체로 해서 세계의 교회들의 연합과 친선과 활동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생기게 되었다. ② 에반스톤대회: 1954년 8월 미국 일리노이주의 에반스톤에서 제2차 WCC대회가 소집되었다. 가입교파와 교단수는 161이고 국가별로는 48개국이 참가한 것이었다. 대표수는 600명이었고 대회주제는 「세계 희망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분과 별로 토론한 것을 보면 (1)신앙과 직제부

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우리의 하나님과 교회별의 불통일성 (2) 선교부문에서는 교회생활 밖에 있는 생활들에 대한 교회의 사명 (3) 사회문제부문에서는 세계적 전망을 가진 책임사회 (4) 국제문제부문에서는 세계공동사회를 위한 크리스천의 투쟁 (5) 그루우프사이의 관계부문에서는 민족적 및 인종적 긴장 속에 있는 교회 (6) 평신도 부서에서는 크리스천과 그 소명이란 것들을 다루어 연구하게 되었다. ③ **뉴우밀리대회** : 1961년 8월에 제3차 WCC대회가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아래 모이게 되었다. 특징할만한 것은 오랫동안 통합을 모색해 오던 IMC(국제선교협의회)가 WCC와 완전 통합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러시아 정교회가 WCC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 분과별 토의는 제1분과 「증거」 제2분과 「봉사」 제3분과 「일치」란 의제를 토의했다. ④ **웁살라대회** : 제4차대회가 1968년 7월 4일부터 19일까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으로 70킬로 떨어진 웁살라란 도시에서 과거 어느 회의 보나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각종 자격으로 모였다. 전세계 220여개의 회원 교회로부터 약 800명의 정식 대표가 참석했다. 주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제

시록 21:5)이다. 분과별 토의 의제는 제1분과 거리감이 없어진 세계와 교회 일치 제2분과 선교하는 교회 제3분과 사회적 경제발전이 대응하는 교회의 역할 제4분과 국제문제에 대응하는 교회 제5분과 세속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제6분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모색함인데 제4차 WCC대회를 특징지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제3의 세계」란 말이다. 「제3의 세계란」 북반구에 있는 부한나라 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세계 즉 남반구의 사람, 주로 가난한 나라들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코토(J.Kotto)의 강연을 통해 알아 보면 남반구의 사람들은 아사의 상태에 놓여 있고 공포를 자아내는 인종차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병원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사람,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도 자금이 부족하여 개발하지 못한 나라 이런류의 세계가 제3세계이며 특히 제3분과 「세계 경제와 사회발전」의 내용과 제4분과 「국제문제 관제에 있어서 정의와 평화」의 내용을 비롯 자본과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문이나 언필이 금후 WCC를 중심한 에큐메니즘의 방향을 「제3세계」의 문제와 관련시켜 보려는 새로운 의도를 볼 수 있었다.

# 천주교의 성직계급과 조직

김 스테파노 신부

## 1. 조 직

1967년 현재 「브리타니카」연간에 의하면 카톨릭신자의 총인구는 6억에 달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의 18.4%에 이르는 카톨릭신자수는 그 후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인구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카톨릭수만도 77만이나 되며 전인구의 2.48%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방대한 신자를 포용하고 있는 카톨릭교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바티칸)을 중심으로하여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신 카톨릭교회의 목적은 카톨릭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에 있다. 그 사명이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인도하는 데 있다.

영원한 생명은 인류의 목적이며,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의 도우심과 인간의 협력으로서 이 목적을 달성케 하느님의 백성들이 모인 무리이다. 천주의 도우심이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천주의 성총을 받음을 말하며, 이 성총을 분배하는 권을 성사집행권이라 하고, 이를 위하여 사람들은 전력을 다 하여야 한

다. 여기에 대하여 카톨릭교회는 진리와 도덕적 규범으로 사람들을 지도한다. 이를 통치권이라 한다.

카톨릭교회의 조직은 이 2대권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 2. 성직 계급

교회의 성직계급이란 교회의 통치세도를 말한다.

카톨릭교회의 성직계급은 성사집행권과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성사집행권은 주교, 신부급 기타 하급 성직이 이에 속한다. 통치권은 교황과 그에 종속된 주교들이다.

### a. Ⅲ 황

로마의 주교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그는 교회의 명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천주교회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티칸시국의 원수이다. 현 교황은 바오로 6세이다.

그는 교구를 인정하고, 그 교구장과 교구면속수도원장을 임명하며 자국에 사절을 파견한다. 주교구는 다시 여러 교회로 나누어 신부가 있다.

교황은 자기의 최고 고문으로서 추기경을 임명하며, 그들의 충언과 협력을

요청한다.

교황의 선출은 추기경단에서 몇 차례 걸친 엄정한 투표로 결정된다.

### b. 추기경

홍의재상이라고도 하는 추기경은 교황 다음가는 고위 성직자로서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교황의 자문 또는 조력자로서 세계교회 전반의 주제에 직접 참여한다.

추기경의 선임은 교황의 완전한 자유에 속하며 추기경단에 대하여 형식적 동의만 구할 뿐이다.

추기경이 되면 교황선거권을 가지며 바티칸 제 성성 및 관청의 장관 또는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교황 특과대사에 임명될 수 있다.

교구 내에서는 전권을 갖고 보좌주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추기경은 국제관례상 왕자 또는 국가 부원수의 대우를 받고, 전학의 칭호로 불리운다.

현재 추기경의 총수는 134명이며 우리나라는 한국사상 처음으로 김수환 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크게 환영해야 할 이 경사는 개인의 영예일뿐 아니라 카톨릭 신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영광된 역사적 경사라고 생각된다. 종교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안의 한국에 대한 인정도가 점고하고 있다는 실증이기 때문이다.

**c. 공의회**

특수경우에 대하여 신앙 도덕 교회규율 등 중요문제에 대한 결의를 짓기 위하여 교황이 전세계 주교를 소집하는 회의를 공의회라 한다. 서기 325년 「니체아」공의회를 1차로하여 1962년 요안 23세에 의해 소집된 제 2차 「바티칸」공의회에 이르기까지 21차에 걸쳐 공의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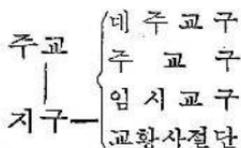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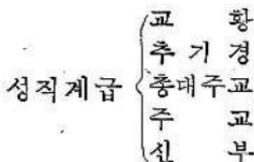
**d. 주 교**

교황의 임명을 받아 주교구를 다스리는 이를 주교라 한다. 총대주교, 수도대주교 대주교 주교 등으로 구분된다. 대주교는 명예이며 행정상 권한이 보통 주교보다 훨씬 성사집행에 보다 큰 권한은 없다.

모든 주교는 세계 어디서나 모든 이의 교백을 들을 수 있고 교회법상 죄 및 유죄로 보류된 사항도 사면할 수 있다.

주교구는 다시 여러 본당(성당)으로 나누어져 주교의 협력자인 신부가 있어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성직계급을 간단히 도표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대주교구에 속하고 교구장은 추기경이다.

**교황청의 조직**

전세계교회통치의 중앙기관이며 여기에 교황이 좌위한다. 교황청에는 9성성과 재판소, 사무국, 비서국이 있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신앙교리성성은 신앙 및 도덕에 관한 교리의 수호 감시를 주요 임무로 한다.

동방교회성성은 동방귀일교회에 대한 규율 인사 제전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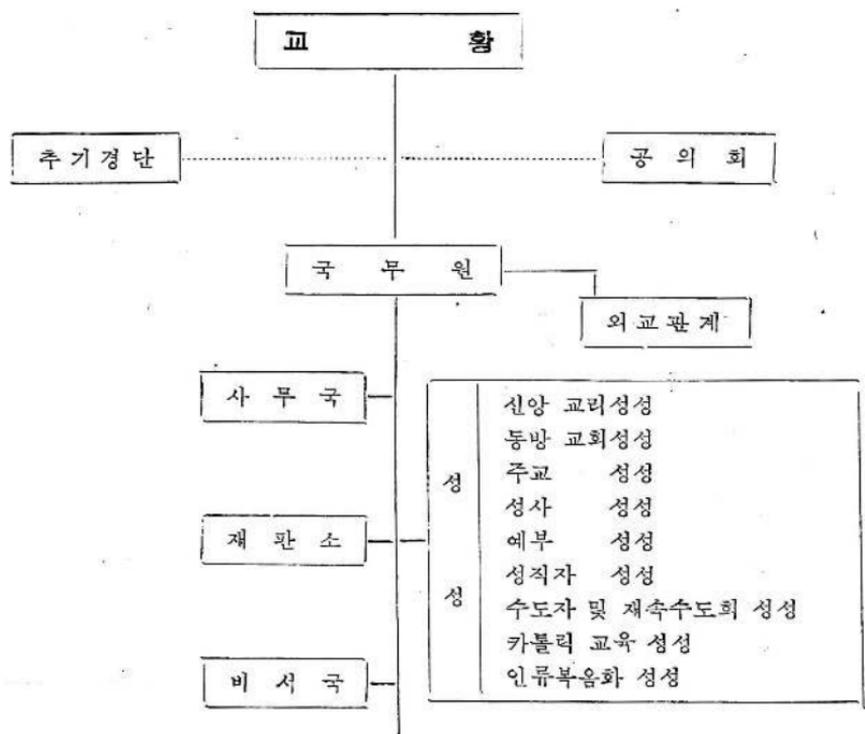
주교성성은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회의 및 공의회 등을 소집 주관한다.

성사성성은 성사의 성법, 관면의 제정을 맡는다.

예부성성은 교회의 예전, 복자의 시복과 성인품에 올리는 조사와 절차를 장악한다.

성직성성은 성직자들의 생활규율 제정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도자 및 재속 수도회성성은 수도신부, 수사 및 수녀의 지도, 그 규율, 양성 재산 독권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카톨릭교육성성은 문교부에 해당하며 카톨릭학교, 신학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류 복음화 성성은 카톨릭교회의 조적이 아직 완전히 설치되어 있지 못한 전교저방 즉, 아시아, 아프리카, 북구라파 등 지역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재판소는 양심에 관한 문제와 교황청에 제소된 일체사건을 취급하며 사무국은 주교임명 등의 칙서 발표, 공문서 접발,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업

무, 비그리스도교 관계, 비종교인 관계, 평신도에 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비서국은 통제업무와 교황청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바오로 6세는 재위 불과 6년에, 7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6회에 걸친 해외여행은 카톨릭의 책임 있는 최고대표로서 개인구명은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한국 기독교 연합회』 해설

(N.C.C=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of Korea)

이 영 렬

16세기 종교개혁이 이터난후부터 기독교는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구호 아래 우후죽순적으로 잡다한 교파들이 생겨났다. 신학 사상의 이견 때문에, 또는 관리행정상의 차이 때문에 갈라진 교파들은 그 후 자기 나름대로 발전도 해오고 혹은 쇠잔하기도 해왔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활동 기준은 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선교와 봉사에서 서로 만나는 기회도 없지 않았다. 가령 한국 개신교의 포교 과정에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각각 다른 계통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한국에 상륙했으나 서로가 충돌없이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협약을 맺어 유대와 친선을 유지해왔고, 같은 장로교에서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가 서로 다른 조직이었지만 한국 안에서의 선교에 있어서는 서로가 원만히 협동해서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통일성, 유대성을 잘 나타낸바 있다. 하지만 한 하나님 이름아래에서도 상호 비방과 반목을 일삼아온 역사 흔적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본래 연합기구라는 것은 한국 특유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연합운동은 세계적

으로 전개해 왔었고 그것이 소위 「에큐메니칼」운동이란 배가 출범하면서부터 그 활동은 적극화되고 보편화된 것이다.

한국의 「기독교 연합회」는 일제시의 관제 통일교단이 해체되면서 자기 독자적인 교단 복구와 그들의 독주과정에서부터 이룩되었다. 1946년 9월 3일 당초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주동이 되어 설립된 N.C.C.는 그동안 장로교의 분열과 WCC의 공산 진영 참여 문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신학 노선의 문제점 등으로 말미암아 마비, 혹은 취약 과정을 거쳐 이제는 한국 교회의 교회수와 교인수 비례로 보아서 거의 절반을 옹호할만큼 성장하였고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교회 대표기관이 된 것이다.

N.C.C.는 국내 기독교 각 교단과 성공회, 국내 기독교 각 선교회, 그리고 YMCA, YWCA 등 각 기독교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및 봉사에 대하여 연구하며 그 연구 결과를 힘 있게 추궁함으로써 교회 생명과 사명을 다 하는 모임이라고 현장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N.C.C.에 가입된 교단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2,302 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1,282 "

한국 기독교 장로회 682교회

구세군 대한 본영 136 "

대한 성공회 64 "

대한 복음 교회 24 "

등 6개교단 4,490개 교회가 가입되어 있으며 그밖에

대한 기독교 시회

대한 성서 공회

한국 기독교 학생회

한국 기독교 세계 봉사회

한국 의약가 연맹

대한 기독교 교육협회

대한 기독교 청년회 연맹

대한 기독교 여자청년 연합회

대한 기독교 여자 전례회 연합회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의 10개 기관과

연합 장로교 선교부

남장로교 선교부

호주 장로교 선교부

감리교 선교부(남)

감리교 선교부(여)

가나나 선교부

구세군 선교부

등 7개 선교부가 가입되어 있다. 이는 가담교회 신도 109만 6천, 비 가담 교인수 100만 8천, 가담교회수 4,490개 교회 비가담 교회수 4,771개교회를 노

고 보아 N.C.C.의 한국 교회에서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가입된 교단은 역사에 있어서나 교직자양성기관의 법적 지위로 보아서나 거의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을 망라했으며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 제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N.C.C.는 밖으로 W.C.C.(세계 교회협의회), E.A.C.C(동남아 교회협의회)와 유대를 맺고 국제회협의 대표를 파송하기로 하고 국제 협의 기관의 임원의 자리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6년에 한 차례씩 모이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는 N.C.C.가 계속해서 한국 대표를 전거하여 파송한 바 있었고 W.C.C의 기구 내에서 위원으로 혹은 직원으로 추천되어 봉사하는 분도 있다.

N.C.C.는 전기 가입된 교단으로부터는 각 15인씩, 선교부로부터는 각 5인 기타 기구으로부터는 각 1인씩 파송된 120명의 총대에 의해 연 1회 총회를 가지며 여기서 사업보고와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총무(4년지)를 인선한다. 그외에 미진된 일은 50명의 실행위원회에 맡겨 연 6회 이상 회집하여 총회기능을 대행한다.

집행부서는 총무가 있고 약간명의 간사가 공보국, 전도국, 사회국, 청년국,

평신도국 등 5개 부서에서 총무를 도와 하면서 소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의 재정위원회, 음영위원회, 교회사회위원회, 국제문제위원회, 가정생활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어서 집행부서의 사업을 방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에도 지방연합회가 있어서 상호 협동하고 있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가입교단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N.C.C.의 당면 문제는 우선 기구상 비가입교단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비교적 진보 진영만의 교단이 집약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N.C.C.는 보수 진영도 대화를 같이 하고 한 목소리로 「기독교」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명실공히 연합에 있어서 「협동」이 앞서야 할 것이다. 자기 교단 대표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자칫 자기교파의 이익 옹호에만 열을 올리고 자기 부담금의 책임에 대해서는 반쯤을 하는 경향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면으로 볼 때, 근대화된 기능사회에서 선교의 전락면에서나 그 수단방법면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속출하는 현실역을 헤아릴 것이다. 전 근대적인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행

사)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현대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산면에서 본 때 6,200만원의 예산 대부분이 외부 원조에 의해서 운영됐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예산면에서도 독립된 국가로써의 자활 자세가 요청되며 나아가서는 해외 원조의 능력이 있기까지 자라야 할 것이다.

금년도 N.C.C. 총회는 신중한 연구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지금까지의 「크리스찬」협회의 성격을 「교회」협회로 개편토록 제안해서 일단 원칙적인 통과를 보았고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실행위원회에서 더 연구 조절해서 명년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새로 개정될 현장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때 교단(2,302 교회)이나 소교단(24 교회)이나 동일한 대표수(15명)을 파송케 한 불합리성을 시정하여 총대수에 있어서나 부담금에 있어서 한 교단이 파보 수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된 총대를 파송케 하고 아울러 부담금도 총대 비율로 부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1969년도 예산에서 교단별 재정 배정 비율은 예장 59만원 감리 42만원 기장 18만원 구세군 6만원 복음교회와 성공회는 각각 5만원씩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기독교 각 기관 단체는 이

연합회 산하에서 조정토록 하고 그렇게 된 때 연합회 총무의 직은 보다 강화된 것이며 자연 그 호칭도 각 기관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무총장」으로 호칭하자는 설도 나돌고 있다.

이렇든 N.C.C.는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교회와 사회가 N.C.C.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 권위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항상 진보진영의 입장에만 서서 보수진영과 대립되는 기관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4·19 때, 5·16 때 혹은 한일국교정상화 파동 때처럼 「기독교의 소리」가 「침묵」으로 지나거나 「행차위의 나팔」격으로 뒤늦게야 발표하는 맥빠진 처신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교회는 상반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N.C.C.는 언제나 통일되고 권위 있고 앞을 내다 보는 예언자적인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70년대를 향한 군종 업무의 비전"

때 : 1968. 10. 31.

장소 : 미 8군 수양관

최 원 진



사회는 마야흐로 혁명적인 변화론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결국 70년대에 있어서 그 양상을 어떻게 변모케 할 것인가, 사회의 일원인 군인은 그 사상적 관습적 양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은 세척키 어려운 일이다.

어떻든 세상이 변화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동시에 이에 대응할 신학의 변천도 예상된다. 이미 사념(思念)의 신학에서 행동의 신학으로 그리고 소망의 신학이 대두된 지금은 또 앞에 무슨 신학이 출현될는지 모를 위치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정신적 안내역 보호역을 맡은 군종업무는 어떠한가 할 것인가. 한국의 군종업무는 아직 성년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70년에 가서야 비로소 20대의 연륜을 쌓게 되는데 과연 70년대의 군종활동은 그 시대의 정황에 어떻게 적응 봉사할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지금 생각해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작년 10월 개신교 군목이 전원 모임 가운데 이 제목을 가지고 연구 협의회를 가진 바 있었다.

여기 발표하는 보고서는

1. 70년대의 세계 교회상(허건상 목사)
  2. 70년대의 한국 사회상(김경동 교수)
- 의 강의를 들은 뒤 3개 분파로 나누어 토의된 내용인데 시간 관계로 종합토의가 없이 개별적인 보고를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것이 독자로 하여금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이영민).

제 1 분과 보고

사회 총종칠 군목

기록 이재덕 군목

70년도의 우리 군목들 주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당대의 사회상을 전망해 봐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김경동교수(사회학)는 70년도의 사회상 특징을 ① 외향적인 면에서 공업화된 사회 ② 도시화된 사회 ③ 대중사회 ④ 조직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그 변화과정은 선진사회에서처럼 사회의 내적인 의욕에서부터 오는 계획성 있는

세계적인 변화이건 후진사회에서처럼 외적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예기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이건 간에 변화된 사회는 그 자체 내에 해결해야만 한 허구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외면적인 문제보다도 내면적인 문제 특히 문제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안 내지 고민해야만 하는 인생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따라서 군종업무의 일차적인 관심사도 바로 이 인간문제에 두고 있다. 여하간에 급격히 변동해가는 사회의 주인공들인 우리 인간들은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극도로 원자화하게 되고 여기에서 오는 단독자적 고독감은 가증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생들이 스스로 점차 신없는 세계에서 방황하면서도 한편 정신적인 영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욕구가 심층 속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욕구란 특별한 철인이나 종교인들처럼 인생문제에 대해서 갖는 심각하거나 심오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더욱 순간적인 쾌락을 찾는 피상적인 것이 될 것이며 종교적인 면에서도 막연한 어떤 신적대상에 대한 귀의에서 오는 위안을 얻어 보고자 하는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신자 비신자간에 인간들을 더욱 잘 신앙안으로 인도하기 위

해서는 기독교가 참된 경건을 갖추어 생생한 종교적 이배지배이션이 그 사회 구성구석에 강하게 나타나게 할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 고민하는 일반대중에게 잘 어필함으로 그들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토론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론들을 얻었다.

## 가. 교회일반에 대하여

### 1. 교회집회 문제

교회집회에 있어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주일예배를 중시한 종래의 예배시간을 여타가지 면에서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회예배에 참석토록 함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사회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현실적으로 활발히 지도하기 위해서 직장별 혹은 속해 있는 사회환경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모이도록 하며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봉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이

는 교회를 과거보다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흩어진 교회를 더욱 활발히 지도해야 할 것이다.

### 2. 예배 프로그램의 문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용에 찬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배 프로그램을 연구검토하여 현실적인 것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중간실에 예배프로그램 연구위원회를 두어 1년에 4차씩 연구발표토록 하고 미군교회나 일반 타교회에 연구위원을 파견시켜 예배의식의 현대화 및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 3. 예산 확보 문제

제반 군중업무론 밑바침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국가예산에서 더욱 많은 군중예산을 획득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예비역 군부들을 중심 일반교회에서 많은 스폰서를 확보하여 군중업무 기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4. 군목 자질향상 문제

신자 신비자간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목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 권위는 외

적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데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군목의 내적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군목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개인적 자각과 노력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도 군목보수교육 및 파견교육을 수시로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 나. 기독교 윤리문제

70년대의 기독교 윤리문제를 토론함에 있어서 윤리의 상황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요문제 등 비윤리적인 문제 이면서도 윤리의 중심문제인 것처럼 여겨져 오던 Adiapura 즉 무관심전(Indifferent things)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입장보다 어느 정도 허용,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윤리문제는 성문제일 것이다. 비록 성해방을 부르짖기까지 하는 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성서에 입각한 건전한 윤리체제하에서 신도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과거처럼 죄인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기를 즐겨해서는 안 되며 죄인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코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용서하는 윤리어야 할 것이다. 반

면에 죄의 무조건적인 용납은 있을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성서적 원리에서 죄 문제를 잘 설명해 줘야 할 것이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대로 죄와 용서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덟가지 갈등과 이를 극복함으로써 갖는 신앙적인 체험들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하는 죄인이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

×

### 제 2 분과 보고

사회 이영렬 군목

기록 이건명 군목

급변하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사회는 급속도로 부단히 발전하여 가고 있으며 그 양상은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 가. 교회 문제

1) 현 한국교회 사조의 형태를 개념상으로 분류한다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구속자적 의미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감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소위 진보

주의는 급변하는 사회 제반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개방적 자세를 취하여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과감하게 혁신할 뿐 아니라 인간자신의 실존을 중시 취급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보주의란 사회변혁에 적극 참여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케리그마적 기독교복음을 증거하는에는 변함이 없는 부류를 말한다. 진보주의에 비하여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서서 인간사회를 지배, 심판, 비판을 해나가며 피조물적 존재인 인간을 거의 무시하고 인간 자신보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적 사상에 근거한다.

2) 과학의 발달과 함께 세상은 급격한 발전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의 여러양태로 변혁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도 신학과 윤리면에서 기존개념과 현대사상의 상충관계 때문에 점차 "교파의식"에 따른 분리관계보다 "신앙사상"에 따른 분리형태로 변화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3) 그리하여 교회의 양태는 기독교 사상적 차이점에서 오는 분화로써 진보주의적인 동향과 보수주의적인 동향으로 분리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이 두 사상조류에 잡다한 교파들은 자연 연합하게 되어 이 양자의 것은 공존하면서 계속

발전 유지되어 나갈 것이다.

4) 현대에 있어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세력균형을 본다면 보수주의가 교회의 실권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장래는 사상적인 면에서 진보주의가 보수주의에 대하여 계속 강타한 것이로써 신도수와 교회 구조적 실권은 보수주의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것은 진보주의자들의 조직성과 기성교회개혁에 대한 적극성 결여가 그 원인이 될 것이며 교회보다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5) 동시에 어떠한 보수주의라 할지라도 전문적 주장의 보수가 아니라 진보에 비취서 본 보수의 입장으로써 이런 보수는 새로워지는 "진보된 보수"가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진보주의도 더욱 철단적 진보를 계속하는 진보가 될 것이다.

이상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의 교회는 원칙적으로 교회와 교회당 분제는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

분업화되어 가고 급속히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교회당을 많이 짓는데 주력하는 것 보다는 현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재편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한다.

교회와 사회간의 대화할 수 있는 광장이 마련되어 호흡이 통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발견되어 나가야 될 것이며 방법으로는 시청각적인 방법 예컨대 메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등에 주력하여 마치 벌들이 꿀을 밖에서부터 벌통으로 「뚫으」는 방법의 반대적인 방법으로서 교회는 분산하여 사회복을 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나. 윤리문제

1) 윤리는 가변성이 있다. 또한 윤리는 진리와는 다르다. 아무리 기독교 윤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윤리와 마찬가지로 가변적이다.

2) 현대 한국사회윤리는 현연관계, 지연관계, 삼강오륜적 효를 중심한 상하의 윤리사상이 해방과 더불어 들어온 급격한 구미문화와 그 윤리로 만미암아 그 윤리기반이 동요 붕괴과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윤리사상을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와 새로운 윤리사조를 무조건 받아들여려는 젊은 세대 사이에는 격심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윤리적 공백상태 무정부상태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윤리질서를 찾아보려고 부단히 양세대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관용으로서 피차 많은 접근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3) 이러한 한국사회 윤리의 변천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제기된 문제는 1. 성윤리의 개방, 2. 권위의식의 붕괴, 3.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4)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윤리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1) 군대사회는 현실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나름 때로의 윤리기준설정이 필요하다.

2) 성(Sex)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성자체는 불결하거나 정죄될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성의 행위대상에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런데 이런 성행위의 대상한계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규제도 변해 간다. 일부일처 혹은 일부다처의 가족제도 결혼규범이 있었음은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서 가변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바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규제된 윤리상황에 맞추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현시기에서 문자적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 문제인한 난점이 있다. 예컨대 전쟁

때문에 생긴 과부문제, 인위적(38선등) 인종적 제도상에서 오는 남녀간의 생리 부조화문제, 전쟁에 나가는 청년에게 사랑으로 제공하는 정조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단일적 기준척도에 의해서 정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보다 이해와 관용으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인위적 장애는 성실을 다해 해결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제 3 분과 보고

사회 김두식 군목

기록 김상학 군목

1. 성서적으로 보아서 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이다. 성행위와 성기는 전혀 순결하다. 남녀의 교제로 교육을 배우려는 반려자로 남녀를 지으신 것임으로 선한 것이다. 성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않는 양성(兩性)의 신비적 결합이다. 이것은 남녀통일의 자연적 결과이다. 성에 대해 부끄러워함은 타락후의 현상이다. 남녀간의 성과 사랑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질서임으로 한 성이 타성에 대해 가지는 애정과 이성간에 대화하는 자연적 표현의 정욕은 불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하나이며 신의 선물이다. 고로 성기와 그 능력을 적절하게 선용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된다. 그런고로 신앙을 기초로 하는 애정에서 성은 그 완성과 완전한 통일의 상태에 도달한다.

성문제는 성격부터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것이다.

2. 성윤리관을 사회적 변동과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70년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예상해도 과대망상은 아닐 것이다. 가일층 공업화와 도시화 일로에 놓이고 사회는 대중화의 구조가 되어서 매스컴의 지배를 자의반타의반으로 받게 될 것이며 어쩔수 없이 대중문화의 지배하에 살게 된다. 여기서 자극적인 성적유혹은 가일층 발달해서 성윤리관이 흐려질 것이 예상되며 개인화 되어가는 인간관계는 보다 더 이기주의에 떨어져 남녀들은 서로가 자기의 욕망대상으로서 성을 취급하는 타락상이 더욱 더 농후한 추세를 보인다.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은 가일층 사랑도 이념적인 플라톤(Platonic)한 것 보다는 행동적인 것이 되어 간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성교」가 보통으로 시행되는 추세가 강

하다. 서로가 윤리적 개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책이나 양심의 가책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서로가 만나서 즐기는」 사고방식이 만연될 추세다. 향락주의의 불결은 중년에서 머무르지 않고 10대에까지 만연되어 간다. 미국의 사회문제거리인 히피족의 성적문란의 상태가 한국에도 시현되는 시초다. 표면에 나타난 것으로서 「아더매치」 클럽의 예를 들 수 있다.

기성윤리는 「아니꼽고 더럽고 매시꼽고 치사해서 뒤통로 짝을 만나 그날을 즐기고 헤어지며 다음날은 다시 짝을 바꿔 노는 것이다. 복구라파의 성윤리는 결혼전의 연습 결혼생활이 공공연한 사회 관습으로 된 것은 한국에도 만연될 추세로써 염려되는 바이다.

오늘날 성윤리의 개념은 날마다 변동해 가고 있다. 엄청난 사실이라고 놀라던 일들이 공공히 인정되어 가는 상태로 변화해 간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사회를 거쳐 나가는 젊은이들이 성문제에 부딪쳐 고민하는 상황과 그들의 성개념에 대한 추세라고 생각한다.

3.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따라서 성윤리관의 개념이 어떻게 자유스러운 경지로 변화해 갈지라도 복음선포자의 입

장에서 복음주의적 성윤리관은 일보도 양보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사회에서 불변적인 성윤리관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4. 그럼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1) 성적타락이 극심하면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이 멸망에 이를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서 더욱 더 복음으로 대중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2) 성윤리관이 어떤 상황속에서 어떤 사상으로 개념이 변화해 가더라도 비패적이고 파괴적이고 화인맞은 양심의 산물인 사상을 추증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누이와 동생의 입장에서 여인을 대하는 신앙적 태도를 앙양시켜야 한다.

(3) 유혹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을 시켜야 한다.

(4) 일단 범죄한 자는 그리스도의 십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내린 그리스도의 입장을 상기해서 아무리 죄지는 자라도 용서해서 받아들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5)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남녀관계를 지도해야 한다. 진실한 남녀교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꿈의 해석과 비행생활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

중령 · 이 재 우

## 꿈의 해석과 비행생활

1. 서
2. 꿈 연구의 학술적 연혁
3. 꿈의 정의
4. 꿈의 자극과 꿈의 근원
  - 가. 외적 감각자극
  - 나. 내적(주관적) 감각자극
  - 다. 내적, 기질적 감각자극
  - 라. 심적인 자극원
5. 꿈의 기능과 원망충족설
6. 꿈의 해석방법과 요령
7. 꿈의 해석과 비행안전(결론)

### 1. 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생활주변엔 꿈에 대한 여러가지의 일화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록 옛날 뿐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여전히 사마니즘적 해석에 의한 정신적 지배로 많은 회비어락을 낳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이한 꿈을 꾸고 기분이 좋아하며 꿈 속에서 경험한 자기 행운의 현실재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속에서 장시간을 허황되게 소일하는가 하

면 또 어떤 사람은 전연 미신적인 악몽에 지배되어 많은 시간을 우울하게 지나거나 또는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급기야는 자포자기하고마는 웃지못한 넌센스도 가끔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꿈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참뜻을 한 마디로 단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옛날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셨다는 형이상학적인 종교상의 꿈이 있는가 하면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좋고 아래있니가 전부 빠지는 꿈을 꾸면 부모가 돌아가신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미신적인 꿈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태조가 서까래 셋을 등에 지고 가는 꿈을 꾸어 왕이 되었다느니 용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꿈을 꾸어 을쿠선생을 낳으셨다는 사임당 신씨의 태몽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꿈들은 모두, 여하히 해석을 하던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흥미있는 이야기 거리로 넘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매일같이 비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실생활과 직관되는 불우한 꿈이 닥쳐 왔을 때 다시 말하면 동

료의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가 자기가 갑자기 공중충돌을 하게 되는 등의 사고의 꿈을 꾸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간파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꿈을 꾸었을 경우 그 속에는 우리들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만큼 불안해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또는 과연 무관해도 좋을 만큼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통상 생각하듯이 현실의 위협이나 자기 운명을 사전에 계시(啓示)할 만큼의 신적인 기능을 가진 것일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전투조종사의 확고부동한 신념확립에 다소라도 기여함으로써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려는데 본 연구의 소이가 있다 하겠다.

## 2. 꿈 연구의 학술적 연혁

먼 옛날부터 원시 민족일수록 꿈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었지만 특히 희랍, 로마 민족의 견해는 분명히 원시시대의 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들은 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초인간적인 존재가 사는 세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

며 신들과 배본들의 계시인 줄 무조건 믿고 있었다. 그러나 꿈은 그 내용이나 인상에 있어서 너무나 가지각색이므로 꿈이라는 것을 균일된 하나의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게 되어 종래의 꿈의 가치와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부득이 여러가지로 분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사람들은 꿈을 분명히 신의 계시로만 생각하였던 바 꿈에는 어떤 사실을 경고하거나 예언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는 진실하고 값 있는 꿈과 그 사람을 잘못 인도하거나 파멸시킬 의도를 가진 속임수의 무 가치한 꿈의 두 종류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룹페(Gruppe)는 마크로비우스와 달디스의 「아르메미도로스」의 꿈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즉 꿈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현재 또는 과거에 의해 경향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뜻도 가지지 않는 꿈과 둘째는 미래를 결정하는 꿈으로 (1) 꿈 속에서 받은 직접의 예언 (2) 목전에 임박한 일의 예언 (3) 꿈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인 꿈들이 이것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자기가 연구한 두 논문 속에서 말하기를 꿈은 신으로부터 보내지는 것도 아니며 신적인 성질의 것도 아니다. 요컨대 초자연적인 계시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정신의 법칙들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며 꿈은 사람이 자고 있을 동안의 마음의 활동으로서 정의된다고 하였다.

또 근대에 와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Freud 1856~1939)는 「꿈의 해석」이라는 저서에서 말하기를 꿈은 유의미한 정신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이 꿈의 연구에서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이루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꿈의 연구가 없었더라면 무의식에 관한 혹은 정신과정에 관한 그의 이론체계는 아마 생겨나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꿈의 해석과 성에 관한 세 논문으로 아직까지 심리학이 손을 대지 않은 혹은 대지 못하였던 무의식에 탐구하여 새 사실을 발견한 점에서 심리학에 큰 공헌을 하였는데 그것은 다윈이 종(種)의 기원을 연구하여 생물학의 발달에 공헌한 것과 똑같은 정도의 공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이외에도 동양에서의 꿈의 연구로는 중국의 몽서(夢書), 인도의 몽경(夢經)이 유명하다.

### 3. 꿈의 정의

그러면 꿈이란 과연 무엇이나고 물을 때 그것을 한 마디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는 정의의 개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꿈이란 수면 중에 나타나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체험이며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면 중 신체 내외에서 발생하는 자극이 원인이 되는 감각적인 꿈 또는 말초적인 꿈 예를 들면 수면 중 무거운 침구의 중량에 자극 받아 부서운 짐승을 만나 위압을 받는 꿈을 꾸거나 짐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려 있는 듯한 꿈을 꾸며 옆에 사람의 다리에 발을 올려 놓았다가 떨어지던 높은 데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꿈을 꾸는 등 신체 내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꾸는 꿈이 있으며, 둘째 원인으로는 우리들의 뇌리에 보장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 기억 등이 수면 중에 들면 발작적인 환동을 일으켜서 꿈을 유발시키는 정신적인 꿈 즉 주간제 재미 있는 노래를 하든지 또는 괴로운 걱정을 일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꿈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꿈의 발단은 대부분 간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한 꿈은 수

시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설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프랑스의 「모리」가 대표적인 학자라 하겠다.

또 하나의 학설로는 꿈은 반수면 상태에서 뇌의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일종의 착각이라고 단순히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고단할 때는 오히려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꿈이란 수면 중 무의식 심리 중에 일어나는 환각이며 무의식세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 연구 해보면 그 발원인 무의식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우리의 무의식 원망(願望)이 공상의 형태로 대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꿈의 기능이며 꿈의 원망충족설이다. 이 원망충족설을 대표하는 몇 가지 꿈을 들어 보면 어릴 때 맛 있는 음식을 싣던 버리고 싶은 욕망 속에서 잠을 잘 때 꿈 속에서나마 그 음식을 마음껏 먹어 보는 꿈을 꾸다든가 희망하던 여행 행을 앞둔 날 밤에는 꿈 속에서 미리 목적지에 도착하여 즐기고 있는 경우 등 단순한 예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꿈에는 현재몽과 잠재몽이 있는가 하면 현재몽 속에도 세 가지가 있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면 전후에 서로 연결성이 있고 조리가 있더라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꿈도 있고 꿈 내용이 조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혼란한 꿈이 있으므로 한 두 가지의 간단한 예로는 입증키 어렵다는 것이다.

#### 4. 꿈의 자극과 꿈의 근원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꿈은 소화불량에서 비롯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꿈의 자극 꿈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꿈은 수면이 방해당한 결과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수면이 우리가 잘 동안에 어떤 방해 받지 않았다면 꿈은 꾸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꿈은 이 방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꿈은 신의 계시로 본다면 구태여 꿈을 발생시키는 자극원을 찾아 볼 필요가 없겠으나 꿈은 심리학적으로, 그보다 오히려 생리학적인 현상이라 한다면 꿈을 꾸는 자극과 근원을 깊이 연구해 볼 필

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 가. 외적(객관적) 감각자극(External (Objective) sensory excitations)

외적 자극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밝은 광선이 눈 위에 비치는 경우도 있으며 소란한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코의 결막을 자극하며 발레가 찌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한 후 잠을 깨었을 때 꿈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자극이 꿈의 근원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치하는 예가 참으로 많다.

천둥소리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꿈을 유발하며 닭의 울음소리는 사람이 지르는 비명으로 들리며, 문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도둑 침입의 꿈이 된다. 만약 밤에 이불을 침대에서 떨어뜨리면 아마 벌거숭이로 돌아 다니거나 물 속에 빠지는 꿈을 꿀 것이며, 발이 침대 밖으로 내밀어져 있으면 굉장한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꿈을 꿀지도 모르며 또는 높은 곳으로부터 떨어지는 꿈을 꿀지도 모른다. 우연히 머리가 벽에 밀려 들어가면 큰 바위에 눌리는 꿈을 꿀 것이며 어디가 아프면 학대되거나

나 적의 공격을 받게 되든지 또는 몸에 상처를 받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라고 프로이트는 에센의 연구보고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어(Meier)라는 사람은 일찍이 이런 꿈을 꾸었다 한다. 「그는 몇 명에게 놀려 강제로 땅을 엮어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의 엄지발가락과 그 다음 발가락 사이에 만뚝이 박혀졌다. 그러자 잠을 깨어 보았더니 발가락 사이에 밀집이 하나 끼어 있었으며 잠옷의 목을 너무 졸라매고 잤더니 교수형에 처해지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호프바우어(Hoffbauer)는 젊었을 때 높은 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서 깨어 보았더니 침대가 부너져서 정말 방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혁명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단두대에 올라 칼이 탁 떨어지는 순간 놀라 깨어 보니 간밤에 보다가 책상에 놓고 잔 책이 떨어져 목에 걸려 있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예를 들어가노라면 자는 동안의 객관적 감각 자극이 꿈의 모든 근원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 나. 내적(주관적) 감각 자극

여러 감각기관 속에 있어서의 내적(주

관적) 자극을 받아 꾸는 꿈도 있다. 분트(Wundt 1874)에 의하면 주관적인 시각과 청각이 꿈의 착각 형성에 큰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눈을 감았을 즈음의 빛(光明)의 혼돈 또는 귀울림 등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것은 주관적인 감각 자극이 큰 구실을 하게 된다. 즉 광선이 차단된 시야에 전개되는 많은 사물들이 공상적인 꼴을 취하게 되는데 그 하나 하나는 독립된 심상이 되며 그 상이 빛의 혼돈의 운동성 때문에 활동하는 물체로서 눈에 보인다. 꿈 속에 곧잘 갖가지 형상의 동물이 나타남은 이 때문이다. 요한뮐러(Johannes müller 1826)는 공상적인 시각현상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입안상태적인 환각으로 주관적 감각 자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자려고 할 때에 나타나며 또한 눈을 뜬 후에도 잠시 동안을 그대로인 채로 있는 활발하며 변화가 풍부한 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은 그 환각으로부터 깨고 깨어나가는 다시금 그 환각에 빠지기를 여러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마침내 잠들어 버린다. 바로 이와 같이 환각으로 경험한 표현이 꿈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리」는 자기 직전에 매우 작은 마

이크를 많이 보았다. 그런데 그 마아크는 대단히 힘들어서 하나하나를 분간해야 할 정도로 작았다. 1시간쯤 잘 동안에 꿈에 한 권의 책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활자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고생해야 겨우 읽을 수가 있었다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요컨대 객관적 감각자극 처럼 관찰과 실험으로 용이하게 증명되지는 않지만 주관적 감각자극이 꿈을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근원 인에는 틀림 없다는 것이나.

#### 다. 내적, 기질적 신체자극

건강한 때는 거의 자각을 가지지 않는 여러 신체기관들도 자극을 받고 있는 상태거나 아플 때는 고통감각의 근원이 되는데 이 근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자극이나 감각자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교토 의사(醫師)로서 꿈을 연구한 사람들은 적어도 병의 예고라는 점에서는 꿈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티세(Tissie 1898)가 연구한 것처럼 어느 여자가 보기에는 건강하였지만 2, 3년 동안 불안한 꿈에 시달려서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심장 장애임이 발견되었고 얼마 후 이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

이다.

심장과 폐가 나쁘면 빈번히 불안한 꿈을 꾸게 되는데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꿈은 대개 매우 짧으며 공포와 아울러 잠을 깨게 되며 이런 경우 꿈의 내용에는 대개 무서운 상태에서의 죽음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한다.

또한 폐결핵환자는 질식, 압박, 도망의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린다. 소화기 계통의 장애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토하는 꿈을 꾸게 되며 방광에 오줌이 축적되어 있을 때 신체적 보호를 위해서 열침 울타리에 오줌을 누는 꿈을 꾸던가 성적인 기관자극이 몽정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꾸는 많은 꿈 중에 이가 빠지는 꿈은 이의 자극 때문이며 나는 꿈은 쉬트뤼벤(1877)에 의하면 오르고 내리는 폐엽(肺葉)에서 일어나는 자극의 해석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의하여 사용되는 심상에 의한 꿈이라는 것이다.

조종사가 비행사고의 꿈을 꾸는 것도 심신의 피로가 허약 또는 정신적 긴장감 때문에 유발되는, 내적, 기질적 신체자극에 의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도 위의 많은 예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

## 라. 심적인 자극원

깨어 있을 동안의 생활에 대한 깊은 인상 즉 낮에 행동한 바와 깨어 있을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를 꿈에 본다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부터 잠속으로 계속되는 이 관심은 꿈을 의식생활에 연결시키는 심적 꿈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꿈에 있어서는 신체자극과 심적 자극이 공동적으로 활동해서 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일 보게 될 시험준비를 하다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잔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기를 어제밤 꿈에 어찌나 문제가 안 풀려 밤새껏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도망다니는 도둑이 꿈속에서도 쫓기다 잡히는 순간에 소리를 치는 꿈 등이 이러한 예라 하겠다. 조종사들이 비행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도 대부분 이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때로는 비상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라도 가질 수 있으며 동료들의 지난날의 비행사고를 회상할 수도 있고 도둑이 쫓기듯 늘 정신적 압박감에 사로 잡혀 있다 보면 의지가 약해지거나 피로할 때 또는 너무 깊게 받은 어떤 인상의 발작으로 비행사고의 꿈을 꿀 수가 있다고 본다. 그것도 시험준비가 불충분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꿈을 꾸고 도망다니는 도둑은 잡히는 꿈을 꾸듯 조종사가 꾸게 되는 꿈의 대부분은 불행한 사고의 꿈이거나 아주 위험한 상황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기분이 좋고 문제가 잘 풀리고 세계일주 비행을 하는 등등의 즐거운 꿈도 꿀 수가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꿈이란 심적 자극만에 의한 꿈보다는 신체 자극과의 공동활동에 의한 꿈이 더 많다 한다. 이에 대한 이론이 학자들 간에 어느 근원보다도 세 일 많다.

## 5. 꿈의 기능과 원망충족설

위에서는 꿈이란 무엇이며 꿈은 어떻게 되어 꾸게 되는가 하는 꿈의 근원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꿈의 참 기능은 무엇일까?

프로이드는 꿈의 기능을 원망충족이라 하여 현재몽 즉 꿈꾼 사람이 상기한 수 있는 꿈과 잠재몽 즉 현재몽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의 꿈으로서 자세히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무의식적인 꿈의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또 현재몽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즉시 이해할 수 있는 꿈 둘째, 전후에 연결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꿈 세계 전후의 연결성이 없고 혼란한 꿈이다.

현재몽 중 첫째, 종류의 예를 들어 보던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 1. 비살된 어린 아이가 처음으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간 일이 있는데 배를 내릴 때 더 타고 싶어서 내리지 않고 읊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는 밤에 호수를 건너갔다고 말하였는데 이 아이는 더 타지 못해 애타우던 배를 실컷 탄 소원충족의 꿈을 꾸는 것이 틀림없다.

예 2. 어떤 남자는 아저씨 생일에 영두완 상자를 선물로 가지고 가기로 하였는데 선사할 영두인 까닭에 맛만 보고 실컷 먹지 못하였다. 즉 몹시 먹고 싶었지만 먹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밤 꿈에 자기가 영두완 상자를 다 먹었노라고 하였다. 바로 꿈 속에서 소원충족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꿈을 보면 공통된 점이 곧 눈에 띄인다. 전일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그대로 살아 있는 소원 혹은 원망이 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가 명백하게 나타나는 꿈이외

에도 알기 어려운 꿈이 아동에게도 있는데 그것 역시 소원성취 원망충족이 그 본질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예 3. 5세의 소녀가 병을 고치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 왔다. 밤에 숙모와 같이 잤는데 그가 잔 칩대는 어른의 것으로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칩대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말하기를 어제밤 꿈에는 칩대가 너무 적어서 누울 수가 없었다고 말하였다. 다른 꿈보다는 그 의미를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이 꿈도 역시 소원을 성취한 꿈이다. 이 소녀는 평상시에 어서 자라서 크기를 바랐다. 엄청나게 큰 칩대의 크기는 더 크기를 바라던 이 아동에게는 자기가 적다는 것을 알려 주는 기분 나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관계를 꿈에서 수정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큰 칩대도 적어서 눕지 못할만큼 자기가 커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평상시에 어서 자라서 키가 컸으면 하면 소원이 역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잘 때 목이 마르면 대개 물을 먹는 꿈을 꾸다. 이때에 그는 물 먹고 싶은 욕망을 달성할 뿐 아니라 자면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그만큼 더 잘 수 있고 따라서 자고 싶은 욕망을 달성

한 셈이 된다. 여행 전야의 꿈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탐험가들이 출고 굶주리고 있을 때 진수성찬을 먹는 것도 전부의 욕망을 달성하는 종류(同類)의 것들이다.

물째로 종류의 꿈을 보면 부모나 형제 혹은 처자가 죽는 꿈을 꾸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꿈을 꾸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의 가족이 죽기를 바란 것도 아니므로 이상하게 생각되며 꿈 내용만 보면 전후에 모순이 없고 조리가 서 있는듯 하지만 실제에는 있을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이런 종류의 꿈도 역시 원망충족의 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근친자가 죽는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러한 꿈을 꾸어도 꿈꾸는 본인이 조금도 슬픔을 느끼지 않는 꿈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꿈을 꿀 때에 몹시 슬퍼해서 깨어 보니 눈물에 베개가 젖었다는 따위의 꿈이다. 이러한 꿈을 분석해 보면 꿈내용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근친자가 죽기를 바라는 원망이 표현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욕망이 그 이면에 은폐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처녀가 꿈중에 이러한 것

이 있다.

언니의 집에 있던 이 처녀는 자기가 예뻐하던 언니의 아들이 죽은 후 그 동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하나 밖에 없는 조카가 죽어서 지금 관속에 누워 있다. 이 애의 형이 죽을 때와 똑같이 주위에는 양초가 켜혀 있다. 그의 형이 죽었을 때 나는 무척 슬렸는데 하는……』 이 처녀는 조카가 죽기를 바란 일이 꿈에도 없었다고 강력히 부정하였다. 이 처녀는 언니의 집에서 자라났는데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니의 반대로 그 남자는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후 이 처녀는 그 남자를 계속해서 연모하게 되었고 그가 강연을 할 때는 배놓지 않고 가서 들곤 하였다. 그런데 이 연인은 큰 조카가 죽었을 때 조문(吊問)을 와서 관 옆에서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만일 조카가 또 죽는다면 그 애 형이 죽었을 때와 같이 그 연인도 조문을 올 것이고 그 때에는 서로 만나 보게 될 것이나라는 원망이 표현된 것이다. 이 처녀가 꿈에서 슬픔을 조금도 느끼지 않은 것은 근친 사망의 원망이 꿈의 잠재 내용이 아니고 연인을 만나려는 소망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또 한 예로 근친자가 죽어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꿈에서는 근친자가 죽었던 하는 원망이 사실상 잠재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그 원망이 반드시 현재의 원망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으며 억압되어 의식에서 살아있던 원망도 충족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부인이 열다섯살 되는 외딸이 관 속에 누어 있는 꿈을 꾸었다 한다. 이 부인은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하는 원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애를 배었을 때 그런 원망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억압되어 15년간이나 의식에서 사라졌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관 속에 있는 애는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임신하면 행복한 생활을 향락하기 어려우므로 뱃속에 든 자식이 죽어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번 하였으며 부부 싸움을 하였을 때에는 뱃속의 애가 죽으라고 주먹으로 배를 친 일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또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꿈의 예도 어떤 때 가졌던 원망이 억압된 것으로 대개 남자면 부친이 여자면 모친이 죽는 꿈을 꾸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설명으로 에디프스 콤플렉스(Oedipus co-

mplex: 아들이 어머니를 따르고 아버지에 반발하는 소질)와 일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딸이 어머니에 반발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소질)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하튼 이러한 꿈은 모두가 심적인 자극이 꿈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겠으나 모든 꿈을 일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꿈이 압축, 이동, 극화(劇化) 또는 2차적 공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의곡 또는 변장되기 때문인데 프로이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만, 꿈이란 어떠한 꿈이건 간에 미신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충족의 동기 때문에 꾸게 된다는 것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들이 꾸게 되는 비행사고의 꿈도 자자 자자의 과거의 여건 내지는 심적 상태에 비추어 조용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면에 숨겨져 있거나 천연 의곡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 6. 꿈의 해석방법과 요령

첫째 방법의 꿈의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서 보고 이것을 알기 쉽고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바꿔 놓는 상징적(Symbolic) 해석 방법이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요셉이 피라오의 꿈을 해

석해 준 것 같은 것으로 살핀 일곱권의 소가 있는 곳에 다른 일곱권의 소가 와서 전에 있던 소를 먹어 버린다는 꿈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에집트에 7년의 풍년이 들어 풍족한 물자를 7년 기근이 와서 전부 소비하게 된다는 예언의 상징적 해석같은 것이다.

둘째 방법으로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해독(Decoding)법으로서 꿈을 일종의 암호문처럼 보고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하여 해독하는 방법이다. 즉 편지는 성가신 일이며 장래는 약혼이며 황금을 우환이라는 등의 사진이 있어서 그것을 펴 보고 점쟁이들이 점치며 토정비결 보듯 해석하는 것이다.

세째 방법으로는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자유연상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꿈을 분석할 때는 꿈꾼 본인 자신이 꿈의 내용 하나하나를 출발점으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연상을 끝까지 해나간다. 이렇게 각 내용에 대하여 연상한 것을 분석자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꿈 해석의 방법이다. 이리므로 꿈의 의미는 결국 꿈꾼 본인 자신이 말하게 되고 분석자는 다만, 그것을

종합하여 판단할 따름이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의학자들이 정신병의 상태와 꿈의 상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육망종족이 꿈과 정신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작하여 정신병 환자에게 사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정신분석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꿈의 실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인이 어렸을 때 신(神)이 보족하게 생긴 종이 모자를 [쓰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이 내용 중 우선 끝이 보족한 건 모자에 관하여 이 부인은 이런 연상을 하였다. 아동시절에 식사할 때 동생이나 형이 자기보다 더 많이 먹지 않나 하고 서로 넘겨다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그런 모자가 마련되어 식사할 때는 꼭 쓰게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모자는 얻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부인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 신은 무엇이든져 전부 알고 있나는 말을 들었으며 나는 신과 같이 무엇이든져 다 알고 있다. 누가 방해할 하느니라라고 말을 보태었다. 끝이 보족한 모자를 쓴 신은 얼핏 보면 아무의

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인 자신이 연상에 의하여 말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무리 보지 못하게 해도 나는 신처럼 나 안고 있다는 의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방법 중에서 첫째, 상징적인 방법은 그 적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성부는 슬기로운 착상 또는 단도직입적인 직관에 달려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의 기술과 같은 것으로 특수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며 둘째, 방법인 해몽서에 의한 해석은 그 자체가 믿음만 한 것이 못되며 셋째, 자유연상에 의한 방법은 비교적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꿈을 일률적으로 해몽하기에 절대적인 것은 못된다고 하겠다. 이 꿈의 해석에 대한 방법은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할 분야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 7. 꿈의 해석과 비행안전

위에서 우리는 꿈의 근원과 기능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면에서 본 꿈의 과학성, 비과학성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았다. 이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꿈이란 자기의 장래운명을 예언하는 미신적인 것도 아니요 그

형다고 전연 무의미한 허황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실이나 강하게 열망하던 어떠한 욕망이 신체 내외적 자극에 의해서 토막토막 연결된 하나의 꿈으로 재현하는 소원충족의 뜻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혹 간밤의 꿈에 비행사고가 나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하루종일 우울해야 하거나 오히려 악몽에 발려 들어가 더욱 위험해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타당성도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의 비행사고를 붙이켜 볼 때의 사고 후에 나기 마련인 꿈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경우도 사실상 있었고 또 우연의 일치로 앞으로라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자기 자신이 사고가 나는 꿈을 꾸고도 그것을 극복하고 비행하여 전연 무사했던 경우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어느 조종사는 전날 밤 그동안 알고 있던 죽은 많은 사람들의 꿈을 밤새껏 꾸어 기분이 몹시 언짢은 상태였지만 그날수록 더욱 조심을 하고 비행을 했더니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 라는 증언을 하였으며 비상 대기중 의자에 기대어 살며시 잠이 든 사이에 꿈 속에서 비상출동을 하게 되어

비행을 하다 엔진이 전부 꺼지는 순간 놀라 깨어 보니 실제로 비상출동의 벨이 울려 긴장된 속에서 이륙을 하고 비행을 하였지만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꿈 등의 실패를 들 수도 있다. 아마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남의 예를 들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으리라 믿는다(오늘날에 와서는 한 두 번 맞는 경우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보다는 테레프라스라는 에너지에 의해 공간이 상통하기 때문이라는 전혀 다른 학설도 나오긴 하였다).

본래가 꿈이 맞고 안 맞고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연 꿈에 일치되도록 사건을 결부시키게 되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꿈을 잘못 꾸어도 해몽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복잡한 꿈일 때는 개꿈이라고 일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다. 춘향이가 옥중에서 꾸었다는 꿈의 예를 들더라도 간밤에 까마귀가 우짖고 거울이 깨어졌으니 까마귀란 불길한 새요 거울이 깨어졌으니 운명도 급이 간다 하거나 어찌 불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

면 역시 악몽이요 지나가면 장님이 해몽해 주었다는 식으로 「새가 우짖었으니 어찌 소식이 없을 것이며」 「경파무성이라 거울이 깨어졌으니 어찌 소리가 없을소냐, 틀림 없이 희소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역시 길몽이라는 것이다. 이태조의 서까래 꿈만 하더라도 그런 무거운 짐을 꿈 속에서 지었으니 평생 고달픈 생애를 보낼 징조라 하면 악몽이요 그것은 임금 왕자를 표시하니 필연코 왕이 될 꿈이라 하면 좋은 꿈임에 틀림이 없다.

혹시 언짢은 비행사고의 꿈을 꾸었을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 그것이 길몽일 수도 악몽일 수도 있다 하겠다. 그것은 자기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내려준 것이려니 하고 다음날의 비행에 더욱 더 철저한 점검과 연구 내지는 집중된 긴장으로 임무 수행을 한다면 그것이 악몽이기는 커녕 안전에 도움이 되는 꿈이 될 것이요, 너무 지나친 미신감에 사로잡혀 불안해 하거나 과도한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곧 악몽이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미신감에 사로잡혀 비행중 잡념을 갖게 되면 오히려 뜻하지 않은 비상에 조우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며 단일 비상에 처하게 되었다 하면

## 박대통령 문헌록에서

- ◇...관록보다는 의욕과 능력, 경력보다는 창의와 실천력을 더욱 존중하는 행정의 새시대가 이미 왔다.
- ◇...우리 국민이 자신을 못가지고 침체해 있을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빈곤과 후진의 명예를 숙명처럼 지니고 살아갈 때는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간 과거가 되었다.
- ◇...오늘날 정치의 구심점이 개혁과 전진에 있느냐, 제도의 고수나 단순한 현상유지에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마련이다.
- ◇...남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에게는 언제나 파멸의 비운이 기다릴 뿐이며, 스스로를 도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립의 영광이 찾아온다.
- ◇...자기를 확립한다는 것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확립한다는 의미이다. 자율성과 자발성이 없을 때 타율성에 강요되고 지배된다.

오히려 꿈 속에서 제시받은 대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적 동요 때문에 건전한 판단력을 잃고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시키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건장한 사람이 의사로부터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발병하여 사실상 죽게 되고 마는 경우와 같다 하겠다.

끝으로 재삼 강조할 것은 우리는 현대 과학의 최첨단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인 만큼 건군대적 사고방식을 일소하고 비록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뚜렷한 근거 아래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사소한 정신적 갈등으로 추호의 실수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참 고 서 적

1. 프로이드 현대사상가 총서 이진숙 지
2. 꿈의 해석 상·하 프로이드 저 이용호 역
3. 정신분석학입문 프로이드 지
4. 정신분석심리학사 대개현 2권

# 하늘의 군신, 이근석장군

최 정 수



## 1. 결 의

1933년 일본 능곡비행학교에 소년비행  
병 제2기생으로서, 색다른 한 소년이 입  
학하였으니, 그는 당년 16세의 이근석  
이었다.

소년의 지나간 시절을 아는 사람이면  
그가 뜻밖에도 이런 비행학교에 나타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저이기 놀랐겠지만  
마침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에 찬동  
을 하였으리라.

소년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평양고  
등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평안  
도 일대의 각 지방에서 수재들이 다 모여  
모여드는 평양고보였고, 그는 디구나 조  
숙한 문학소년이었다. 여가만 있으면 글  
을 쓰느라고 골몰하던, 근실하고도 다정  
다감한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군  
복으로 단장한 소년비행병의 모습이 얼  
른 어울리지 않음을 느꼈을는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일면 이 소년의 언제나 쾌활  
한 성격과 사내다운 기품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럼직도 하다고 긍정했을 것이다.

평양을 북으로 올라 가는 경의선 연변  
의 순간, 영유, 숙천 등 옛 고을을 끼  
고, 서쪽으로는 황해바다에 떨어지는 일대  
의 평야에 평원이라는 군이 있다. 이근  
석 소년은 이 평원군의 청산면 구원리에  
서 태어나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산맥이 느긋이 흘러서 여기저기 나즈  
막한 언덕을 헤쳐 놓은 골짜기에서는 반  
드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양편에는 넓  
은 평야가 시원하게 전개된 이곳은, 언  
제나 소년의 꿈을 채우는 고장이었다.  
평양고보에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한 즈  
음에는 문득 여기서 뛰여 놀던 때를 그  
리워하였다. 언덕 위에서 해질무렵의 맑  
은 하늘이 저멀리 지평선과 맞닿는 곳  
을 바라보고는 하염없이 느끼던 신비스  
러운 감동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게 빛이었을까?』

그 시절의 감동을 되살려 느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자문하였다. 어쩐지 그것은  
지금도 걸잡을 수 없이 가슴에 사무치는

그 무엇과 똑같은 것인듯 하였다. 꼭이 것이라고 들어 말할 수는 없지마는 드높고 깊은 그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 동경심이라고나 할까, 이근석소년은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리하여 시를 읊고 소설을 썼다. 문학 속에서 찾을 것이 있을듯 했기 때문이다. 엉크러진 잡회를 깨알처럼 쏟아 놓은 원고지는 날마다 늘어갔다. 뒀 펜의 창작을 잡지에 투고도 해보았다.

그러나 한편, 1932, 3년이란 당시 만주사변의 여진이 점점 더 복잡해가던 때였다. 「유법」의 천저에도 전운이 일기 시작하였고, 대륙을 노려 물밀듯 침투하는 일본의 기세는 벌써 수상치가 앞섰다. 아직도 진으로는 평화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역센 풍운이 감돌고 있었다. 거기다 옛부터 환만교통의 요모에 선 평안도 지방은 역사적으로 대륙에서 일어나는 대소의 풍파에 매우 예민하였다. 이러한 시대상을 맞이하여 이근석 청년의 혈맥이 그대로 잠잠할리가 없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을 찾으려는 내심의 욕구를 안고 고민하던 그는 문학과 현실을 해매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으니, 첫째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

듯이 시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사상에 아주 무관심해버리는 길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대로 그저 그날그날을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둘째는 현실의 맥박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을 도리어 문학 속에 감몰하는 길이다. 이근석 청년의 경우에는 이 길이 가장 좋을 듯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은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파감히 그 속에 뛰어들어감으로써 스스로를 성실하게 살리려는 길이다.

이근석 청년은 제2의 길을 택하였다. 어떤 방편으로서나 현실의 파동을 회피하기에는 그의 피는 너무나 뜨거웠던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뚫어서 삶을 개척하려고 결심하였다.

어느날 그는 혼자서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보았다. 언제나 보는 것이지만 그날 따라 유독 하늘은 신비스러우면서도 부드러웠다. 후-, 내뿜는 숨은 그대로 곧장 먼 창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요즈음의 결심을 다시 한 번 머리 속에서 되웠다. 울연 어떤 생각이 반개같이 떠올랐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렇다. 하늘을 날자!』 그것은 불림

없는 하나의 영감이었다. 몇 해 동안 찾아 헤매던 「그 무엇」이 이때 하늘을 날아보자는 생각과 함께 뚜렷한 모습을 갖추어 손에 들어온 것을 느꼈다. 무한대의 동경심은 이때 명확히 그의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 동시에 그의 새로운 결심은 소년비행병이라는 구체적인 길을 잡았다.

그는 서슴치 않고 실천으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지금 이근석 그 사람은 일본 능곡비행학교에 나타난 것이다. 스스로의 의지로서 새 길을 개척한 인생의 첫 걸음이었다.

## 2. 날개 친 시절

비행학교에서의 이근석 생도는 마치 물을 얻어 헤엄치는 물고기라도 같았다. 후일에 이장군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친구들은 한마디로 그의 성품을 『깨남아였다』라고 표현했고, 또는 『격 활기 띄운 분』이라고도 하고 『어느 좌석에든지 이준장이 참석하면 금시 활기가 들거든요』 하였다.

깨활 명량한 성격에는 반드시 과단성이 따르는 것이며, 그가 여기를 자진하여 택하였던 즐거움은 그로 하여금 매사에 진취성과 적극성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본인에게 질까보

냐?』하는 민족적인 적개심은 언제나 그의 모든 처실에 잠복해 있었다.

이런 까닭에 그가 원래 타고난 소질은 거칠바 없이 뻗쳐져서 조종사로서의 솜씨는 눈부실만큼 급속히 능숙해져갔다. 이에 탄복한 교관은 진심으로 『자비야말로 비행기에는 정말 천재적이로군』 하고 어깨를 두들기곤 하였다.

1924년에 비행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곧 길강전투비행부대로 배속되었다. 길강부대라면 일본 육군항공부대에서도 군지의 정예부대였다.

젊은 때는 바야흐로 날개치기 시작했다. 신임 오장 배 편대를 짜서 처음 출격을 한 그는 벌써 적기 한 대를 격추하고 홀연히 돌아왔다. 뛰어난 조종기술은 어느덧 부대의 정병으로 되어 있었고, 이름있는 조종사들이 우글우글 뿔다싶이 많은 길강부대에서도 이근석이란 이름은 하나의 명성처럼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절에도 이근석 장군은 다만 능란한 조종사며 거처는 욕망만을 일삼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복형제가 많은 중에서 근명 형님과와는 단 두 친형제였고, 어렸을 때는 곧잘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형을 아끼고 다정스럽던 그였다.

7세 때에 아버지를 여읜 후 그의 다정한 사랑은 오직 어머니에게 향하여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극진하였다. 그가 배속된 긴장부대가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시절만 하더라도 당시 돈 5, 6원씩을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부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인품과 지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낮에는 거칠고 분명한 비행장 근무를 마치고 밤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 친지들을 회상하면서 마침내 외로운 어머니가 애처로워 한 알의 과일이라도 사서 올리려는 그러한 5, 6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몇 해가 흘러갔다. 젊은 매의 날개는 세월의 흐름 사이에 더욱 힘차게 퍼덕이고 그 동안에도 일본 육해군 비행대회에 출전하여 보기에도 시원스럽게 당연히 일등을 차지하였다.

일본군에서는 아직도 하사관 계급이었던 그의 기능을 아껴, 특히 뽑아 조종교관으로 맞아 들였다. 하늘을 날겠다는 최초의 결심을 한 그날로부터 고난의 수업이 몇 해였던가! 그는 벌써 독수리가 된 것이다.

### 3. 일격주의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 긴장부대가

남방기지에 이동한 당시의 이야기다. 이 글이글 타는 듯한 태양 빛이 직선으로 내려쬐이고 수평선으로 곤장 떨어진 관주로는는 땅길이 확확 달아오르는 어느 날이었다. 배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목욕을 한 후 알몸뚱이로 비행기 그늘에서 단꿈을 자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때아닌 폭음이 울려 오더니『응? 응? 색다른 소리로운!』하고 생각할 사이도 없이 3대의 전투기가 상공에 나타났다.

『스피드·파이어다!』

『적기 내습!』

경적도 채 울릴 겨를이 없었다. 영국 전투기 「스피드·파이어」는 저상에 나란히 열을 지어 있는 97식 일본전투기들을 마구 갈기기 시작했다. 겁을 집어 먹은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저마다 방공호로 뛰어 들어갔다. 그때 어찌된 셈인지 이 근석 조종사는 정렬의 둘째 전투기 밑에 번듯이 누워 있었다. 그도 역시 팬츠바람의 별기승이었다. 『에라, 될대로 되라』 그는 눈을 딱 감아 버렸다. 「스피드·파이어」의 제2진이 돌아 왔다. 요란한 기총소리가 귀를 찢고 흩이 펑 펑 된다. 앓자! 젊은 날개는 끝내 조국의 창공을 날 길 없이 그만 남국의 한 많은 이슬로 사라지는가? 그러나 하늘은 아

직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스피드·파이어」의 공격은 첫째, 둘째 비행기를 설치고 지나갔다. 3번기가 삼시간에 불을 뿜고 타올랐다.

『됐다.』 이근석 조종사는 저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빌떡 일어났다. 만일 그대로 있었더라면 「스피드·파이어」의 제3진은 이번엔야말로 사정없이 그의 몸을 찢고야 말았을 것이다. 그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에게만 웃음을 주는 법이다. 그는 날쌔게 조종석에 뛰어 올랐다. 마침 방공호 속에서 한 정비사 데위가 머리를 숙 내밀었다. 그러자 『페달 돌려라!』하고 조종석에서 급한 호령이 터졌다. 자동 스위치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의 얼굴은 숙 들어간 채 다시는 나오지를 않았다. 『자식』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뛰어 내리면서 그 발로 프러펠러를 힘껏 차자 천행으로 우르릉하고 발동이 걸렸다.

『누구나! 내려라, 내려. 위험하다!』 엔진 소리에 놀란 부대장이 방공호 속에서 상반신을 내밀고 호통을 친다. 적기를 상공에 두고 뜬다는 것은 상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벌써 이륙을 시작하고 있었다. 기사회생의 도전이다. 과연 「스피드·파이

어」가 막 떠오르려는 기수를 향하여 떨어 들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근석 기는 피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때 들었다. 「정면충돌!」 당황한 것은 오히려 「스피드·파이어」였다. 저편에서 피하려는 듯 약간 기수를 돌리자. 잔일발 『따, 따, 땃!』 기총이 불을 토하였다. 순간 「스피드·파이어」가 넘실하더니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졌다. 이러는 사이에 비행장에서는 나머지 전투기들이 떠올랐다. 정세가 불리함을 알아챈 2대의 「스피드·파이어」는 어느 사이에만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

수훈의 신기! 발가 밧은 조종사가 지상에 내리자 달려온 부대장은 손을 굳게 잡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역시, 자네였군!』 하였고, 전 대원들은 물려들어 그의 몸뚱이를 추켜 올려 환희하였다. 다만 이때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자는 아까의 그 정비사 데위였다. 그 꼴을 보니 새삼스럽게 화가 치밀어 올랐던지 이근석 조종사는 앞으로 다가서자 『딱!』하고 그의 뺨을 한 대 쳤다. 나중에 상급자인 이 데위에게 그는 공손히 사과하고, 혹시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여러 가지로 달래주기도 했적마는 어쨌든 그때만은 데위의 비겁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

에서도 아직 우물쭈물 서슴거리면서 살기만을 바라는 따위는 본능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대적해오는 자 있으면 그 누구이든 과감히 일격을 가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으며, 또한 오직 일격으로서 적을 차멸하고야 마는 것이 이근석 장군의 일생을 통한 성격이고, 신조였다. 후에 그를 말하여 일격주의자라고 하는 까닭이다.

#### 4. 새 깃을 기를 때

8·15 해방과 더불어 장군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해방. 장군에 있어서 이것은 두 가지로 결친 문자 그대로의 이중 해방이었다. 일본을 위한 부질없는 희생을 거부한 그는 일찌기 영국 군문에 몸을 던졌고, 때문에 종전이 되었을 때는 영국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군은 무량한 간계를 안고 조국의 땅을 밟았다. 독립을 이루는 날 이제는 남의 날개를 빌려, 뜻없는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겨레를 위하여 한국의 맑은 창공을 거리낌 없이 날개칠 수 있지 않은가? 29세의 젊은 가슴은 약동하였다. 그러나 앞길은 암담하였다. 몇 번인가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공군은 서지를 읽었고, 비행기라고는 어루만져 보기조차 못하였다. 하늘에 살고 하

늘에서 죽자면 그도 이제는 날개를 꺾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장군은 항상 줄기차게 앞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었다. 하물며 몸소 이미 제2차대전을 겪고 누구보다도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항공의 역할과 그 위력을 잘 살펴온 그였음에랴!

『만들자, 없는 것이 없다고 해서 영영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결심한 장군은 곧 하늘의 신배 스승 저우룬의 문을 두들겼다. 이리하여 1948년 4월 1일 드디어 한국의 항공부대가 당시의 조선경비대 속에 생겨났다. 선도자를 7인 장군과 함께 「공군 창설의 7인 간부」로서 알려진 분풀이다. 모두 새삼스럽게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 이들이었지만 그때 선생의 의기에 넘친 기백으로 다시 군사학교로 들어갔다. 1948년 5월에 장군은 수석 보병학교를 거쳐 태능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명되었다. 당시에 오늘날의 공군을 위한 기초는 닦아졌으나, 비행기라고는 겨우 I형과 T-6연습기가 있을 뿐이었다. 고급 전투기를 조종하던 이장군에게는 이것은 날개가 아니라 한장의 「깃」에 지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 이제 막 고고지성을 올린 그때의 공군으로서의 이 연습기편은 귀중한 보물이었다. 이편 「깃」이 장차는 힘찬 날개

를 이룰 것이 아닌가. 이근석 장군은 사관학교장이 되자 부지런하고 꾸준히 후배의 육성에 정력을 기울였다.

## 5. 현 해 탄

6·25전란이 일어났을 때, 이근석 대령은 비행단장으로서 여의도에 있었다. 40일전인 5월 14일에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단장으로 부임했던 것이다. 하늘의 싸움은 길이 빨랐다. 그날 9시에는 벌써 적의 전투기가 나타나서 비행장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적기는 소련제 「야아크」 전투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L-4, L-5, T-6라는 연습기 및 정찰기 밖에 없었다. 아무런 무장도 없는 연습기 거기다가 대공대기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 내습한 적 「야아크」기를 쳐다 보면서 가슴을 치고 발을 굴렀지마는 정히 손을 댈 도리가 없었다. 원수를 머리 위에 두고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어! 전투기! 전투기! 전투기는 없나? 그는 초리치며 이를 갈았다.

그래도 급기야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저녁 6시경 비행단장 이근석 대령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몸소 정찰을 나갔다. 그날 밤에는 전 비행기에 폭격장치를 달았다. 26일에는 30파운드의 폭탄을 꺼 안은 사람을 뒷 좌석에 앉히고 연습기를

날려 의정부 동두천 방면으로 출격을 감행하였다.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약 700대라고 헤아려진 적의 탱크와 차량들이 내려깔린 위에도 안고 온 폭탄을 던지고 또 던졌다. 폭탄을 전부 던지고 나면 돌아와서 또 실고 또 날아가고 그리고 또 던졌다. 24시간 끊임없는 철투였다. 그래도 수도 서울은 마침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국군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근석 대령과 함께 공군의 전 조종사들이 일찌기 세계 항공사상에서 그 유례를 보지 못한 이러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서울 침입을 꼭 24시간 연장시켰던 것은 후일에 증명된 바와 같다. 처량한 가슴을 안고 남하를 시작하려는데 큰 희보가 들어왔다. 미국 국공군 사령부에서 10대의 F-51「무스탕」 전투기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근석 대령 이하 10명의 조종사들은 그날로 수원으로 달려갔다. 수원에 도착하여 길에서 저면인 어느 신문기자를 만났다. 약의는 없으면서도 천성적인 독설가였던 그 기자는 여기서도 한 마디하였다. 『공군이 하늘에 있지 않고 왜 땅에 있던 말이요?』 너무나 긴장된 분위기에 웃음을 던지려는 농담이었으리라. 그러나 이근석 대령은 『이놈아 내가 죽을 리

가 있던 말이나』 소리치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생각하면 장군은 이때에 벌써 무엇인가 굳게 작오한 것이 아닐까? 도착한 이근석 대령은 다른 9명과 함께 미국 수송기에 몸을 싣고 일로 일본으로 날았다.

일본에 도착하여『무스탕』전투기를 수령할 때까지의 사정은 당시 동행한 김진중령(당시 계급)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날이라도 F-51을 타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다음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여 부득이 5일 간을 머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튿날 고급 전투기를 단 한 번 연습하지 않고서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큰 모험이었으나 당면한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고 비장한 작오로서 이것을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들의 심정을 F-51이 풀어준 셈이지요』

동체에 찬란한 태극기를 그려 붙인 10대의 『무스탕』이 나란히 편대를 지어 현해탄을 건너올 때의 이근석 대령의 감개는 더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약 5천 피트의 상공에서 일번기를 타고 선두에 선 그는 막 뒤에 따르는 3번기와 서로 쳐다보고 회심의 미소를 띄웠다.

가슴 속에 『내 반드시 원수를 부쳐드리라』고 외치면서 푸르른 현해탄을 건너 저성의 편대는 유유히 대구 상공을 한 바퀴 돌고 무사히 조국의 땅에 날개를 내림으로써 장군은 다시 하늘을 찾았다.

## 6. 조국이어! /

하루만이라도 쉬고 나가라는 참모총장의 권고도 사양하고 일본에서 붙아온 이튿날 새벽 장군은 대망의 『무스탕』을 타고 편대를 잤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출격이었다. 1951년 7월 4일. 목표는 이미 수원을 뚫고 물밀듯이 내려 오는 적의 탱크들이었다. 상공에 이르자 도보를 따라 개미배처럼 계속 남하하는 적의 부리가 보인다. 『공격개시』 통쾌한 『급반전 강하』 편대의 공격 아래 적의 부리들은 박살이 되었다.

전기가 다시 복상하여 이속고 수원, 안양 가도에 이르렀을 때다. 저공비행으로 벨 앞에서 적을 찾는 이근석 대령의 시야에는 드디어 4, 5천명의 직병을 호위하고 있는 20대의 탱크부대가 발견되었다. 이 대령은 용약했다.

『전방 적 탱크! 전기 로켓 공격개시!』 당황한 적의 대공포화가 미친듯이 불을 토한다. 그러나 과감 정확한 저공 공격에 적 탱크의 한 대가 삼시간에 걸

은 연기와 함께 타올랐다. 3번기, 2번기 편대장기의 공격에 이어서 내리달는 요기들의 공격은 불을 토하였다. 지상은 수라장이다. 전기 제1차 공격이 끝나는 것을 보자 이 대령은 다시 기수를 숙여 아직도 발악하는 나머지 탱크를 향하여 맹렬히 던쳐물었다. 또 한대의 탱크를 폭파하고 기수를 올리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다. 『평』적의 포탄이 예기의 엔진에 들어맞았다. 붉은 화염이 순식간에 기체를 휩쓸버렸다. 아! 도저히 수습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기체가 뿜는 연기는 뒤로 뒤로 흐른다. 대령은 바람을 받아 더욱 거세어진다.

이 대령은 짐짓 눈을 감았다. 정신을 가다듬어 마지막 상승을 시도했다. 눈을 부릅뜨니 푸른 하늘이 있었다. 아! 무한한 푸른 하늘! 어리서부터 동경하던 저 푸른 하늘! 하늘을 무대로 일생을 하늘에서 살려던 기원을 이제 조국을 위하여 맺는다니 그 얼마나 보람있는 산화냐! 그는 다시 한 번 부하 요기들을 돌아보았다.

『3번기, 도로카방 탄약차량 공격』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럼, 요기들의 전투를 비오!』 사랑하는 부하

들에게 최후의 격려를 잊지 않았다. 요기들의 『레시바』를 올리는 비장한 인사가 끝나자, 기체는 창공에 반원을 그리면서 적 탱크를 향하여 유성같이 흩터 내려갔다. 『아, 조국이여!』 홀연 지상에서 폭음과 함께 이 대령 기를 맞은 적 탱크가 터졌다. 하늘의 영웅은 스스로를 최후의 폭탄으로 하여 적 탱크 한 대를 더 폭파하고야 말았다. 일대의 영웅다운 최후였다. 향년 34세. 이날 출격하기 전 장군께서는 증명서, 사진 등의 소지품이 들은 정복은 벗어 놓고 비행복을 입고 떠났었다. 출발 직전 타고 갈 3호기는 『마귀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에 『나두 잘 알아』 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기상에 오르셨다 한다.

장군은 전사하신 후 8월 26일에 금성태극무공훈장의 수여와 동시에 준장으로 진급하였으며, 전 국민의 추모를 받아 군신으로 추대되었다.

미국 정부에서는 특히 미국특수비행십자훈장을 수여하여 장군의 수훈을 찬양하였다.

지금 사천기지에는 장군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늠름한 자태는 한국의 창공을 영원히 지켜 바라보고 계시다.

오늘도 전진을 땀땀 애기(愛機)는 무사히 돌아 왔다. 반갑다. 정비사에 있어서 조종사는 남편이요. 자기가 맡은

애기는 자기의 아들이나 다름이 없다. 자나 깨나 자기의 아들만 걱정하고 돌보는데 여념이 없다. 번둥이 트기도 전

## 정 비 사 의 하 루

### 정 인 션



애 기상하여 정비사는 무엇보다도 눈을 비벼가면서 자기 애기에게로 달려간다. 반새도록 추운 벌판에서 의뢰이 잠잠 애기의 포대기를 벗기면서 오늘도 무사히 적을 분쇄하고 돌아오길 고이고이 빈다. 포대기를 벗기고 나서는 마치 자기 아들 몸을 돌보듯 애기의 정비작업에 몰두한다.

오늘의 출격을 위해 귀중한 조종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 애기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긴장하게 되고 자기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오늘의 나의 애기는 동부전선 적 보급집결소를 공격하는 날이다. 나의 정

비가 이상이 없을 것을 다시 다짐해 본다.

정비사들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오직 성심성의껏 조종사와 애기의 안전만을 위하여 정비에 주력하며 무사하길 빈다.

애기가 출격을 나가게 되면 남편과 아들을 전선에 보낸 정비사의 마음은 마치 연못가에 서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음과 같이 안타깝다. 몇 번씩이나 시계만을 들여다 보며 애기가 무사히 돌아 오기만 기원하고 때로는 자기의 식사나 기타 모든 것을 잊고서 오직 멀리 전선 하늘만 바라본다.

에타게 기다리던 끝에 애기가 많은 전과를 자랑하듯 유유히 그 용자를 나타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애기가 착륙하자마자 즉시 달려가 주익(主翼)에 뛰어 올라가서 조종사의 감투를 위로하고 전과를 칭송하면서 혹시나 애기가 다치지나 않았는가를 물어보고 나서 직접 전체를 돌아보고 내부기관을 점검한다. 정비사에 있어서의 최대의 슬픔이란 애기의 손상이나 손실이다. 출격을 마치고 돌아온 애기에서 자기의 부주의, 조종사의 실수 또는 피탄 등으로 인한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가슴이 터질 듯이 괴롭고 밤을 새워 수리에 힘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밤늦게까지 애기와 조종사가 돌아오지 않을 때의 심정이란 외아들을 여인 어머니 마음과 같이 슬프고 가신 조종사를 생각하고 목매어 울부짖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고.

“시간은 되었는데 쨌 일일까? 설마 전사하지는 않으셨겠지? 불시착이나 했을까? 아냐! 그는 꼭 돌아올꺼야!” 하며 입속에서 중얼거리면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뼈까지 시러운 한풍(寒風)을 맞아가면서도 해저른 활주로 위에 서서 전선쪽 하늘만 바라보며 야밤

중까지 기다린다. 드디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 지자 온 몸에서 맥이 주욱 풀리고 적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못이겨 주먹 같은 눈물을 손등으로 씻어가며 정비사는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적공산 오랑캐에 대하여 복수를 맹세하는 것이다.

또 다시 다른 애기를 담당하게 되면 그는 모든 부문을 검사 점검하고 발동을 걸어 보고 하여 비행기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재빨리 습득하고 눈 감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자기 애기를 분간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다. 정밀한 정비와 쉬지 않고 끊임 없이 물보는 정비사에게는 애기의 한 구석 한 부분품도 눈을 감아도 눈앞에 선하게 되고 자기와 한 몸같이 여기게 된다.

기름이 배일 대로 배인 정비복에 싸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한 정비사의 몸을 풀릴 사이가 없다. 그날의 비행이 무사히 끝나면 비로소 조렸던 마음을 꼭 풀기는 하나, 자기의 피로란 물분 저물도 없이 마지막 정비를 해야 한다. 명일의 전투를 위하여 닦고 고치고 정비가 끝나면 얽은 “포대기”를 던져 주고

“오늘도 잘 자라”고 기원하고서, 다시

한 번 주위 사방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서야 그 자리를 떠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정비사의 마음이란 그들만이 그 진미를 알 것이다. 땀기는 기름 냄새를 향수로 여기고 요란한 폭음 소리를 교향악산아 듣는 그들은 오늘도 부사히 일과를 마치었다는 기쁨이 마음 속에 가득차 걸음 걸이도 사뭇히 내부반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사 역시 군인이기에 내구반에 돌아와 옷을 갈아 입고는 엄격한 내구생활을 하여야 한다.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주인이 일터에서 돌아오면 부부가 즐거이 마주 앉아 정답게 얘기하며 맛있는 식사를 하지만……

정비사들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일체히 내부반 청소를 하고 일석점호시까지 자유시간으로 지낸다. 군인에 있어서 이 자유시간이야말로 그날 하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각자 취미에 따라 책도 읽고 장기도 두고 교향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한 전우의 반담에 여럿이 모여 앉아 꿈을 기술이기도 한다. 상호간의 담화에는 그날의 자기 비행기의 전과에 관한 것이 제일 많다. 그날 겪은 일, 자기 기능 자랑, 정비사에 있어서의 기술토론 등을 하여 서로 배우고 자기의 기술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정비사의 활약은 그렇게 표면에 화려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기름에 밴 국산정비복을 입고 자기가 맡은 바 정비임무에만 주야로 몰두하여 어떻게 하면 사고없이 전투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만 연구한다. 그들의 노력은 그것이 곧 전력이 되는 것이며, 그들의 훌륭한 정비는 곧 나태한 전과를 거두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일의 애기의 활약은 오늘의 나의 정비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되새겨본다.

×

×



소련의 군사 전략... ⑥

중령·이종학 편역

V. 전투수행의 방법

「흐루시초프」 수상은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의 보고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신뢰성이 있는 정밀기계공업, 특수야금(特殊冶金), 원자공업, 전자공업, 미사일공업이 있으며, 제트항공기공업, 근대조선공업, 오토메이션기계의 생산시설도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소련군은 완전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재편되어 있다. 소련군은 대륙간과 중거리의 탄도미사일, 방공미사일, 미사일장비의 원자력 잠수함, 전략 및 전술용의 지상부대용 미사일, 항공부대의 공중대 지상(Air-to-surface)과 공중대 공중(Air-to-air) 미사일

등의 근대식 무기로 장비되어 있다. 각급 미사일은 각종 크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은 50~100메가톤급의 대위력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침략자가 사회주의의 여러 국가에 대하여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요소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침략자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해서는 근대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소련군이 군사적, 정치적 및 전략적 입무수행을 위해 이러한 무기를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정통한다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 바꾸어 말한다면, 무력전 수행의 최선의 방법을 안출하여 이것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를 보건대 강력하고 훌륭한 장비의 군대를 가진 국가가 유효한 전법(Methods of warfare)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예가 많다. 예컨대 제2차대전전의 초기작전에서 영·불군은 나치·독일군과 비슷한 장비를 갖춘 대군을 가지고 있었으나, 독일의 우수한 병술 때문에 영·불군은 대패배를 당했다.

우리들이 말하는 전투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군사작전 수행의 기술과 방법, 무기사용의 방법 그리고 큰 부대에서 작은 부대에 이르는 군대, 특히 특수부대의 용법을 말하며, 이것을 종합하여 정치, 군사, 전략, 작전 및 전술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장에 있어서는 전략적 규모의 근대전의 수행방법을 검토하기로 하고, 곁하여 작전과 전술의 면도 고려하기로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전투방법과 군사과학의 개발을 결정하는 근본요소는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만들어 이것을 군대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말을 바꾸어 한다면 개발이라는 것은 경제상태, 생산수준 그리고 과학의 발전의 정도에 의하여 좌우된다. 「엔겔스」는 『산업기술의 성과—대단히 크며, 때로는 군사지도자의 의지에 반대하여—는 전투방법을 변경하고, 그것에 혁명마저 가져오게 한다』고 말하였다.

모든 전쟁의 원인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제도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전쟁의 원인은 경제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특정의 정치목적을 추구하는 제국과 국가가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의 수행방법은 병술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는 제국과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목적, 세계에서의 힘의 균형, 국제적인 정치정세에 의하여 좌우된다.

군사작전지역의 지리적 조건도 전투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전투방법은 실정에 따라 이런 요소와 조건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적당히 결정하고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적으로 가까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두 개의 전쟁이 수행된 일은 없었다. 따라서 전쟁수행의 방법은 『개개의 전쟁의 그것의 특수성에 바탕을 두어』 이것을 평가해야 한다.

미국이 지도하는 제국주의 국가는 소련과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세계적인 핵전쟁을 시도할지 모른다. 일부의 제국주의의 부리는 다음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두려워 국지전쟁의 실행을 주장하고, 정치적 이익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에는 사회주의의 국가가 말려들어 갈지 모른다. 그러나 소련의 군사전략은 세계전쟁과 국지전쟁의 양자를 수행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우기 전쟁의 초기에서 다르다. 이 사실은 군대의 훈련에 있어서 이론의 연구와 실제의 지도라는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세계핵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이 가장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전투수행 방법의 개발에 있어서 상호관계와 기본적인 역사적 경향을 밝히기 위해 일반 개관적이거나 사실(史實)에 기반을 둔 경험을 검토하고 병술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전투수행 방법의 개발

전쟁은 오랜 시대를 통하여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였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쓰인 전쟁수행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완전한 군사혁명(軍事革命)이 일어났다. 「테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을 당함에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자신 속에서 수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높은 혁명세력을 발휘하여, 18세기말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은 전연 새로운 전략조직을 낳았을 때, 같은 커다란 혁명적 장작을 나타냈다. 이 새로운 전략조직은 전투의 낡은 법칙과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명적인 인민의 군대와 전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이 낳은 전투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럽 제패를 위한 약탈전쟁을 하는 동안에 전쟁전의 방법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결정적 중요성을, 직군을 일거에 섬멸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결전(決戰)에 의하여 구하였다. 이것 때문에 많은 보병, 기병 및 포병을 한 지역에 집중시켰다. 먼저 적에게 맹렬한 포화를 퍼부어, 다음에 종대와 옆으로 넓게 전개한 부대의 공격을 과했다. 그 당시 이러한 공격은 여러 전쟁에서 적을 놀라게 했고 또 그에게 승리를 가져 오게 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전략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해 심중한 준비를 하고, 미리 그 군대들을 배치하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공격했지만 러시아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정러시아의 부패한 농노소유계급과 겁쟁이요 무능한 「알렉산더」 I세는 적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육군은 광대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고 아무런 준비가 없어 국내 깊숙히 후퇴를 개시했다. 「나폴레옹」의 결정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참고 새로운 전법을 찾아 내야만 했다.

「나폴레옹」의 결정전략에 대하여 유명한 러시아군 사령관 「구즈프」

(Kutuzov)는 연속적인 전투, 기동, 빨치산전을 가지고 대항하고 나폴레옹군을 약화·피로케 했다. 이렇게 해서 19세기의 초엽 러시아는 병술의 면에서 대단한 진보를 보였고,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근대적인 전투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19세기의 중엽에 이르러 정세는 달라졌다. 끊임 없는 러시아의 경제적 후퇴성, 봉건제도의 부패와 무력, 「니콜라스」 1세의 반동적 정책 때문에, 1853~1856년의 크림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배에 이르렀다. 당시 러시아군은 전쟁준비가 불충분했고, 낮은 부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 전쟁의 초기, 러시아군은 발칸과 트란스·코오카사스 방면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얻었으나, 주전장의 크림아에서 소극적인 수세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어 마침내 패배에 빠지고 말았다.

19세기는 부르조아에 대한 최초의 프로레타리아의 반항의 시대로서 또 최초의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전쟁의 시대인 것이다. 이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전은 프로레타리아의 군사경험을 풍부케 했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이 경험을 종합했다. 이것은 다음 시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의 투쟁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나타냈다. 「마르크스」에 의한 무장봉기의 원칙, 즉 공세력의 우월, 혁명의 지도정신을 통합하는 기술과 반란기술의 습득은 오늘날에도 아직 유효하다. 근대전쟁의 최초의 하나는 1961년부터 1905년에 걸쳐 있었던 노·일전쟁이다. 이 전쟁은 한 면에서 보면 배신이며 침략적인 일본제국주의자의 전략을 나타내며, 타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독재정치의 부패와 제정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후퇴성을 나타낸 것이며, 러시아의 전략은 우유부단했고, 전쟁수행방법의 선택은 보수적이었다.

러시아의 전쟁준비는, 정부는 일본이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나 허술한 것이었다. 러시아군은 기술적으로도 장비가 빈약했다. 산포(Mountain artillery)도 곡사포도 그리고 기술적 통신기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러시아 해군은 일본 해

군에 비하여 속력과 대포의 발사속도가 열세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 미리 구동에 충분한 병력을 집중시킬 수도 없었다. 요새(要塞)의 구축, 특히 여순(旅順)의 그것은 진도가 없었다. 군사작전지역에 대한 연구는 행하지 않았고 주전장(主戰場)의 지도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전략적 정찰의 조직은 엉성했다. 「클로파토킨」, 「알레크세프」, 「로제스트윈스키」와 같은 영터리 장군과 제독에 이끌린 러시아군은 적극적인 적군에 대한 작전준비를 하지 않았다. 육군은 적절한 포병의 준비사격의 준비가 없는 밀집대형의 정면공격의 훈련을 받고 있었다. 당시 타국의 육군은 분산된 대형으로 전장(戰場)에서 기동력을 발휘하는 보병의 전개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러시아군은 개전시 전개되어 있지 않았고, 만주, 연해주, 흑룡강과 사바이칼주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에 분산하고 있었다. 군사작전 개시 후 6개월까지 지상군의 배치는 계획되지 않았다.

해군력의 배치에도 커다란 오산이 있었다. 제1전대의 주력은 여순항(旅順港)을 기지로 하여 전술적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블라디보스톡의 병력은 열세하였다. 개개의 함선(艦船)은 한국 및 중국의 항만에 분산하고 있었다. 제2함대는 발틱해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다. 전쟁준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러시아보다 훨씬 우세했다. 일본은 실제로 그들의 전군계획, 특히 해군의 계획을 완료했다. 개전시, 일본은 많은 병력의 보병부대를 만주와 한국에 상륙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본함대는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일본은 보병부대의 상륙개시전에 제해권(制海權)의 획득에 힘썼다.

일본은 기습으로서 전쟁을 개시했다. 이것은 러시아군의 수비들이 불의를 찌른 것이었다.

제해권을 획득한 일본은 제2군의 요동반도로 상륙했다. 당시 남만주에는 충분한 러시아군 병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러시아군의 사령관 「클로파토킨」장군은 상륙발해를 하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군의 배치가 완료한 후, 즉 개전 6개월 후에 공격을 하려고 계획

했다. 이리하여 육상전장에서 지도권은 자연히 일본군에게로 돌아갔다.

이 전쟁기간 중 육상전장에서 러시아군은 극단적으로 소극적이며 보수적인 전략을 취했다. 그 작전계획은 수세적(守勢的)이며, 병력은 광대한 정면에 분산되어 있었고, 공세로 옮겨잡에 있어서 병력을 전투에 점차투입(逐次投入)하고, 포병지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자군의 공세의 이점을 크게 감소시키고 말았다. 이 전쟁은 당시의 러시아 해군의 주전성을 폭로한 것이었다.

노·일전쟁은 전투의 방법에도 새로운 혁신을 가져 왔다. 진지전(陣地戰)이 최초로 이 전쟁에서 나타났으며, 연발의 기관총이 사용되어, 이것에 의해 방어가 강화되었다. 부대는 호를 파고, 장거리에 걸친 방어선을 치게 되어, 우회(迂迴)와 포위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격부대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에 포병을 가지고 적의 화력을 압도할 필요가 생겼다. 공격과 방어가 전투의 기본방식이기는 했으나, 후퇴도 사용되었다. 키다란 전투가 해상에서 벌어졌다. 해군의 주전투방식은 대형의 함선—전함파—순양함—사이의 사격이었다. 제1차대전은 전투방식의 개발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계를 이루었다.

### 제 1 차 세계대전

이것은 제국주의의 부산물이며, 두 개의 강력한 제국주의의 부리 사이의 이해(利害)의 충돌이었다. 이 전쟁에는 36개국과, 세계인구의 60% 이상이 참가했으며, 7천만 이상의 인원이 전투를 위해 동원되었다.

독일참모본부의 대표—「슈리이펜」과 소「물토케」—의 전략적 견해가 독일제국주의의 침략적인 욕망에 영향을 미쳐, 전쟁의 수행방법의 개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슈리이펜」은 그의 저서 「칸내」(Cannae) 속에서 집결된 대부대의 기습공격의 사상을 최초로 제창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제국주의와 보복주의자의 기본적인 전략상의 교리이다. 또 그는 벨기에를 통과하여 행하는 프랑스 공격의 작전계

획도 세웠다. 그의 후계자인 소「몰토크」는 벨기에와 파리지방을 거대한 독일 육군병단의 우회행동으로 통과하여 영·불군을 포위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것이었다. 독일제국은 이것을 신속하게 성취시키는데 요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불 연합군은 전략적 전선의 중앙부에 있어서 독일군에 정면 공격을 과한다는 무능한 계획으로 대응했다.

작전계획에 있어서 러시아 참모본부는 완전히 무능력함을 나타냈다. 개전 초기 러시아군은 그의 서부국경에서 독일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과할 수 있었으나, 러시아의 지휘관들은 2차적 지역, 즉 가리키아의 오스트리아·헝가리군에 대하여 주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쌍방은 다같이 단기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원을 함에 있어서 예비병력을 조금만 준비했다. 러시아는 민간공업을 군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쌍방은 다같이 공세에 의하여, 그리고 주력의 결전에 의하여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전국의 참모본부가 전쟁의 성격 규모 및 방법을 예견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병력의 배치는 전쟁전에 시작하여 전쟁 초기 사이에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전쟁은 고전적 방식으로 발전되어 갔다.

제 1차세계대전의 주요 사건은 유럽 전장의 동서전선에서 전개되었다. 개전 수 개월이 지나자 전쟁수행의 방법에 관하여 개전전의 견해에 얼마간의 착오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914년 말에 이르자, 이 전쟁을 단기전으로 본 각국 참모본부의 커다란 오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쟁은 장기의 소모전이 되었다. 최초에는 서부에서, 다음은 동부에서 차차 전선이 확대되어 갔다. 서부전선에서 부대의 이동이 정지되고,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독일은 그의 주력을 동부전선에 전용했다. 러시아군은 수세(守勢)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 독일군은 러시아군의 전선

후방지역의 분렬로 인하여, 「부로시로프」장군의 돌파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진지전의 장애를 타파하지 못했다.

제1차대전은 본질적으로 최후까지 진지전이 계속되었다.

제1차대전에 있어서 해상작전은 그 중요성으로 미루어 보아 2차적인 것이었다. 전쟁 시초에 있어서 교전국은 주력함—전함과 순양함—을 해전의 기본적인 무기로 생각했다. 전쟁 중 수 회에 걸쳐 순양함전이 행해졌다. 그 승패는 해상함대의 포전(砲戰)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러나 개전 시초이기는 하지만, 해군의 새로운 무기인 잠수함은 그의 커다란 전투잠재력을 나타냈다.

제1차대전에서 쌍방은 상당히 많은 항공부대를 사용했다. 이 항공부대는 포병과 연결되어 보병의 지원과 공중정찰에 사용되었다. 독일은 최초로 비행선에 의하여, 다음은 비행기로 영·불 본국의 목표에 공격을 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국의 대공방위(對空防衛)는 물론 영국 보다 일세인 프랑스의 대공방위도 독일의 공중공세에 대해 유효했다. 따라서 독일의 공습은 커다란 손해를 주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아, 항공부대는 항공기의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전쟁의 방법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제1차대전은 미래의 항공기가 적국 내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타격을 과하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였다. 대공방위도 이 전쟁에서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제1차대전에는 전투방법에 많은 혁신을 가져 왔다. 전쟁의 근본목적은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결전(決戰)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전쟁은 수 백만의 병력과 방대한 군용자재(軍用資材)를 투입하는 장기전으로 변했다. 많은 회전(會戰)이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회전에는 육상과 해상에서의 군사작전도 포함되었다. 이 작전의 주요한 목표는 전장에 있는 병력이었다. 전쟁은 상호 적의 야전군 또는 해상부대의 섬멸을 뜻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 있어서, 해상병참선에 대한 항공공격과 잠수함작전은 적의 경제와 정치조직의 파괴로 지향되었다. 원래 전략적

돌파에 성공하여 얼마간의 성공을 획득했다. 그러나 1915 년말까지, 그 전선은 발틱해에서 루마니아에 이르는 진지전의 상태로 변했다. 이리하여 노·일전쟁에서 최초로 나타난 진지전이라는 전투방식이 제 1차대전의 전투의 주체가 되었다.

기관총과 자동소총은 공세보다도 수세를 강력하게 만들었다. 보병이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전장의 표면에는 병사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교전국의 군대는 전진선을 점령하고, 참호와 교통호로 연결하여 중심이 깊은 철조망으로 엄호된 많은 진지대(陣地帶)를 구축했다. 정면으로부터의 돌파만이 이러한 방어진지에 대처하는 방법이였다.

쌍방은 다만, 작전적 규모로서는 이 진지대들을 돌파하려고 모든 수단을 구사했다. 당시 제압력과 파괴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 돌파의 문제는 제 1차 대전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양군은 최초 포병과 당시 출현한 박격포를 가지고 이 돌파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돌파전에 장기에 걸쳐, 때로는 7 일간이나 포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다만, 일선이나 이선의 진지선을 돌파하는 정도였다. 즉 방어자는 새로운 진지를 재편성하여 공세자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독일제국주의자는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진지전의 장벽을 타파코자 했다. 영·불군은 신무기인 전차를 사용하여 이 돌파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그러나 두가스나 전차나, 전략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단계에까지 개발되지 않아, 중심이 깊은 참호진지를 돌파할 정도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

러시아군이 진지돌파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1916년 여름, 「부루시로프」 장군이 지휘하는 남서방면군은 여러방향으로 동시에 공격을 과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전선을 75킬로나 돌파했다. 그러나 이 작전적 성공은 전략적 성공으로 확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황제인 「스타브카」는 남서방면군의 지역을 중요시하지 않고 탄약의 보급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동수부의 우둔함과

작전은 육상전장에 있어서 공세와 수세이며, 해상에서는 해상함정의 포격전이었다. 전략적 공세는 주로 단거리의 기동으로 행해졌다. 다음에 수세가 다시 이점을 얻어, 쌍방은 다같이 전략적 수세로 옮긴 것이다.

제I차대전중 러시아에 10월 사회주의 대혁명이 발발했다. 10월 당시의 무장봉기의 준비와 실시에서 얻은 경험은 전투수행방법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은 꼼꼼하게 무장봉기를 준비했다. 「레닌」은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워, 무장봉기 성공 후에 오는 정치와 경제의 정치장령을 책정(策定)했다.

혁명직후 국제 제국주의가 러시아의 반혁명에 개입하여 소비에트·러시아에 대해 군사공격을 준비했다. 1918년 제국주의 자들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무력간섭을 시작하여 국내전이 개시되었다. 이 국내전은 3년간이나 계속되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

## 국 내 전

국내전(Civil war)은 최고의 정의(正義)의 그리고 가장 엄숙한 계급투쟁의 한 형태이다. 이 국내전을 일관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정책 부르조아와 지주(地主)를 타도하는 정책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레닌」은 국내전의 지도에 있어서 소련의 군사전략과 전투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개발했다. 강적에 대해 승리를 획득하는 전쟁수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은 그의 지도하에서 작성되었다. 그는 국내전의 전기간을 통하여 스스로 전쟁을 지도했다.

무력전은 광대한 지역에서 행해졌다. 거기다가 외국의 간섭군 백위군이 전쟁 전기간을 통하여 국경의 요지를 점령하고, 국외와의 보급로를 유지하여 물자와 무기를 보급하고, 우리나라에 집중공격을 파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중앙부를 점령하여, 그 주의를

봉쇄당했지만 우리의 군대는 내선 기동작전(內線機動作戰)을 할 수 있었다.

일관된 연속의 전선(戰線)은 없고, 작전을 하는 부대나 집단이 넓은 지역에서 싸웠다. 그러나 부대와 장비는 주요한 방면과 지역에 집중되었다. 투쟁의 목표는 주로 도시, 철도중추 기타 중요한 시설과 지구였다. 공격은 때때로 철도노선을 따라 행해졌다. 당시의 군사작전의 특징은 고도의 기동력의 발휘, 넓은 포위운동, 적부대의 배후와 측면의 공격, 단기결전과 적의 추격이었다.

방면군의 직접지휘하의 기병대는 국내전의 기간중 중요한 적지 내부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공격을 과하는 기동병력이 되어 외국 간섭군을 격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로 보병부대와 집단이 조직적인 적방어선의 돌파에 사용되었고, 기병(騎兵)도 때때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기병대는 적 진지를 돌파한 후 적의 배후에 진출하여 넓은 지역에서의 기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적 방어선의 돌파가 언제나 실시된 것은 아니다. 연속된 전선(戰線)이 없기 때문에 큰 공격부대, 특히 기병대를 모아 적의 배후에 기동할 수 있었다. 장갑열차가 기동의 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달성했다. 국내전에서는 빨치산전이 전례없이 중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소부대를 가지고 실시하는 기습을 비롯하여, 교란작전 그리고 빨치산군에 의한 대규모의 작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빨치산 전법이 구사되었다.

이상은 국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방법이였다. 국내전을 하는 동안에 개발된 소련의 군사기술은 그 당시 가장 진보된 것이었다. 소비에트 공화국은 군사기술과 전쟁의 방법면에서 외국 간섭군이나 백위군 보다 훨씬 우수한 것이었다. (계속)

×

×



## 나의 투병기

손 홍 준

<예비역 공군중령>

분기점(分岐點)

<기 원>

일전에 사적인 불일로 해서 10여년을 내집 드나들듯, 들락날락한 공군병원을 2년만에 찾게 됐다. 그날은 몹시 수은주가 내려간 날이다. 모든 문이 닫혀져 있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에펠 내음이 강하게 코를 찌른다. 그리운 옛집을 찾아온 듯한 이상아릇한 감정이 든다.

나는 과거 이집의 대신배로서 현재 투병(鬪病)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 식구들을 먼저 찾아보고 격려위로할 생각이 번듯 들어 발걸음을 병실로 옮겼다. 대부분의 환자들의 표정은 명랑하고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는 굳은 면모도 볼 수 있었으나 몇몇 환자는 몹시 피로운듯 신음소리와 함께 이들은 모두 생사의 갈림길

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과거 몇 십번이고 격고 격은 고통이다. 나는 그들 앞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빨리 이 악몽에서 깨어나 주기를 손모아 빌었다. <전지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권능으로 사경을 해내고 있는 이들을 마귀의 시험에서 구하시고 하루 속히 이 귀여운 당신의 양들에게 밝은 빛을 내려 주옵시고 국가민족이 요구하는 바 이들이 군무에 충실히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비옵나이다.> 나는 속으로 십자가를 그리며 병실을 나왔다. 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 문득 나의 두병기를 써 본 생각이 들었다. 패기에 차고 생각이 도는 나이에 있는 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몸으로 시들어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10여년간의 두병생활에서 얻은 교훈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하루 속히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자로서의 진전한 모습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 <어느날 생긴 일>

나는 창밖에 소리없이 소복히 쌓이는 함박눈을 바라 보며 책상머리에 앉았다. 아직도 비 오는 날이나 기온이 내려갈 때면 온몸에 두병생활에서 얻은 혼장파도 같은 쓸모없는 수술자리가 쑤신다. 이를 매만질 때면 지난날 두병생활에서 수없이 겪은 쓰라린 일들을 생각하며 회상에 잠기곤 한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는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전, 그해까지 1959년 9월 그전에도 근육염으로 몇 번 고생한 일은 있어도 알질인 골수염으로 진단받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그해 또 두번째 진급에서 빠져 몹시 괴롭고 고심하고 있던 어느날 참모부장맥을 찾아 나의 진속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구 ○○비행단에 가서 일선 근무하기로 합의본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의 행패로서 집안은 살중경이다.

나의 신경은 설상가상으로 곤두세워져 동생에게 발길질 한다는 것이 잘못해 책상다리를 차는 바람에 발목위 뼈에 멍이 들었다. 그 다음날 출근하려니 몹시 아프다. 나는 그 아픔을 APC로 진통시키면서 꾸준히 진속명령을 기다리며 출근했다. 15일이 지난 아침 온몸에 열이 나며 통증으로 인해 걸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순간적으로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요 위에 누고 말았다. 타박상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부위가 빨갱게 부어 있으며 몹시 쑤신다. 나에게 이번 기회가 장래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될 기회인데 이것이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악몽 속에서 며칠을

지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공군병원 외과과장실 문을 두드렸다. 불안 초조 흥분의 연속에서 온 것인지 속이 답답하다. 문을 들어선 나를 본 M소령은 「손중령님 오래간 만입니다. 혈색이 좋으신 것을 보니 건강이 대단히 좋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양반에게 근육염으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으니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으나 나는 지금 중대한 진찰을 받으러 온 사람인데 매우 건강이 좋다니…… 나는 약간 불쾌한 어조로 「여보 건강이 좋다니……말도 마오, 지금 도 죽을 지경이요. 나 여기좀 봐주세요.」 하며 아픈다리를 내어 보였다. 순간 M소령의 안색이 달라진다. 아무말 없이 환부를 둘러보면 그의 손은 힘없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부친다. 나의 병마를 잘 아는 그는 병명에 대한 예감이 드는 모양이다. 「어쩌다 또 이렇게 됐오. 골치 아픈병 같은데 여하튼 X-RAY를 찍어 봅시다.」 그러자 외과 B대위가 들어섰다. 이양반 역시 남의 속도 모르고 반갑다고 손을 내밀며 『웬일이시오 손중령님, 한번 놀러도 안 오시구. 요즘 재미 좋으십니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M소령은 「B대위 이거좀봐, 이번에 신통치 않는 것 같애, 야단 났는데 당신이 모시고 X-RAY 좀 찍어 주시오, 나는 지금 수술실로 가야 하니까」 나는 방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처럼 어디병병했다.

나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점쳐 보기도 싫었다. 그날 오후 X-RAY 결과는 나왔다. 병명 화농성골수염, 뼈를 까서 그 속에 화농된 골수를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나에게서는 중대한 이 시기에 수술이라니 운명의 신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장난이다. 그러나 혹시하는 희미한 희망마저 사라지고 수술을 받아야만 된다는 결정이 내려진 이상 실망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 <혈기가 빛은 악화>

이튿날 나는 집사람에게 입원한다는 말을 주고 M소령을 찾았다.

「M소령 오늘 수술합시다. 나는 바쁜 사람이요. 며칠 안으로 나의 전속명령이 날꺼요. 그러면 하루 빨리 임지로 내려가야 할 몸이니 하루가 급하게 됐오. 오늘 오후라도 수술해주시오. 수술하고 한 달이면 치료되지 않겠소.」

M소령은 조용히 나의 오늘의 사정을 다 듣고는 뭉시 피로와하는 눈치다. 나는 또 졸랐다.

「여보 외과과장. 왜 그렇게 주저하오. 빨리 해 주시오. 죽으면 내가 죽지 뻔 때

문에 망서리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임지에 가야할 사람ियो. 오늘 바쁘면 내일 아침에라도 수술해 주시오」하고 애원조로 졸랐으나 외과과장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손중령님. 오늘 입원하십시오. 수술일은 X-RAY를 좀더 검토한 끝에 말씀드리겠으나, 곧수염수술이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더우기 나는 일반외과 전문이 돼서 정형외과 전문의 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시일이 급하시다는데 야단 났읍니다. 그리고 수술후에도 완치되자면 몇 달이 걸립니다. 한달 기한으로는 안 될 겁니다.」 놀라져 않을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에 나의 신경은 곧두세워졌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자신의 책임에서 오는 말인지 분간할 여지도 없이 「좋소. 잘 알았으나 다시 좀 생각해 주시오. 그러면 나는 병실에 누워 있겠오」.

병실에 누워 있으려니 착잡한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날 밤을 꼬박 뜯 눈으로 지새우고 아침에 B대위를 찾았다. 나로서는 누가 수술을 하든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B대위를 붙잡고 늘어질 생각에서였다.

「B대위, 아무래도 당신이 수술을 해주어야 하겠어. M소령은 웬일인지 피하는 눈치니 당신이라도 해줘, 당신은 지금의 나의 심정을 이해치 못할꺼요, 수술결과에 대해서는 논하지 맙시다. 부탁ियो.」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과과장님에게 말씀드려 보고 제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빨리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고맙소, 그러면 기다릴 터이니 꼭 알려 주시오」 마음이 설태인다. <이것이 무슨 일이나 말이다.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 끝에 수술하자는 것이 무엇이 나빠서 환자자신이 위험한 일을 재촉하는 것일까...알고도 모를 일이다. 진급이 무엇이길래 자기자신의 병생을 불행으로 자초하려고 하는가 생각하며 무지에서 오는 무모한 일이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생각이란 추호도 없었고 오로지 한시라도 빨리 임지로 내려가 공중군무를 해야 한다는 일념 뿐에서였다.

약 두시간 후에 수술복을 입은 B대위가 내 방을 찾아 왔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의미 있는 물음이다.

「아니 나는 오늘 당신이 해줄 줄 알고 아침식사 굶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소.」

「하하하……손중령님께서는 손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요즘 「세미나」 관계로 매일 대학병원에 가서야 하길래 오늘 오후에 제가 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대요, 뻗

읍니다.」 「그러면 수술실에서 만납시다」 몸집도 크고 웃음도 큰 호남이다. (지금  
은 미국에서 환약하고 있나 함)

모든 일은 끝났다. 수술관이 나의 앞에 남았을 뿐이다. 한결 마음이 가볍다.  
나는 수술전 처치를 마치고 오후 한시반에 들 것에 실리어 수술실로 들어 섰다.  
모두들 수술준비에 분주하다. 망치, 끌, 가위, 칼 등 수 많은 수술기구를 보니 몽  
롱해져 가는 정신에도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포감이 깃든다.

『역전의 손증령님께서 왜 이렇게 떠세요. 며칠 때가 다 있어요. 수술대는 손  
증령님의 침대같은 데요. 호호……』

「떨기는 누가 떨어, 추워서 그래 아이 추워」

「빨리 벗고 수술대 위에 누우세요. 안경 쓴 말이 많은 다변형의 미스 L의 제  
축이다.

도마 위에 올려 놓은 인어가 된 나에게 척추마취를 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  
된 모양이다. 「딱 . . .」 뼈에나 끌을 대고 망치로 끌을 때리는 소리다. 온몸이  
오싹해지며 송곳으로 뇌를 찌르는 것 같은 형용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지금도  
그때 있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헉기증이 나서 여기는 이만 쓸까 한다. 그  
후 전신마취를 하고서야 수술이 끝났다. 긴잠에서 깨니 병실이다. 옆에는 담당 간  
호원 미스K가 지켜보고 있다. 마음이 평안하다. 10년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이  
속이 후련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경과가 좋아 빨리 회복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이제부터다 빨리 일어나고 못 일어나는 것은 나의 섭생에 달려 있다. 병균  
과 고통과 싸워 이겨야 한다.>

마취가 깨니 참기 어려운 정도로 아픔이 역습한다. 이를 악물고 참으려니 진  
땀이 이마에서 흐른다. 이럴 때면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주님을 찾았다.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날밤은 물핑주사약의 기운을 빌려 아픔을 모르고 지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후 2—3일 간은 몹시 아파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으나 참아야 했다.  
진통제인 물핑주사를 자주 맞으면 수술회복이 더디다는 군의관의 말에 정신력으  
로 이겨 나가자는 것이다. 식사도 입맛이 문제가 아니다. 입맛이 있던 없던 매일  
3식 또는 4식을 무조건 먹고는 소화제로서 소화를 시켰다. 수술후 5일째 되던날  
나의 과원이 찾아와 9월 15일부로 입지전속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당장 뛰어가  
고 싶다. 나는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바닥을 딛어 보았다.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서였다.

그후로부터 칼렌다에 하루 하루의 병세결과를 적어넣기로 했다.

열도 내리고 아픔도 가셨지만 농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맥킹도 아직 10Cm 가량 들어간다. 나오는 농이 적어지고 맥킹의 길이가 짧아져야 경과가 좋을 텐데…… 매일 드레싱할 때면 신경은 여기에 쏠린다.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새 불면증에 걸렸다. 밤낮 공상, 초조, 흥분으로 해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니 미칠 것만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몸에 나쁜 줄 알면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동안 수면제 한알이 두알되고 두알이 세알로 그 복용도가 높아졌고 복용 안 하면 잠을 잘 수 없게 됐으니 이일 또한 크다. <이래선 안 되지, 만약에 중독자가 된다면 모든 포부는 2차적 문제이고 영영 빼가마신 하게 된다. 이제부터의 일은 운명에 맡기고 마음을 평안히 갖자, 그래서 영원한 삶을 찾자.>

나는 이날부터 잠이 안 올 때면 별하나 나하나 별들 나들…… 잠이 올 때까지 세었다. 그러는 중에 불면증은 그쳐졌으며 마음도 편해졌다.

어느날 오후 참보부장께서 찾아 오셨다. 「어제 아프진 않나, 외과과장한테서 수술경과에 대해 자세히 들었는데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 고 하니 마음을 꼭 놓고 조리나 잘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진 어떻게 돼, 병고치는 거지 아무생각 말고 너의 병만 고치면 돼」

어떤 암시가 있는 말이다.

앞이 캄캄해짐을 느끼며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단념하겠습니다.」 이쯤되고 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다. 다만 나만을 원망하고 나의 운명을 저주할 뿐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입저발령은 취소되고 공군병원입원명령이 났다.

9월도 다가고 10월에 접어들었다. 10월의 술술바람에 나부끼는 포플라나무 잎은 나의 운명파도 같이 가날뜨기만하다. 한달이면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던 다리는 오늘에 한달이 넘어도 조금도 차도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제는 초조히 마음먹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런데 웬일인가? 어느날아침 자고 일어나니 무릎이 뻘근하다. 이상하게 여기며 이불을 세치고 보니 무릎의 관절이 몹시 부어 있었다. <야단났구나, 혹시 관절염의 병발이 아닐까, 악화돼서 관절이 부

있나? > 불안한 나머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K간호원을 불러 B대위가 출근하던 곧 불러 오도록 부탁하고 온수 찜질을 했다. 출근과 동시에 내방에 들른 B대위는 찜질하고 있는 것을 보자. 「찜질하지 마십시오. 관절이 부었거든요. 아프진 않습니까?」

학교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여기 저기 둘러 본다. 아무래도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그러자 B대위는 K간호원으로 하여금 외과과장을 불러 오게 했다. 이맛살이 관자형이 된 B대위는 「참 이놈이 말썽인데요. 이병은 원래가 골치아픈 병입니다. 별일 없겠지요」 나는 진심으로 B대위에게 미안한 감이 들었다. 과장이 하기 싫어 하는 수술을 내가 우겨서 B대위에게 해달라고 졸랐으니. 무모한 혈기가 빛은 악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B대위 미안하오. 피로움을 끼쳐서 죽는 병 아니던 아무상관 없으니 우리 아무걱정 맙시다.」 그러자 과장 M 소령이 미스 K와 함께 들어섰다. 미안합니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못들러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경과에 대해선 배인 보고받고 잘 알고 있습니다.

「편찮습니다, 모든 군의관 간호원들이 열성껏 돌봐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은 부어오른 부위를 눌러 보고 난 뒤 B대위하고 의학적인 전문술어로 부어라 부어라 한참 서로 주고 받은 다음 과장은 나에게 「X-RAY」한 번 찍어 봅시다 X-RAY 상에 별 이상 없으면 며칠 두고 봅시다」 하고는 돌이 바른걸음으로 나가 버린다.

### <서울대학 병원 이송>

낮에도 태양빛이 미치지 못하는 병실은 언제나 어두운 밤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머리맡의 꽃병에서는 나의 병세와도 같이 태양빛을 외던한채 전등빛과 K간호원이 정성껏 잡아 주는 물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난화 꽃은 가냘프면서도 아름답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X-RAY적고 3일째 되는 날이다. 나는 엠블런스에 몸을 싣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정형외과병동 3호실, 극악벽으로 세평가량 되는 병실에 침대와 머리맡 탁자하나가 고스란히 놓여 있는 이등병실이라고는 하나 하얀벽에는 피자죽, 다키롬, 그을림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방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희비곡선이 그려져 간 곳이었지, 나도 이제부터 이방에서 생사의 투쟁의 역사를 그려 놓을 주인공이 된다 생각하니 비참한 생각부터 든다. 잠시 침대위에 누어 목상에 잠겨 있을 무

럼 정형외과 과장 H박사와 나의 주치의 S선생 간호원이 드레싱박스를 가지고 들어섰다. 「이디 줌보자, 하아 많이 부었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누가 언제 수술했어」 심각한 표정으로 자세히 물으며 키에 기입한다.

그런데 묻는 말투가 매우 거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취급을 하나 왜 이렇게 반말이 많아> 나는 몹시 불쾌했다. 당장 다리를 찌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간병원으로 되돌아 가고 싶었다. 그더나 <잠아야지, 하루라도 빨리 저 쟁쟁쪼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확확 흙냄새가 풍기는 땅을 밟고 뛰떨어진 나의 인생을 걸머지고 한없이 달려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니 발버둥 칠 수는 없었다. 그후 2일간은 종합검사로 지냈다. 이방 저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고탈소리, 우는 소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라장의 요저경 속에서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나는 이 소리가(너희들은 병마와 최후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이거서 아름답고 참다운 삶을 되찾아 내일의 보람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하는 신의 외침소리로 들렸다.

담당간호원 미스 L가 내일 아침 수술하니 아침식사는 하지 말고 오늘밤은 꼭 쉬라고 수면제를 두알 주고 갔다. 그날밤은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니 상쾌한 기분이다. 다리를 소독비누로 깨끗이 닦고 오전 10시에 수술실로 옮겨졌다. 나는 수술대 위에 누어 1, 2, 3, 4, 5..... 까지 세고는 의식을 잃었다. 마취가 깨고 보니 나는 회복실의 침대에 누어 있었다. 아픈 줄은 잘 모르겠으나 몹시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담당간호원은 들은척만척 책만 읽고 있다. <저런 못쓸 인간이 다 있다. 저런 사람을 백의의 천사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두요 보자> 속으로 별욕을 다 해봤으나 별 수없어 「간호원님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좀 주십시오」 애원해 보았으나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정말 갈증이나 죽을 지경이니 조금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간호원님」.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딱 싸부치면서도 책장을 뒤진다. 아무리 기를 써 봐야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애원도 눈물도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입술에 잠깐만 대라고 물에 적신 가제를 갖다 준다. 나는 이 물기라도 좋았다. 입술에 대야 갈증은 멎지 않고 해서 가제에 스며 있는 물을 열심히 빨아먹었다. 소독내가 풍기는 그 물도 나에게서 꿀 맛 같았고 그때처럼 간호원을 저주하고 물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껴 본 적이 없다. 주위는 고요하다. 사색이 되어 누워 있는

환자들은 모두 대수술환자들 뿐이다. 회복실창 밖에서는 이들의 가족인지 서성대며 초조한 빛으로 이들 환자를 지켜보고 있다. 참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살풍경이다. 나는 오후 6시에야 병실로 옮길 수가 있었다. 병실에 들어스자마자 마자 물을 한주전자쯤 마시고 나니 정신이 들고 만사가 평안했다. (후에 들은 얘기지만 전신마취에서 깨 후에 곧 물을 먹으면 잘못하다가는 물이 기관지로 넘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규칙에 의해 물을 안 준 간호원을 마구 욕했으니 무지의 부끄러움에 나 스스로 얼굴을 붉히며 그 간호원에게 사과했다).

수술후 처음 드레싱하는 날이다. H박사는 친철히 붕대를 푼다. 다 푼 순간, 나는 수술자리를 보고 현기증으로 해서 쓰러지고 만았다. 나리 절반 이상의 뼈를 까내고 골수를 다 긁어내서 허연 뼈만 앙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도려내고 파냈으니 굳이 붙어 있을 데가 없을 것 같다. 하루가 벌다고 깨끗하고 새빨간 살이 뼈에서 솟아 오르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만 하다. 일주일이나 지나니 허혈케 보이던 뼈는 간대 없고 새빨간 살만이 보인다. H박사는 「수술은 성공적이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으. 잘 먹고 잘자고 가끔 팔운동 허리운동 같은 것을 하고 마음을 언제나 편히 가지고 입원 생활하면 곧 퇴원할 수 있으.」 이제부터는 나의 섭생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그러나 굳은 신조를 계속시켜 나가기에는 매우 힘들었다. 규약없이 누워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고 입맛이 있을 리 없고 원기가 있을 리 없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아 하루는 처를 불러 생활에 고통을 받더라도 임시 고용인을 두고 자취하기로 했다. 돈은 많이 들었으나 입맛이 돌며 불편한 것이 없으니 한결 마음도 편하고 부축을 받으며 운동도 적당히 할 수 있고 보니 천천히 회복이 빨랐다. 특히나 담당간호원 미스 L은 나와 동향인이라 해서 친오빠 이상으로 친절히 정성껏 돌보아 줌으로 해서 무미 건조한 입원생활에 익숙할 수 있었다. 더우기 비빈난에도 외출을 하지 않고 사복으로 나의 병실을 찾아와 책을 읽어주는가 하면 꽃을 가져다 꽃아 주고 얼굴도 씻어 주며 심지어는 손발을 씻어 주기도 한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여인이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두달이란 세월이 흘렀고 옛수로 일년이 지나 1960년 신년에 접어들었다. 신년이 되면 누구나 희망에찬 포부를 가져는 병상에 누워있는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수술도 성공, 회복도 빨라 앞으로 한달이면 퇴원 신천지

에 활개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마냥 즐겁기만 했다. 주치의도 경과가 대단히 좋고 회복도 빠르다는 말이고 보니 금년은 나의 해로 느껴졌다.

밖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꽃송이와도 같은 함박눈이 나무가지에 차곡차곡 쌓이며 만물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오늘도 미스 L가 나의 방문을 열어 주었다. 손에는 성스럼게 보이는 백합이 응근한 향기를 품으며 쥐어져 있다. 「미스 L, 어서 들어와, 그 백합은 미스 L를 연상케 하는데.」 「손중령님도 백합을 좋아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어—그래 나도 오늘 이 시간부터 좋아진 거야,」 「아이 싫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싫어하는 장미를 가지고 올테예요.」

「하하…… 장미도 예쁜데. 왜, 미스 L은 장미를 싫어하지」

「장미는 가시가 있어 싫어요.」 나는 꽃에 대해서 별로 상식이 없는지라 머뭇거리다 「미스 L은 이상한데, 만인의 사랑의 상징인 장미를 싫어하다니 장미는 가시가 생명인데 가시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에 찬 요달한 자태를 자연의 현상으로 시들어질 때까지 간직해서 영원한 애인으로 꽃의 왕자의 위치를 독점하는게 절대적인 무기인데 다시 말해서 정조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나태르의 해석에서 제법 조예가 깊은 양 떠벌여졌다. 그러나 미스 L은 자기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자기만의 독점물로 하기 위해서 꺾어 자기 머리맡에 꽂아 놓겠어요. 사랑하는 그 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감정은 어땠 하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가시는 잔인무도한 것이예요」 제법 열을 올리며 말을 한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나 그럴듯한 논법이기도 했다. 「응 그럴듯한데…… 나도 그 장미가 싫어.」 두 사람은 서로 꽃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될 아는척 말이 오고 가다 화제는 병으로 옮겨졌다. 「미스 L, 나는 언제 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애.」 「이 상태의 회복이면 약 20일 참으면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과가 뜻밖에 좋아요. 파이롯이니까 경과도 체크기식인가 보지요. 호호호……」 매우 애교있는 말이다. 나는 여기와서 가졌던 대학병원 간호원들의 야수 같고 물인정한 이미지를 미스 L로 하여금 일변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경과가 좋고 회복이 빠른 것도 모두 미스 L 덕택이야. 미스 L 말대로 하무라도 빨리 퇴원해서 찬란한 천지에서 마음껏 뛰어 다닐 수 있다면 이 생명 순간까지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거야.」

「제가 매일밤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걸요. 내일 부터라도 휠드웨어를 가져다 산보하세요. 제가 믿어 드릴테니. 이만 하기에는 약간 수줍은가 보다. 양분이 빨갱게 달아 있다.」그래 좋은 생각이야, 공군병원에 휠드웨어가 있으니 전화걸어 가지고 오도록 하지, 고마워. 그날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꽃을 피우면서 하루를 유쾌히 보냈다. 어느 새 눈 내림도 그치고 청명한 흰빛은 내방까지 밝게 비추어 준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 공군병원에서 가져 온 휠드웨어를 타고 밖으로 산보하던 산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위로 인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정도의 운동이었으나 한결 사람다운 혈색이 돈다. 이렇게 해서 입원 삼개월 동안 제시간의 약의 복용, 입맛이 있던 없던 악착같은 식사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내일의 희망에 사는 신념으로 이겨왔던 것이다. 어느 새 봄을 재촉하는 매화꽃이 피었다.

## <제 2 수 술>

온화한 봄날, 때아닌 소낙비가 바람과 함께 나의 병실창문을 사정없이 후려친다. 초저녁에는 보족한 초목의 새싹들을 위해 뿌리듯 가느다란 실비가 소리없이 내리더니 저렇게 얇은 빗방울이 장마철을 연상케 한다. 오늘도 하루에 한번씩 꼭 찾아주던 미스 L 이 까운을 입고 예외없이 찾아 주었다. 「미스 L, 오늘은 어쩐 일이지? 밤 당번인가」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우며 「오늘부터 이주일동안 밤 당번이에요. 오늘 낮에 별일 없었어요? 집에 좀 다녀 오느라고 못들었어요, 미안—합—니—다—」. 말 꼬리를 길게 붙이며 사과하는 뜻인지 입가에 마디마디 폭파진 포동포동한 예쁜 두 손을 모아 입에 대고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병을 고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여신의 존재였다.

「미스 L! 미스 L하고 헤어져야 할 날도 머칠 안 남은 것 같은데 매우 섭섭한데. 무엇으로 그 많은 신세에 보답하나」

「그런, 말씀마세요. 그건 저에 대한 모독이에요. 알고도 모를 말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스 L께서 이상한 말이 나왔다.

「아마 한달쯤은 더 여기 계셔야 할 거예요. 어제 과장님 하고 S 선생하고 손중 명님께 관해 서로 상의하는 말을 들었는데 움푹파진 수술자리에 뼈 이식수술을 해야 완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2~3일 내에 뼈 이식수술을 할 것 같아

요].「아이구 또 수술이야, 뼈 이식수술을 안 받으면 안 되는가? >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어차피 병원에 발을 들여 놓은 바에야 완치된 류으로 퇴원해야 함을 느낄 때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뼈 이식이라니 뼈 이식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나로서는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별거 아니에요. 봉대수술인데. 아픈 자리를 다시 끊어내고 뼈가루를 거기에 넣어 봉대하는 수술이니 과히 아프지 않고 간단해요.» 복잡하고 험한 수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는 이 수술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여겨지니 환절기뿐기만 하다. 이튿날 과장과 S선생이 들어 왔다.

「뼈 이식을 내일 합시다. 이 수술을 해야 완전해지니 본인의 의사는 어떻소». 나는 미리 미스 L에게서 들은 터이라 「완전해 진다면 수술을 받아야지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만 받으면 곧 일어 날 수 있겠지요.» 그날은 상쾌한 기분으로 원내나방에 들어가 코피도 마시고 열방 절단환자를 찾아 환담을 나누며 같은 입장에 있는 처지로서 격려와 위로로서 하루를 즐거운 시간으로 보냈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과히 아픔을 모르코 그날 밤을 보냈으나 아침에 눈을 뜨니 수술한 데가 충혈해 있고 살이 찢어지는듯 참을 수 없이 아프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아 보았으나 도저히 나로서는 이겨내기 어려워 머리맡에 있는 초인 벨을 눌렀다. 「왜 그러세요?」 처음보는 간호원의 딱딱한 말투다. 「아파시 죽겠으니 진통제 좀 주시오.」

「그 정도 못 참으세요, 수술한 후에는 누구나 아픈 법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아픔이 가라앉을 거예요」하고 쌀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획돌아서 나가버린다. 「나의 아픔을 모르는 냉혈동물이군 저런 인간이 백의의 천사라니」 답답하다. 또 눌렀다. 이번에는 부गत질 만년누리 간으로 보이는 온순하고 순한 인상울한 간호원이 들어 왔다. 「몸시 아프세요? S선생을 불러 오지요」 고마웠다. 간호원 임의대로 마약을 취급하기 곤란한 모양이다. 마약(모르핀)을 1CC 주사맞고야 잠이 들었다. 이튿날 밴테이저를 보니 퉁퉁부어 있고 왼쪽전두한 괴괴름이 봉대환 사이로 흘러 나온다. 이번 수술은 실패다. S선생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하는 수 없지, 살아나는 뼈는 살아나고 죽은 뼈는 썩어서 나올 때 까지 증류수로 씻어내는 수 밖에 없어」 「미스H, 증류수와 호오스를 가지고와 씻어낼 수 밖에 없어」 실망이다, 앞으로 얼마나 결리 겠는지 캄캄하다. 이렇게 해서 매일의 일과같이 씻어내기 시작했다.

희망에 차있던 그날부터 벌써 2달. 씻어내도 씻어내도 한없이 나오는 고름. 그칠 줄 모른다. 매일같이 보나 절망에 가까운 병세. 나의 심정은 노이로제. 자포자기에 이르렀다. <될대로 되라지. 하루하루 평안하면 만족이야> 이런 심적 변화에 이르렀다. <평안하자면 무슨 약이 좋을까 세코난. 모르핀> 이것저것 생각한 나머지 모르핀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정문 앞에 약국이 있었다.

하루는 아프다는 피병으로 S선생에게 합성마약(테베를) Injection을 맞아도 좋다는 위일장을 얻어 보조간호원 H를 시켜 40CC헌병을 사오도록 하고 매일 우울할 적마다 1CC씩 맞았다. 평안하다. 잡념이 있을 수 없고 고통이 있을 리 없고 모든 것이 내 세상만 같았으며 천국, 극락세계의 왕과도 같은 황홀한 기분이었다. 이러한 세계에서 해매는 동안 1CC가 2CC, 2CC가 3CC, 그 수는 한없이 늘어간다. 이러한 눈치를 켜 미스 L은 내가 자는 사이에 이것을 꺼내 감추었다. 나는 오늘도 사람을 찾아 보았으나 간떼 온데 없다. 내 정신아닌 타계에서 사는 나는 정신없이 찾았다. 견딜 수 없는 손중령이는 미스 L을 불렀다. 「미스 L. 내 처. 당신이 무엇인데 사람을 함부로 뒤흔지? 건방지게.」 눈을 부릅뜨고 금시라도 잡아 죽일양 화를 냈다. 그러나 미스 L은 침착한 태도로 「제가 무엇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남득이 안가요. 귀중품이 없어 졌나요? 그렇다면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며 여기 저기 능청스럽게 찾는 시늉을 한다. 그러다가 미스 L은 내손을 꾸 쥐고 울면서 하소연 한다. 「손중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영영 폐인이 돼요. 저는 간호원 생활 몇 년 했지만 이러한 마약을 맞는 환자가 올바른 인간이 되어 나가는 것을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인간취급 못받고 산송장 모양 폐인이 돼서 강제로 쫓겨 나가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하필이면 제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손중령님이 이골이 되실려고 하십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드릴 수 없어요. 특히나 군의 중견간부로서 역전의 용사이신 손중령님의 앞길은 희망에 가득찬 유능한 고급장교님이 아니세요. 이 괴로움을 끝은 결의로 극복해야 합니다. 제말이 듣기 싫으시면 저를 죽이고 가져세요. 목숨을 걸고 애원합니다.」 가냘픈 눈동자에서 구슬같은 눈물이 병실바닥에 떨어진다. <알았어 미스 L, 잘 알았어 안심해 이 정도의 신념은 갖고도 남는 나야, 걱정마 다만 실망에서 온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고통을 잊으려고 맞은 거야, 나도 폐인이 되고 싶지는 않아, 한 가장으로 책임감이 없을 리 없지. 나도 자존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이었지. 3CC까지 올라갈 때 이래선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 비록 병든 몸이지만 정신만은 어떤 사람보다도 확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 안심하고 걱정마 내일 아니 오늘저녁부터 보면 알 거 아니야 내 앞에서 깨워.» 나는 성경책을 오른손에 쥐고 가슴에 대고 「주여. 오늘의 죄를 용서 하소서. 연약한 이몸에 무한한 힘을 주옵시오. 좁은 문으로 들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기도하였다.

나는 그날부터 열심이 타쳐 오는 고민을 의식적으로 이겨 나가며 마약중독자의 신세 일보전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무서운 경험이다. 백 이식은 실패하였으나 4분지1이 남고 나머지는 재수술해서 끊어내서 1차수술로 뒤돌아가는 3차수술을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투병 속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반성할 시간도 많았고 저주, 번민, 자포자기, 후회, 결심도 많았다.

### <제 3 수 술>

나는 살아야 한다. 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두 번도 아닌 세번째 수술을 받는 것이다. 5월달의 봄날은 봄의 계절 가운데서도 삼라만상의 생명을 약동시키는 생생한 계절이며 내가 제일 의의깊게 생각하는 계절이다. 보슬비 내리는 밤, 은화한 날씨, 피부에 느끼는 훈풍, 다양각색의 꽃, 가쁜한 남녀의 옷차림 등등…… 한없이 감상적인 계절이다. 이런 계절에 데로가 좀다하고 또 제 3 수술로 병상신세가 되다니 들도 없는 희귀한 운명이다. 이번 수술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마지막 수술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후련한 마음이 들어 나 스스로 월드웨이를 타고 휘파람을 불며 수술실에 들어섰다. 이번 집도의 주치의는 S 선생인 모양이다. 「오늘 안색도 좋고 매우 유쾌한데요. 무엇인가 전문술어로 보조원에게 지시하며 나에게 말을 건다. 「오늘이 마지막 수술이 될텐데요, 뭐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입원 생활이었읍니다. 아프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술의 경과만 좋으면 활개를 칠테니까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쯤은 호텔 침대에 눕는 기분이다. 「빨리 합시다」 나 자신이 독촉했다. 「자아 시 직합시다. 옆으로 누우십시오. 척추 마취합니다.」 「좋습니다. 아무 마취도 좋으니 빨리만 해주시오. 약 한 시간 뽀뽀 소리만 날 뿐 아프지는 않았다. 「다— 됐읍니다. 일어 나십시오」 하며어깨를 툭

북친다. 고맙습니다。」 나는 옷을 입고 병실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서니 간호원이 수면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먹고 잠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결심한 바 마약은 필요가 없었다. 「미쓰 H, 그 약 나에게서는 필요없는 약이야, 미쓰 H 나 고민이 많아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드시오」.

미쓰 H는 의아한 표정으로 「어떻게 된 일이세요. 그렇게 수면제를 찾으시던 손중령님께서 수면제가 필요 없으시다니 이상 하신데요.」 「이상할 것 없어, 죽을라는지 그런 약이 도무지 요즘와서 먹기 싫단 말이야. 내 자신도 웬지 모르겠오」. 미쓰 H는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다 「알았어요. 미쓰 L이 이런 약을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요 <여성으로서 남성에 대한 일종의 질투인가> 「허허……」 그런 것이 아니야. 괜히 죄없는 미쓰 L은 왜 끄집어 낼까. 그날은 마지막 수술이 되기를 손모아 빌며 일찌기 잠을 청했다. 그 이튿날은 첫번째 수술 때와 같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몹시 아팠다. 임시 고용인이야라야 밤지어 주고 빨래해 주고 번기 치워 주는 일 뿐이지 별로 심각한 고통은 덜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쓰 L만이 정신적 물질적인 위안자였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 준다. 남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온정성을 다한다.

세월이 흐를 때마다 나의 수술자리에서는 초목이 남 몰래 자라듯이 새빨간 새살이 싱싱하게 솟아나고 있었다. 5.16도 놀라는 가운데 여기서 맞았다.

이제부터 어둑컴컴한 밤에서 누웠다 앉았다 할 때가 아니었다. 미쓰 L이 밀어 주는 월드 헤어에 몸을 실어 아픔답게 가꾸어진 조그마한 정원 벤치에 앉아 따듯한 봄빛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에 찬 나의 가슴엔 포근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러나 가끔 인생의 낙오에 대한 비관이 머리를 찌를 때는 나 자신 어찌할 바를 몰라 미친듯이 허공에 대고 소리치르기가 일쑤였다. 이번 때면 혼자 바퀴를 돌려 다방에 가서 멍들을 청해 놓고 음악감상하며 완치의 날만을 기다렸다.

어느날 2시경이다. 미쓰L이 한 30세 가량 돼보이는 청년신사 한 분을 베리고 내방에 들어 왔다. 나는 교회시 온 위문객으로 생각하고 누구인지 물을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하고 읽던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었다. 미쓰 L은 불쾌했는지 두박스럽게 손중령님, 책은 그만 읽고 인사 좀 하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실례가 아

니예요？」하고 말했다. 나는 얼떨떨한 김에 「왜 그래 매일 오시는 손님들이요.」

「아니예요, 이분은 신문기자님이예요.」 「그러세요, 실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 제가 오히려 실례 많습시다. 예고도 없이 들려서 저는 D 신문사 박기사입니다.」 하며 신분증을 보여 준다.

「어떤 일로 찾아 주셨지요?」

「다름이 아니라 투병생활하시는 환자님들의 이모저모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비록 세번 수술했다지만, 나보다도 더 심하게 고통을 느끼며, 철저한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도 많고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도 있다.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나 말할 것이 있진 없진 성의껏 대답이 신사도겠지>. 나는 자진해서 이런 얘기 지런 얘기를 늘어 놓았다.

「병은 조기발견해야 하고 병이 깊어졌을 때는 주치의 명령은 지상명령으로 절대 복종해야 하며 낙심 말고 신념을 가져야 하고 자기 스스로의 섭생, 인명은 재천이라는 여유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투병생활하는데 신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 잇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어니 해도 간호입니다. 간호원 미쓰 L 같은 이가 간호하면 낙오자가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신적 콤플렉스로 인해 자살까지 각오한 일이 있었지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듣건대 과거 역전의 전투 과일뭉이였었다면서 하루속히 퇴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제십시오. 몸조리 잘 하시고 시간이 허락하면 다시 또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기사거리가 됐는지는 모르나 염려해주니 반가운 손님에는 틀림없었다. 완치일이 가까와 지니 칠드케어의 바퀴도 다 닳았다. 퀴니히도 공군병원만큼 청은 때가 없다. 빨리 퇴원해서 공군병원으로 가고 싶다. 환경은 2차적 문제고 아늑한 분위기, 친절한 군의관 간호원 모두가 그림다. 대학병원생활도 미쓰 L의 정성어린 간호가 없었다면 8개월간의 입원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강한 의지로서 투병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바라던 퇴원, 포푸라나무 그늘 밑에서 가마니를 펴고 황혼의 인생들이 여기 저기 모여서 장기관에 매달려 장군 명군하며 열을 올리는 계절이다. 산불바람은 제법 수심을 불러 일으킨다. 나의 마음도 설레인다. 6월 30일 토요일이다. 재생의 간소한 축하파티가 나의 병실에서 열렸다. H 박사. S 선생 미쓰 L, 미쓰 긴, 처 모두들 오늘이 오기를 기다리며 애매우던 사람들이다. 만면에 희색이 감돌며

말이 없다. H 박사가 먼저 반가운 표정으로 「손중령님 오랫동안 병고와 싸우느라고 무진 애를 썼소. 뼈 이식만 성공하였더라면 벌써 자유의 몸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고생시켜 미안하오. 집에 가지더라도 섭생을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생각되면 곧 찾아 주시오. 오늘 같이 기쁜날이 없어 의사는 환자가 완치되어 퇴원하는 것을 봄으로서 삶의 가치를 느끼지요.」 권위있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누구 누구해도 나에게는 미쓰 L의 은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간단한 티 파티가 끝나자 박대위가 앰블런스로 베리로 왔다. 모두들 현관까지 나와서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나는 그냥 차에 오를 수가 없었다. 「미쓰 L. 진심으로 고마웠어. 미쓰 L의 정성이 아니었다라면 아직까지 소독대나는 병실에서 어떻게 됐을는지 모를 거야. 미쓰 L은 나의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여신이 됐어. 미쓰 L도 몸 건강히 잘 있어요. 이 세상 복은 전부 미쓰 L 것임을 의심치 않지.」 감사한 말을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었으나 구급차라 오래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서로 따뜻한 체온만을 남기고 정문을 나섰다.

이 글을 끝 마치며 환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닌 이상 살고 죽는 것은 자기자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병이란 자기마음의 병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병을 병기라 하였습니다. 일본말로 하면(보-기) 마음의 병이란 뜻이 겠지요. %로 말하면 굳에 의한 것이 40%, 마음으로 오는 것이 60% 이렇게 되겠지요. 읽어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세코날 중독자가 될뻔 했고 또 무서운 모르핀 중독자가 될뻔 했으나 굳은 결심과 의지 정신력으로 모면했던 것입니다. 오랜 병상생활에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중환자라도 먹고싶지 않는 식사라도 억지로 씹지 않고 먹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소화제로 소화시킨 환자가 산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입맛이 없다고 핑젠만 맞고 산 환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병과 싸워 이기십시오.

친애하는 병고에 시달리는 여러분. ? 하루빨리 완쾌돼서 자랑스러운 공군의군인으로 말은 바 사명을 정성껏 다해주시기를 주님에게 빕니다.

×

×



◇…우주개척의 선기원을 이룩한 「아폴로」 11호가 드디어 7월 16일 오후 10시 32분 「케이프·케네디」에서 대지를 박차고 대망의 달 여행을 시작, 인류의 첫사자인 「암스트롱」, 「콜린즈」, 「올드린」의 총연장 153만3천2백15Km의 장대한 여행을 마치고 7월 25일 새벽 1시 50분 무사히 태평양에 착수, 지구에 돌아왔다.

억천만년의 신비의 배일을 벗긴 그들과 이들을 뒷받침 한 우주과학자들의 위대한 공헌에 무한한 찬사를 던진다.

◇…월초에 최전방 천원지구에 자리한 ○○사단 정훈시범부대를 전학했다.

때마침 지축을 진동시키는 요란한 포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언제, 어디서 적이 공격해 올지 모름에 대비한 우리 국군의 철통같은 방어 작전훈련이다. 수도 서울에서 불과 기십마일 밖에 되지 않는 이곳의 긴장상을 목격할 때 후방국민들의 일부 지나친 언질과 허황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제2의 적이 아닐까?

◇…「군과 군인생활」을 주제로 엮었다. 현대사회에서의 군인으로서 국가관을 확립하고 강직한 신념을 갖는 가운데 보다 알차고 멋진 군대생활을 추구 하자는데서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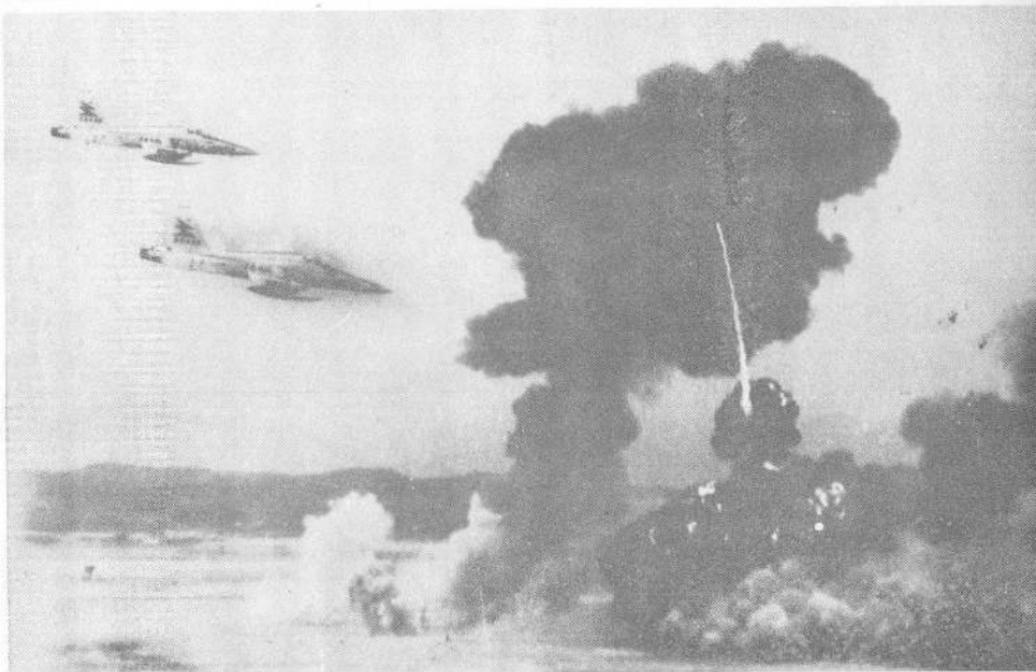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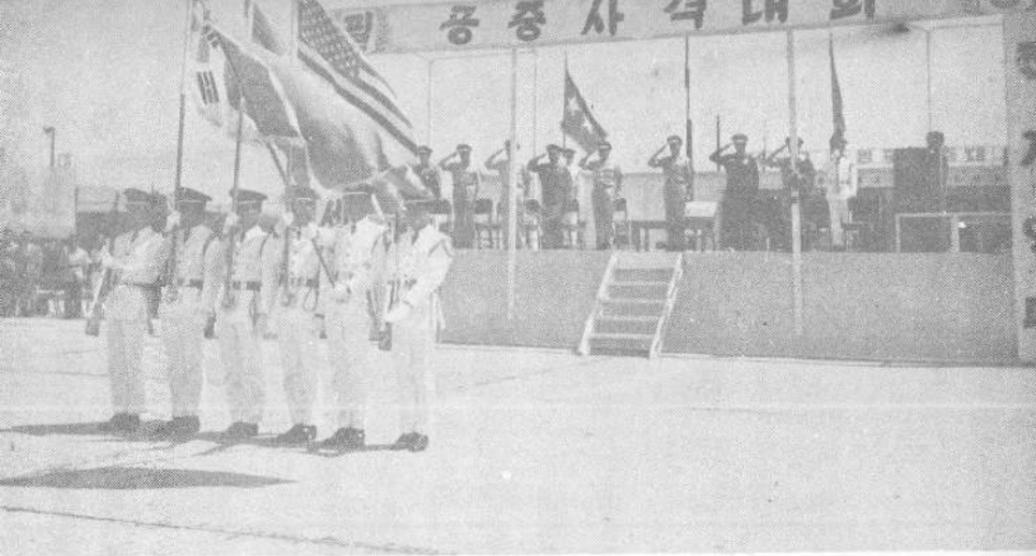
◇…숨막히는 폭염—

산적한 일감을 앞에 놓고도 눈이 저절로 감긴다.

다정한 벗 S로부터 방금 송정해변 무사도착의 희소식—. 금년엔 무슨 한이 있어도 바닷가로 휴가를 즐겨보려 하였지만, 막상 일에 쫓기다보니 또 허사였군—

◇…오랫동안 한 우리에서 교락을 같이 했고, 특히 「공군」지며 기타 정훈간행물에 기지를 발휘해 오던 이돈영중위가 전역을 했다.

그간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의 앞날에 길이 영광있길 빈다. <준>



### 실전방불의 승공작전전개

—우리 보라매들 인기당천의 전기과시—

북괴 선제 기습공격에 대비한 승공작전 <공중사격대회>  
이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해안 OO기지에서 전전술부  
대 참가리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사진 : 상은 동작전개최식전, 하 는 대저사격 장면>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전투태세완비

전력증강  
전기연마  
즉각반응

인화단결

술선실행  
공지일체  
기강확립

